

軍史



제 84 호 2012. 9 임진왜란 420주년 특집

- 임진왜란 초기 경상좌도 조선군의 대응양상에 대한 검토
- 조선시대 적대적 對日인식에 관한 고찰
- 임진왜란 후 조·일간 국교재개 과정 연구
- 임진왜란 전후 중앙군제의 변화
- 임진왜란을 통한 조·명·일 삼국의 문화교류
- 명나라 후기 척계광의 '원양진' 과 팔진 원리
- 18~19世紀 忠淸兵營의 編制와 財政
- 16~17세기 近世 일본의 戰術과 조선과의 비교
- 唐 전반기 禁軍의 編制와 運用
- 한국의 병역제도 발전과정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지그림 : 東萊府殉節圖(육군박물관 소장) -보물제392호-

軍史

第 84 號
2012. 9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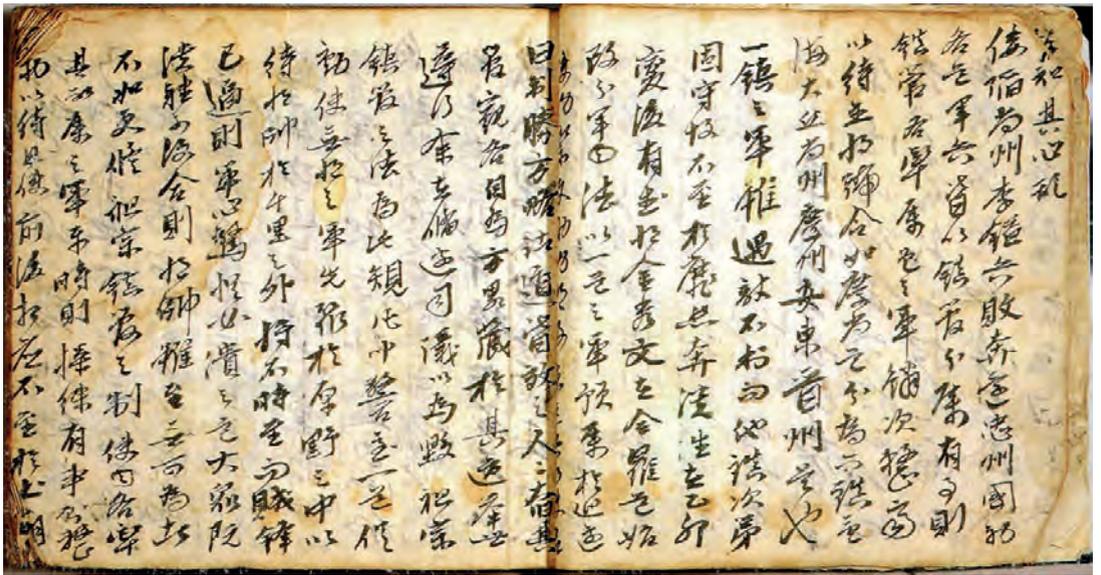
軍史

第 84 號

2012. 9

目 次

- 임진왜란 초기 경상좌도 조선군의 대응양상에 대한 검토
- 경상좌병사 박진(朴晉)과 권응수(權應銖)의 활동을 중심으로 -
..... 김진수(1)
- 조선시대 적대적 對日인식에 관한 고찰
- 임진왜란~조선시대 말기를 중심으로 -
..... 이규배(29)
- 임진왜란 후 조·일간 국교재개 과정 연구
..... 방기철(59)
- 임진왜란 전후 중앙군제의 변화
..... 김중수(85)
- 임진왜란을 통한 조·명·일 삼국의 문화교류
..... 박재광(117)



정비록(徵毖錄, 국보 제132호) : 유성룡(柳成龍)이 임진왜란 사실을 기술하여 후일에 교훈을 삼고자 편찬한 저서

- 명나라 후기 척계광의 ‘원양진’과 팔진 원리
..... 홍을표(149)
- 18~19世紀 忠淸兵營의 編制와 財政
..... 유동호(193)
- 16~17세기 近世 일본의 戰術과 조선과의 비교
..... 노영구(231)
- 唐 전반기 禁軍의 編制와 運用
..... 정순모(269)
- 한국의 병역제도 발전과정 연구
..... 나태중(297)

부
록

1. 연구소 동정
2. 자료기증 및 자료이용안내
3. 신간 도서 소개
4. “軍史”誌 투고안내
5. 연구윤리예규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왜란 초기 경상좌도 조선군의 대응양상에 대한 검토*

- 경상좌병사 박진(朴晉)과 권응수(權應銖)의 활동을 중심으로 -

김진수**

1. 머리말
2. 임진왜란 개전 초기 경상좌도의 상황과 조선군의 동향
3. 경상좌도 조선군의 재편 과정과 반격 양상
4. 맺음말

1. 머리말

16세기 말에 발발하였던 임진왜란은 조선·일본·명 등 삼국이 참전하였는데, 이전에 겪어 보지 못했던 대규모 국제전쟁이었다. 이 전쟁을 계기로 화약무기가 전투에서 전면적으로 사용되어 전쟁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변하였다. 아울러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대규모 국가간 전쟁의 경험으로 인해

* 본 논문은 2011년 6월 11일 경북대 퇴계연구소가 주관한 韓·中 國際學術大會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 육군3사관학교 전쟁사학과 전임강사

참전국들은 향후 예상되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군사, 재정, 상공업 등 사회 체제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나타내었다.¹⁾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하여 한국의 군사사 연구 가운데 임진왜란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²⁾

임진왜란 극복의 요인은 대표적으로 조선 수군의 활약과 의병의 활동, 그리고 명군의 참전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중 의병의 활동이 전쟁 극복의 주요한 요인이었다는 인식은 현재까지 한국 사학계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왜냐하면 개전 초기 일본군의 빠른 진격에 조선군 지휘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와해되면서 각 지역의 수령과 장수들이 피난함에 따라 국가 통제력이 상실하였다는 사실에 기인하며, 이를 대신하여 의병이 육상 전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의병의 주된 구성원에 대해서는 사족의 주도 하에 향촌의 주민과 천민 등 하층민으로 인식한 경향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는 개전 초기 허약한 관군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당시 조선의 무기력한 전쟁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부정적인 근거의 하나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임진왜란 관련 연구에서는 의병에 대한 성과³⁾가 풍부한 반면에 전쟁 극복의 주요한 주체인 관군의 활동에 대한 연구⁴⁾는 상대적으로 부진하였으며, 관군의 기여도를

- 1) 노영구, 「군사혁명론과 17~18세기 조선의 군사적 변화」, 『서양사연구』 36, 2007, 36쪽.
- 2) 지금까지 임진왜란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축적되어 있어, 일일이 제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임진왜란의 연구사를 전반적으로 정리한 성과만 소개한다.
이장희, 「倭亂과 胡亂」, 『한국역사입문-제2판』, 지식산업사, 1987 ; 河宇鳳, 「사대교린관계와 양란」, 『한국역사입문』 2, 한국역사연구회, 1995 ; 오종록, 「壬辰倭亂~丙子胡亂期 軍事史 研究의 現況과 課題」, 『軍史』 38, 1999 ; 조원래, 「壬辰倭亂史 研究의 推移와 課題」,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 비평사, 2000 ; 박재광, 「壬辰倭亂 研究의 現況과 課題」,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 3) 임진왜란 당시 의병에 대한 연구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김강식, 「壬辰時 義兵戰爭」,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계승범, 「임진왜란의 연구 동향과 군사사적 의의」, 『임진왜란의 역사적 의의와 현재적 가치』,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2009.
- 4) 박성植, 「壬辰倭亂의 研究 - 壬辰·癸巳年 晋州城 戰鬪를 中心으로-」, 영남대학교사학위논문, 1985 ; 張學根, 「壬辰倭亂기 官軍의 活躍」, 『韓國史論』 22, 1992 ; 송정현, 「壬辰倭亂論 : 官軍과 義兵의 역할 문제」, 『전남사학』 8, 1994 ; 박재광, 「임란 초기전투에서 관군의 활동과 권율」, 『임진왜란과 권율장군』, 전쟁기념관, 1999.

초기 전투보다 1593년 이후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⁵⁾ 기존의 의병 연구는 주로 의병과 관군을 분절적 혹은 양자간의 상대적 우위를 주장하였거나, 의병의 준관군적인 측면을 주로 의병장의 관직 제수에 따른 의병 성격의 변질에서 찾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⁶⁾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점차 임진왜란에 대한 기존 인식의 재검토가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시도되고 있다. 먼저 관군의 동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개전 초기 조선군의 대응과 동원체제는 적절히 작동하였으나 전술적 취약성으로 인해 패배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이해하였다.⁷⁾ 이러한 입장은 개전 초기 경상도 지역에서의 군사체제가 작동되는 과정을 분석한 연구를 통해 재확인되고 있다.⁸⁾ 또한 임란 초기 전라도 관군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⁹⁾와 경주관관 朴毅長을 통해 경상좌도 관군의 활동을 구명한 성과¹⁰⁾가 나오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의 임란 초기 관군의 부정적 이미지와 역할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극복하면서, 이들의 전쟁 기여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임란 당시 지방 수령의 도망으로 인한 통치력 부재에 대한 기존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이전에 중앙과 지방이 예전부터 구축했었던 행정 체계가 전쟁 중에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었기에 각 지역의 수령들이 대처할 수 있었다는 연구가 나타났다.¹¹⁾ 이러한 시각은 전쟁 당시 지방 수령들의 대응 양상을 전쟁의 시기별·지역별로 새롭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과 나아가 지휘부의 와해에도 군현별 행정 운용은 물론 지역 방어 체계도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병의 구성과 성격에 대한 이해이다. 의병의 구성이 향촌민이

5) 오종록, 앞의 글, 1999, 353쪽.

6) 金康植, 「壬辰倭亂 義兵의 性格 變化 - 義兵의 官軍化 問題 - 」, 『釜大史學』 19, 1995.

7) 노영구, 「壬辰倭亂 초기 양상에 대한 기존 인식의 재검토」, 『韓國文化』 31, 2003.

8) 이호준,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지역 전투와 군사체제」, 『軍史』 77, 2010.

9) 하태규,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 관군의 동향과 호남방어」, 『한일관계사연구』 26, 2007.

10) 장준호, 「임진왜란시 朴毅長의 경상좌도 방위활동」, 『軍史』 76, 2010.

11) 李仙喜, 「임진왜란 시기 咸陽 수령의 전란대처 - 『孤臺日錄』을 중심으로 - 」, 『진단학보』 110, 2010.

아닌 낙오된 관군인 이른바 ‘散卒’이 주력이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이를 花園縣 의병장인 우배선 부대의 구성을 통해 확인한 연구가 나타났다.¹²⁾ 또한 경상우도 의병의 성립과 활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 지역 의병의 주력이 산졸들로 편성되었으며, 기본적으로 準官軍的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다.¹³⁾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임란 초기 경상좌도 전쟁 양상에 대한 연구는 지역 의병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면서, 의병의 입장에서 그 성립과 전투 양상 등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졌다.¹⁴⁾ 그러나 이 지역의 의병장에 대한 문중 사료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나머지 의병의 주요 구성원이 단순히 충의에 바탕을 둔 창의군으로 이해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의병의 시각에서 전투 양상을 다룬 결과, 상대적으로 관군의 대응 양상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¹⁵⁾

그러나 경상도 관찰사의 서리였던 李擢英의 『征蠻錄』과 의성 의병장이었던 申佐의 『亂蹟彙撰』¹⁶⁾ 등에서는 지방 수령 및 관군의 동향에 대한 세부

12) 이수건, 「월곡 우배선의 임진왜란 의병활동」, 『민족문화논총』 13,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92.

13) 노영구, 「임진왜란 초기 경상우도 의병의 성립과 활동 영역」, 『역사와 현실』 64, 2007.

14) 문수홍, 「壬亂 중 慶尙左道地方의 義兵活動-壬辰年 永川·慶州城 收復戰을 中心으로-」, 『소헌남도영박사화갑기념 사학논총』, 1984 ; 최효식, 「임진왜란기 경주전투」, 『경주사학』 10, 1991 ; 『경주부의 임란항쟁사』, 경주시문화원, 1993 ; 「임진왜란 중 영천성 탈환전투의 고찰」, 『대구사학』 47, 1994 ; 「임란 초 경주 의병활동 연구」, 『경주사학』 16, 1997 ; 「경주부의 임란의병기록에 관한 연구」, 『신라문화』 19, 2001 ; 「임란기 경상좌도의 의병항쟁」, 국학자료원, 2004.

15) 물론 앞서 언급하였던 朴毅長에 대한 연구(장준호, 앞의 글, 2010.)는 경상좌도 관군의 동향을 어느 정도 밝혀냈지만, 그의 문집인 『觀感錄』과 경주성 수복전투 등을 중심으로 다루다보니 경상좌도의 전쟁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못했다.

16) 신홍(1550~1614)은 본관이 鵝洲로 의성에서 출생하였다. 임란 발발후 국왕의 몽진으로 형 申佖과 함께 의성에서 의병을 일으켰으며, 당시 의병활동을 하던 김해, 유종개, 정세아 등과 함께 연합하여 일본군에 대항하기도 하였다. 이후 1603년에 임란 당시의 경상도 내 사적을 지어 보내라는 조정의 명으로 『난중사적』을 저술하였다. 이 기록이 轉寫되어 『난중회찬』이라는 서명으로 아주 신씨 가문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하태규, 「성은 신홍의 생애와 『난중회찬』」, 『역주 난적회찬』, 역락, 2010, pp.215~217). 이 사료는 임진왜란 당시의 문헌들을 참고하고 보고 들은 바를 보완하여 기록한 것으로서 임란 초기 경상도의 상황을 새로이 살필 수 있는 귀한 자료라 할 수 있겠다.

적인 내용이 보인다. 이를 살펴보면 개전 초기 경상좌도의 주요 지역이 일본군에 의해 점령당한 상황에도 일부 관군 장수들은 임지에서 守城에 임하고 있었으며, 지방관들의 공백이 있는 지역에서는 權應銖 등의 의병장들이 산졸들을 수습하면서 항전을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좌도의 지휘부가 와해된 상태에서 이 지역의 조선군은 조직적인 반격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밀양 부사 차췌이 6월에 경상좌병사로 임명된 이후 좌도의 조선군은 신속한 재편이 가능하였고, 이는 일본군에 대한 전면적인 반격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조선군은 영천성과 경주성 등 주요 읍성들을 수복하였고,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다.

이러한 박진의 전공은 당시 선조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중앙 관료들이 이순신의 공과 다름이 없다고 하여 인정하고 있었으며,¹⁷⁾ 영남의 민심도 그가 없었다면 이 지역이 일본군의 소굴이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¹⁸⁾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박진의 활동과 그 역할에 대해서 소홀히 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개전 초기부터 6월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에 대한 저항 태세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상좌병사 박진에 의해 이 지역의 군사 활동이 활기를 띠었다는 것¹⁹⁾과 영천성 수복을 위해 그가 각 陳의 부대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면서 기일을 약속하였다는 사실²⁰⁾ 등을 살펴볼 때, 당시 박진의 활약에 대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²¹⁾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연구에서 관군이 전쟁 극복의 주요한 한 주체였다는 것과 의병 부대가 ‘散卒’로 편성된 준관군적인 부대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를 임진왜란 초기 조선군의

17) 『선조실록』, 권30, 25년 9월 14일 辛未.

18) 『선조실록』, 권27, 25년 6월 28일 丙辰.

19)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壬辰倭亂史』, 1987, 114쪽.

20) 申佺, 『譯註 亂蹟彙撰』, 역락, 55쪽.

21) 박진은 임란 당시 관군 장수 중 지대한 전공을 세운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스스로의 문집이 남아 있지 않아 『宣祖實錄』과 같은 正史 및 『燃藜室記述』 등의 野史와 『白雲齋實紀』, 『亂蹟彙撰』 등의 기록을 통해서 그의 행적을 알 수 있다. 한편, 박진의 행적을 대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다음의 논문이 유일하다.

金康植, 「임진왜란 시기 密陽地域의 義兵抗爭과 의미」, 『釜大史學』 28 · 29, 2005.

대응 양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관군과 의병의 연합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지역인 경상좌도, 그 중에서도 경상좌병사 박진과 권응수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 지역 조선군의 대응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白雲齋實紀』, 『觀感錄』, 『征蠻錄』 등 의병장 및 관군 장수의 문집과 『亂中雜錄』, 『壬辰日記』 등의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하되, 임란 당시 경상도 사적을 종합한 『亂蹟彙撰』을 함께 활용하겠다.

2. 임진왜란 개전 초기 경상좌도의 상황과 조선군의 동향

1) 임진왜란 개전 초기 경상좌도의 상황

1592년(선조 25) 4월 13일 부산진포에 상륙한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일본군 1번대는 이튿날 부산진성을, 이어 다대포성을 공략하여 점령하였으며 15일에는 동래성에 진입하였다. 당시 진주 근처에 머무르고 있던 경상도 관찰사 金睟는 일본군의 침공 소식을 접수하고 곧바로 경상도 지역 군사의 최초 동원을 명령하였다.²²⁾

경상좌병사 이각도 급히 좌병영의 군사를 이끌고 동래성으로 들어와 있었으며, 양산 군수 조영규와 울산 군수 이연성 등이 이끄는 군사들도 이미 집결해 있었다. 또한 밀양 부사 박진과 경주 판관 박 의장 등도 군사들을 인솔하여 동래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울산의 좌병영을 중심으로 13읍의 군사들이 집결하는 등 조선군의 초기 대응은 일단 작동되었지만, 전력의 현격한 격차와 좌병사의 도망으로 인해 동래성이 함락되었다. 이후

22) 『征蠻錄』 乾, 임진년 4월 15일·16일.

일본군은 4월 16일에 경상좌수사 박홍이 이탈한 좌수영에 진입하면서, 기장과 양산을 차례로 함락시킨 후 밀양으로 진격하였다.

일본군 1번대에 이어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일본군 2번대는 18일 부산포에 상륙하여 다음날에는 양산을 경유하여 언양에 진입하였다. 이후 이들은 울산의 좌병영을 향해 계속해서 진격하였다. 당시 좌병영의 상황은 좌병사 관할지역내 13읍 군사들이 모두 도착하여 수성전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동태를 이탈한 적이 있었던 이각은 또다시 본영에서 도망치고 말았다. 결국 경상좌도를 총지휘하는 主將의 도망으로 혼란에 휩싸인 좌병영은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20일에 일본군의 공격에 의해 함락되면서,²³⁾ 경상좌도의 방어체계는 완전히 와해되고 말았다.

한편 동태로 이동하고 있었던 경주 판관 박 의장은 좌병사 이각의 명령에 따라 다시 경주성으로 돌아왔다.²⁴⁾ 당시 경주성은 경주부의 군사외에 장기현의 군사와 함께 병영군 500명이 주둔하고 있었다. 당시 경주 부윤 윤인함은 경상도 순찰사 김수에 의해 捕亡將에 임명되었는데, 박 의장이 경주성으로 돌아올 때까지 성을 지키고 있다가 그가 도착한 후에야 비로소 좌병사 소속의 병영군 500명을 소속시키고 포망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성 밖으로 나갔다.

한편 박 의장은 경주성에 도착하면서 장기 현감 이수일과 함께 모든 장수와 군사들에게 명령해 농성전에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탐정군의 이탈로 인해 박 의장 등은 적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주성을 일본군에게 내주고 말았다.²⁵⁾ 이는 경상좌병영의 함락에 따른 지휘체계 와해로 사기가 극도로 떨어진 경주의 조선군이 일본군의 압도적인 공세를 감당하기란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경주성을 점령한 일본군은 이틀 후인 24일에 영천성마저 함락시켰다. 당시 영천군수 김윤국은 새로 축성된 영천읍성에서 제대로 싸워

23) 『亂中雜錄』, 임진년 4월 21일.

24) 『觀感錄』 권1, 「家傳」, 임진년 4월.

25) 『觀感錄』 권1, 「家傳」, 임진년 4월.

보지도 않고 충청도로 도망치게 되면서,²⁶⁾ 이 지역의 관군과 백성들도 흩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조선군을 연이어 격파해 나가던 일본군은 한성을 향해 신속히 북상하였다. 즉 부산진과 동래성을 함락한 고니시 유키나가의 일본군 1번대는 좌수영-기장-양산-밀양-대구-인동-상주-조령-충주로 진격하였고, 가토 기요마사의 2번대는 양산-언양-경주-영천 방면으로 진공하였다. 4월 18일에는 일본군 3번대와 4번대가 경상남도 김해에 상륙하였고, 5월에 들어서 후속 부대를 상륙시켜 경주, 영천, 밀양, 대구, 성주, 현풍, 선산, 개령, 금산, 상주 등 경상도 주요 지역에 나누어 주둔시키고 점령 지역마다 진영을 설치하였다.²⁷⁾ 따라서 임진왜란 초기 경상좌도의 군현 중에서 일본군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인 영천(榮川), 풍기, 봉화, 진보, 청송, 영덕, 청하, 홍해 등 안동진과 경주진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이 일본군에게 유린당했다.²⁸⁾

이렇게 임란 초기 일본군의 신속한 진공과 조선군의 계속되는 패배로 인해 일부 지역의 수령과 장수는 산악 지대나 다른 지역 등으로 피신하였으며, 대부분의 군졸들도 각지로 흩어지는 등 군사력이 와해되었다. 이에 따라 5월 이후 경상도의 주요 길목에 소규모의 일본군이 주둔하면서 약탈과 살육을 일삼았으며, 이들과 함께 주변 지리에 익숙한 倭賊化된 농민들이 노략질을 일삼으므로 그 피해는 매우 컸다.²⁹⁾

26) 영천 군수 김윤국이 도망친 행적에 대해서는 사료마다 내용이 상이하다. 영천 의병장 정대임의 『昌臺實紀』에서는 기룡산에 있는 묘각사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이 나오고(정대임, 『장대실기』 권2, 행장), 신희의 『亂蹟彙撰』에서는 충청도로 도망쳤다는 기록이 나온다(申佺, 『譯註 亂蹟彙撰』, 역락, 2010, 55쪽). 경상도안집사 김득의 장계에서는 김윤국이 충주로 도망쳤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그가 충청도로 도망쳤다는 행적을 뒷받침해 준다(金功, 『栢巖集』 권5, 「條陣慶尙道軍情賊勢狀啓」).

27) 北島萬次(기타지마 만지), 『豊臣秀吉 朝鮮侵略』, 吉川弘文館, 1994(김유성, 이민웅 번역,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경인문화사, 2008, 47쪽).

28) 『宣祖實錄』, 권27, 25년 6월 28일 丙辰 : 申佺, 『譯註 亂蹟彙撰』, 역락, 2010, 61쪽.

29) 조정, 『임진일기』, 임진년 5월 2일.

2) 경상좌도 관군의 항전과 의병의 활동

전쟁 초기 일본군의 신속한 진공과 현격한 열세로 패배를 거듭하였던 경상좌도의 조선군은 그 지휘체계와 군사력이 와해되고 말았다. 이러한 경상좌병영의 지휘권 부재와 군사력 약화에도 불구하고 경상좌도 진관³⁰⁾에 소속된 각 군현별 장수들은 일본군의 침입에 맞서 싸우면서 자신의 본營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 이탁영의 『정만록』 중 경상 감사의 장계에서는 이러한 조선군의 대응 동향이 잘 나타나고 있다.³¹⁾

먼저 경주진의 상황을 살펴보면, 부윤과 판관을 비롯하여 홍해 군수와 장기 현감, 영일 현감, 청하 현감 등은 흩어진 군사들을 수습하여 유격전을 수행하면서, 책임 지역을 방어하고 있었다. 특히 경주 판관 박 의장은 죽장 현에 주둔하면서 흩어진 백성과 군사들을 수습하고 대장간을 설치하여 화살 등의 무기를 제작하는 한편, 정예병을 선발하여 가장 중요한 지점에 복병을 배치시켜 일본군의 길목을 차단하거나 배후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또한 밤에는 산 위에서 봉화를 피우고 낮에는 성 밖에서 돌격전을 감행하는 등 일본군을 상대로 주야로 유격전을 전개하였다.³²⁾ 그리고 경주 부윤

30) 당시 경상좌도의 진관 편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李謙周, 「壬辰倭亂前 朝鮮의國防實態」, 『韓國史論』 22, 1992, 31쪽).

구 분	첨절제사	동첨절제사	절제도위
경주진관	경주부윤	울산군수, 양산군수, 영천군수, 홍해군수	경주판관, 청하현감, 영일현감, 장기현감, 기장현감, 동래현감, 언양현감
안동진관	안동대도호부사	영해부사, 청송부사, 예천군수, 영천(榮川)군수, 풍기군수	안동판관, 의성현령, 봉화현감, 진보현감, 군위현감, 비안현감, 예안현감, 영덕현령, 용궁현감
대구진관	대구부사	밀양부사, 청도군수	경산현령, 하양현감, 인동현감, 현풍현감, 의흥현감, 신녕현감, 영산현감, 창녕현감

31) 『征蠻錄』 坤, 임진년 7월 25일.

32) 『觀感錄』 권1, 「家傳」, 임진년 4월. “以圖柔榆也 遂率官吏 立稱保竹長縣 招集軍民之避匿者 稍有膽氣者 無不影從 於是置治鑄箭 授兵分屯 別擇智勇之士 設伏要害之處 或遏截之 或尾擊之 夜則列化峰頭 晝則馳突城外 由是據城之賊 稍戢憑陵之氣 不敢大肆搶掠.”

윤인함은 기계현에 주둔하면서 의병장 박인국 등을 領將에 임명하는 등 군사들을 모았고, 4월 24일에는 仙桃山에서 차출한 의병들을 南川, 鷄林 등 요지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였다. 한편으로 그는 피난민 중에서 1,000여 명의 군사들을 모으는 등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었다.³³⁾

여기서 이들이 거점으로 삼았던 죽장현과 기계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경주부에는 4倉이 있었는데, 신광창·기계창·죽장창·안강창 등이 있었다.³⁴⁾ 박 의장과 윤인함이 4개의 창고가 위치해 있던 지역 중 죽장현과 기계현에 각각 주둔한 이유는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는데, 하나는 경주성을 수복하기 위한 군량미와 병장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리적으로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으로 경상좌도 지역에서 피난한 군사와 백성들이 은둔한 지역으로서 군사 징발이 용이하였다는 점이다.³⁵⁾ 따라서 박 의장 등이 지휘하는 경주의 관군은 창고가 위치한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지속적인 항전을 벌일 수 있었던 데 비해, 상대적으로 현지에서 보급을 해결해야 하는 일본군에게는 매우 불리하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안동진에서는 비록 부사와 판관이 이탈하였지만, 영해 부사와 청송 부사, 영천 군수, 의성 현령, 봉화 현감, 진보 현감, 군위 현감, 예안 현감, 영덕 현령, 용궁 현감 등이 일본군의 공격으로부터 각기 책임 지역을 지키고 있었다. 이로 인해 안동 전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예안 현감 신지제의 경우 6월까지 임지를 지키면서 적의 침입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³⁶⁾과 용궁 현감 우복룡도 고을을 지키면서 일본군과 맞서 싸운 공로로 조정으로부터 포상을 받았다는 점³⁷⁾을 들 수 있다.

33) 최효식, 앞의 책, 1993, 51쪽.

34) 『新增東國輿地勝覽』, 권 21, 경상도, 경주부.

35) 장준호, 「임진왜란시 朴毅長의 경상좌도 방위활동」, 한국학중앙연구원석사학위논문, 2008, 62~63쪽.

36) 경상북도·영남대, 『경북의병사』, 1990, 235쪽.

37) 『선조실록』, 권26, 25년 5월 15일 甲戌.

일본군 주력의 침공 경로로 이용되었던 대구진은 부사를 비롯하여 청도 군수와 경산 현령, 인동 현감, 현풍 현감, 영산 현감 등도 일본군의 침입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이 중 현풍 현감은 근왕군으로 종군하다가 병사하였고, 영산 현감은 전사하였다. 경상 좌수영의 경우 칠포 만호와 축산포 만호 등도 각자 성을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경상좌병영의 장수들은 지휘부가 와해되었음에도 각자의 책임 지역을 방어하고 있었던 반면, 지방관들이 이탈한 지역에서는 전직 군관이나 士族 등이 이들을 대신하여 의병을 일으키면서 적의 침입을 막고 있었다. 이들 중 대구진과 경주진 일대의 의병들을 총지휘하였던 의병대장이 권응수이다. 권응수는 본관이 안동으로 신녕현 추곡리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1582년(선조 12) 별시 무과에 합격하고, 의주에서 국경수비에 종사하다가 1591년에는 경상좌수사 박홍의 밑에서 복무하였던 군관이였다.³⁸⁾ 전쟁이 발발하여 박홍이 좌수영을 이탈함에 따라 권응수도 다른 군사들과 마찬가지로 흩어지면서, 고향인 신녕으로 돌아갔었다. 그런데 신녕 현감 한척이 일본군의 침입을 피해 산속으로 피신하여³⁹⁾ 이 지역이 일본군의 침입에 노출되었다. 이에 권응수는 4월 27일 고을을 지키기 위해 동생 권응전·권응평과 家僮 4~5인, 保人 이운수 등을 거느리고 군사들을 수습하면서 거병하였다.⁴⁰⁾ 권응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상좌도 지역의 의병 부대는 앞서 언급했듯이 전직 군관이나 각지의 사족 등을 중심으로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다. 영천에서는 정세아와 정대임이, 하양에서는 신태가, 자인에서는 최문병이, 경산에서는 최대기가, 경주에서는 김호 등이 각 지역 기반에 따라 독자적으로 의병 부대를 이끌었다. 이렇게 조직된 여러 의병 부대의 초창기 주요 활동은 향촌 지역 내에서 노략질을 하였던 일본군과 이들과 결탁한 조선인을 격퇴하는 것이었는데, 같은 진내에서 접경을 이루고 있었던 경주진의 영천 의병부대와 대구진의 신녕 의병부대가

38) 『白雲齋實紀』 권1, 「年譜」, 만력 19년.

39) 申屹, 『譯註 亂蹟彙撰』, 역락, 2011, 55쪽.

40) 『白雲齋實紀』 권1, 「啓」 3면.

부분적으로 제후가 이루어졌다.

당시 영천 官奴 희손 등의 수백 명의 무리들이 지역 일대에서 노략질을 하면서 일본군과 내통하고 있었는데,⁴¹⁾ 권응수는 정대임 등과 연합하여 이들을 토벌한 것을 시작으로 大洞과 신녕 동쪽의 漢川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하여 義城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등의 전공을 세웠다.⁴²⁾

이때 권응수 등이 지휘하였던 의병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농민과 향촌민을 주축으로 구성되었다는 것과 달리 주로 낙오된 관군 출신자들이었음이 분명하다. 당시 경상도 지역 전역에는 다수의 낙오된 군병이 거주하는 각 군현 주변의 산간 계곡 사이에 흩어져 있었던 상황이었다.⁴³⁾ 이는 임진왜란 초기 일본군의 신속한 진격으로 인해 지방 수령 등 이들을 지휘할 조선군의 지휘부는 상당히 와해되었지만, 대부분의 군졸들은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⁴⁴⁾ 다음의 사료들은 영천을 비롯한 경상 좌도 지역의 의병이 모집되어 부대가 편성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A 훈련봉사 권응수가 군사를 일으켜 賊(일본군)을 토벌하였는데, 그의 관할 하에 응모한 자들은 모두 한때 무사들로서 영천에 사는 정대임과 함께 왜적을 토벌하니, 사로잡거나 참한 자가 자못 많았다.⁴⁵⁾

B 영천군에 가까운 면의 군인 100여명이 기약하지도 않았는데 모였거늘 같은 군에 거주하는 의병장 정대임이 병사를 모아 거듭하여 서로 통하였습니다.⁴⁶⁾

C 영천 북병장 정대임과 하양 신해와 의흥 북병장 홍천뢰와 경주 임내와 자인현 북병장 등이 있는 곳에 군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⁴⁷⁾

41) 『白雲齋實紀』 권1, 「年譜」, 만력 20년 5월.

42) 『白雲齋實紀』 권2, 「永川復城記」, 9면.

43) 李魯, 『譯註 龍蛇日記』, 한일문화연구소, 57쪽 : 조정, 『임진일기』, 임진년 4월 24일.

44) 노영구, 앞의 글, 2007, 42쪽.

45) 申佺, 『譯註 亂蹟彙撰』, 역락, 150쪽. “有訓練奉事權應鍊 舉兵討賊 其管下應募者 皆一時武士 與永川居鄭大任 同事 捕斬頗多”

46) 『白雲齋實紀』 권1, 「啓」, 4면. “永川郡比面軍人百餘名 不期而會爲白有去乙 同郡居義將鄭大任聚兵 再再相通”

47) 『白雲齋實紀』 권1, 「啓」, 5면. “永川伏兵將鄭大任 河陽中海 義興伏兵將洪天賚 慶州任內慈仁縣伏兵將等處軍人聚集”

D (8월 1일) 경상도 영천진사 정세아, 신녕봉사 권응수, 하양봉사 신해, 고성봉사 최강이 모두 募兵해서 적(일본군)을 토벌하다. 세아의 나이 67세이다. 적이 막 본성에 據하고 있었는데, 세아가 좌수 유몽서, 생원 조희익 등과 더불어 散軍들을 招集하여 적을 捕斬한 것이 매우 많았다.⁴⁸⁾

사료 A는 권응수가 최초 의병 부대를 편성하였을 때 주된 구성원이 한때 무사들이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들은 하급 군관들로 흩어진 군졸들을 수습하여 권응수 부대가 급속히 편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그가 일찍이 무관으로 복무하면서 군사 지휘경험이 있었기에 신속한 재편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료 B~D는 영천을 비롯한 좌도 지역 의병장들에 의해 해당 지역의 흩어진 군사들이 모여 들었다는 것으로서, 이들이 의병 부대의 주된 구성원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많은 군졸들이 지휘체계의 붕괴에 따라 흩어져 있었고, 이는 의병 부대의 급격한 증강과 관군의 재편을 가능하도록 하는 배경이었다. 실제로 임진왜란 중 최초로 기병한 경상우도의 광재우 의병 부대도 전쟁 초기 각지에 방황하고 있었던 捕將, 散卒을 효과적으로 수용하여 전투 병력화한 사례⁴⁹⁾가 이를 방증한다. 이처럼 경상좌도 의병 부대는 전쟁 초기 관군 지휘부가 와해되면서 일부 지방관이나 장수들이 도망쳤을 때 정대임·정세아 등 지방 유력 사족 등을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흩어져 있던 관군이 편성되었다. 이들은 군사 지휘경험을 가진 관관 권응수의 지휘하에 연합하여 전투를 수행한 변형된 형태의 準官軍의인 부대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전쟁 초기 경상좌도 조선군의 대응 양상을 거시적으로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관군이 거의 붕괴되고 의병이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 내막을 좀 더 면밀히 보면 앞서 살펴 본 바대로 적지 않은 관군 장수들이 아직까지도 해당 지역에서 수성에 임하고 있었으며, 이른바 의병

48) 『亂中雜錄』, 임진년 5월 20일. “慶尙道永川進士鄭世雅 新寧奉事權應錄 河陽奉事中海 固城奉事崔瓘 皆募兵討賊 世雅時年六十七 賊方據本城 世雅與座首柳夢瑞 生員曹希益等招集散軍 捕斬頗多”

49) 이수진,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466쪽.

으로 알려진 군병들도 대개 흩어진 관군들이 다시 모여 편성한 병력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쟁 당시 조선 관군의 대응이 거의 무능하였으며 결국 의병이 이를 대신하여 육상 전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밖에 없었다는 그동안의 인식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3. 경상좌도 조선군의 재편 과정과 반격 양상

1) 경상좌도 조선군의 군사력 재편과 대응 과정

개전 초기 경상좌도의 조선군은 일본군의 신속한 진공과 전력의 열세로 패배를 거듭하였지만 각 군현별 장수들은 임지에서 수성하면서 일본군의 침입에 항전하고 있었고, 지방관들의 공백이 있는 지역에서는 전직 군관과 사족 등의 의병장들이 이를 대신하여 흩어진 군졸들을 수습하면서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상좌도내 관군 장수들과 의병장들의 끈질긴 항전에도 불구하고, 이 방면의 조선군은 주요 지역을 수복하기 위한 통합된 반격 작전을 감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왜냐하면 개전 초기 일본군의 침공에 대해 경상좌병사 이각이 도망함으로써 조선군의 지휘부가 와해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상좌도는 도내의 군사기관이나 행정관서의 명령체계가 확립될 수 없었으며, 6월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에 대한 저항태세가 갖추어지지 못했다.⁵⁰⁾ 그런데 5월 경상도 근왕군으로 종군하고 있었던 밀양 부사 박진이 온양에서 경상좌병사로 임명을 받았다.⁵¹⁾ 이는 좌도의 조선군 지휘체계를 복구하면서 전면적인 반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50)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壬辰倭亂史』, 1987, 114쪽.

51) 『선조수정실록』 권26, 25년 5월 1일 庚申 ; 『征蠻錄』 乾, 임진년 5월 25일 ; 申佻, 『譯註 亂蹟彙撰』, 역락, 30쪽.

박진은 1560년(명종 15)에 출생하였으며 본관은 밀양, 자는 明甫였다. 1589년(선조 22) 沈守慶의 천거로 불차채용되어 宣傳官과 訓練副正을 거쳐 밀양 부사가 되었다.⁵²⁾ 1592년 전쟁이 발발하자 박진은 4월 15일 동래 북쪽 蘇山驛과 17일 밀양의 작원관에서 일본군의 공격을 저지하려고 하였으나, 전력의 열세로 연이어 패배를 당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일본군의 침입에 맞서 끈질기게 항전하였으며, 이후 종4품인 밀양 부사에서 과격적으로 종2품인 경상좌병사로 승급이 되었다. 이는 박진이 전투에 임하는 자세가 국왕 선조를 비롯한 중앙관료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그가 경상좌도의 악화된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왕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전쟁 초반에 와해된 경상좌도의 지휘체계 복구와 군사력을 재편한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6월 15일경 박진은 군관 이사언 등 30여 명과 함께 고령에서 밤에 낙동강을 건너면서, 우선 조치로 일본군에 대한 공격을 위해 안동 등지로 이동할 것이니 각 수령들은 군사들을 수습하여 伏兵을 운용할 것과 해당 지역의 전황을 상세히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읍에 하달하였다. 그리고 현풍과 밀양을 경유하여 풍각현에 당도한 그는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들였는데, 과거 밀양 부사를 역임했던 박진에게 500여 명이 모여들 수 있었다.⁵³⁾ 이후 박진은 청송 등 안동 방향으로 이동하였는데,⁵⁴⁾ 여기서 그가 안동으로 방향을 돌린 이유는 우선 이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 안동 지역은 앞장에서 언급했지만 전쟁초기 일본군의 침입이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의 장수들이 각자 본영을 지키고 있었다. 또한 5월에 慶尙道安集使 金玠이 이 지역에 부임하여 招募 활동을 통한 사족 중심의 의병 부대를 편성하면서 흐트러진 군정 체계를 바로 잡고자 하였던 상황이였다.⁵⁵⁾ 따라서 그가 안동으로 향했다는 것은 경상좌도의 군사력 재편이

52) 『燃藜室記述』 권17, 宣朝朝故事本末 : 『선조실록』 권23, 22년 1월 21일 己巳.

53) 申佺, 『譯註 亂蹟彙撰』, 임진년 6월 15일 : 『亂中雜錄』, 임진년 7월 5일 : 『征蠻錄』 坤, 임진년 7월 25일.

54) 『亂中雜錄』, 임진년 7월 5일 : 申佺, 『譯註 亂蹟彙撰』, 역락, 30쪽.

55) 노영구, 「임진왜란 초기 近始齋 金垓의 의병 활동」, 『군자리 그 문화사적 성격』, 토우.

필요한 상황에서 이 지역을 거점으로 좌병영을 재설치하고 군사력을 장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일본군에 의해 점령되었던 주요 읍성들을 수복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밀양 일대에서 군사들을 수습한 박진은 6월 22일 경상좌도로 넘어오게 되었는데,⁵⁶⁾ 이 때에 일본군이 안동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감행하고 있어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6월 5일 일본군이 용궁과 예천에 난입하였는데,⁵⁷⁾ 관군만으로 제압하기 어려울 만큼 그 규모가 강대하였다.⁵⁸⁾ 15일에는 안집사 김득이 예안 현감 신지제와 용궁 현감 우복룡에게 명을 내려 多仁과 義城의 일본군을 공격하게 하였으나, 조선군은 오히려 크게 패배하여 그 손실이 막대하였다.⁵⁹⁾ 조선군을 패배시킨 일본군은 그 여세를 몰아 22일에는 안동을 함락시키고, 7월 1일에는 예안에 들어와 많은 피해를 입혔다.⁶⁰⁾ 또한 영해 부사 한효순이 장기 현감 이수일, 영일 현감 홍창세, 흥해 군수 최보신, 청하 현감 정응성, 영덕 현령 안진 등과 더불어 일본군을 맞아 공격하기로 하였는데, 강원도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군의 침입으로 역시 패배함으로써⁶¹⁾ 안동진은 물론 경상좌도 전역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편 신병에 도착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접하게 된 박진은 영천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권응수를 助戰將(助防將)으로 삼아 수하에 두었고, 청송·안덕을 경유하여 7월 5일에는 진보에 당도하였다.⁶²⁾ 이후 그는 이 일대에서 군사력을 확보하면서 안동과 예안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을 축출하고자 하였다.⁶³⁾ 그러나 박진이 지휘권 장악과 군사력 수습에 상당한 어려움을

2001, 186~188쪽.

56) 『白雲齋實紀』 권2, 「啓」 4면. “六月 二十二日 左道兵馬節度使朴晉 自右道越入本道”

57) 鄭士誠, 『芝軒集』 권3, 「임진일록」 6월 초5일.

58) 鄭士誠, 『芝軒集』 권3, 「임진일록」 6월 13일. “官軍不能擒賊 但望京路 敵陣大盛 彌萬各邑 莫敢下手 皆鬱山谷”

59) 金功, 『栢巖集』 권5, 「條陣慶尙道軍情賊勢狀啓」, 권7, 「年譜」, 만력 20년 6월.

60) 노영구, 앞의 글, 2001, 191쪽.

61) 申佺, 『譯註 亂蹟彙撰』, 역락, 47쪽.

62) 『亂中雜錄』, 임진년 8월 1일 : 『白雲齋實紀』 권2, 「永川復城記」 9면.

63) 『白雲齋實紀』 권2, 「啓」 4면. “靑松眞寶等處往來 竄伏男丁乙 召聚結集 安東禮安等屯聚之賊

겪었는데,⁶⁴⁾ 전임자 이각이 과거 병영을 이탈하면서 印信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 각 관아에서는 박진의 傳습을 잘못 전달된 것으로 여기고 번번이 의심하였기 때문이다.⁶⁵⁾ 하지만 영해 부사 한효순이 청송에 도착하여 그를 직접 만나 일단 자신의 인신으로 명령을 대신하도록 하면서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리하여 박진은 청송과 진보 등지에서 흩어진 군사들을 불러 모으자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군사들이 증가하여 점차 그 규모를 갖추게 되었고,⁶⁶⁾ 안동 일대에 주둔하였던 일본군을 공격하기 위한 반격을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박진을 수행하던 조방장 권응수가 7월 9일에 신녕으로 되돌아간 일이 발생하였다.⁶⁷⁾ 기존 연구에서는 박진이 그를 견제하고 싫어하여 되돌아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⁶⁸⁾ 권응수의 이러한 행보는 군영 이탈에 해당되는 중죄로서 좌병사 박진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가 권응수의 이탈을 제지하거나 군율로 처단하고자 하였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권응수가 되돌아갔던 신녕은 영천에서 군위-의성으로 연결되며, 또한 북쪽으로 노귀재를 넘어 청송-진보로 연결되는 길목의 요지였다. 만일 군위와 경주·영천 일대의 일본군들이 이 경로를 경유하여 청송 방향으로 공격한다면, 안동 지역의 적을 몰아내기 위해 군사력을 집중해야 하는 박진으로서는 상당한 군사적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추정하건대, 박진은 이러한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권응수로 하여금 신녕과 영천 지역에 대한 작전을 일임한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신녕으로 돌아간 권응수가 군사들을 모으면서 法林院 大路邊과 군위 지역의 경계인 여음동의 요해처에 복병장과 군사들을 배치시켰고,⁶⁹⁾ 하양과 영천의 의병 부대와 연계하여 영천으로부터 封庫御史라 칭하고 신녕으로 향하던 일본군을

殲掠計料”

64) 『白雲齋實紀』 권2, 「啓」 4면. “守令等無助救 四散之軍 容易聚集不得”

65) 申佸, 『譯註 亂蹟彙撰』, 역락, 31쪽.

66) 申佸, 『譯註 亂蹟彙撰』, 역락, 46쪽.

67) 『白雲齋實紀』 권2, 「永川復城記」 9면.

68) 최효식, 「임진왜란 중 영천성 탈환전투의 고찰」, 『대구사학』 47, 1994, 72쪽.

69) 『白雲齋實紀』 권2, 「啓」 4~5면.

朴淵⁷⁰)에서 격퇴시킴으로써⁷¹ 청송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였던 전투 동향을 들 수 있다. 이는 두 사람이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였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알 수 있는 근거로 『白雲齋實紀』 중 권응수의 장계에서 그가 박진의 활약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⁷²)과 훗날 영천성 수복전투에서 박진이 대개 권응수의 책략을 받아들였다는 것⁷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일부 사료에서는 박진과 권응수 등의 의병장들의 관계가 대립적이었다고 기록하였지만, 이들은 일본군을 몰아낸다는 대의를 위해 대립 관계를 뒤로하고 상호 긴밀하게 협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청송과 진보 등지에서 군사력을 확보한 박진은 안동부에 주둔하였던 일본군을 퇴각시키면서⁷⁴) 안집사 김륙과 만나게 되는데, 그의 권유를 받아 안동부에 군영을 설치하게 되었다.⁷⁵) 그리하여 그는 7월 19일에 안동에 입성하여 김륙으로부터 안동진의 군정을 넘겨받았다.⁷⁶) 이때 안동에서 축출된 일본군들은 풍산현 龜潭으로 이동하여 10여 일간 이 지역에서 노략질을 하였다. 이에 박진이 구담의 일본군을 격멸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지만, 이 일대가 험준한 지형이었기에 그는 대신 정예병들로 하여금 밤을 틈타 진천퇴포를 쏘도록 하면서⁷⁷) 안동으로의 재침입을 차단하였다. 이를 통해 박진의 군사들이 진천퇴포와 같은 화약 무기를 상당수 보유하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전 안동 수복전에서도 그 위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70) 박연은 안계·의흥과 영천·하양 등지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였다.

71) 『亂中雜錄』, 임진년 8월 1일 : 『白雲齋實紀』 권2, 「啓」 4~5면.

72) 『白雲齋實紀』 권2, 「啓」 6면. “左道東北段兵使朴晉 自變初至死督戰威名已 著力拾散卒分兵退絕 以此時無復犯之患 爲白有昆 前後所殺賊未可計數”

73) 申佺, 『譯註 亂蹟彙撰』, 역락, 55쪽.

74) 申佺, 『譯註 亂蹟彙撰』, 역락, 46쪽.

『栢巖集』과 『鄉兵日記』에 따르면 조선군의 반격으로 일본군은 7월 9일에 예안에서(『鄉兵日記』 임진년 7월 9일), 18일에 안동에서 물러난 것으로 되어있다(『栢巖集』 권5, 「條陣慶尙道軍情賊勢狀啓」, 7면).

75) 『栢巖集』 권5, 「條陣慶尙道軍情賊勢狀啓」, “左兵使朴晉 來此近邑 臣與之相見 勸令留鎮安東”

76) 『栢巖集』 「年譜」, 萬曆 20년 7월.

안동으로 입성한 그는 의병장 배용길로부터 200여 명의 군사들을 넘겨 받았다(金垓, 『鄉兵日記』, 임진년 7월 19일).

77) 申佺, 『譯註 亂蹟彙撰』, 역락, 46~47쪽.

집작된다. 이는 일본군의 점령이 미치지 못했던 청송과 진보 등지에 위치해 있던 軍器庫에서 이러한 무기가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었고, 좌병사에 의해서 재편된 관군들이 이를 보유함으로써 그 전투력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⁷⁸⁾ 안동 등지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군을 퇴각시킨 박진은 강원도에서의 일본군 침입을 막기 위해 요소마다 장수와 군사들을 배치하면서 길목을 차단하였다.⁷⁹⁾ 이처럼 박진이 안동진의 군정을 장악함으로써, 이 지역의 민심을 수습하고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예를 들어 7월 좌도 순찰사로 임명된 영해 부사 한효순이 각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성대한 행차를 하였는데 성 위의 일본군이 내려다보아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러한 관원의 威儀에 백성들이 기뻐했을 정도였다는 사례⁸⁰⁾가 이를 뒷받침한다.

마침내 경상좌병사 박진은 안동진을 좌병영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경상좌도의 군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군사력을 재편함으로써, 도내의 군사 활동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 또한 경주진과 대구진 일대의 관군과 의병들을 지휘하여 일본군의 침입을 격퇴하고 길목을 차단하였던 권응수의 활약도 박진의 이러한 군사 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경상좌도의 조선군의 전투 양상은 그동안 지역 단위의 거점 방어에서 주요 읍성의 수복과 일본군 요격이라는 전면적이고 조직적인 반격 작전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78) 허선도는 임란 초기 일본군의 점령 형태가 완전한 全面占領이 아닌 중요 郡邑과 郡邑을 잇는 침공로의 주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른바 點線占領에 불과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전라도의 경우 주요 營鎮 및 郡邑을 비롯해서 사실상 일본군의 점령이 미치지 못한 후방 각지의 군기고에는 화약무기가 어느 정도 온존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무기는 전쟁초기 삼남지방의 의병들이 우선적으로 갖고 있었으며, 이는 다시 대오를 재정비하기 시작한 관군의 전투력으로 나타났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許善道, 「제3장 韓國火器의 裝放法과 形態考」, 『朝鮮時代 火藥兵器史研究』, 일조각, 1994, 273쪽). 따라서 박진의 군사들도 이러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진천포 등의 화약무기를 보유하였을 것이다.

79) 申仡, 『譯註 亂蹟彙撰』, 역락, 46~47쪽.

80) 申仡, 『譯註 亂蹟彙撰』, 역락, 51쪽.

2) 경상좌도 조선군의 반격과 주요 읍성의 수복

1592년 5월에 경상좌병사로 임명이 된 박진은 두달 만에 안동과 신녕 일대를 장악하면서 주요 읍성을 수복하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으며, 권응수를 비롯한 대구진과 경주진 지역 의병장들도 이를 위한 자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었다.⁸¹⁾

그런데 6월 15일부터 19일 사이에 副總兵 祖承訓 등이 이끄는 명의 군사들이 조선을 구원하기 위해 압록강을 넘어 남진하면서, 전쟁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를 호기로 삼은 조정에서는 7월 중에 하삼도의 조선군 부대에게 명군의 출전을 알리고 각지의 일본군을 요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⁸²⁾ 한편 안동에 주둔하고 있었던 경상좌병사 박진은 의병대장으로 임명된 권응수에게 명을 전달하여 擧事하도록 하였다.⁸³⁾ 이는 조정의 요격 명령이 경상좌병사를 통해 의병대장에게 하달된 것으로 판단된다.⁸⁴⁾

경상좌병사 박진과 의병대장 권응수가 경상좌도에 대한 반격 작전을 위해 영천성 수복을 우선적인 작전목표로 결정하였다. 여기서 이들이 영천성을 주요 읍성 수복의 우선 순위로 삼은 이유를 설명하자면, 영천성의 지형적 특성에 따른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당시 영천성은 동쪽으로는 안강을 거쳐 영일과 경주로, 남쪽으로는 경산을 거쳐 청도와 대구 방면으로, 서쪽으로는 신녕을 거쳐 상주 방면으로, 또 신녕에서 의흥과 안동 방면으로, 북쪽으로는 청송에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교통로를 가지고 있었다. 이곳을 확보한다면 차후 경상좌도의 거진중 하나인 경주부를 탈환하기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 분단되었던 안동진과 대구진,

81) 『亂中雜錄』, 임진년 8월 1일.

82) 『선조실록』, 권28, 25년 7월 19일 丙子. “傳曰 天兵已爲前進平壤 師期豫爲下書于下三道使之或微擊或尾擊 餘賊若由水路而去 則嶺南水使 以舟師追擊事 分明遣宣傳官速爲通諭”

83) 申佻, 『譯註 亂蹟彙撰』, 역락, p. 158. “時晉在安東 傳令應錄擧事”

84) 경상우도의 경우 조정의 명령이 경기도 순찰사를 통해 의병도대장(義兵都大將) 김면의 의병부대에게 전달되었던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鄭慶雲, 『孤臺日錄』 권1, 임진년 7월 13일).

경주진의 관군·의병의 연합 부대를 연결할 수 있는 주요한 요충지였다. 또한 영천성은 전쟁 초기 일본군의 후방 보급로 역할을 하였는데, 경주나 안강으로부터 의흥과 상주로 이어져 있어 그 지역적 중요성이 매우 컸었다.⁸⁵⁾ 만약 조선군이 이 지역을 수복한다면, 경상좌도를 통한 일본군의 보급로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었다. 따라서 박진과 권응수는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반격작전의 우선 순위로 영천성 탈환을 선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7월 23일 영천성 수복을 위해 의병대장 권응수는 瓦村에서 신녕과 영천·하양·자인·의흥 등의 의병 부대를 ‘倡義精勇軍’으로 통합하여 편성하였다.⁸⁶⁾ 그 성격은 각 군현 단위의 의병 부대에서 이제는 보다 단일한 체제의 부대라는 성격을 띄고 있었다. 이 무렵 죽장현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던 경주 판관 박의장의 관군 부대가 권응수 부대와 합류하였는데, 경상좌병사 박진의 명에 따라 영천성 수복 전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전투에 참가하였던 조선군의 규모는 총 3,560~3,970명⁸⁷⁾으로 신녕과 경주의 군사들이 주축을 이루었는데,⁸⁸⁾ 이는 영천성 수복 전투에 참가한 조선군의 주력이 권응수와 박의장의 부대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울산, 영일, 장기, 흥해, 양산, 언양, 자인 등의 지역 의병 부대와 관군도 참가한 것으로 추정된다.⁸⁹⁾ 24일 권응수 등의 조선군은 영천성 남쪽 楸坪에서 지형과 지세를 고려한 작전 계획을 논의하면서 전투를 준비하였다.

85) 당시 경상우도 의병들은 낙동강으로 군량·군기 등의 군수물자를 수송하던 일본군의 선박을 격파하여 그들의 보급선을 차단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군은 경상좌도로 물리게 되면서 이 일대는 중요한 후방기지 내지 병참보급지로 바뀌게 되었다(경상북도·영남대, 『경북의병사』, 1990, 218쪽).

86) 『백운재실기』에서는 영천 군수 김윤국이 창의정용군의 별장으로 영천성 수복 전투에 참가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하지만 신희의 『난적휘찬』에서는 김윤국이 충청도에 도망갔다가 영천 전투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 임지로 돌아왔다고 하면서, 실제 참전하지 않았는데 공신의 반열에 들었다는 내용이 보인다(申伋, 『譯註 亂蹟彙撰』, 역락, 55쪽). 따라서 그 진위여부에 대한 명확한 사료 비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7) 최효식, 앞의 글, 1994, 76쪽.

88) 孫曄, 『淸虛齋文集』, 『龍蛇日記』. “永川人 圍城 倭翌日復城 新寧慶州軍亦多 斬獲合五百餘級”

89) 이욱, 앞의 글, 2009, 55쪽.

이때 경상좌병사 박진은 안강에 주둔하면서 군관 변응규로 하여금 화약과 군기(병장기) 등을 지급함으로써,⁹⁰⁾ 권응수 등의 조선군이 화공전을 감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를 통해 권응수 부대가 본격적으로 화약무기를 보유함으로써 그 전력이 상당히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박진이 안강현에 좌병영을 설치한 이유를 설명한다면 안강이 경주부 4倉 중 하나로 물자가 풍부하였다는 것과 이곳이 영천에서 불과 40리 떨어진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형산강의 한 지류에 위치한 七坪川을 끼고 경주와 영천을 연결짓는 교통의 요지였다는 것이다.⁹¹⁾ 따라서 박진이 안강에 좌병영을 설치한 이유는 영천성 전투에 대한 작전을 총지휘하면서 권응수 부대가 전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군수 물자를 지원하는 한편, 경주성의 일본군이 영천성에 대한 증원을 직접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경상좌병사 박진의 작전 지휘하에 의병대장 권응수와 경주 판관 박의장이 주장이 된 조선군이 영천성 수복 전투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7월 26일 새벽에 조선군은 영천성을 공격하였고, 28일 성을 완전히 수복하면서, 일본군 500명의 수급을 베는 전과를 올렸다.⁹²⁾ 이렇게 조선군이 영천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관출신으로 전투 경험이 풍부하였던 권응수의 활약이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각 陳의 부대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면서 기일을 약정하는 등 작전을 총지휘한 경상좌병사 박진의 역할⁹³⁾도 간과할 수 없다. 이 전투의 승리로 인해 일본군은 경주-영천-안동을 잇는 보급로가 차단되어 상주로 철수하면서 그 세력이 급속도로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상좌도의 수습 읍이 보존하게 되었고 이 지역 백성들 또한 생기를 되찾았으며,⁹⁴⁾ 이 일대가 다시금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한편 경상우도내 의령, 삼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광재우 부대도 8월초 현풍, 창녕, 영산 등 경상

90) 『白雲齋實紀』 권2, 「永川復城記」.

91) 최효식, 앞의 책, 1993, 68쪽.

92) 영천성 수복 전투에 대해서는 이형석, 『임진전란사』, 1977, 423~426쪽에 자세히 다.

93) 申仡, 『譯註 亂蹟彙撰』, 역락, 55쪽.

94) 경상북도·영남대, 『경북의병사』, 1990, 218쪽.

좌도의 일부 지역을 수복하면서,⁹⁵⁾ 전황은 조선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때 영천성을 수복하였던 조선군은 자인현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군을 연이어 격파하고,⁹⁶⁾ 그 기세를 몰아 8월 20일 박진이 안강에서 권응수와 박의장을 선봉으로 삼아 직접 16읍의 군사 1만여 명을 이끌고, 야간에 경주성을 수복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조선군은 언양 방면으로부터 증원된 일본군의 배후 공격을 받게 되었고, 급기야 경주성의 일본군으로부터 협공을 받아 막대한 병력 손실을 입고 다시 안강으로 철수하였다.⁹⁷⁾ 그럼에도 경주성 탈환의 의지를 거두지 않았던 박진은 안강에 주둔하면서 야간을 틈타 포를 쏘도록 하였고, 중요한 길목에 복병을 두어⁹⁸⁾ 일본군의 증원을 차단하면서 경주성을 고립시키는 전술로 전환하였다. 또한 그는 박의장에게 결사대 1,000여 명을 지휘하게 하여 경주성을 주야로 공격하도록 하였다.⁹⁹⁾ 마침내 9월 8일 일본군이 경주성에서 울산 방향으로 퇴각함으로써, 조선군은 경주성을 탈환하였다. 이때 조선군은 경주성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4만여 석의 군량을 획득함으로써, 경주 이남의 일본군을 격퇴하기 위한 군사적 거점을 확보하였다.

영천성과 경주성에서 퇴각했던 일본군은 경상좌도의 주요 요충지를 상실하여 부산에서 한성까지의 보급로 유지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등¹⁰⁰⁾ 차후 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반면, 조선군은 언양과 울산으로 통하는 길목을 막고 울산에서 부산으로 다니는 길을 차단시키면서¹⁰¹⁾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었다.

95) 이장희, 『곽재우연구』, 양영각, 1983, 167~171쪽.

96) 『觀感錄』, 『年譜』 선조대왕 25년 8월 7일 : 『白雲齋實紀』 권2, 「啓」 6면.

97) 이형식, 『임진전란사』, 1977, 478~479쪽.

98) 申佖, 『譯註 亂蹟彙撰』, 역락, 56쪽 : 『亂中雜錄』, 임진년 9월 12일.

99) 최효식, 앞의 책, 1993, 62쪽.

100)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壬辰倭亂史』, 1987, 117쪽.

101) 『觀感錄』 권1, 「家傳」. “府君遂游兵彥蔚兩路 日事遮截 賊之自蔚山闌入至釜山上來者 不敢衛斥 永川新寧一路之開拓”

4. 맺음말

임진왜란 개전 당시 경상좌도의 조선군은 대규모 일본군의 신속한 침공과 지휘관인 좌병사 이각의 도망으로 인해 연이어 패배를 거듭하면서 그 지휘체계와 군사력이 와해되었고, 대부분의 지역이 유린을 당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좌도내 일부 관군 장수들은 군현별로 흩어진 군사들을 수습하고 자신의 책임 지역을 지키면서 일본군에 대한 지속적인 항전을 하고 있었다. 또한 지방관들의 공백이 있는 고을에서는 권응수와 같은 전직 무관과 사족 등의 의병장들이 '散卒' 즉 흩어진 관군들을 수습하여 의병을 일으키면서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이른바 의병으로 알려진 군병들은 대개 흩어진 관군들이 다시 모여 편성한 병력이었으며, 준관군적인 부대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끈질긴 항전에도 불구하고, 경상좌도의 조선군은 개전 초기 지휘부의 와해로 인해 각 관아에 대한 명령체계가 확립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군에 대한 조직적인 반격 태세를 갖추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5월경 밀양 부사 박진이 경상좌병사로 임명을 받으면서, 좌도의 조선군은 지휘체계 복구와 군사력 재편은 물론 전면적이고 조직적인 반격을 감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는 경상좌도로 넘어오면서 일본군의 침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안동진에서 좌병영을 설치하려고 하였다. 이 지역을 거점으로 그는 장차 일본군에 의해 점령되었던 주요 읍성들을 수복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박진은 권응수의 군사적 지원으로 안동진에서 경상좌도의 지휘체계를 복구하면서 군사력을 재정비하였다. 이로써 조선군은 주요 읍성의 수복이라는 전면적이고 조직적인 반격을 감행할 수 있었다. 7월경 명군의 참전 소식과 함께 조정의 요격 명령이 내려지자, 박진은 권응수와 함께 교동의 요충지이자 일본군의 후방 보급로에 위치하였던 영천성을 공략하여 수복하였고, 그 기세를 몰아 경상좌도의 거진이었던 경주성도 탈환하였다. 영천성과 경주성의 탈환에 성공한 조선군은 언양과 울산으로

통하는 길목과 울산에서 부산으로 다니는 길을 차단시키면서 일본군의 보급로 유지를 어렵게 하는 등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게 되었다.

이 글은 임진왜란 초기 경상좌도 조선군의 대응 양상을 경상좌병사 박진과 권응수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기존 연구에서 간과하였던 관군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명한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몇 가지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 먼저 국내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검토함에 따라 당시 경상좌도의 전황을 다룬 일본측의 사료나 연구 성과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국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경상좌도 의병이 준관군적 부대였다는 것을 전개시키면서도 관군과 의병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짓지 못했으며, 문집이라는 제한된 사료를 근간으로 이 지역의 전쟁 양상에 대해 검토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당시 경상좌도 내 일부 지역인 안동·경주 등의 관군 부대와 의병의 동향을 함께 종합하면서 그 성과를 검토하지 못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국내 사료에 편중된 검토보다 당시 일본측의 기록들을 활용하여 동일 시간별로 비교하고 종합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문집이 갖는 사료적 한계는 연대기 등의 객관적 자료들이 좀 더 폭넓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상좌도 관군과 의병 관계의 역사적인 특성과 지역적인 특성을 밝히는데 좀 더 집중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연구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원고투고일 : 2012. 1. 3, 심사수정일 : 2012. 2. 10, 게재확정일 : 2012. 8. 14)

주제어 : 임진왜란, 경상좌도, 박진, 권응수, 관군, 의병, 거점 방어, 지휘체계, 영천성 수복전, 경주성 탈환전

<ABSTRACT>

Response of the Left Gyeongsang Province of Joseon Troop in the Early Phase of the Japanese Invasion, 1592

Kim, Jin-soo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s a part of a large international war, had such a great ripple effect that it brought various changes in all areas of society and politics of the East Asian region. Factors that contributed to overcoming the war were the activities of Joseon's naval forces and a righteous army, leadership of the generals and admirals and others. Above all, activities of the righteous army were highly regarded and recognized as a major factor of overcoming the war even today. In regard to riposte of left Gyeongsang province at the beginning of the war, prior studies dealt with it superficially, the government Troops nearly collapsed and righteous army took the initiative. However, taking a closer look at the inside facts, we find out that despite collapse of a line of command due to Japanese large invasion, not a few of the government commanders of left Gyeongsang province defended the forts in their assigned area. Also, in areas which local government officers left, in place of them, scholar groups or former officers in the region raised up forces by gathering scattered soldiers and fought against the Japanese, taking their own military actions.

Afterward, as Commander Park jin of left Gyeongsang province troops took Andongjin as a military base, Joseon army of left Gyeongsang province began to establish a line of military command in earnest and rebuilt a military force. It was possible because there were activities of Gwon eung-su, who commanded the government Troops and righteous army in Gyeongju and Daegu, repulsing the Japanese army and intercepting its attack. As a result, Joseon army of left Gyeongsang

province's fighting aspect changed from defense of local military base into an overall and an organized counterattack like recapturing a town fort and conducting surprises attack on the Japanese troops. In addition, Yeongcheon fort and Gyeongju fort, which were in strategic locations, were recaptured and the situation of the war turned in favor of the Joseon.

Key Words : The Japan Invasion of 1592, Left Gyeongsang Province, Pack Jin, Gwon Eung su, Government Troops, Righteous Army, Strategic locations, Government commanders, Recovering Yeongcheon Castle, Recapture of Gyeongju Castle

조선시대 적대적 對日인식에 관한 고찰

- 임진왜란~조선시대 말기를 중심으로 -

이 규 배*

1. 서 론
2. 17세기 조선시대의 일본인식
3. 18세기 조선시대 대일 적대감의 실태
4. 19세기 이후 조선시대의 대일 적대감
5. 결 론

1. 서 론

조선시대의 일본인식(혹은 일본관)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져 왔다.¹⁾ 그러나 일본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한국인식 관련 연구 축적에 비해 학술적 논급이 가장 미미한 영역이 조선시대의 일본인식에 관한 것이

* 제주국제대학교 일어일본학과 교수.

1) 하우봉, 『조선시대 한국인의 일본인식』, 해안, 2006. 하우봉, 『朝鮮後期 實學者의 日本觀研究』, 一志社, 1989. 琴秉洞, 『朝鮮人の日本觀—歴史認識の共有は可能か』, 總和社, 2002.

다.²⁾ 이러한 연구현실을 감안했을 때, 조선시대의 일본인식 특히 그 중에서도 적대적 대일인식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더욱 적을 수밖에 없는 현실은 당연한 귀결이다.

최근 한일역사 공동연구 성과물에서 “1965년 한·일수교가 이루어진 후 현재 배일이나 반일의 감정을 임진왜란에 결부시켜 인식하는 학자와 국민은 거의 없다. 이는 日本帝國主義의 식민지배에 대한 감정과는 다른 것이다.”³⁾는 지적이 제기된 것도 이러한 연구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라 할 것이며, 임진왜란에 의해 조선사회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불가결하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가 있다.⁴⁾

본고는 이처럼 기존 연구에서도 공백으로 남아있는 임란 이후 조선시대 적대적 대일인식의 실태를 규명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작성된 논문이다. 임란이 조선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방위에 걸쳐서 끼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러나 대일 ‘적개심’이나 ‘증오심’으로 표현되는 적대감에 대해서는 당연한 ‘객관적인 사실’로 전제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실태에 대해서는 천착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⁵⁾

본고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임란 이후 조선사회의 일본인식, 특히 그 중에서도 적대적 대일인식이 어떠한 형태로 실재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검토 시기는 임란 직후인 1600년대부터 조선시대 말기까지를, 주요 검토 대상은 임란 체험자를 포함하여 각 시대에 일본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주요 인물들의 일본인식을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2) 하우봉, 『朝鮮後期 實學者의 日本觀研究』, 一志社, 1989, 8쪽.

3) 정구복, 『임진왜란의 역사적 의미-壬辰倭亂에 對한 韓·日 兩國의 歷史認識-』,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일역사 공동연구보고서』 제2권,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5, 183쪽.

4) 六反田豊 他, 『文祿·慶長の 役(壬辰倭亂)』,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일역사 공동연구보고서』 제3권,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5, 55쪽.

5) ‘일본=不俱戴天의 원수’로서 반드시 복수해야 한다는 ‘萬世怨’, ‘九世復讐說’이 일반화되었고, 이러한 대일감정은 한국민중들에게 일종의 유전자처럼 계승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일본관의 원형이 되었다는 지적은 주목을 요한다. 하우봉, 『조선 후기 한국과 일본의 상호인식』, 『韓國思想史學』 第27輯, 한국사상사학회, 2006, 55쪽.

전체적으로는 조선시대 적대적 대일인식의 실태에 대해 통시적인 검토분석을 목적으로 설정하지만, 연구의 초점은 임란 이후 '일본=원수'로 전환된 대일인식의 실태와 그 상관성에 주목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17세기 조선시대의 일본인식

조선사회의 적대적 대일인식이 어떤 형태로 존재했고 발현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동학의 교조 최제우의 「안심가」(安心歌)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안심가」는 천도교 포교가사집인 『용담유사』(龍潭遺事)안에 실린 9편의 가사 가운데 하나로서 1860년에 작사된 것이다. 이 「안심가」는 일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개 같은 왜적 놈을 神으로부터의 造化로 하룻밤 사이에 소멸시켜, 전지무궁(全地無窮), 대보단(大報壇)에 맹세하고 汗의 원수를 갚아 보이리라. …… 前歲 壬辰 몇 년이었던가. … 개와 같은 왜적들이 그대들의 神明을 되돌아보아라. 그대들이 물에 내려와서 무슨 은덕이 있었던가. ……⁶⁾

여기서도 보듯이 「안심가」는 '前歲 壬辰 몇 년이었던가'라며 260년 전의 임진왜란을 상기시키고 있으며, '원수'에 대한 복수심을 담은 감정으로 '개 같은 왜적 놈을 神으로부터의 造化로 하룻밤 사이에 소멸'시키고 싶다는 격한 적대감을 담고 있다. 「안심가」가 천도교의 대중포교를 위한 가사라는

6) 최제우, 「癸未版 龍潭遺事」, 『동학농민혁명 자료총서』, <http://db.history.go.kr>. 동학에 등장하는 적대적 대일감정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람. 하우봉, 『조선시대 한국인의 일본인식』, 해안, 2006, 337~342쪽. 金信在, 「동학사상에서의 대외인식과 그 성격」, 『東學研究』 創刊號, 한국동학학회, 1997, 185~188쪽. 姜大德, 「開港前後 華西學派의 對外認識-1860~1880년대의 尊攘衛斥論과 斥攘斥倭論 分析에 의한 접근-」, 『韓日關係史研究』 5, 한일관계사학회, 1996, 132쪽. 池明觀, 「壬辰倭亂과 近代朝鮮의 民族主義」, 『기독교사상』 통권 제254호, 대한기독교서회, 97~116쪽.

점을 감안한다면, 이 가사는 당시의 대중적 정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며, 임란으로부터 26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적대적인 대일감정이 여전히 조선사회의 저변에서 연면히 지속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문제는 이 노래가 작사된 1860년의 일본은 조선사회에서 특별하게 경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계기가 전무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적대적인 '왜적 놈'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⁷⁾ 이러한 적대적인 일본인식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종결 후인 1600년대부터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었던 임란의 기억과 대일 '원수'론의 상관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선조(宣祖)대에 영의정으로서 원균을 천거하는 등 임란 과정에서 중요한 사안마다 유성룡(柳成龍)과 충돌을 빗기도 했던 이산해(李山海)는 전란 후인 1598년에 시폐(時弊)를 진단하는 차자(箚子)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먼저 이산해는 “적이 물러간 것을 기쁘게 여기지 마시고 원수를 갚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분발”할 것을 강조하면서 “한창 설치고 있는 북쪽의 적이 아무래도 이미 물러간 왜구보다는 못할 듯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구의 흉봉(凶鋒)은 천하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이기 때문이라는 경계심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십 개의 성을 쌓는 것보다 주사(舟師)를 예비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것이 “선왕의 원수를 갚을 수 있고 우리나라의 치욕을 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진언하고 있다.⁸⁾ 임란을 교훈삼아 『징비록』(懲毖錄)을 남긴 온건파 南人에 속한 유성룡이나 강경파인 北人에 속한 이산해는 정치적 입장은 달리 하고 있었지만, 임란 기억에 따른 격렬한 대일감정에는 차이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7) 「안심가」가 작사됐을 당시 일본에서는 1854년과 1858년 체결된 서구열강과의 화친조약과 통상조약에 반발한 존왕도막파(尊王倒幕派)의 존왕양이운동의 막이 올라감으로써 급박한 정치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일본이 직면한 핵심적인 정치현안은 열강을 배척하는 양이 운동이었고, 따라서 인근국가 문제에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 더욱이 1860년이라면 일본의 본격적인 한반도 침탈 전조인 강화도조약이 체결되기 16년 전이다. 물론 이 시기 일본에서는 한반도 침략론이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양국간 충돌은 발생하고 있지 않았다.

8) 李山海, 『鵝溪遺稿』 2, 민족문화추진회, 1998, 45~54쪽.

이러한 대일인식은 풍신수길(豊臣秀吉)의 몰락 이후 새로운 도쿠가와(德川)막부와 강화 논의가 부상된 뒤에도 변함이 없었다. 그 첫 번째 사절인 1607년 여우길(呂祐吉)·경섬(慶暹)·정호관(丁好寬) 등이 회답 겸 쇠환(回答兼刷還)을 목적으로 일본에 파견될 때, 당시 참판 윤안성(尹安性)은 이들을 전송하며 다음과 같은 시를 쓰고 있다.

회답사라 이름 하여 어디로 간단 말인가. 오늘의 이 화친 의의를 모르겠네.
한강에 머리 돌려 강가를 바라보라. 두 능의 송백 가지도 안 돋았네.⁹⁾

조정 차원에서 강화가 결정되기는 했지만, 대일 화친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가 저변에 깔려있으며, 임란 당시 자행된 두 능(선릉과 정릉) 도굴에 대한 원한과 기억도 시 속에 녹아있음을 읽을 수 있다. 이 시는 당시 널리 알려졌고 식자들의 절찬을 받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¹⁰⁾

또한 문신으로서 문장이 뛰어나 조선 중기의 사대가(四大家)로 꼽혔던 장유(張維)는 이상고(李尙古)가 1617년 조선통신사 종사관으로 일본에 가게 됐을 때,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먼저 장유는 일본에 대해 “교활한 오랑캐로 말하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사기를 치니 얼굴은 사람 모습이지만 마음은 짐승과 같다고나 할 것이다. …… 혹 우리가 따르기 어려운 청을 요구해 오거나 우리가 행할 수 없는 禮를 강요하는 등 헤아릴 수 없이 교활하게 무도한 짓을 자행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그대는 장차 어떻게 이를 대처할 것인가.”라고 우려를 전하면서 “이번의 사행에 있어 끝내 어려운 점이 없다고 하겠는가.”고 질문한다. 이에 대해 이상고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나에게는 실로 아침이나 저녁이나 두려워 떨리는 점이 있다. 임진년의 변고야

9) 미상, 「逸史記聞」, 『大東野乘』 14, 민족문화추진회, 1971, 586쪽.

10) 이 시는 임란으로부터 170년이 경과한 1771년에 제주사람 장한철(張漢喆)이 남긴 『표해록』에서도 인용되고 있을 정도였다. 장한철 지음·정병욱 옮김, 『표해록』, 범우사, 1979, 63쪽.

말로 만세토록 잇을 수 없는 사건이다. …… 의리에 입각해서 단안을 내린다면 일본의 산천과 초목치고 우리의 원수 아닌 것이 없다고 할 것이다. …… 이것이 비록 그들을 달래고 무마하기 위한 계략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더라도 필부의 심정으로서서는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¹¹⁾

여기서도 보듯이 이상고는 일본측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낙관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임란을 ‘만세토록 잇을 수 없는 사건’으로 칭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도 ‘일본의 산천과 초목치고 우리의 원수 아닌 것이 없다’고 피력할 정도였다. 이 때문에 통신사로서의 사행길은 ‘교린회유’의 한 방편임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임란 직후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란을 체험한 당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임란의 기억과 대일 ‘원수’감정은 당연한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임란을 체험했던 세대로서 대일 강화 이후 제1차(1607년)~제4차(1636년) 조선통신사들의 사행일기에 한결같이 일본에 대한 ‘원수’의 감정이 기록되어 있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¹²⁾ 특히 조선 중기 인조 때의 문신 이식(李植)이 제4차 통신사 부사(副使) 김세렴(金世濂)을 전송하며 남긴 다음 글은 당시 대일 적대감의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¹³⁾

이식은 “일본이 東國의 걱정거리로 등장한 것은 대개 아조(我朝) 임진년에 이르러 극에 달했다”고 과거사를 상기시키면서, 풍신수길의 멸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해독을 끼쳤던 자들이 모조리 몸이 사방으로 찢겨지고 불에 태워지는 등 참혹한 최후를 맞이했으니, 아, 이 어찌 천도(天道)가 아니라 하겠는가.”며 임란으로부터 3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여전한 분노를

11) 張維, 「序. 送李從事尙古奉使日本序」, 『谿谷先生集』 제5권, <http://www.minchu.or.kr>.

12) 이규배, 「반일감정의 始原에 관한 試論의 고찰-임진왜란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日本文化研究』 第24輯, 동아시아일본학회, 2007.10, 132~135쪽.

13) 李植, 「送金學士世濂使日本序」, 『澤堂集』 II, 민족문화추진회, 1996, 180~181쪽.

표하고 있다. 그리고 강화요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해악을 끼친 자들만을 원수로 삼을 뿐 그 나라까지 원수로 삼지는 않으려 하여, 옛날의 일은 접어둔 채 새로운 관계를 갈망하는 그들의 요청을 끊어버리지 아니하였다.”고 씌으로써 강화수용의 배경에 대해 논급하고 있다. 그러나 ‘옛날의 일은 접어둔’ 강화요청 수용이 임란의 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음은 바로 이어지는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그들은 회유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을 뿐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보려는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투를 좋아하는 것이나 병기(兵氣)가성한 것으로 말하면 옛날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 없고, 따라서 장차 불행하게도 못된 인물이 나와 다시 살기(殺機)를 발동하더라도 하면 이웃 나라가 병화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강화요청의 수용과 통신사의 교환은 ‘회유’를 위한 외면적 평화일 뿐, 그 이면에는 적대적인 대일 경계심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대일 감정은 임란 30년을 전후한 시점에서는 보편적 인식이었던 셈이다. 주목을 요하는 부분은 이러한 대일인식은 양란 체험의 유무와 관계없이 후대에 가셔도 변함없이 계승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임란 후에 출생한 신경(申晄, 1613~1653)은 양란으로부터 5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임란 전말을 기록한 『재조번방지』(再造藩邦志)를 저술하고 있다. 신경은 철저한 화이론(華夷論)적 입장에서 일본을 이적(夷狄)시하였으며, 대일교섭이나 양국관계에 있어서도 명분론적 입장에서 강경한 정책을 지지하였고 임란 자체를 나라가 더럽혀진 큰 치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¹⁴⁾ 실제로도 신경은 『재조번방지』 안에서 일본과 화친을 맺고 통신사를 보내는 일에 대해 “동쪽으로 백 대가 되도록 잇기 어려운 원수와 화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⁵⁾ 이 책을

14) 신경의 일본관과 『재조번방지』에 대해서는 하우봉, 『朝鮮後期 實學者의 日本觀研究』, 一志社, 1989, 32~36쪽.

15) 申晄, 「再造藩邦志」(六), 『大東野乘』 IX, 민족문화추진회, 1971, 560쪽.

저술한 이유를 언급한 부분에서도 “아아! 임진년의 화란이 참혹하였도다. 중국 군사가 아니었으면 나라가 없어졌을 것이고, 나라가 없어졌다면 우리들로 하여금 이같이 번성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는 필부필부라도 마땅히 여러 번 익히 읽어서 그 사실을 자세하게 알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운데서 얻은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쓰고 있다.¹⁶⁾ 전체적으로 신경은 ‘재조지은(再造之恩)’¹⁷⁾이라는 사대주의적 관점에 입각해 있으면서도 임란 기억의 사회적 전파와 ‘원수’감정에 대한 환기를 촉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도 보듯이 일본은 ‘원수’로 각인되고 있었고 이러한 적대감은 임란의 기억과 연동되면서 일본인식을 규정하고 있었다. 1600년대 후반에 들어서도 이러한 일본인식의 구도는 변함이 없었다.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성리학자였던 윤증(尹拯, 1629-1714)은 1677년 이순신 시에 차운(次韻)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제갈 승상(諸葛丞相)은 시호가 忠武인데 장군의 훈업(勳業)도 마땅히 큰 명성을 그와 똑같이 받아야 한다. 국가가 남쪽과 북쪽에서 적병의 침입을 당하여 그 원수와 치욕을 아직 씻어 내지 못하였으니, 장군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세월이 오래 지나더라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¹⁸⁾

윤증은 제갈공명과 이순신의 시호가 똑같은 충무라는 사실에 빗대면서 이순신에게도 제갈공명과 마찬가지로 그 ‘훈업’에 상응하는 ‘큰 명성’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설욕되지 않은 임란의 ‘원수와 치욕’으로 인해 이순신에 대한 추도의 염은 영원할 것임을 명기하고 있다.¹⁹⁾

16) 申晳, 「再造藩邦志」(六), 『大東野乘』 IX, 민족문화추진회, 1971, 562쪽.

17)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가 조선을 다시 세워주었다는 ‘재조지은’ 인식도 임란의 기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韓明基, 「再造之恩과 조선 후기 정치사-임진왜란~정조대 시기를 중심으로」, 『大同文化研究』 第59輯,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7, 191~225쪽.

18) 尹拯, 「次李忠武舜臣韻」, 『明齋遺稿』 1, 민족문화추진회, 2006, 255쪽.

19) 윤증은 임진왜란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명나라 신종(神宗)의 사당을 건립하기 위한

한편 이러한 대일인식은 민간의 표류기록에서도 확인이 된다. 1698년에 발생했던 제주사람들의 기록에 따르면, 규슈(九州) 사츠마(薩摩)로 인도된 난과 일행은 그곳에서 임란 때 피로된 조선인 출신 통역관을 만나게 된다. 이들 일행을 반갑게 맞이하는 통역관은 난과 일행에 대한 일본 관리들의 철저한 소지품 점검과 기록을 보면서 “왜놈들이 잔달기가 이렇습니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개 그 땅에 살며 그 관장을 받들면서도 삼세(三世)의 분노가 여태 풀리지 않았던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²⁰⁾ 이는 임란으로부터 한 세기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삼세의 분노’라는 임란 피로인들의 대일감정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3. 18세기 조선시대 대일 적대감의 실태

1600년대의 기록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당시의 적대적 대일인식은 임란의 기억과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었다. 특히 이런 사실은 1600년대 중반 이후부터 1700년대 초반 朝·日 양국간에 합의된 약조(約條)와 금조(禁條)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일례로 임란 전인 1443년과 1512년에 맺어진 약조는 대마도를 대상으로 한 경제적인 문제에 국한되어 있었다. 세전선(歲遣船)의 규모나 수도서인(受圖書人)·수직인(受職人)에 대한 규모 등이 그것이다.²¹⁾ 그러나 임란 이후인 1653년(효종 4)에 정해진 약조에는 “비밀리에 왜인의 빛을 쓴 자는 그 빛의 많고 적은 것을 막론하고 극률(極律)로 다스린다.”거나 “왜인과 서로 만났을 때 물건을 매매하는 일 외에 함부로 우리나라 사정을 말하는

숙종의 문의(1704년 2월)에 대해서도 “신종황제의 망극한 은혜는 실로 우리 동방에서 만세도록 잊을 수 없습니다.”고 화답함으로써 임란이 망각할 수 없는 기억이었음을 거듭 보여주고 있다. 尹拯, 『神宗皇帝入廟收議回啓』(甲申二月), 『明齋遺稿』 2, 민족문화추진회, 2007, 231쪽.

20) 제주인 강두추·고수경의 일본 육구도 표류기 참조. 정운경 지음·정민 옮김, 『탐라문견론』, 휴머니스트, 2008, 83~84쪽.

21) 金健瑞, 『約條』, 『增正交隣志』, 민족문화추진회, 1998, 126~127쪽.

자는 발각 되는대로 치계(馳啓)하여 기밀을 누설한 죄로 다스린다.”, “(왜관에) 평상시 출입하면서 터무니없이 …… 나라 사정을 누설한 자는 계문(啓聞)하여 처벌한다.”²²⁾는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내통이나 기밀누설을 포함한 안보상의 위험성 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임란 전에는 없던 규정으로서 임란에 기인한 대일 경계심의 제도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712년(숙종 38)에 정해진 서적밀매 금조도 임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문제였다. 이 금조에 따르면 영의정 서종태(徐宗泰)가 “통신사가 우리나라 서적이 왜국으로 많이 들어간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 『징비록』도 또한 들어갔다고 하니 이런 책을 어찌 왜인이 보게 한단 말입니까. …… 지금부터는 법으로 정해서 사승(史乘)과 문집은 일체 엄금하되 이를 어기고 파는 자는 잠상(潛商)의 법률로 다스려야 합니다.”고 상계하고 있다.²³⁾ 이에 대해 숙종도 “중국 서책을 제외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문적은 모두 엄하게 금할 것”을 결정하고 있다. 이순신을 천거하는 등 임란 시 대활약을 펼쳤던 유성룡의 『징비록』 유출문제가 상징하듯이, 서적밀매 금지규정은 임란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제정된 것으로서 당시의 적대적인 대일 경계심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²⁴⁾

22) 金健瑞, 「約條」, 『增正交隣志』, 민족문화추진회, 1998, 129~130쪽.

23) 金健瑞, 「禁條」, 『增正交隣志』, 민족문화추진회, 1998, 139~140쪽. 서종태의 상계에 대해 숙종은 “국승(國乘)에 관계된 책은 매우 중요하므로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단호한 대응에 대해 하문하고 있다.

24) 서적밀매와 관련된 기사는 이보다 앞선 1682년 7차 통신사 역관 홍우재와 1711년 8차 통신사 부사 임수간의 기록에도 보인다. 洪禹載, 「東槎錄」, 『해행총제』 VI, 민족문화추진회, 1975, 154~155쪽; 任守幹, 「東槎日記」, 『海行摠載』 IX, 민족문화추진회, 1977, 285쪽. 그러나 현실은 이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 1719년 9차 통신사 세술관 신유환은 “가장 통탄스런 것은 김학봉의 『海槎錄』, 유성룡의 『懲忿錄』, 강항의 『看羊錄』 등과 같은 책에는 양국의 기밀스런 사정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데도 지금 그 대부분이 오사카에서 출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적을 탐색해놓고 이를 적에게 알려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국가의 기강이 엄하지 못하고 관역(館譯)의 사적인 거래가 이와 같으니 한심한 일이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申維翰, 『海游錄』, 『海行摠載』 I, 민족문화추진회, 1974, 559~560쪽. 한편 7차 통신사 正使 윤지완(尹趾完)은 사신 관사가 풍신수길의 願堂인 大佛寺로 정해지자, “수길은 우리의 百代의 원수인데 너희들이 감히 나의 관사를 원수놈 집에다 정해 주느냐”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李青翹, 「邊圉典故. 通信使」, 『練藜室記述』, 민족문화추진회, 1967, 443쪽.

양국간 빈번한 교류는 조선에 관한 정보 유출이라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에 관한 정보도 무단하게 조선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조선 후기 실학자였던 이익(李瀼)은 이를 토대로 임란 이후 일본에 대해 가장 깊은 관심과 지식을 가졌던 최초의 지식인으로 평가되고 있다.²⁵⁾ 그런 의미에서 1700년대 중반의 일본인식은 그의 대표적 저서 『성호사설』(星湖僊說)(1740년경)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이익은 주변정세와 조선의 군비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군사란 백 년 동안 쓰지 않아도 좋지만 하루도 방비를 잊을 수 없으니, 군사란 내침하는 적을 방비하는 것이다. 적은 반드시 계획을 치밀히 하여 내침하는데 우리는 갑자기 당황하여 대응하게 된다. …… 진실로 천백년까지라도 군사를 쓰지 않게 된다면 어찌 크게 원하는 바 아니리오만, 다만 인적(鄰敵)이 우리 마음과 같지 않은 것이 걱정이다. …… 나는 듣건대 귀중한 보물을 지닌 자는 밤에 다니지 않고 큰일을 맡은 자는 적을 가벼이 보지 않는다 하니, 이 말은 곧 겁 없이 위대한 데를 다니지 말며 안일에 빠져 전쟁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²⁶⁾

이익이 조선의 ‘병비’를 거론하게 된 것은 ‘우리 마음과 같지 않은’ ‘인적’ 일본의 치밀한 내침 계획과 장구한 계획이 없는 조선의 ‘안일’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익이 水軍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논한 것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가 폭원(幅員)은 넓지 않으나 삼면이 바다로 둘러 있어 둘레가 거의 5천 리가 된 즉 해방(海防)이 가장 걱정거리이니, 고려 말엽으로부터 임진왜란까지의 일을 보더라도 알 수 있거늘 이제 일이 없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 방비가 허술하다. …… 임진년의 큰 난리는 오히려 전쟁하던 끝에 있었지만, 이제 태평세월이 오래되매 수군을 통솔하는 자들이 군사의 고혈을 짜내어 상부에

25) 하우봉, 「星湖 李瀼의 日本認識」, 『全北史學』 第8輯, 전북대학교 사학회, 1984, 207쪽.

26) 李瀼, 「人事門. 兵備」, 『星湖僊說』 제7권, <http://www.minchu.or.kr>.

바치며 자신의 사복을 채울 뿐이다.²⁷⁾

여기서도 보듯이 이익은 조선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해방'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임란의 교훈을 망각하고 있는 세대를 비판하고 있다. 결국 치밀한 내침을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를 '인적=일본'이 상정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익이 “몽·한병(蒙漢兵, 일본침공 당시의 여몽연합군-필자주)이 비록 강성했으나 수전에 익숙하지 못했으므로 불리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러 섬과 연해에 거주하는 어민들은 물에 익숙하지 않은 자가 없으니, 진실로 모집하는 데 좋은 술책만 쓴다면 수군을 즉시 충당시킬 수 있을 것”²⁸⁾이라며 수군 강화방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했던 것도 임란의 기억 때문이었다. 이런 사실은 이익이 이순신에 대해 주목하면서 “임진의 일로 말한다 하더라도 충무공은 큰 공을 세웠어도 형을 받고 귀양 가게 되었다. 진실로 유성룡 같은 이가 맹세코 발탁하지 않았더라면 개천 속에서 굶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 임진년 때 국운을 존속시킨 것은 모두 충무 한 사람에게 달려 있었으니, 마땅히 종묘의 신실(神室)에 종향(從享)시켜 후인을 권장해야 할 것”²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당대의 일본통이라는 이익에게도 임란에서 기인되는 경계심과 적대감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이다. 다만 이익은 임란의 원수를 갚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론을 전개하고 있다. 일례로 이익은 왜란을 진압한 명나라 은혜를 논하면서 쓴 「만력은」(萬曆恩)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임진왜란 때 두 능이 변을 당한 일은 반드시 갚아야 할 원수이고, 만력(萬曆)

27) 李瀾, 「人事門. 水軍」, 『星湖僿說』 VI, 민족문화추진회, 1977, 128쪽.

28) 李瀾, 「人事門. 水軍」, 『星湖僿說』 VI, 민족문화추진회, 1977, 129쪽.

29) 李瀾, 「經史門. 忌功」, 『星湖僿說』 제23권, <http://www.minchu.or.kr>. 이익은 무성왕묘(武成王廟) 사당 건립을 주장하는 글에서도 이순신 배향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李瀾, 「人事門. 武成王廟」, 『星湖僿說』 제8권, <http://www.minchu.or.kr>. 이익은 명나라 장수 양호(楊鏞)를 기리는 글에서도 “임진 중흥의 공은 오직 이 충무공 한 분일 따름”이라고 쓰고 있다. 李瀾, 「經史門. 楊鏞」, 『星湖僿說』 제25권, <http://www.minchu.or.kr>.

연간에 군사를 보내 구원해 준 은혜는 만세까지 잊기 어려운 덕이지만, 원수는 이미 흔적이 없고 은혜는 갚을 길이 없다. …… 저 왜놈을 복수하는데 있어서는 그래도 할 말이 있다. 원흉의 머리를 이미 베었고 남은 족속들은 허물을 고쳤으니, 오랜 세월이 흐르면 무기를 풀고 백성을 쉬게 할 수도 있다.³⁰⁾

여기서도 보듯이 이익은 임란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야 할 원수’라고 칭하면서도 ‘원수는 이미 흔적이 없고’ ‘남은 족속들은 허물을 고쳤으니’ 후손에 대한 보복의 불가함을 설파하고 있다. 이익의 관심은 보복보다는 오히려 “친목을 중히 여겨 감정을 풀고 정성”을 다 하는 교린에 있었다.³¹⁾ 그러나 이러한 교린중시와 보복불가론이 임란의 망각을 권면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그의 교린중시와 보복불가론은 형세론적 판단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이익은 「만력은」 말미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는 것이다.

강약을 헤아리지 않고 함부로 거센 적과 부닥쳐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국가가 멸망하기에까지 이른다면, 이것이 어찌 이치라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들이 밥을 먹고 사는 것도 왜와와 화친한 힘이 관여되어 있지 않다고는 못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봤을 때, 일본에 대한 가장 객관적 이해에 도달했던 이익에게도 교린중시와 보복불가론은 현실문제를 감안한 형세론적 판단 때문이었으며, 대일 인식의 기저에 적대적인 경계심이 흐르고 있던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보인다.³²⁾

30) 李瀾, 「人事門. 萬曆恩」, 『星湖僿說』 제12권, <http://www.minchu.or.kr>.

31) 임란 후 150여 년이 지난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는 대일 적대심과 주자학적 화이 의식이 고수되고 있었지만, 이익은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안목으로 일본의 실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임란의 구원을 갚는 것보다 현실적 입장에서 일본과 교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는 평가가 있다. 하우봉, 「星湖 李瀾의 日本認識」, 『全北史學』 第8輯, 전북대학교 사학회, 1984, 207~208쪽. 하우봉, 『조선시대 한국인의 일본 인식』, 혜안, 2006, 51~52쪽.

32) 학문적으로 이익에게 사사를 받았던 안정복(1712-1791)의 일본연구 동기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익의 일본인식과 더불어 1700년대 후반의 기록으로 흥미를 끄는 자료는 제주사람 장한철이 남긴 『표해록』³³⁾이다. 제주는 임란과 무관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전국의 여타 지역과는 달리 유일하게 임란의 참상이 기록되지 않은 지역이다. 그런 제주 출신의 인물이었지만, 그는 『표해록』에서 '일본은 원수이니 하늘 아래 같이 할 수 없다'는 격렬한 적대감을 기록하고 있다. 이 적대감은 장한철이 임란의 기억을 반추하며 "왜놈이여, 왜놈이여, 마땅히 참할 만하구나. 사람들이 천 번이라도 그 칼로써 마땅히 찌를 만하구나. …… 왜놈이란 종자는 사람에게 터럭만한 이로운도 주지 못하고, 그 해독으로 말하면 … 하늘이 어찌 이런 종자를 만들어내었을까."라고 기록하고 있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³⁴⁾

한편 장한철은 안남(安南)의 명나라 유민출신 상인의 구조를 요청하는 상황에서도 임란 당시 명나라의 '황은과 재조지은'을 거론함과 동시에 양국

정치적·군사적인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실용적 목적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하우봉, 『조선시대 한국인의 일본인식』, 해안, 2006, 233쪽. 이는 안정복이 조선 경계에 대해 논하면서 "바닷길로 말하자면 왜와 서로 접하여 있는데 동남의 연해가 가장 가깝다. 저들의 대마도·일기도·옥람도(玉藍島)·平戶島 등의 섬 및 西海 九國의 땅은 모두 바람에 뜻을 달면 하루나 2, 3일의 노정이요, 隱岐·伯耆 등 여러 州는 강원도의 동해와 역시 3, 4일의 노정에 불과하다. 그러니 만약 그들과 화친이 깨진다면 3면의 연해가 모두 그해를 받게 된다."고 지적한 것이나, 이익에게 보낸 서신에서 "우리나라가 비록 海外偏邦이라 하지만 실은 사면으로 외적을 받는 땅입니다. …… 왜인은 노략질하여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니 고려 말에 동·북도가 항상 그 피해를 받았습시다. 지금 들으니, 동해의 수심이 점점 낮아지므로 고기잡이 왜인들이 대부분 우리 동해로 나와 울릉도 같은 데는 이르지 않을 때가 없다 합니다. 근년에 대마도 왜인이 蓼士장을 열기를 청할 때에도 '당신네가 만일 허락해주지 않으면 당신네 동해를 건너가 강원도와 북도에서 삼을 캐겠다' 하 였다니, 이 일 또한 염려됩니다."고 쓴 데서도 엿볼 수 있다. 安鼎福, 「東國地界說 戊寅年」, 『順菴先生文集』 제19권, <http://www.minchu.or.kr> ; 安鼎福, 「東史問答 戊寅年(1758)」, 『順菴先生文集』 제10권, <http://www.minchu.or.kr>.

33) 『표해록』은 1770년에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제주에서 배를 탔다가 폭풍으로 표류해 1771년에 귀국할 때까지의 경험을 한문으로 엮은 중편 기록이다.

34) 장한철 지음·정병욱 옮김, 『표해록』, 범우사, 1979, 62~63쪽. 한편 임란 전말을 그린 대표적인 기록물 가운데 하나인 『임진록』에 등장하는 譯官 홍순원에 얽힌 민담은 임란의 피해와 무관한 제주지역에서조차 설화로 내려오고 있다. 백록어문학회, 「北濟郡 涯月邑 今德里 現地學術調査報告(1995.8.3~8.6)」, 『白鹿語文』第12輯,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96.1, 330~332쪽.

관계의 친밀성에 호소하고 있다.³⁵⁾ 이는 임란의 기억과 연동되는 대일 적대감이 임란 무풍지대였던 제주지역에까지 유포되어 있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대일 적대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던 실상을 반증하는 자료라 할 것이다.

이처럼 임란으로부터 150년을 전후하는 1700년대 중후반 시점에서도 임란 기억과 연동되는 대일 적대감은 여전히 온존되고 있었다. 1700년대 말 정조(正祖, 1752~1800)의 이순신 현양사업은 이러한 대일 인식의 전면적인 표현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이순신에 대한 현양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때는 정조대에 들어서이다. 1778년(정조 2)에는 『이순신사적』(李舜臣事蹟)이 승정원(承政院)에서 편찬·등사되어 정조에게 제공된 바가 있었고, 1795년(정조 19)에는 '충무공 이순신의 탁월한 공적과 충절'을 평가하여 신도비명(神道碑銘)을 친히 지을 정도였다.³⁶⁾ 정조의 명에 의한 『충무공이순신전서』(忠武公李舜臣全書)의 발간은 이순신 현양사업의 완결판이기도 하다.³⁷⁾

이처럼 정조가 이순신에 대한 주목할 만한 현양사업을 활발히 전개했던 것은 “이순신의 경우는 참으로 천고 이래의 충신이요 명장이다. …… 임진왜란 때 왜구를 토벌한 공로는 백세토록 영원히 그 덕택을 입고 있고, 변방의 방비를 기획하는 데 방략(方略)이 두루 갖추어져 있으며, 그의 명성과 의열은 아직도 사람에게 능연히 흠모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는 이순신 인식과 평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³⁸⁾

이러한 이순신 인식과 평가는 신도비명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우선 정조는 이순신의 전공에 대해 서술한 다음 “8년 동안을 싸웠다 하면 반드시 이기고, 지키던 곳은 반드시 끝까지 지켜서 나라 형세가 그에 의하여 좌우되고, 적의 예봉이 그에 의하여 꺾이어 전 국토에 굴을 파 놓고 출몰하던 교활한 오랑캐들이 끝내 저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35) 장한철 지음·정병욱 옮김, 『표해록』, 범우사, 1979, 67~68쪽.

36) 『正祖實錄』 42卷, 19年 5月 11日(辛酉).

37) 『正祖實錄』 43卷, 19年 9月 14日(壬戌).

38) 正祖, 「日得錄十三. 人物 三」, 『弘齋全書』 제173권, <http://www.minchu.or.kr>.

열조(烈祖)로 하여금 중흥의 공을 이룰 수 있게 뒷받침한 것은 오직 충무공 한 사람의 힘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충무공에게 특별히 명(銘)을 하지 않고 누구에게 할 것인가.”라며 이순신의 공열에 대해 극찬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⁹⁾ 다음 시에서도 보듯이 이러한 이순신에 대한 현양은 임란의 기억과 여전한 대일 경계심에 기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큰 난리가 일어나면 인걸이 때에 맞추어 일어나니, 이성(李成)은 당나라 사직을 안 정시켰고 제갈량은 한의 왕실을 회복했네. 천백 년이 지난 뒤에 이들의 공을 하나로 합한 사람이 있어 섬 오랑캐의 흉한 기세를 진정시켰으니, 때는 바야흐로 임진년이었네. …… 술은 민수(漚水)와 같고 안주는 큰 언덕과 같으니, 취하도록 마시고 배부르게 먹어서, 큰 강에 영험을 떨쳐 저 오랑캐의 자취를 말끔하게 씻으소서.⁴⁰⁾

여기서도 보듯이 임란 기억과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순신에 대한 추념, 그리고 ‘오랑캐의 자취를 말끔하게 씻으소서’라는 적대적 대일 경계심은 임란 20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더욱 선명하게 기록이 되고 있었다. 정조의 이런 각별한 임란 기억은 임란 200년이라는 기념비적인 시점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임란 이후 지속되어 왔던 기억의 계승이기도 하다.

이처럼 1700년대 기록에서 발견되는 대일 경계심과 적대심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실학자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나타난다. 정조의 깊은 신뢰를 받았던 조선후기 실학자 이덕무(李德懋)의 경우는 그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이덕무는 양국의 평화가 200년 가까이 지속되던 1793년 「비왜론」(備倭論)에서 대일 경계심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일본은 교활하고도 사나운 우리나라의 강한 이웃인데, 하이(蝦夷)를 능멸하고 홍모(紅毛)를 농락하여 오직 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게 했으니 호랑이에 다 날개를 붙인 셈이다. 천하의 사변은 무궁하고 환란은 경홀한 데에서 생기는

39) 正祖, 「碑. 忠武公 李舜臣 神道碑銘 并序」, 『弘齋全書』 제15권, <http://www.minchu.or.kr>.

40) 正祖, 「祭文四. 鄧總兵子龍 追配康津縣陳都督祠 致祭文」, 『弘齋全書』 제22권, <http://www.minchu.or.kr>.

것이니 평상시의 무사할 때에 헤아리지 않을 수 없으며 ……⁴¹⁾

이러한 일본인식의 이면에는 이덕무가 고려시대 이래의 왜구 침략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이덕무가 「비왜론」에서 “동해에는 옛날부터 변방의 걱정이 없었다. …… 문종(文宗) 이후로부터는 왜구가 비로소 일어났지만 피해는 영남의 해안에 그쳤고, 충선왕 때에는 왜의 침범이 호남의 군산도·추자도 등까지 이르렀고, 충정왕 때에는 왜의 침범이 경기의 삼목도(三木島)·자연도(紫燕島) 등까지 이르렀으며, 공민왕 때에는 서해(西海, 황해도의 鳳山)와 관서(關西, 평안도의 선천)까지 이르렀다.”⁴²⁾는 여말 이래 왜구의 침략경로에 대한 상세한 서술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덕무는 왜구의 침략사를 망각하지 않고 있었으며, 여기에 더해 다음에서도 보듯이 대일 경계심의 이면에 임란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덕무는 일본역사에 대해 기술한 「청령국지」(蜻蛉國志)에서 “수길(수길)이 명나라를 범하려고 조선에 침구(侵寇)한 죄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수길(수길)이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를 죽이고 그 자리를 빼앗았다고 조선 사람들이 배척하여 말하는 것은 착오”⁴³⁾라고 쓰고 있다. 이덕무는 풍신수길과 織田信長의 관계에 대한 조선사회의 오해를 규명하면서도 동시에 임란은 ‘용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덕무는 풍신수길이 건립한 대불사(大佛寺)에 대한 언급에서는 “절 곁에 둘레가 1백 20칸이고 높이가 5칸인 이총(耳塚)이라는 것이 있는데, 조선에서 얻은 사람의 귀와 코를 묻은 곳”이라고 쓰고 있으며, 풍신씨(豐臣氏)의 멸망을 다룬 글에서는 “신종황제(神宗皇帝)가 동정(東征)한 일은,

41) 李德懋, 「編書雜稿四. 兵志備倭論」, 『靑莊館全書』 V, 민족문화추진회, 1980, 135쪽.

42) 李德懋, 「編書雜稿四. 兵志備倭論」, 『靑莊館全書』 V, 민족문화추진회, 1980, 132쪽.

43) 李德懋, 「蜻蛉國志一. 人物」, 『靑莊館全書』, 민족문화추진회, 1977, 87쪽. 이 문제에 대해서는 『增正交隣志』에도 “1588년에 평수길(平秀吉)이 원씨(源氏)를 시해하고 왕위를 찬탈하였다.”고 쓰고 있다. 金健瑞, 「接待對馬島人新定事例」, 『增正交隣志』, 민족문화추진회, 1998, 10쪽.

조선에 있어서는 재조의 은혜가 되고 명나라에 있어서는 천하에 군림하는 체모를 얻었으니, 아아! 훌륭하다.”⁴⁴⁾고 평하고 있듯이 임란의 기억은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덕무의 임란 기억과 대일 경계심은 이처럼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1700년대 말엽의 기록에서 보이는 적대적인 대일 경계심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1600년대 초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강력하고 안정적인 무사정권이 수립된 이후, 조선의 연안에는 과거와 같은 왜구의 침탈은 발생하지 않았다. 중앙의 통제력이 확립되고 1621년 7월에는 일본 전국에 해적행위를 금지하는 조치가 발령되어 그 활동거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1700년대 말엽은 해적금지령으로부터 170년이 경과하는 시점으로서 왜구는 물론 임란에 대한 증오심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시간이 경과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란으로부터 200여 년, 해적금지령으로부터 170여 년에 걸친 평화로운 시대⁴⁵⁾가 무의미할 만큼 적대적인 대일 경계심은 해소되지 않고 있었던 셈이다. 게다가 이러한 일본인식은 1800년대에 들어서면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4. 19세기 이후 조선시대의 대일 적대감

앞서 본 실학자 이덕무에게서 보이는 일본인식은 조선후기의 또 다른 실학자 한치윤(韓致彞, 1765~1814)의 『해동역사』(海東輿史)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해동역사』 안에는 「교빙지」라는 주제 하에 ‘왜와 통하는 해로’ 항목이 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교빙’이라는 외교적 수사를 무색하게 할 만큼 일본의 침략을 경계하는 의식이 도처에 기록되어 있다.

44) 李德懋, 「蜻蛉國志一. 人物」, 『靑莊館全書』, 민족문화추진회, 1977, 92~93쪽.

45) 이에 대해 이공익은 “지금 이와 같이 오래도록 태평하게 지내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우리나라가 하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실로 신라와 고려에 비할 바가 아니다.”고 쓰고 있다. 李肯翬, 「邊圉典故. 倭國」, 『練藜室記述』, 민족문화추진회, 1967, 437쪽.

일례로 규슈지방에 이르는 해로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만약 지금 쳐들어 온다면 반드시 이 길을 경유할 것”이라는 기술을 비롯하여, 동래의 다대포에서 추자도에 이르는 남해안 일대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이것이 전라도로 침범해 들어오는 익숙한 길”이며 “이것이 또 영남의 연해로 침입해 들어오는 지름길”이라고 쓰고 있다.⁴⁶⁾

한치윤은 양국을 잇는 해로는 왜적의 통로라는 인식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따라서 결론에 이르러서도 “그들은 악독한 마음을 돌리지 않고 사나운 심성으로 항상 침범하기를 도모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수로가 경유하는 길을 대충 서술하였으니, 바다를 방비하는 계책에 도움이 있을 것이다.”고 마무리 지을 정도였다.

이러한 적대적인 대일 경계심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 정약용(丁若鏞, 1762~1836)에게도 공유되고 있었다. 정약용은 그의 대표적인 저서 『경세유표』(經世遺表)(1817년)에서 조선을 일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정약용은 병선(兵船)제도와 관련된 논의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살피건대, 우리나라 전선(戰船)은 만력 임진란 이래 수영(水營) 한 곳에 거느린 배가 적어도 200여 척 이하는 되지 않으며 양서(兩西)에는 이보다 조금 적었는데 이것은 곧 비상시에 대비한 것이었다. 그러나 차항(汊港)에 대어놓고, 모래 위에 끌어올려서 전혀 운용하지 않으면서 변고(變故)를 대비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다. …… 오직 전선(戰船)이라는 것은 제도가 투박하고 커서 운용하기에 불편한데, 혹 이순신의 남긴 법이 본디 이와 같이 투박한 까닭으로 가벼운 왜선이 부딪치면 부서졌던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에 깎아서 약하게 할 수 없다. …… 배 만드는 공장 가운데 수십 명을 항상 수군에 예속시켜서 누료(廩料)를 주고 수용하다가 급한 경보가 있을 경우 즉시 장조(裝造)하도록 한다면 또한 미치지 못할 염려가 없을 것이다.⁴⁷⁾

46) 韓致勳, 「交聘志八, 附 通倭海路」, 『海東釋史』 卷第四十, <http://www.minchu.or.kr>.

47) 丁若鏞, 『經世遺表』 I, 경인문화사, 1977, 180~181쪽. 정약용은 정조의 전선대책을 묻는

정약용에게 병선제도의 개혁은 수군의 강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이는 결국 '이순신의 남긴 법'을 거론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급한 경보'의 원인이 되는 일본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이었던 셈이다.⁴⁸⁾ 한편 행정구역 개편을 논의하는 글에서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무남성(武南省). 광주(光州)란 무주(武州)이다. 신라 말부터 항상 큰 진(鎭)이었고, 고려 때에도 또한 그러했다. …… 생각건대, 신라·고려 때에 왜구가 우리 서해를 여러 번 침범했고, 만력 임진년과 정유년 난리에는, 다만 충무공 이순신의 힘을 입어서, 왜적이 울두홍(鬪斗洪)을 넘지 못했다. 만약 그때에 왜적이 이곳을 넘었다더라면 나주 열두 섬이 맨 먼저 뺨과 돼지 같은 놈들의 먹이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여러 섬에 성 하나, 보(堡) 하나 없으니 우리나라 서남해의 방어는 허술하다 할 수 있다. 바빠 한 현을 설치해서 그 침입을 막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다. …… 황서성(潢西省). 생각건대, 하동은 잔수(潺水) 동쪽에 있어, 서쪽으로 섬진강만 건너면 곧 광양(光陽)에 닿아 전라도에 통한다. 여기도 관방할 곳이니 곤양을 합병해서 한 군으로 함이 마땅하다. 곤양 남쪽, 남해 어구에 노량보(露梁堡)가 있는데 여기가 이순신이 왜적을 막던 곳이다. 곤양 남쪽 두어 마을을 노량에다 연속시켜서 그 힘을 굳세게 함도 또한 마땅한 바이다.⁴⁹⁾

정약용의 행정구역 개편구상도 결국에는 병선제도 개혁과 마찬가지로 입란

전교(1796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천하만국에 모두 水戰이 있는데, 별도로 큰 배를 건조해서 전선이라 부르면서 진흙과 모래에 올려놓고 오랜 세월 동안 움직이지 않는 이런 짓은 진실로 고금 서적에도 보지 못한 바이다. …… 당초 전선을 설비한 것은 반드시 왜구가 있었던 다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침저녁으로 적변(賊變)에 대비해서 적이 눈앞에 있는 듯했습니다. 까닭에 그 법제를 엄중하게 해서 목적하는 곳에 대어놓고, 촌보(寸步)도 감히 이동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 도적 경계는 미리 나타나는 조짐과 먼저 들리는 소문이 없지 않았습니니다. …… 비록 임진년 사변으로 말하더라도 온 나라가 걱정하기 두어 해를 지난 다음에 임진란이 일어났으니, 걱정 없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丁若鏞, 『經世遺表』Ⅲ, 경인문화사, 1977, 382~388쪽.

48) 정약용은 이순신의 귀도명(鬼刀銘)에 대해 쓰면서도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丁若鏞, 「李忠武公鬼刀銘」, 『茶山詩文集』 제12권, <http://www.minchu.or.kr>.

49) 丁若鏞, 『經世遺表』Ⅰ, 경인문화사, 1977, 239, 256, 258쪽.

기억과 상호연동되는 일본 대비책을 염두에 두고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⁰⁾ 이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였던 정약용도 실학자 이익이나 이덕무·한치윤과 마찬가지로 적대적인 대일 경계심을 망각하고 있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자료라 할 것이다. 실학자들은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화이론적 대일 이적관에서는 탈피하고 있는 반면에 현실주의적인 측면에서 임란 기억과 연동되는 적대적인 대일 경계심은 오히려 선명하게 의식된 면도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조선 후기의 이러한 일본인식이 공유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술한 바와 같이 1860년에 임란 '원수'에 대한 복수심을 담은 최제우의 「안심가」가 작사되기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본인식의 구도는 1880년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됐던 예조참의 김홍집(金弘集)이 주일 청국 참찬관 황준헌(黃遵憲)으로부터 입수해서 들여온 『조선책략』(朝鮮策略)을 둘러싼 대립에서도 드러난다.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한 '친중국(親中國)' '결일본(結日本)' '연미국(聯美國)' 책략, 특히 '결일본'에 대해 조선사회에는 다양한 비판이 존재했다.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여론은 '결일본' 비판론이 어디서 비롯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풍신수길에 명목없는 전쟁을 일으킨 뒤로 우리 변경을 뒤흔들고, 우리 성곽을 짓몽개고, 우리 인민을 독해(毒害)하였는데, 명나라 군사가 공격하여 지켜 줌으로써 비로소 물러갔고, 근년에는 일본이 태도를 변하여 서쪽으로부터 나타나서 새매나 독수리처럼 노려보고 있으니, 더욱 그 의중을 헤아릴 수 없다. … 그들과 친밀해지는 것은 문을 열고 도적을 맞아들이는 것과 무엇이

50) 정약용은 일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日本今無憂也' 및 '日本之無可憂') 주장을 펼치고 있다. 丁若鏞, 「日本論一」·「日本論二」, 『茶山詩文集』 제12권, <http://www.minchu.or.kr>. 丁若鏞, 「對策」, 『茶山詩文集』 제8권, <http://www.minchu.or.kr>. 이런 정약용의 대일 '無憂'·'無可憂'론은 일본의 객관적 정세변화를 감안한 시세론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며,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대일 인식의 변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일례로 정약용은 정조의 지리학 질문(1789년 윤5월)에 대한 답변 가운데 "울릉도와 손죽도(損竹島) 등을 빈 섬으로 방치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 수로가 일본과 가까이 인접해 있으므로 만일 교활한 왜인들이 몰래 와서 울릉도를 먼저 점령해 버린다면 이는 국가의 큰 걱정거리"라고 답함으로써 불식되지 않는 대일 경계심을 피력하고 있다. 丁若鏞, 「對策」, 『茶山詩文集』 제8권, <http://www.minchu.or.kr>.

다르겠는가?⁵¹⁾

풍신수길의 일으킨 '명목없는 전쟁'인 임란의 기억은 여전히 강렬하게 작동되고 있었던 증좌이며, 이 때문에 '결일본'은 '문을 열고 도적을 맞아들이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책략」을 전면적으로 비판한 이만손(李晩孫)의 「영남만인소」(嶺南萬人疏)에도 대일 비판의 기저에는 역시 임란의 기억이 작동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삼포왜란의 지난 일이 어제 같고 임진왜란의 숙원이 가시지 않았아온데, 그들을 이미 우리 관문의 좁은 목과 땅의 험하고 평탄함을 잘 알고 수록요충을 점령하였나이다. 그들은 본래 우리 종족이 아니므로 그 마음 또한 반드시 다를 것이옵나이다.⁵²⁾

한편 「조선책략」을 둘러싸고 상소가 빗발치던 1882년 5월 충청도 유생 백낙관(白樂寬)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왜놈은 임진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돌아간 뒤에 원망을 품어 계속해서 칼을 갈며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 선조(宣祖) 중년에 또 대규모로 침입해 들어올 징조가 있었으므로 이이와 조헌 등은 다 같이 예비 대책을 취할 것을 진술하였으나 조정에서 쓰지 않는 까닭으로 임진년에 와서 풍신수길의 백만이나 되는 무리로 바다를 뒤엎으면서 몰려와 우리의 궁실을 불살랐고 능침을 욕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 일본과 우리나라는 백대의 원수로 처음부터 결속할 수가 없습니다.⁵³⁾

51) 黃遵憲, 「私擬 朝鮮策略」, 黃遵憲 原著·趙一文 譯註, 『朝鮮策略』, 建國大學校出版部, 1977, 15쪽.

52) 黃遵憲, 「私擬 朝鮮策略」, 黃遵憲 原著·趙一文 譯註, 『朝鮮策略』, 建國大學校出版部, 1977, 97쪽.

53) 『高宗實錄』 19卷, 19年 5月 4日(己丑). 백낙관은 1879년 12월의 「斥和疏」에서도 일본은 임란 이래 '百世讐'라며 일본의 침략성을 상기시키고 있다. 金祥起, 「南塘學派의 형성과 衛正斥邪運動」,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0집, 한국근현대사학회, 1999.6, 31쪽.

「조선책략」을 둘러싼 이상과 같은 당시의 반응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임란의 기억과 대일 '원수'론은 연동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었고 이러한 적대감의 저변에 대일 경계심이 수반된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이처럼 조선사회에 뿌리를 내린 적대적 일본인식은 1881년 일본에 파견됐던 조사시찰단(朝土視察團, 일명 신사유람단)의 일원이었던 이현영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현영은 외무경(外務卿)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와의 문답에서 양국간의 외교관계가 진척되지 않는 배경에 대해서 “만약 수백 년 전의 일을 미루어 생각한다면 또한 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직도 따르고 믿지 않아서 급하게 개화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다.⁵⁴⁾

여기서도 보듯이 당시 조선사회의 일반적인 대일 정서는 깊은 '의심'이었고, 이러한 정서가 '수백 년 전의 일'이었던 임진왜란의 기억에 기반하고 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⁵⁵⁾ 이처럼 대일 적대감을 야기하고 있었던 임란의 기억은 임란 30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든 변함없이 있었다. 1890년대를 전후하여 조선사회에서 임란이 어떤 방식으로 기억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이는 자명해 진다. 1892년 고종은 대신들을 소견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하교를 내리고 있다.

선조(宣祖)께서는 옛날 임진왜란을 당하여 8년 동안 정치가 혼란되어 나라의 운명이 위기일발의 순간에 처했으나 뛰어난 무예로 나라 안의 외적을 깨끗이 숙청하고 우리나라를 다시 살려내어 우리에게 억만 년 무궁한 터전을 마련해 주셨으니, …… 옛 선대 임금을 돌이켜 그리는 나의 마음은 더욱 다른 해보다

54) 이현영, 「日槎集略」, 『海行摠載』, 민족문화추진회, 1977, 155쪽. 이현영과 같은 조사시찰단원이었던 어윤중(魚允中, 유길준·윤치호의 수행)도 외무경을 역임했던 副島種臣로부터 “조선인들이 지금도 임진란을 遺恨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물론”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金泰俊, 「日本에서의 李忠武公의 名聲」, 『明知語文學』 제10호, 명지어문학회, 1978, 69쪽.

55) 임란 이후 조선 말기 개항기에 이르기까지 1629년에 있었던 단 한 차례의 대마도 사절 상경을 제외하고는 일본인의 상경이 일체 허락되지 않았던 것도 이러한 적대적 대일 경계심 때문이라 할 것이다. 孫承喆, 『近世朝鮮의 韓日關係研究』, 國學資料院, 1999, 35쪽.

곱질 더 간절하다.⁵⁶⁾

고종은 구한말의 혼미한 정국에서 '위기일발의 순간'이었던 임진왜란을 화두로 꺼내고 있으며, 이를 평정하고 위난에 처한 조선을 다시 살려낸 선조에 대한 '간절'한 추념을 강조하고 있다. 고종이 간절하게 '그리는' 군주상은 선조가 지냈던 임란 극복의 영도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종이 선조 대왕(宣祖大王)에게 존호(尊號)를 추상하는 경사를 기념하는 사령(赦令)만 포 석상에서 밝힌 임란에 대한 기억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명나라의 구원병이 평양성에서 적의 예봉을 꺾었을 뿐 아니라, 종사의 음덕으로 우리 수군이 한도(閑島)에서 남은 왜적을 소탕하였으니, 8년 동안 옮겨 다니시며 온갖 고초를 겪으시던 끝에 왜란이 종결되어 다시 평화로이 지내시게 되었다. …… 지금 왜란 후 다섯 번째 되는 임진년을 맞이하였다. 선왕을 추모하는 마음은 더욱 간절하기만 하니 300년이 결코 먼 세월이 아니로다.⁵⁷⁾

여기서도 보듯이 고종은 평양성 탈환과 이순신의 한산대첩에 대한 선명한 임란의 기억을 환기시키고 있으며, 이 때문에 300년이 '결코 먼 세월'이 될 수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정의 대신들도 고종의 인식과 다를 바가 없다. 고종과 마찬가지로 조정의 대신들도 300년 전의 임란을 망각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으며, 선조에게 존호를 추상해야 하는 이유도 임란 극복의 '큰 업적'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⁵⁸⁾

1876년 강화도수호조약 이후의 위정척사론을 비롯한 1880년대 이래의 일본 배척운동의 근거에는 한결같이 임란의 기억과 연동되는 적대적 대일인

56) 『高宗實錄』 29卷, 29年 1月 29日(己丑).

57) 『高宗實錄』 29卷, 29年 5月 2日(己未).

58) 『高宗實錄』 29卷, 29年 2月 17日(丙午).

식이 작동되고 있었고,⁵⁹⁾ 최익현이 을사보호조약 직후인 1906년에 의거를 촉구하는 격문에서 “이적(夷狄)의 화가 어느 나라엔들 없었을까마는 그 어느 것이 오늘날의 왜놈과 같겠는가? …… 저 도적 일본은 실로 우리 백세(百世)의 원수이다. 임진년의 흉사에 이릉(二陵)의 화는 말할 수 없고, 병자년의 수호조약은 한갓 외이(外夷)가 우리를 엿보는 것을 인도했을 뿐이다”⁶⁰⁾며 강렬한 대일 적대감을 드러냈던 것도 이러한 대일인식이 투영된 결과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대일 인식구도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주목할 자료는 한일 합방을 주도한 일진회(一進會) 회장 이용구(李容九)의 기록이다. 공교롭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구도 일치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일한합방성명서(日韓合邦聲明書)」(1909.12.4)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고려가 원나라 군사를 이끌고 일본을 침략하고 그 변경 백성들을 살육하였을 때에 변경 백성들이 화가 나서 복수한다고 하면서 사사로이 전선을 정비하여

59) 개항 이후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서 아래 연구자들은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일본의 침략행위, 특히 왜구의 침입과 임진왜란” 혹은 “그 기저에는 삼포왜란이나 임진왜란이라는 대일관계의 쓰라린 경험”이 있었다고 포괄적인 영향을 적시하고 있다. 배항섭, 「개항기(1876-1894) 민중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과 대응」, 『역사비평』 계간27호, 역사비평사, 1994, 218~219쪽. 姜大德, 「開港前後 華西學派의 對外認識-1860~1880년대의 尊攘衛斥論과 斥攘斥倭論 分析에 의한 접근-」, 『韓日關係史研究』 5, 한일관계사학회, 1996, 130~131쪽. 특히 배항섭은 부정적인 정서의 실체에 대해 “적대감이라기보다는 …… 왜에 대한 전통적인 비하 등의 분위기에 따라 경멸과 멸시감이 주조”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배항섭, 「개항기(1876~1894) 민중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과 대응」, 『역사비평』 계간27호, 역사비평사, 1994, 220쪽.

60) 崔益鉉, 「倡義檄文」(1906.윤4.13), 『勉菴集』 II, 민족문화추진회, 1978, 231~232쪽. 최익현은 이어지는 격문에서도 “중세에는 이릉(二陵)의 치욕을 겪었는데도 오히려 꼭 갚아야 할 원수를 참고 기미(羈縻)로 대우해 주었으니 ……”라고 쓰고 있다. 崔益鉉, 「再檄文」, 『勉菴集』 II, 민족문화추진회, 1978, 235~236쪽. 한편 최익현은 앞의 「倡義檄文」보다 앞선 창 의 상소(1906.윤4.11)에서도 “왜놈들은 어차피 마음과 행실이 짐승 같은 오랑캐이니 실로 人道로써 책망할 바도 못 되지만, …… 신도 마땅히 달게 죽음을 받아 사나운 귀신이 되어 원수인 오랑캐를 쓸어 없앨 것이며 맹세코 놈들과 더불어 같은 하늘 아래에 살지 않을 것”이라고 격렬한 반일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崔益鉉, 「倡義討賊疏」(1906.윤4.11), 『勉菴集』 I, 민족문화추진회, 1977, 236~237쪽.

가지고 중국 연해를 침략하여 우리나라도 또한 해마다 그 여독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왜구가 있기 시작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지로 왜적을 배척하는 풍조가 일어난 것은 임진전쟁 이후부터입니다.⁶¹⁾

한일합방 직전의 시점에서 '왜적을 배척하는 풍조가 임진전쟁 이후부터'라는 인식이 친일매국의 상징적 인물인 이윤구조차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이는 그만큼 임란의 기억이 조선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결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도 보듯이 19세기 후반은 물론이고 20세기 초두에 들어서도 무려 300년 전의 과거사인 임란을 망각하기는커녕 시대적 상황에 조용하여 거꾸로 과거사를 선명하게 기억해 내면서 임란 기억을 매개로 한 대일 적대감이 반추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임란은 그만큼 조선사회의 일본인식에 다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이 조선조정에서도 대일 적대감과 연동되는 임란 기억에 대해서는 특수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은 다음 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

1799년(정조 23)에 편찬된 사훈고(司勳攷)에는 조선왕조 개국공신에서부터 총 22차례에 걸쳐 책훈된 역대 공신들에 대한 상세 기록이 실려 있다. 정조는 이들 공신 중에서도 특히 '드러난 이들'로 相臣으로는 총 8명 중에 양란에서 활약한 유성룡·정철·이항복 등 5명을 들고 있으며, 將臣으로는 총 12명 중에 이순신·권율 등 5명을, 忠節로는 총 6명 중에 김시민 등 3명을 꼽고 있다.⁶²⁾ 임란기 인물이 5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 400년을 대표하는 상신·장신·충절 중에 임란 공신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은 주목할 만하며, 그만큼 조선시대의 지배계급은 임란 기억에 대해서 특수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⁶³⁾

61) 『純宗實錄』 3卷, 2年 12月 4日(陽曆).

62) 『羣書標記 4. 御定 4』, 『弘齋全書』 제182권, <http://www.minchu.or.kr> ; 『雜著 3. 司勳攷 義例』, 『弘齋全書』 제56권, <http://www.minchu.or.kr>.

63) 임란에 대한 각별한 의미 부여는 1871년에 단행된 대원군의 서원철폐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국에 있는 650개 서원 가운데서 존치가 결정된 곳은 사표가 되는 47개소였

5.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사회의 일본인식, 특히 적대적 대일인식은 일정한 구도를 지니고 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대일 멸시감으로서의 화이론적 이적관과는 달리 임란을 경과한 17세기 이후에는 대일 '원수'론에 입각한 적대감이 두드러지게 발견되며, 이런 대일 적대감은 임란의 기억과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식적으로 보면 '임란의 기억=대일 적대감=원수'라는 인식구도는 임란 체험자에게는 물론이고 그 후대의 인물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임란을 기점으로 형성된 적대적 대일인식은 17세기에서 20세기 초반 한일합방을 전후한 시점에 이르기까지 수미일관 유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망각되지 않는 임란의 기억과 뿌리깊은 대일 적대감은 불가분의 연동관계에 있었으며, 임란 기억으로 인해 형성된 적대감은 임란으로부터 300여 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조차 사라지지 않고 강고하게 온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시대 적대적인 대일인식의 형성과정에서 임란이 끼친 영향은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주목을 요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2. 4. 5, 심사수정일 : 2012. 8. 10, 게재확정일 : 2012. 8. 14)

주제어 : 임진왜란, 임란 기억, 조선시대의 일본인식, 불구대천지원수, 대일 적대감, 적대적 대일인식, 반일감정, 文祿慶長の 役

다. 그 가운데 39곳이 조선시대 인물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임란 관련 서원은 30%에 가까운 11곳에 이른다. 『高宗實錄』 8卷, 8年 3月 18日(戊申) 및 3月 20日(庚戌). 기존 서원에 대해서는 李肯翊, 『練藝室記述』 IX, 민족문화추진회, 1967, 270~319쪽.

<ABSTRACT>

A study on Koreans' hostile view of Japan during the
Joseon Period

- With the focus on the period between the Japanese invasion in the
late 16th century and the end of the Joseon Period -

Lee, Kyu-bae

Various studies have been made of Koreans' view of Japan during the Joseon Period. However, the number of such studies pales in comparison to the number of studies of Japanese people's view of Korea; and, notably, the number of studies focusing on Koreans' hostile view of Japan is even smaller. Korean hostility towards Japan has long been regarded as a natural and 'objective' fact, but few studies examining the concrete background to such hostility exist.

This study attempts to shed light on the reality of Korean hostility towards Japan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1592-1598) during the Joseon Period, which remains relatively unexplored. There was some consistency in Koreans' view of Japan, particularly with regard to their hostility, during the Joseon Period. From the 17th century on, the Koreans regarded the Japanese as enemy, contrasting somewhat with their view of Japan in the preceding period, which was characterized by feelings of contempt towards such 'barbarians'. The newly formed hostility towards Japan was closely linked to the collective memory of Japanese invasion at the end of the 16th century. This may be described in the following terms: "The memory of the Japanese invasion in the late 16th century" = "Hostility toward Japan" = "The collective view of Japan as an enemy." Such a mindset was evident even among later generations of Koreans. The hostility felt towards Japan, which formed in the wake of the seven-year war in the late 16th century, persisted in the minds of most Koreans until

the early 20th century, when Japan annexed Korea as a colony.

At that point, the scarcely forgettable memory of Japan's invasion in the 16th century had been inseparably linked to Koreans' deep-seated hostility towards the Japanese for more than three centuries. As Choe Ik-hyeon(崔益鉉), who led a voluntary militia against Japanese colonists in the late 19th century, put it resolutely, Koreans regarded the Japanese as "enemy barbarians" and as people with whom Koreans "could not bear to live under the same sky." In this sense, the impact which the Japanese invasion in the late 16th century had on the Korean people throughout the rest of the Joseon period can be said to have been decisive.

Key Words :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the late 16th century (The "Bunroku Keicho attack" as termed by the Japanese), Koreans' view of Japan in the Joseon Period, an irreconcilable enemy, Korean hostility towards Japan, anti-Japanese sentiment

임진왜란 후 조·일간 국교재개 과정 연구*

방 기 철**

1. 머리말
2. 일본의 국교재개 요청
3. 조선의 探賊使 파견
4. 국교재개와 德川家康 인식
5. 맺음말

1. 머리말

1592년 4월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된 壬辰倭亂은 1598년까지 7년 여에 걸쳐 지속되었다. 전쟁으로 조선의 국토는 전쟁터가 되면서 150만결의 토지가 50만결로 줄어들었다. 국왕이 도성을 버리고 義州까지 피난을 가야만 했고, 景福宮과 昌德宮 등의 궁궐이 불타 사라졌다. 선왕의 묘인 宣陵과 靖陵이 도굴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전사자와 사상자 등 인명피해는 최소 17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일본으로 납치된 被虜人의 수만

* 이 연구는 2012년도 선문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짐.

** 선문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해도 10만 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 전쟁 중 실시했던 軍功이나 納贖 등을 통해 신분제도 역시 흔들리고 있었다. 조선은 일본의 침략을 극복하고 왕조는 유지했지만 사회체제 자체는 완전히 무너졌던 것이다.

전후 조선인들은 일본을 “하늘을 함께 할 수 없는 원수〔不俱戴天之讎〕”· “만세를 함께 할 수 없는 원수〔萬世不共之讐〕”로 규정했고, 九世復讐說 등이 공론화 되는 등 일본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당시 조선의 정서는 일본과의 강화는 언급할 수 없는 하나의 금기처럼 이해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임진왜란 이전과 같은 일본과의 交隣관계 회복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조선침략의 원흉인 도요토미 히데요시(豊信秀吉)가 사망한 후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가 정권을 장악해 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에야스는 조선과의 외교관계 복원을 염원하였다. 또 전쟁 전 조·일관계에 있어 중개자 역할을 수행했던 쓰시마 섬(對馬島)으로서는 경제의 상당 부분을 조선에 의지하고 있었던 만큼, 조선과의 국교재개는 생존과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였다.

조선과 일본은 국교재개에 있어 서로 다른 입장이었지만, 전후 불과 9년 만에 외교관계를 복원했다. 조선과 일본의 국교재개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구체적으로는 조선 정부가 일본의 국교재개 요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피로인 송환의 필요성과 북쪽 女眞族의 침략 가능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 국교재개 과정에서 쓰시마의

1) 일본군이 납치한 조선인 피로인의 수를 일본에서는 대략 2~3만여 명(内藤雋輔, 『文祿・慶長における被虜人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76), 5만 명 이상(山口正之, 『朝鮮西敎史』, 雄山閣, 1967)으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최소 10만여 명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金義煥, 『朝鮮通信使의 발자취』, 정음문화사, 1985; 李元淳, 『壬辰・丁酉倭亂時의 朝鮮俘虜奴隸問題-倭亂 性格 一貌-』, 『朝鮮時代史論集-안(한국)과 밖(세계)의 만남의 역사』, 느티나무, 1993; 李塚衍, 『壬辰倭亂 捕虜實記研究』, 박이정, 1995). 한편 민덕기는 9~14만여 명(『임진왜란 중의 납치된 조선인 문제-被虜人 규모와 기존연구의 검토를 중심으로-』,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景仁文化社, 2005), 최호균은 40만 명 이상의 조선인이 일본에 끌려갔다고 하였다(『壬辰・丁酉再亂期 人命 被害에 대한 계량적 연구』, 『國史館論叢』89, 國史編纂委員會, 2005).

공작이 있었음도 밝혀졌다.²⁾ 이들 연구는 국교재개 과정에서의 쓰시마의 역할과, 조선 정부의 대응이라는 관점에 주목한 것이다. 그 외 강화협상 과정에서 李德馨과 柳永慶의 정책전개 과정이 국교재개의 핵심이었음을 파악한 연구,³⁾ 探敵使로 파견되었던 惟政의 외교활동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⁴⁾ 조·일간 국교재개에 있어 일본에 납치되었다 귀국한 피로인이 일정한 역할을 하였음도 구명되었다.⁵⁾ 또 국교재개를 위해 1607년 파견되었던 回答兼刷還使의 외교활동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⁶⁾

-
- 2) 조선과 일본의 국교재개 과정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구들이 참고 된다. 中村榮孝, 『江戸時代の日朝關係』, 『日鮮關係史の研究』下, 吉川弘文館, 1969 ; 田中健夫, 『鎖國成立期における朝鮮との關係』, 『中世對外關係史』, 東京大學出版會, 1975 ; 三宅英利, 『徳川政権初回の朝鮮通信使』, 『朝鮮學報』82, 朝鮮學會, 1977 ; 柳在春, 『壬亂後 朝日國交 再開와 國書改작에 關한 研究』, 『江原史學』2, 江原大學校史學會, 1986 ; 閔德基, 『壬辰倭亂 以後의 朝·日 講和交渉과 對馬島-交隣·羈縻秩序의 再編을 중심으로-』(1), 『史學研究』39, 韓國史學會, 1987 ; 閔德基, 『壬辰倭亂 以後의 朝·日 講和交渉과 對馬島-交隣·羈縻秩序의 再編을 중심으로-』(2), 『史學研究』40, 韓國史學會, 1989 ; 閔德基, 『朝鮮後期 朝·日講和와 朝明關係』, 『國史館論叢』12, 國史編纂委員會, 1990 ; 李敏昊, 『壬辰倭亂後 朝鮮의 對日外交-國交再開過程-』, 『壬亂水軍活動研究論叢』, 海軍軍史研究室, 1993 ; 孫承喆, 『朝鮮時代 韓日關係史研究』, 지성의 샘, 1994 ; 洪性德, 『壬辰倭亂 직후 日本의 對朝鮮 講和交渉』, 『韓日關係史研究』3, 한일관계사연구회, 1995 ; 洪性德, 『17世紀初 對日政策의 確立過程과 그 性格』, 『全北史學』19·20, 全北大學校史學會, 1997 ; 李薰, 『일본과의 관계』, 『한국사』32, 국사편찬위원회, 1997 ; 이진희, 『朝鮮朝 후반기의 한일관계-새로운 善隣關係 구축을 위해-』, 『되돌아 본 한일관계』, 景仁文化社, 2005 ; 민덕기, 『朝日 國交 재개교섭에 나타난 朝·明·日의 立場과 대응』, 『동아시아세계와 임진왜란』, 景仁文化社, 2010 ; 이계황, 『임진왜란과 동아시아-국교 재개 교섭기를 중심으로-』, 『한일역사의 쟁점2010』 1, 景仁文化社, 2010.
- 3) 김정태, 『임진왜란 직후, 대일강화정책의 성격연구』, 『韓國史』138, 韓國史學會, 2007.
- 4) 金榮作, 『壬辰倭亂 前後의 韓·日 交渉史를 통해서 본 戰爭과 平和의 辨證法-四溟大師의 對日交渉을 중심으로-』, 『四溟堂과 壬亂 및 講和交渉』, 四溟堂記念事業會, 1999 ; 裴奎範, 『四溟大師 惟政의 日本體驗과 布教文學의 指向』, 『古典文學研究』18, 韓國古典文學會, 2000 ; 貫井正之, 『壬辰倭亂 前後의 四溟大師의 對日外交』, 『사명당 유정』, 지식산업사, 2001 ; 仲尾宏, 『松雲大師 惟政과 日·朝復交』, 『사명당 유정』, 지식산업사, 2001 ; 손승철, 『松雲大師(四溟堂) 對日使行의 외교사적 의미』, 『韓日關係史研究』21, 한일관계사학회, 2001 ; 河宇鳳, 『壬亂後 國交再改期 사명당 惟政의 講和活動』, 『歷史學報』173, 歷史學會, 2002 ; 채상식, 『四溟大師의 일본행과 이에 대한 양국의 태도』, 『韓國民族文化』2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6 ; 손승철, 『四溟大師와 韓日關係』, 『江原史學』22·23合輯, 江原大學校史學會, 2008 ; 한태문, 『조선후기 通信使와 四溟堂』, 『語文研究』64, 2010, 語文研究學會.
- 5) 方瑛喆, 『1607년 朝·日간 국교재개시 被虜人의 역할』, 『歷史學研究』42, 湖南史學會, 2011.
- 6) 李敏昊, 『壬辰倭亂後 첫 번째 回答兼 刷還使의 派遣』, 『東西史學』1, 韓國東西史學會, 1995 ;

이들 연구를 통해 임진왜란 후 조·일간 외교관계 복원 과정의 대체적인 모습은 복원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조선 정부가 일본과의 강화를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선이 일본의 국교재개 요구를 받아들임에 있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적 요소, 구체적으로 일본에 대한 시각 변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형편인 것 같다.

이 글에서는 종전과 거의 동시부터 이루어진 일본의 국교재개 요청에 대한 조선 정부의 대응, 조선 정부가 국교재개를 위해 파견했던 탐적사 유정의 일본에서의 행적 등을 통해 조선과 일본의 외교관계가 복원되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조선이 일본의 국교재개 요청을 받아들인 이유 중 하나가 조선인들이 전쟁의 원흉으로 규정했던 히데요시와 달리 이에야스 정권에 대해서는 우호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임을 구명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전후 조일관계에서 국교재개가 가지는 역사적 의의와 조선인의 대일인식의 변화되는 모습도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일본의 국교재개 요청

일본군이 조선에서 한창 전쟁중이던 1598년 6월 8일 히데요시는 단오절 축하 행사 후 胃痛을 호소했다. 히데요시의 병세는 8월 5일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18일 사망하였다. 히데요시 사후 고다이로(五大老)⁷⁾들은 철군을 결정하고, 9월 5일자로 조선에 파견된 장수들에게 철군을 명령함과 동시에 화의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⁸⁾

鄭章植, 「1607年 回答兼刷還使의 刷還과 敵情 探索」, 『日本學報』51, 韓國日本學會, 2002.

7) 히데요시는 전국통일 후 다섯 명의 다이묘(大名)를 선정, 최고 정무기관을 설치했다. 그 구성원은 이에야스, 마에다 도시이에(前田利家), 우키다 히데이에(宇喜多秀家), 모리 데루모토(毛利輝元), 우에스기 카케카쓰(上杉景勝), 고바야카와 다카카게(召早川隆景) 등 모두 6인이었다. 그러나 다카카게 사후 5인이 되어 고다이로라고 부르게 되었다.

8) 洪性德, 1995, 앞의 글 7쪽 참조.

조선내에 있던 일본군은 철군 명령을 받아 고시도키(要時羅)를 명군 진영에 인질로 보냈다. 그러자 명 제독 董一元은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에게 茅國科, 劉縱은 劉万壽과 王建攻, 陳璘은 陳文棟 등을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에게 인질로 보냈다.⁹⁾ 이 때 일본군이 조선이 아닌 명 장수들을 화의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조선의 항전의지가 강했기 때문이었다.¹⁰⁾ 하지만 철군 후 일본은 명이 아닌 외교대상자인 조선 정부에 직접 사신을 파견하여 강화를 요청하였다.

전쟁이 끝난 지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은 1598년 12월 쓰시마는 조선에 사신을 보내 왔다.¹¹⁾ 이 때 조선에 온 쓰시마 사신의 임무가 무엇이었는데는 확실치 않지만, 아마도 국교재개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¹²⁾ 이후 1598년 12월, 1599년 3월과 6월에도 쓰시마는 사신을 파견하여 강화를 요청했다. 1600년에도 유타니 야스케(柚谷彌介)를 조선에 파견하여 국교재개를 요청했지만, 일정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조선 정부로서는 일본 정세의 파악 실패, 국민정서와 현실 사이 딜레마, 명의 간섭 등의 장애요인으로,¹³⁾ 일본과의 국교재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다.

조선과의 국교재개를 위해 일본 중앙정부가 아닌 쓰시마가 조선 정부에 사신을 파견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히데요시 사후 집권한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에 의해 비롯된 대외적 과제를 청산하고, 자신에게 대항하는 세력에 대한 정권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 조선과의 국교재개가 반드시 필요했다. 하지만 먼저 강화를 요청하는 것을 굴욕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때문에 지방세력인 쓰시마로 하여금 조선과의 강화교섭에 나서게 하였던 것이다.¹⁴⁾ 한편 쓰시마로서는 재정의 대부분을 조선과의 무역에 의존하고

9) 中村榮孝, 『日本と朝鮮』, 至文堂, 1966, 198쪽 참조.

10) 中村榮孝, 앞의 글, 253~254쪽 참조.

11) 『宣祖實錄』 卷115, 32年 7月 辛酉.

12) 李敏昊, 1993, 앞의 글, 523쪽 참조.

13) 洪性德, 1997, 앞의 글, 202쪽 참조.

14) 閔德基, 「임진왜란 전후의 東北亞 國際秩序의 변화」, 『사명당 유정』, 지식산업사, 2001, 385쪽 참조.

있었다. 따라서 전쟁 이전과 같이 조선과의 무역 및 통상의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일간 국교의 정상화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이에야스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 조선에 대해 국교재개를 강하게 요구했던 것이다.

국교재개 요구에 대해 조선 정부가 거부 의사를 보이자, 쓰시마는 피로인 송환과 함께 조선에 대한 재침 가능성을 흘리는 강온양면책을 전개하였다. 즉 피로인을 송환하여 조선 정부의 환심을 사는 한편, 만약 강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본의 재침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통해 조선을 압박함으로써 국교재개를 이루려 했던 것이다.

일본군 철수 후 조선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일본의 재침여부였다. 일본이 국교재개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조선내에서는 일본군이 재침할 것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는 상태였다.¹⁵⁾ 조선 정부는 명과 일본에서 돌아온 피로인들로부터 히데요시 사후 이에야스가 정권을 장악한 사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에야스에게 조선을 공격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조선과 교린 관계 회복을 원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형편이었다. 일본에서 돌아 온 피로인들 중 鄭希得·玉信辨·黃大成·金大函 등은 일본이 침략할 것이라는 소문은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반면 魯認·張番石·文億守·朴彦璜 등은 일본의 재침가능성을 인정하였다.¹⁶⁾

전후 조선은 일본과 국교를 단절했던 만큼 일본에서 귀국한 피로인들에게 대일정보의 상당부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피로인들마저도 일본의 재침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조선 정부로서는 보다 명확한 정보가 필요했다. 그 결과 조선 정부는 1600년 軍官 金達, 校生 朴希根, 通事 李希萬 등을 쓰시마에 파견하여 일본의 정세를 파악토록 했던 것이다.¹⁷⁾

15) 『瓊尾錄』第七, 己亥日錄 7月 24日

且聞倭賊刷還我國人十餘 因言前日所送請和使至今不來 汝國若不卽送 卽明年二月舉兵復來云 因刷還人 聞秀吉既死 其子嗣位 年纔八歲 與秀吉同姓者攝政 威權震於賊中 清正以下皆俯伏聽令 其兵雖已渡海 而尙未罷散 日日鍊習 爲明年二月大舉入寇之計無疑云 極可慮也.

16) 方琪楛, 앞의 글, 53~55쪽 참조.

17) 『宣祖實錄』卷126, 33年 6月 丙戌.

조선에게 있어 일본과의 국교재개 결정에 있어 또 하나의 난처한 문제는 과연 쓰시마의 강화요청이 이에야스의 뜻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1600년 4월 쓰시마는 조선과의 강화가 이에야스의 뜻을 조선 정부에 알려왔다.¹⁸⁾ 또 일본에 머물던 明人 王建功은 이에야스는 조선과의 강화를 바라며 침략할 뜻이 없다는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¹⁹⁾ 조선 정부는 보다 정확한 정보 확보를 위해 1601년 일본에서 탈출한 피로인 김대함을 몰래 일본에 보내 적정 탐색을 시도했다.²⁰⁾ 하지만 김대함을 통해 일본의 고급정보를 알 수 없다는 점과, 사로잡힐 경우 오히려 조선의 사정을 일본에 알리게 될 것을 염려하여 중단하였다.²¹⁾ 일본에 대한 정보 부족은 조선 정부에게 상당한 압박감으로 작용했고, 그 결과 이듬해 일본에 답서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全繼信·孫文彧·金孝舜 등을 쓰시마에 파견하여 일본의 정세를 살폈다.²²⁾

1602년 11월 조선에 온 다치바나 도시마사(橋智正)는 이에야스가 강화의 전권을 쓰시마에게 위임했다고 하여, 강화요청이 일본 중앙정부의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²³⁾ 또 일본이 내란 상태가 아니며 이에야스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음을 조선 정부에 알렸다. 이에야스에 대해서도 후덕하며 거짓이 없고 히데요시의 惡政에 비판적이라며, 이에야스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 주기 위해 노력했다.²⁴⁾ 하지만 히데요시의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豊臣秀頼)가 이에야스의 딸과 혼인한다는 사실 등은 조선 정부가 이에야스를 확실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다.²⁵⁾

일본의 강화요청이 계속되면서 조선내에서는 일본 중앙정부와는 달리 쓰시마와의 관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일본을 탈출하여

18) 『宣祖實錄』 卷124, 33年 4월 丁亥.

19) 『宣祖實錄』 卷124, 33年 4월 己亥.

20) 『宣祖實錄』 卷134, 34年 2월 庚午 : 癸酉.

21) 『宣祖實錄』 卷136, 34年 4월 庚辰.

22) 『宣祖實錄』 卷145, 35年 正月 庚戌.

23) 『宣祖實錄』 卷157, 35年 12월 壬辰.

24) 『宣祖實錄』 卷158, 36年 正月 己未.

25) 『宣祖實錄』 卷160, 36年 3월 庚辰.

명을 통해 귀국한 노인은 일본에 대한 공격을 위해 쓰시마를 조선의 눈과 귀로 삼아야 한다고 했고,²⁶⁾ 피로인 姜沆은 일본을 대비하기 위해 쓰시마에게 羈縻策을 써야 함을 주장하였다.²⁷⁾ 당시 정국을 주도했던 李恒福 역시 쓰시마와 일본은 다르다며 쓰시마와의 통상을 통해 일본의 정세를 살필 것을 宣祖에게 건의했다.²⁸⁾

1602년 6월 쓰시마는 다시 도시마사를 보내왔다.²⁹⁾ 그러자 조선 정부는 쓰시마에 대한 무역 허가 여부를 놓고 오랫동안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조선은 이러한 사정을 명에 알리기로 했다.³⁰⁾ 이에 대해 명은 일본의 강화요청은 궁핍한 처지에 놓인 쓰시마의 자구책이며 조선의 동정을 엿보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 이에야스가 집권했지만, 그가 아직 전국을 장악한 것이 아닌 만큼 일본의 재침 위험은 없으며, 혹시 침범한다 해도 명이 도울 것이라고 하였다. 또 조선과 쓰시마에 대한 통상 허가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³¹⁾ 이에 따라 쓰시마에 대한 무역 허가과 일본과의 강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603년 일본에서 돌아온 河東 출신 幼學 金光은 이듬해 2월 상소문을 통해 일본의 정세를 알렸다. 그 내용은 조선이 강화를 허락하지 않으면 일본은 재침할 것인데, 이는 이에야스의 뜻이 아니라 히데요시의 은혜를 받은 세력에 대한 배려 때문인 만큼, 조선은 일본에 通信使를 파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일본과의 강화는 명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조선의 주장은 핑계인 만큼 조선을 공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에야스의 발언도 전했다.³²⁾ 쓰시마에서는 김광을 선조의 친척으로 생각했다. 때문에 조선이

26) 『錦溪日記』, 宣祖 32年 5月 16日
若以金帛 厚中其慾 常以對馬賊 爲我之間牒.

27) 『看羊錄』, 聞見錄 賊中聞見錄
待倭奴莫先於對馬島 待馬島無出於此策.

28) 『白沙集』 卷5, 筍子 辛丑六月辭職筍子 再筍
馬島形勢 與日本差間 姑許馬島之來款 以探日本之情形 固無不可.

29) 『宣祖實錄』 卷152, 35年 7月 己巳.

30) 『宣祖實錄』 卷166, 36年 9月 庚申.

31) 『宣祖實錄』 卷167, 36年 10月 甲辰.

32) 『宣祖實錄』 卷171, 37年 2月 戊申.

일본과의 강화에 대한 결정권이 명에 있다고 답해 왔는데, 이를 간파하고 빠른 시일내 국교재개를 위해 그를 이용했던 것이다.³³⁾ 지금까지 쓰시마에 대한 무역 허가만을 생각해 온 조선 정부로서는 일본 중앙정부의 통신사 파견 요청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³⁴⁾

김광의 상소문이 조선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큰 것이었다. 조선 정부는 쓰시마의 강화 요청은 이에야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쓰시마의 자의로 행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³⁵⁾ 하지만 김광의 상소문 이후 조선 정부는 쓰시마의 강화 요청을 이에야스의 뜻으로 생각하고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다.³⁶⁾ 조선 정부는 김광을 명에 보내 일본의 정세를 직접 알렸다.³⁷⁾ 내부적으로는 쓰시마를 기미책 안에 포용하고, 쓰시마와 이에야스의 관계를 엿볼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³⁸⁾ 이에 따라 조선 정부는 유정과 손문옥 등을 쓰시마에 파견하여 일본과의 국교재개에 대한 최종적 검토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3. 조선의 探賊使 파견

1604년 7월 조선 정부는 유정과 손문옥 등을 쓰시마에 파견하였다. 통치의 기본 이념을 性理學에 두었던 조선이 승려인 유정을 쓰시마에 파견하는 사신의 책임자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정은 전쟁 중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진영에 드나들면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 일본인들에게 호감을 주었으며, 둘째, 일본이 불교를 숭상하는 국가임을 고려한 조치,

33) 方琪喆, 앞의 글, 60~61쪽 참조.

34) 『宣祖實錄』卷171, 37年 2月 庚戌.

35) 『宣祖實錄』卷143, 34年 11月 辛酉.

36) 閔德基, 1995, 앞의 글, 187쪽 참조.

37) 『宣祖實錄』卷171, 37年 2月 庚戌.

38) 仲尾宏, 앞의 글, 349쪽 참조.

셋째, 조선 국왕의 국서를 지참하지 않은 승려를 파견함으로써 일본의 요구에 임기응변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이다.³⁹⁾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면 조선 정부가 일본과의 국교재개를 우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승려인 유정을 파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때 사신의 명칭은 探賊使였다. '敵'이 아닌 '賊'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당시 조선이 일본을 敵禮 관계의 외교 상대국으로 보지 않고 조선을 침략했던 도적의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조선 정부는 일본과의 국교재개를 원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탐적사라는 명칭은 전후 처리가 미흡한 상황에서 조선이 일본을 정식 외교 상대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 보다 우월한 입장에 서려는 명분론이 반영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탐적사 일행은 도시마사와 동행하여 8월 20일 부산을 떠나 쓰시마로 향했다. 이들은 쓰시마에 도착하여 도주 소오 요시토시(宗義智)와 외교승 게이테쓰 겐소(景轍玄素)의 환대를 받았다. 당시 유정과 쓰시마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조·일간 국교재개에 관한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 같다. 요시토시는 즉시 야나가와 시게노부(柳川調信)를 에도(江戶)에 파견하여 이에야스에게 의견을 물었고, 이에야스는 조선에서 파견한 사신 일행과의 회담을 결정하였다.

쓰시마에서 약 3개월 가량 머물던 조선 사신 일행은 11월 이에야스를 만나기 위해 교토(京都)로 향했다. 유정의 임무는 쓰시마에서 일본의 정세를 탐색하는 것이었지만, 유정이 일본 본토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조선 정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⁴⁰⁾ 이러한 사실 역시 조선 정부가 사신을 파견하면서 일본과의 국교재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예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월 27일 교토에 도착한 유정 등은 이듬해 2월 한 차례 접견을 거쳐 3월 4일 교토의 후시미성(伏見城)에서 혼다 마사즈미(本多正純)와 세이쇼 조타이

39) 河字鳳, 앞의 글, 134~135쪽.

40) 『宣祖實錄』卷175, 37年 6月 丁亥.

(西笑承兌) 등과 강화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 때 있었던 회견 내용은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유정은 조선과 일본 두 나라의 백성들이 오랜 도탄에 빠져 있음을 말했고, 이에야스 역시 불교를 믿었기에 신심을 발휘하여 화호를 맺게 된다.⁴¹⁾ 이후 이에야스는 유정과의 회담을 주선한 요시토시에게 2,000석, 시게노부에게 1,000석의 봉록을 주고, 겐소에게 紫色僧服을 하사하였다. 또 2년마다 행했던 산킨코타이(參勤交代)를 3년으로 완화해 주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이에야스는 유정과의 회담 결과에 상당히 만족해했던 것 같다.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 일본과의 국교재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1605년 5월 선조는 일본과의 외교관계 복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제왕이 이적을 끝까지 거절하는 도리는 없다. 또 우리나라와 일본은 불행히도 서로 가까이 있으니, 이는 천지가 끝나도록 함께 할 나라로 마치 음과 양, 낮과 밤이 함께 운행하면서도 어그러짐이 없는 것과 같은 것으로 난처하지 않다. 진영을 마주하고 전쟁을 할 때라면 화의는 그른 것이지만 적이 물러간 뒤이니 끝까지 거절하기도 어려울 듯 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⁴²⁾

위 글을 보면 선조는 지금 당장 일본과 국교재개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을 오랑캐라고 마냥 멀리하는 것은 王道가 아니며, 조선과의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머지않아 교류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시기가 문제이지 일본과의 국교재개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북방의 정세 역시 심상치 않았다. 1588년 누르하치(奴兒哈赤)는 建州衛를 통합했고, 1605년에는 조선에 사신을 보내 '建州等處地方國王修'을 자처하면서 조선과의 우호를 희망하는 국서를 보내왔다. 후라운(忽刺溫)은

41) 『四溟大師集』卷7, 有明朝鮮國慈通廣濟尊者四溟堂松雲大師行蹟

及見家康 備言兩國生靈久陷塗炭 康亦歸心釋教者也 聞而發言 敬之如佛 克成和好.

42) 『宣祖實錄』卷187, 38年 5月 戊子.

1605년 3월 童關,⁴³⁾ 7월에는 穩城,⁴⁴⁾ 이듬해 7월에는 訓戎縣城을 침략하는 등,⁴⁵⁾ 계속적으로 조선의 북방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이처럼 북방의 방비가 급박해진 만큼, 조선으로서는 남쪽의 일본과 우호를 통해 북방 방어에 전력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조선과 일본 모두 국교재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유정의 사행을 계기로 조선의 대일외교는 쓰시마에서 도쿠가와 바쿠후(德川幕府)로 대상을 바꾸게 되었다.⁴⁶⁾ 하지만 유정의 귀국 후에도 조선과 일본의 국교재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야스는 유정과 만나 강화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국서를 보내지 않았다. 때문에 조선 정부는 여전히 강화요청은 일본 정부가 아닌 쓰시마의 책략으로 생각했다.

유정 등이 귀국한 후에도 쓰시마는 1605년 11월, 1606년 정월과 4월 다시 조선에 사신을 파견하여 강화를 재촉하였다. 이처럼 쓰시마가 끈질기게 국교재개를 요구해 오자 조선 정부내에서는 일본과의 국교재개를 위해 조선을 침략하지 않겠음을 서약하는 이에야스의 국서를 조선에 먼저 보낼 것〔先爲致書〕과 선릉과 정릉의 도굴범 소환〔犯陵賊押送〕을 요구할 것 등이 논의되었다.⁴⁷⁾ 뿐만 아니라 국서를 보낼 때 이에야스가 日本國王의 칭호를 사용할 것도 요구하였다.⁴⁸⁾

조선 정부가 이에야스에게 먼저 국서를 보낼 것을 요구한 것은, 일본이 강화를 요청하는 것을 명문화 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犯陵賊 소환 요구는 강화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내부적 명분 확보를 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에야스에게 국왕호를 사용할 것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 정부는 일본의 쇼군(將軍)을 ‘日本國大相國’·‘相國大夫’·‘日本國大

43) 『宣祖實錄』 卷185, 38年 3月 丙申.

44) 『宣祖實錄』 卷189, 38年 7月 戊寅.

45) 『宣祖實錄』 卷201, 39年 7月 甲戌.

46) 河宇鳳, 앞의 글, 149쪽 참조.

47) 『宣祖實錄』 卷199, 39年 5月 己卯.

48) 『宣祖實錄』 卷199, 39年 6月 癸亥.

將軍’ 등으로 불렀다. 그런 가운데 조선은 1401년 명 惠帝로부터 誥命과 印信을 받았고,⁴⁹⁾ 1403년 명 成祖로부터 다시 책봉을 받았다.⁵⁰⁾ 일본 역시 1402년 2월 아시카가 요시미츠(足利義滿)가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다. 그 결과 쇼군을 일본의 정치와 외교권의 주체자로 인정하면서 적례관계로 인식하고, 1404년 7월부터는 일본국왕의 호칭을 사용했다.⁵¹⁾ 이와 마찬가지로 이에야스에게 일본국왕의 칭호를 사용하게 하여, 명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관계를 명확히 하고 일본 최고 통치권자의 요청에 의해 국교재개가 이루어졌음을 명문화시키려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조선 정부는 1606년 8월 전계신을 쓰시마에 파견하여 조선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⁵²⁾ 하지만 이후에도 조선 정부내에서의 일본과의 국교재개에 대한 논의는 끝나지 않았다. 備邊司는 히데요시는 만세의 원수이지만 이에야스가 집권하여 히데요시의 잘못을 바로잡은 만큼, 조선이 요구한 범릉적 과 이에야스의 국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사신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⁵³⁾ 반면 司憲府는 이에야스는 내일의 히데요시가 될 수 있는 만큼 경계심을 거둘 수 없다며 일본과의 국교재개를 강하게 반대했다.⁵⁴⁾ 그러자 비변사는 다시 이에야스는 일본의 조선 침략 당시 자신의 군사를 조선에 파견하지 않았고, 書契를 보내 화친을 청하는 만큼 관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조정의 의견이 대립하자 선조는 임금과 대신의 처지는 다르다며, 국가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신을 파견하여 일본과의 국교재개를 결정했다.⁵⁵⁾

1606년 11월 쓰시마는 조선이 요구한 이에야스의 국서와 도굴범을 조선에 보내왔다.⁵⁶⁾ 조선 정부는 도굴범과 국서의 진위여부에 의문을 가졌다. 도굴

49) 『太宗實錄』 卷1, 元年 3月 乙丑.

50) 『太宗實錄』 卷5, 3年 4月 甲寅.

51) 『太宗實錄』 卷8, 4年 7月 己巳.

52) 『宣祖實錄』 卷203, 39年 9月 己卯.

53) 『宣祖實錄』 卷203, 39年 9月 己巳.

54) 『宣祖實錄』 卷204 39年 10月 庚申.

55) 『宣祖實錄』 卷204 39年 10月 癸亥.

56) 『宣祖實錄』 卷205, 39年 11月 丁丑.

범으로 조선에 넘겨진 마고사구(麻古沙九)와 마타 바케유치(麻多化之)도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부인했다.⁵⁷⁾ 하지만 조선 정부는 이들 역시 ‘賊’인 만큼 처형하는 것으로 문제를 마무리 지었다.⁵⁸⁾ 국서에 대해서도 선조는 이에야스가 보낸 국서가 倭書의 문체와 다르며, 명의 年號를 사용한 점, 이전에 사용하던 ‘德有隣’이 아닌 일본 국왕의 도서를 찍은 점, 이에야스가 셋쇼(攝政)의 지위에 있으면서 국왕의 칭호를 사용한 점 등을 통해 위서임을 확신했다.⁵⁹⁾ 사실 이항복은 범능적의 경우 진범을 보내지 않을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⁶⁰⁾ 강화 여부는 조선의 필요성에 따라야 함을 선조에게 주청한 바 있다.⁶¹⁾ 즉 조선의 요구를 일본이 성실하게 수행했는가 하는 것이 강화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다. 조선 정부가 강화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했던 것은 조선의 요구가 관철되는 모습을 통해 명분론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고 생각한다.

1607년 정월 조선은 正使 呂祐吉, 副使 慶暹, 書狀官 鄭好寬 등의 회담겸 쇄환사를 일본에 파견하였다. 국교재개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 회담겸쇄환사는 5월 6일 에도에서 이에야스가 아닌 이에야스의 아들 도쿠가와 히데타다(德川秀忠)를 만났다. 이에야스는 1603년 쇼군직에 올랐지만, 1605년 히데타다에게 양위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에야스는 오고쇼(大御所)로 모든 외교관계를 장악하고 있었다. 조선 사신은 히데타다와 국서를 교환하여 일본과의 국교를 재개하였다. 결국 조선과의 국교재개를 통해 이에야스는 아들 히데타다가 일본의 통치권자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목표를 달성하였던 것이다.

57) 『宣祖實錄』 卷205, 39年 11月 壬午.

58) 『宣祖實錄』 卷205, 39年 12月 甲寅.

59) 『宣祖實錄』 卷206, 39年 12月 戊午.

60) 『宣祖實錄』 卷199, 39年 5月 甲申.

61) 『宣祖實錄』 卷199, 39年 7月 乙亥.

4. 국교재개와 德川家康 인식

조선 정부는 1598년 11월 21일 이에야스가 일본의 정권을 장악했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다.⁶²⁾ 이에 대해 명과 조선 정부는 히데요시 사후 내란이 있으면 공격이 없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재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⁶³⁾ 이러한 모습은 전쟁 직후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게 남아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야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사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야스가 조선과의 국교재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세키가하라(關ヶ原)전투 이후의 일이다.⁶⁴⁾ 1600년 10월 이에야스는 세키가하라전투에서 이시다 미쓰나리(石田三成)·오타니 요시쓰구(大谷吉繼)·유키나가·히데이에 등을 중심으로 한 히데요리 지지 세력을 격파하여 패권을 장악하고, 1603년에는 쇼군직에 올라 에도 바쿠후를 개창했다. 이처럼 전국을 장악하게 되자, 이에야스는 자신은 조선 침략과 관련이 없으며 히데요시의 惡政을 평정한 만큼 교섭을 재개할 것을 요청해 왔다.⁶⁵⁾ 즉 이에야스는 자신의 대조선 정책이 히데요시와 다르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조선과의 국교재개를 강력히 희망했던 것이다. 1606년 6월 사츠마(薩摩)는 만성적 재정적자를 류큐(琉球) 점령으로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이에야스는 사츠마의 류큐 점령을 조선과의 국교재개가 이루어진 이후로 연기하였다. 그 이유는 류큐 침략 사실이 조선에 알려지면 조선이 강화교섭을 외면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가졌기 때문이었다.⁶⁶⁾ 이처럼 이에야스는 자신의 집권후 조선과의 외교

62) 『宣祖實錄』 卷106, 31年 11月 壬寅.

63) 『宣祖實錄』 卷108, 32年 正月 庚戌.

64) 田中健夫, 「鎖國成立期における朝鮮との關係」, 『中世對外關係史』, 東京大學出版會, 1975, 261쪽 참조.

65) 『増正交隣志』 卷5, 通信使行: 『通文館志』 卷6, 交隣 下 通信使行 壬辰之事 身在關東 無所預知 況今盡半平賊之惡 實非讐怨 願與通和云.

66) 閔德基, 「조선·유구를 통한 에도 바쿠후(江戶幕府)의 對明 접근」, 『韓日關係史研究』2, 한일관계사연구회, 1994, 108쪽 참조.

관계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것이다.

이에야스가 조선과의 국교를 원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조선을 침략한 이후 일본은 동아시아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던 만큼, 명 및 조선과 국교를 맺음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공인받고 무역에 의한 재정증대를 위해서였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오사카(大坂)에 남아 있는 히데요리나 여러 다이묘(大名)들과의 격차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⁶⁷⁾ 둘째, 조선을 창구로 유교체제를 통한 태평시대를 이룩하기 위해서였다. 즉 조선과의 교류를 통해 부시(武士) 계급들의 마음을 순화시켜 문치로 이끌려 했던 것이다.⁶⁸⁾ 1753년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는 국교재개로 조선이 복수를 위해 군사를 파견하지 않게 된 것을 큰 다행으로 여겼다.⁶⁹⁾ 이를 통해 전후 일본 역시 조선의 침략을 경계하고 조선과의 강화를 통해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거둬들인 국교재개 요청과 유정의 파견 결과 조선 정부는 일본과의 국교회복을 위한 사신 파견을 결정하였다. 이때 사신의 명칭을 通諭使로 하자는 주장이 있었다.⁷⁰⁾ 하지만 선조는 이웃 국가에게 가르친다는 의미의 '諭'라는 글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⁷¹⁾ 임진왜란 이전 선조는 일본을 반역의 나라로 규정했지만,⁷²⁾ 전후 일본을 조선과 대등한 국가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러 논의 끝에 조선 정부는 사신의 명칭을 '회답겸쇄환사'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 보낸 서계에 답하며, 일본에 억류 중인 조선인들을 송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⁷³⁾ 적정 탐색 역시 사신의 중요

67) 미야케 히데토시(三宅英利) 지음, 김세민·강재덕·유재춘·엄찬호 옮김, 『조선통신사와 일본』, 지성의 샘, 1996, 18쪽 참조.

68) 최문정, 「일본 근세의 의미-통일권력자의 통아시아 국제사회 편입노력을 중심으로-」, 『日本研究』24, 韓國外國語大學校 日本研究所, 2005, 84~85쪽 참조.

69) 李元植, 『朝鮮通信使』, 民音社, 1991, 31~32쪽 참조.

70) 『宣祖實錄』卷202, 39年 8月 己未.

71) 『宣祖實錄』卷203, 39年 9月 癸酉.

72) 『宣祖實錄』卷21, 20年 9月 癸巳.

73) 『宣祖實錄』卷207, 40年 正月 己巳.

한 임무 중 하나였다. 당시 조선 정부는 사신 일행에게 적정 탐색에 필요한 준비와 행동 지침을 하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신의 명칭이 통신사가 아닌 회답검쇄환사였다는 것은 아직 조선이 일본에 대한 불신의 시각을 거두지 못했던 만큼, 일본을 통신의 대상으로 생각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선조는 사신 파견의 목적이 일본의 정세를 살피는데 있음을 이미 밝힌 바 있다.⁷⁴⁾ 즉 조선 정부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일본의 정세를 살피는 것이었던 만큼, 굳이 사신들에게 이에 대해 특별히 명령을 내릴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적정탐색은 다름 아닌 이에야스의 전국 장악 능력과 조선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지에 관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선조가 일본과의 국교재개를 결심하게 된 것은 이에야스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었다. 선조는 이에야스가 국정을 장악하고 있지만, 히데요시의 잔당이 아직 건재하다는 사실 때문에 일본과의 강화를 망설였던 것이다.⁷⁵⁾ 대일강화를 결정하고 일본에 사신을 파견한 후에도, 변란이 일어나 이에야스가 실각하여 히데요리가 국정을 장악할 것을 걱정하였다.⁷⁶⁾ 이러한 모습들은 선조가 이에야스의 집권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조선과 일본간의 평화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607년 2월 29일 부산을 출발한 조선의 사신은 쓰시마 - 잇키(一岐) -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 - 오사카 - 교토 - 도카이도(東海道)를 거쳐 5월 24일 에도에 도착했다. 6월 6일 사신 일행은 히데타다를 만나 국서를 전달했다. 이 때 히데타다는 上堂에 앉았고, 사신 일행은 中堂에서 예를 치른 후 동쪽 마루 위에 앉았다. 그 외 역관은 下堂, 關員은 楹外, 各役은 뜰 아래에서 예를 행했다.⁷⁷⁾ 즉 조선의 사신은 히데타다에게 동등한 신분간에

74) 『宣祖實錄』 卷204, 39年 10月 癸亥.

75) 『宣祖修正實錄』 卷40, 39年 5月.

76) 『宣祖實錄』 卷208 40年 2月 壬子.

77) 『海槎錄』 下, 6月 6日(丁酉)

堂有三級 高各半尺許 上堂鋪一錦褥 關白坐焉 使臣入就中堂行禮 仍坐東壁堂上 譯官於下堂 各員於楹外 各役於庭下 皆行禮而退.

행하는 예법인 楹外拜를 행했던 것이다. 1590년 파견되었던 통신사 일행 역시 영외배를 행했지만 히데요시에게 기둥 밖에서 행례했다. 하지만 도쿠가와 바쿠후는 조선 사신을 중앙에서 배례케 하여 이전보다 한 단계 더 우대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도쿠가와 바쿠후가 조선 사신을 후대함으로써, 자신들이 조선과의 수호를 열망하고 있으며 조선에게 적의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히데타다는 조선 사신에게 일본을 방문한 것에 대해 감사와 기쁨을 금할 수 없다고 하였다.⁷⁸⁾ 뿐만 아니라 사신들에게 직접 술과 음식 들기를 원하는 등 환대하였다.⁷⁹⁾ 경점은 히데타다를 만난 후, 그에 대해 용맹스럽고 담력이 많다고 평하였다.⁸⁰⁾ 1590년 일본을 다녀왔던 통신사 일행은 히데요시는 왜소하고 못생겼으며 얼굴은 검고 주름져 원숭이 형상이라고 하였다.⁸¹⁾ 일본에서 생활하다 돌아 온 강항 역시 히데요시의 외모에 대해 얼굴은 못생기고 키는 작아 외모가 원숭이와 같으며, 원래 손가락이 여섯 개였는데 성장한 후 하나를 잘랐다고 하였다.⁸²⁾ 이처럼 조선인들이 히데요시의 용모를 폄하했던 것과 비교하면, 당시 조선의 사신들은 히데타다를 호의적으로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6월 14일 히데타다의 답서를 받은 사신 일행은 에도를 출발, 이에야스를 만나기 위해 순푸(駿府)로 향했다. 1605년 이에야스는 쇼군직을 아들인 히데타다에게 물려주고 순푸에 있었는데, 오고쇼로 여전히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20일 조선 사신 일행은 이에야스를 만났는데, 이 때 역시 조선

78) 위와 같은 글

關白令佐渡守傳言曰 遠來良苦 不勝感悅云云.

79) 위와 같은 글

關白執著以勸之 酒兩巡 別進彩雲床四坐 分置各前 床設五色線綵花及塗金土盃 關白先執盃 勸之 令佐渡傳言曰 一盃酒 願各盡飲.

80) 위와 같은 글

關白名秀忠 年二十九 形貌勇銳多膽氣.

81) 『宣祖修正實錄』 卷25, 24年 3月.

82) 『看羊錄』, 聞見錄 壬辰丁酉入寇諸倭將數

賊魁秀吉 尾張州中村鄉人也 生於嘉靖丙申 貌寢身短 狀如猿猴 遂以爲小字 生而右手有六指 及長曰人皆五指 六指何用 自以刃截去之.

사신들은 당상에서 배례하였다.⁸³⁾ 이에야스도 아들인 히데타다와 마찬가지로 조선 사신에게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조선 사신과 만난 자리에서 이에야스는 이미 조선과 일본의 화호가 이루어진 만큼 절대 딴 마음을 먹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다.⁸⁴⁾ 경섬은 이에야스에 대해 66세이지만 형체가 장대하고 老衰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야스의 건재함을 확인하였다.⁸⁵⁾

조선의 사신들은 이에야스와의 대면 이전 일본에서 그에 대한 정보를 다각도로 수집하고, 그 결과 이에야스에 대해 우호적 시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다. 조선 사신 일행은 이에야스와 대립했던 히데요리의 출자에 대해

수뢰는 그 어미가 간부와 간음하여 낳은 아들이다. 수겔이 죽은 후에 간부의 일이 발각되자, 가강이 그의 죄를 다스리고 싶었으나 처치곤란한 점이 있음을 생각하여, 다만 그 간부를 絶島에 귀양을 보냈는데, 왜국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 수뢰를 조롱하기에 이르렀다.⁸⁶⁾

라고 설명하였다. 즉 히데요리는 히데요시의 아들이 아니라는 인식을 통해 이에야스 정권의 탄생이 필연적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다. 또 전후 모리 데루모토(毛利輝元)가 조선 침략에 대한 공을 요구하자, 이에야스는

조선은 예의의 나라로 다만 文教만 숭상하고 武를 드날리거나 군대를 뽑내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유 없이 군대를 일으켰으니, 비록 전쟁에 이겼다 해도 무가 될 것이 없는데 무슨 공이 있겠소.⁸⁷⁾

83) 『海槎錄』下, 6月 20日(辛亥)
家康着其冠服 坐西夾堂 堂有二級 高各半尺 先陳禮物於西楹外 使臣入中堂 行再拜禮 仍東壁坐 堂上譯官二人 亦於楹外 行再拜禮.

84) 위와 같은 글
兩國既已和好 將軍亦極感悅 彼此不須致疑 吾父子未死之前 亦豈有他腸乎.

85) 위와 같은 글
家康年六十六 形體壯大 觀其氣力 不至衰老.

86) 『海槎錄』上, 4月 9日(辛丑)
倭中傳言 秀賴之母 淫奸問夫而生秀賴 秀吉死後 問夫事覺 家康欲正其罪 而慮其處置難便 只竄其問夫於絶島 國人至於作歌 以譏秀賴云.

87) 위와 같은 책, 5月 8日(庚午)

라고 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이에야스가 자신의 주장대로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다. 또 이에야스는 조선 사신의 행차를 충무에서 지켜보며 무척 기뻐했다는 사실을 통해,⁸⁸⁾ 이에야스가 진심으로 조선과의 국교회복을 원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처럼 조선 사신은 이에야스와 히데타다를 만나기 이전 이미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호의적으로 평가했던 것이다.

1608년 7월 3일 귀국한 사신 일행은 17일에 복명하였다.⁸⁹⁾ 사신들의 복명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 본 내용을 통해, 조선 정부는 이에야스의 견제함과 에도 바쿠후가 조선에게 적의가 없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국교재개의 임무를 완수한 사신 일행은 일본에서 보내 온 서계에 不恭스런 표현이 있고, 일본에서 병기를 매입하려 한 것은 나라를 욕되게 한 것이라는 탄핵을 받았다. 이후 20일에 걸쳐 사헌부와 사간원은 사신 일행에 대한 처벌을 주장했지만, 선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⁹⁰⁾ 오히려 선조는 강화를 통해 일본을 귀의케 해야 하며, 전란을 막아야 하며, 서계의 사소한 語句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⁹¹⁾ 이러한 모습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선조가 일본과의 국교재개는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다는 자신의 의지를 보인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전과는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변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조선이 일본과 국교를 재개했다고 해서 에도 바쿠후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거둔 것은 아니었다. 1615년 이에야스는 오사카성을 근거로 하고

家康曰 朝鮮禮義之邦也 只尙文教 非有揚武耀兵之事 而無故興兵 雖戰勝 不足爲武 何功之有.

88) 위와 같은 책, 5월 17日(己卯)

行次過府之時 家康與宮嬪之類 上層樓觀光 甚爲喜悅云.

89) 위와 같은 책, 7월 17日(丁未)

七月初三日還渡釜山浦 十七日入京復命 自辭朝至復命 凡二百十二箇日子也.

90) 李敏昊, 1995, 앞의 글, 107~111쪽 참조.

91) 『宣祖實錄』卷215, 40年 9月 丙申.

있던 히데요시의 측실 요도도노(淀殿)와 히데요리를 중심으로 한 도요토미의 잔존세력을 완전히 멸망시켰고 [오사카전투(大坂の陣)], 쓰시마 도주는 사신을 파견하여 이러한 사실을 조선 정부에 알려왔다.⁹²⁾ 어떤 의미에서 이에야스는 조선의 원수를 갚아준 것이었지만, 그의 전국 통일은 조선과 명을 다시 긴장시켰다. 그 이유는 히데요시 역시 전국통일 후 조선에 대한 군사행동을 감행했기 때문이었다.

이에야스가 일본 전국을 평정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명은 이에야스가 다른 뜻을 품을 수 있다며, 조선의 방비를 엄히 하고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⁹³⁾ 1617년 정월 쓰시마 도주에 의해 귀국한 피로인 愼應昌은 일본의 정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했는데, 그 중에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정부는 그가 제공한 정보 중 이에야스의 용병술에 대한 내용은 謄書하여 각 지역의 兵使와 水師에게 보냈다.⁹⁴⁾ 이러한 모습은 조선 정부가 에도 바쿠 후를 신뢰하면서도 여전히 경계심을 거두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대한 조선인의 적개심은 이에야스에 대한 시각을 통해 변화되고 있었고, 그 결과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복원했다. 하지만 7년간의 전쟁이 남긴 상처는, 단시일 내 일본에 대한 경계심과 적대감을 완전히 씻기에는 너무나 깊었던 것이다.

5. 맺음말

1592년 4월에 있었던 일본의 조선침략은 선전포고 없이 기습적으로 일어난

92) 『光海君日記』 卷94, 7年 閏8月 丙辰.

93) 『光海君日記』 卷103, 8年 5月 己丑.

94) 『備邊司謄錄』1, 光海君 9年 丁巳 4月 2日.

것이였다. 물론 한국사에서 전쟁의 시작이 갑작스러웠던 것은 임진왜란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끝은 달랐다. 漢의 침략은 古朝鮮의 멸망과 漢四郡의 설치로 끝이 났다. 隋와 唐의 침략은 高句麗의 승리, 신라와 당의 전쟁은 신라의 승리, 紅巾賊의 침략은 高麗의 승리로 끝이 났다. 契丹의 침략 당시에는 고려와 遼가 강화를 통해 전쟁을 마무리 지었다. 임진왜란 후에 있었던 淸의 침략 역시 강화조약을 맺음으로써 종전이 이루어 졌다.

임진왜란의 경우 1593년 겨울부터 전쟁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고, 4년 여에 걸쳐 명과 일본은 강화회담을 벌였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었고, 1597년 일본은 다시 조선을 침략하였다. 2차침략 당시 일본은 명확한 전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군사를 물렸다. 결국 임진왜란의 경우 승자도 패자도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공식적인 협정이나 강화없이 일본의 일방적 철군으로 끝이났던 것이다.⁹⁵⁾ 때문에 조선과 일본 양국은 전후 양국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교재개를 위해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를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7년여에 걸친 장기전, 치열한 공방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전후 양국의 국교재개는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 진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은 감정적으로는 일본과 강화할 수 없었지만, 대내적으로는 國家再造에 전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평화가 절실히 필요했다. 대외적으로는 여진족의 급격한 세력신장에 따라 북쪽 변방 방위가 중요했던 만큼, 남쪽의 일본과는 평화관계를 유지해야만 했다. 일본의 경우 새로 집권한 이에야스는 자신의 권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조선과의 국교재개가 반드시 필요했다. 쓰시마로서도 재정의 상당 부분을 조선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조선과의 국교회복에 사활을 걸고 적극적으로 임했다. 이러한 조선·이에야스 바쿠후·쓰시마 등의 이해관계가 빠른 시간내에

95) 일본의 조선 침략은 분명히 실패로 끝이 났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이 승리한 전쟁이었다고 말하기도 힘들 것 같다. 조선군의 공세적 우위에 의해 일본군이 철군한 것은 아니었다. 국왕은 도성을 버리고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다. 또 전국토가 황폐화 되었으며, 조선 전체 인구 1/3 이상의 인명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과연 조선이 승리한 전쟁인가에 대해서는 再考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일 양국의 외교관계 복원을 이루게 하였던 것이다.

조선의 입장에서 일본과의 국교재개는 대일인식의 변화가 동반된 것이었다. 선조는 전쟁 전 일본을 섬 오랑캐(島夷)로 규정했다. 일본군의 침략을 맞아서는 피난길을 전전했고, 臨海君과 順和君 등 2명의 아들은 일본군의 포로로 사로잡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전후 일본과 국교재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고, 일본인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즉 선조의 일본에 대한 시각은 전쟁 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변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光海君 역시 일본 사신에 대한 접대가 박한 것을 나무라며 음식 등을 넉넉히 지급할 것을 지시했고,⁹⁶⁾ 사헌부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인이 부산에서 교역하는 것을 허락했다.⁹⁷⁾ 조선이 일본과의 국교재개를 결정함에 있어 이에야스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된 것 역시 일본에 대한 시각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 정부는 전쟁 후 불과 9년 만에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여, 임진왜란 이전과 마찬가지로 외교관계를 복원하였다. 국교재개후에는 12회에 걸쳐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1608년 정월 조선과 일본의 공무역이 재개되고, 1609년에는 己酉約條를 체결하였다. 1611년에는 쓰시마에서 세견선이 파견되면서 공무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1632년부터 1860년까지는 禮曹參議 명의로 쓰시마에 問慰行을 54회에 걸쳐 파견하기도 했다.⁹⁸⁾ 임진왜란전 조선 정부는 1443년부터 1590년까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다. 이와 비교하면 전후 조선의 대일외교 자세가 매우 적극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은 조선이 일본의 재침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

96) 『光海君日記』 卷14, 元年 3月 庚戌.

97) 『光海君日記』 卷26, 2年 3月 辛卯：癸巳；甲午；乙未；丙申；丁酉 등 참조.

98) 조선 후기 대일외교 사절의 하나인 問慰行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이 참고된다. 洪性德, 「朝鮮後期 問慰行에 대하여」, 『韓國學報』59, 一志社, 1990；홍성덕, 「조선 후기 對日외교사절 問慰行의 渡航人員 분석」, 『韓日關係史研究』11, 한일관계사학회, 1999；洪性德, 「朝鮮後期 對日外交使節 問慰行 研究」, 『國史館論叢』93, 國史編纂委員會, 2000；洪性德, 「朝鮮後期 對日外交使行과 倭學譯官」, 『통신사·왜관과 한일관계』, 景仁文化社, 2005；李尙奎, 「仁祖代 전반 問慰行 연구」, 『韓日關係史研究』35, 한일관계사학회, 2010.

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임진왜란 이전과는 달리 일본을 적례적 교린의 대상으로 여겼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과 국교가 재개된 이후인 1617년과 1624년에도 조선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 때 사신의 명칭은 회담겸쇄환사였다. 하지만 1636년부터는 통신사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통신사란 말 그대로 신의를 통한다는 의미이다. 조선이 요구한 명의 연호 사용과 일본국왕호 사용 등의 요구는 몇 차례를 제외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⁹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를 파견했다는 사실은 조선이 외교적 배려를 베풀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선이 일본을 대등한 국가로 인식하고 교린을 행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명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는 변화하고 있었다. 중국의 경우 명에서 청으로 왕조교체가 이루어졌고, 일본의 경우 히데요시에서 이에야스로 바쿠후 교체가 이루어진 것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조선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전쟁전과 다른 외교관계와 외교이념이 필요했다. 그 결과 전쟁전과는 다른 보다 대등한 입장에서 일본을 상대하게 되었던 것이다.

조선과 일본은 7년간에 걸친 전쟁, 9년 여에 걸친 외교관계 회복 노력 끝에 1607년 국교를 재개하였다. 이후 200여 년 동안 조선과 일본 양국의 평화관계는 유지되었다. 이는 조선과 일본이 대의명분을 중시하면서도 실리를 중심으로 외교관계를 전개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고투고일 : 2012. 9. 1, 심사수정일 : 2012. 9. 5, 게재확정일 : 2012. 9. 6)

주제어 : 국교재개, 대일인식, 도쿠가와 이에야스, 쓰시마, 유정, 임진왜란, 탐적사, 회담겸쇄환사

99) 일본의 쇼군은 자신을 일본 국왕으로 칭하는 것을 회피했다. 그 이유는 천황가로부터의 비판을 피하고, 천황이라는 존재의 관계를 모호하게 해두려는 정치적 배려 때문이었다 (나카오 히로시 지음 / 손승철 옮김, 『에도 일본의 성신 외교 조선통신사』, 小花, 2012, 28쪽).

<ABSTRACT>

A study on the Process of Joseon and Japan Resuming Their Diplomatic Relationships after Japan's Invasion of Joseon in 1592

Bang, Ki-cheol

Almost right after Japan's Invasion of Joseon in 1592 ended, Japan requested the resumption of diplomatic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countries, but the anti-Japanese sentiment among the Joseon people was too strong to allow the resumption.

Tokugawa Ieyasu asked Joseon to resume its diplomatic relationships with Japan through the Tsushima Island after the Sekigahara battle, but Joseon refused his request. Then Tsushima demanded reconciliation, proposing the return of captives and spreading a rumor about re-invasion. Joseon was not able to easily take a position because it could not clearly determine whether the re-invasion rumor was true and the request for the resumption of diplomatic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the intention of Ieyasu. However, it ended up dispatching Yu Jeong(惟政) as Tamjeoksa(探賊使) to Tsushima in 1604, giving in to its repeated requests. Yu Jeong met with Ieyasu in Edo and agreed on the restoration principles of diplomatic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countries, but Ieyasu did not send the credentials and accordingly prevented the formal diplomatic relationships from being formed between the two countries.

After that, Tsushima continued to make requests for resuming diplomatic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countries. Joseon asked for Ieyasu's credentials and subpoena on the robbers of Seonreung(宣陵) and Jeongreung(靖陵), finally its requests were met by Japan. Even though there was doubts on the authenticity of the credentials and the robbers, Joseon restored its diplomatic relationships with Japan by dispatching Hoidapgyeomsoehwansa(回答兼刷還使) in 1607.

Joseon decided to resume its diplomatic relationships with Japan because it had to focus on the defense on its northern border with the growing Jurchen state as well as post-war restoration efforts. In addition, Joseon people grew favorable to Japan, especially Ieyasu, which played a critical role in the resumption. King Seonjo(宣祖) regarded Japan as an equal of Joseon unlike his perception before the war and exhibited a friendly attitude to Ieyasu. The envoys of Joseon dispatched to Japan were also friendly to Ieyasu and his son Tokugawa Hidetada, and Ieyasu and Hidetada treated them well, too.

The international order was changing around Ming Dynasty after Japan's invasion of Joseon in 1592. In China, Ming Dynasty was being replaced by Qing Dynasty. In Japan, the Toyotomi Hideyoshi feudal government was replaced by the Ieyasu feudal government. In those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s, Joseon needed a different diplomatic ideology from before the war in order to make active responses to them and thus treated Japan in a more equal position than before the war.

Key Words : Hoidapgyeomsoehwansa(回答兼刷還使),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Perception of Japan, Tamjeoksa(探賊使), the resumption of diplomatic relationship, Tokugawa Ieyasu, Tsushima, Yu Jeong(惟政)

임진왜란 전후 중앙군제의 변화

김종수*

1. 머리말
2. 공병제에서 사병제로 변화
3. 번상병제에서 장번병제로 변화
4. 기병(사수) 중심에서 보병(포수) 중심으로 변화
5. 맺음말

1. 머리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한국사 개설서로 정평이 난 국사편찬위원회의 신편 『한국사』는 조선을 초기, 중기, 후기로 3분하는 시기구분을 채택하여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중기'는 대체로 15세기 말엽에서 17세기 말엽까지 약 2세기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 구분법을 채택하면서 밝힌 입장은 다음과 같다.

* 군산대 교수

조선왕조 500년간에 대해 지금까지 학계는 일반적으로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구분해왔다. 그러나 이번 신편 『한국사』에서는 초기·중기·후기로 나누는 새로운 시기 구분을 도입하였다. 중기 설정이 새로운 점이다. ... 종래의 전기·후기의 양분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임진왜란이란 외침(外侵)을 구분점으로 삼은 것은 역사를 내제적으로보다는 타율적으로 인식하게 할 위험성이 높으며, 둘째로 그간의 여러 부면(部面)의 연구들은 임진왜란 직전과 직후 사이에는 단절보다는 연속성이 더 많다는 점을 밝혔다. 이런 문제점은 양분법을 더 이상 취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사 인식에서 임진왜란을 중요시하는 사고는 아마도 일제 식민주의사관의 창출 과정에서 조장된 것이리라 짐작되지만, 돌이켜 보면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나 뒷받침의 노력도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도 오랫동안 이를 답습하기만 해온 점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¹⁾

즉,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왕조 500년을 전기와 후기로 양분하는 것은 역사를 타율적으로 인식할 위험이 있으며, 임진왜란 전후에는 단절보다 연속성이 더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것은 식민주의사관의 창출 과정에서 조장된 것으로 짐작된다고 하고는, 지금까지 이를 답습해온 것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임진왜란은 조선과 중국, 일본이 참여한 동아시아의 대전으로서 이후 중국과 일본에서는 왕조와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졌다. 즉 임진왜란 이후 중국은 명(明)에서 청(淸)으로 왕조가 교체되었으며, 일본은 도요토미 정권에서 도쿠가와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조선 역시 임진왜란으로 미증유의 참화를 겪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전결(田結)이 감축되었으며, 각종 시설과 문서가 파괴되는 등 인적·물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 정부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농촌 사회 역시 전후 복구 사업에 몰두하였다. 이러한 정부와 농민층의 노력은 그들의

1) 이태진, 「개요」, 『한국사』(30, 조선중기의 정치와 경제), 국사편찬위원회, 1998, 1쪽.

의도와는 상관없이 중세 사회 체제가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와 같이 조선을 비롯하여 중국·일본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시기구분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역사를 타율적으로 인식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또 이것이 식민주의사관의 영향인 것도 아니다.²⁾

임진왜란 전후에는 단절보다 연속성이 더 많다는 지적에도 문제점이 있다. ‘연속성’이니 ‘단절’이니 하는 추상적인 용어는 사람마다 또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보이기 마련이다. ‘사족(사림)지배체제’라는 측면에서 임진왜란 전후 단절보다 연속성이 더 많다고 운위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역사를 보는 관점의 문제로서 일방적으로 강요할 사항은 아니다. 역사를 얼마든지 다른 관점과 기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족이 아니라 민중의 측면에서 역사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사회경제나 제도 등 여러 측면에서 역사를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족지배체제’라는 측면이 아니라 ‘제도’의 측면에서 볼 때 임진왜란 전후 단절이 있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이후 정치적으로는 비변사 체제가 정착되었으며, 사회경제적으로는 농법의 발달과 더불어 대동법, 균역법 등이 실시되었고, 또 사상(私商)이 등장하여 금난전권이 성립하였으며 전국 각지에 장시가 설립되는 등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였다.

특히 임진왜란 전후에는 군사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군사제도 즉, 군제(軍制)는 국가 존립에 필수불가결한 부문이고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 제도이다. 임진왜란이라는 미증유의 참화를 겪으면서 당시 군제의 문제점을 인식한 조선 정부는 우선적으로 군제의 개혁에 나섰다. 그리하여 중앙군으로는 훈련도감이 설립되고, 지방군으로 속오군이 등장하게 된다.³⁾ 이것은 제도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지만, 이러한 군제 개혁의 심층에는 ‘공병제(公兵制)에서 사병제(私兵制)로, 번상병제(番上兵制)에서 장번병제(長番兵制)로,

2) 김돈, 「제1장 조선중기 정치사의 이해방향」, 『조선중기 정치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9, 37쪽.

3) 조선 후기 중앙군과 지방군에 대해서는 徐台源, 『朝鮮後期 地方軍制研究』, 도서출판 해안, 1999 ; 金友哲, 『朝鮮後期 地方軍制史』, 경인문화사, 2000 ; 金鍾洙, 『朝鮮後期 中央軍制研究』, 도서출판 해안, 2003. 등 참조.

기병 중심에서 보병 중심으로'라는 보다 깊은 개혁의 동기가 내재되어 있었다. 즉 조선전기 공병제, 번상병제, 기병 중심으로 운영된 중앙군제는 2백년 동안 유지되면서 큰 전란이 없이 평화가 지속되자 많은 문제가 쌓이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임진왜란을 계기로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이다. 즉 임진왜란은 조선 사회에 내재한 수많은 문제점들이 표면에 드러나는 계기를 마련해준 전쟁이었다.

본 연구는 조선 사회 내부에서 진행된 군제의 여러 문제점들이 임진왜란을 통해 드러났고, 또 임진왜란을 계기로 군제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본다. 군제의 변화가 임진왜란이란 외침으로 인해 나타났지만 변화의 요인과 주체는 어디까지나 조선 사회 내부이고 임진왜란은 그 변화의 촉발점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임진왜란을 시기 구분의 기점으로 삼는다하여 역사를 타율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임진왜란을 계기로 진행된 군제 변화는 중세 사회가 해체되는 새로운 사회 현상을 가져오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정리하려 한다.

2. 공병제에서 사병제로 변화

임진왜란 이후 나타난 중앙군제의 변화로서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군사지휘체계가 공병제(公兵制)에서 사병제(私兵制)로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피기 전에 우선 공병제와 사병제의 개념부터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병(私兵)의 의미와 여기에서 말하는 사병제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사병은 '국가의 공적인 군제에 포함되지 않고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에 사적으로 예속된

4) 사병제와 공병제에 대해서는 拙稿, 『高麗時期 府兵制의 運營과 그 原則』, 『歷史教育』 73, 2000 ; 『朝鮮初期 中央軍制의 整備와 私兵制 改革』, 『朝鮮의 政治와 社會』, 集文堂, 2002 ; 『朝鮮後期 中央軍制研究』, 도서출판 혜안, 2003, 79~81쪽 ; 『신라 하대 軍制의 변화와 그 붕괴』, 『軍史』 80, 2011, 14쪽 참조.

무력 집단'을 뜻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사병제는 '국가의 공적인 군제에서 장군(지휘관)과 군인이 비교적 고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제도'이다. 즉, 사병제는 군사지휘체계와 관련된 용어로서, 사병제의 반대는 고정된 지휘관과 고정된 군인과 고정된 지휘관이 없는〔無定將 無定卒〕⁵⁾ 상태로 운영되는 공병제이다.⁶⁾

공병제가 끊임없이 지휘관과 그 군인을 교체하는 체제라면, 사병제는 고정된 지휘관이 군인을 선발하여 훈련시키고 이들을 이끌고 직접 전쟁에 나가는 체제이다. 부대의 전투력은 개별 군인들의 힘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장수의 지휘 하에 군인들이 일치단결했을 때 강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전투력 측면에서 사병제는 공병제보다 훨씬 강점이 있다. 그러나 사병제 하에서 군인들은 국왕보다는 자신의 지휘관에 더욱 충성하는 경향이 있다. 정국이 안정되었을 때에는 사병제의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지만, 정국이 불안할 때에는 지휘관의 요구에 따라 군인들이 반란에 동원될 소지가 있다. 즉 정치적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사병제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에 왕조 초기 정치적 안정이 무엇보다 강조될 때 사병제가 혁파되고 공병제가 확립되곤 하였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사병제가 혁파되고 공병제가 확립된 시기는 고려 광종(949~975) 이후~무신정변(1170) 전까지와 조선 태종 즉위년(1400) 사병혁파 이후~임진왜란(1592) 전까지이다. 고려 광종 때는 천년 이상 지속되어오던 사병제가 혁파되고 공병제가 확립된 첫 번째 시기이다. 역사상 국가가 등장하고 군사제도가 출현한 이후 군사지휘체계는 사병제로 운영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원시사회를 지나 국가가 성립한 고대부터 각 지역의

5) '無定軍 無定將'은 柳馨遠의 『礪溪隨錄』에 나오는 공병제를 표현하는 용어이다. 즉 『礪溪隨錄』 권21, 兵制 五衛 (東國文化社 影印本 p.390)에서는 '本朝雖有五衛之設 衛將十二員 通號五衛將 而未嘗定任爲某衛將 每至入直闕內 受點定所 三日而更 以至監門巡衛 皆無定軍 亦無定將'이라 하여 조선초기에 공병제 형태로 운영되는 군제를 '無定軍 無定將'이라고 표현하였다.

6) 고정된 지휘관과 고정된 군인이 없는 공병제를 중국사에서는 '兵無常將, 將無常兵'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劉建軍, 『第十三講 軍神政權與純軍政權』, 『古代中國政治制度十六講』, 上海人民出版社, 2009, 214쪽의 '3.兵無常將 將無常兵' 참조.

부족장이 군사 지휘관이 되어 부족원들을 군인으로 만들고, 이들을 훈련시키며 전투에 동원하여 자신의 세력을 넓혔을 것이다. 사병제는 삼국시기에 특히 그 진가를 발휘하였다.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은 각기 유능한 지휘관들이 휘하 군인들을 선발하여 훈련시켜 삼국통일 전쟁에 나섰던 것이다.⁷⁾ 그러나 신라 하대에 들어오면서 사병제의 폐해가 극단적으로 노출되었다. 진골 귀족들은 사병제 하의 휘하 군인을 동원하여 왕위 쟁탈전에 나섰다. 군인들도 왕보다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휘관에 더욱 충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하여 기존의 왕들이 피살되고 새로운 군사적 실력자가 왕위를 차지하는 일이 빈번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신라의 군체가 붕괴되었다.

나말여초의 혼란기를 겪은 이후 고려 광종(949~975) 때에 이르러 사병제가 혁파되고 공병제가 확립되었다. 조선왕조가 개창한 후인 태종 14년(1414) 병조에서는 고려 때의 상황을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전조(前朝)의 성시(盛時)에는 시위(侍衛)하는 병사가 다만 번(番)갈아 입직(入直)할 때 감히 그 장수(將帥)에게 사알(私謁)하지 못하였으며, 길거리에서 서로 만나도 또한 감히 사사로이 말하지 못하였습니다.⁸⁾

여기에서 ‘전조(前朝)의 성시(盛時)’는 광종 이후 고려전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광종 이후 공병제가 시행될 때에는 지휘관과 병사 간에 사적인 접촉은 일체 금지되었다. 이와 같이 군인들의 사적인 접촉이 금지되고, 군인들이 철저히 통제된 상태에서 문반 위주의 정치체제가 성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무신정권이 성립한 이후 공병제는 해체되고 다시 사병제가 등장하였다.

무신정권 성립 이전에는 국왕의 명령이 있어야만 군사를 동원할 수 있었다.

7) 『三國史記』 41, 列傳 1, 金庾信 上. ‘(金)庾信揀得國內勇士三千人’

8) 『太宗實錄』 27, 太宗 14년 2월 癸丑, 2책, 6쪽. ‘前朝盛時 侍衛之兵 止於更番入直 不敢私謁於其將 道途相遇 亦不敢私語’

무신정변 당시에도 이고(李高)와 이의방(李義方)은 국왕의 명령이라고 거짓으로 속여서야 비로소 순검군을 동원하여 정변을 일으킬 수 있었다.⁹⁾ 그러나 무신정권이 수립된 이후 사병제가 등장하자 병권은 무신 집권자들에 의해 장악되었다.¹⁰⁾ 집권자와 장수들의 마음대로 군인들이 소집·동원되었고, 이들의 집권 도구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원간섭기나 고려 말에도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어, 충렬왕 29년(1303) 8월 홍자번(洪子蕃)과 재추들은 군인을 거느리고 왕궁을 포위하고 국왕을 협박하면서 폐행(廢幸) 오기(吳祁)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다.¹¹⁾ 또 우왕 5년(1379) 9월 최영과 경복흥, 이인임 등은 군대를 대대적으로 집결하고 국왕을 협박하면서 왕의 유모 장씨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다.¹²⁾ 군사를 동원하여 국왕을 협박할 정도로 군사 동원이 국왕의 뜻에 반(反)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과 조선왕조 개창이라는 역사적 사건 역시 이러한 사병제를 기반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

조선왕조가 건국되고 1·2차 왕자의 난 등 수차례 권력쟁탈전을 치른 이후 결국 정종 2년(1400) 4월, 당시 집권자인 태종에 의해 사병제 혁파가 이루어졌다.¹³⁾ 고려 무신정권이 등장하고 사병제가 도입된 지 무려 230년 만에 사병제가 혁파되고 공병제가 회복된 것이다. 사병제가 혁파된 이후 군인들은 장군 집에 갈 수 없었으며¹⁴⁾, 또 장군들이 군인들을 거느리고 사냥 가는 것도 금하였다.¹⁵⁾ 심지어 갑사(甲士)들이 모여서 술 마시는 것까지 금지되었다.¹⁶⁾ 그리고 태종 8년(1408)에는 병조와 의흥부(義興府)의 명문(明文) 없이 사사로이 군사를 소집하는 자는 모두 모역으로 논한다는

9) 『高麗史』 19, 世家, 毅宗 24년 8월 丁丑, 上冊, 387쪽. ‘先行矯旨 集巡檢軍’

10) 『高麗史』 81, 兵 1, 序文, 中冊, 775쪽. ‘毅明以後 權臣執命 兵柄下移 悍將勁卒 皆屬私家’

11) 『高麗史節要』 22, 忠烈王 29년 8월, 581쪽.

12) 『高麗史節要』 31, 禔王 5년 9월, 776쪽.

13) 『定宗實錄』 4, 定宗 2년 4월 辛丑, 1책, 169쪽. ‘罷私兵’

14) 『太宗實錄』 1, 太宗 원년 5월 戊申, 1책, 204쪽.

15) 『太宗實錄』 9, 太宗 5년 3월 乙卯, 1책, 322쪽. ; 『太宗實錄』 13, 太宗 7년 4월 辛卯, 1책, 389쪽.

16) 『太宗實錄』 21, 太宗 11년 3월 辛亥, 1책, 577쪽.

법이 반포되었다.¹⁷⁾ 이에 따라 병조의 공문이 없으면 비록 장군이라도 병사 1명을 마음대로 부릴 수 없게 되었다.¹⁸⁾ 이러한 정책으로 조선전기 공병제는 확립되었고, 공병제 관념은 이후 수백 년 동안 조선 사회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임진왜란 당시 객재우가 의병을 일으키자 함천군수 전현룡(田見龍)이 그를 역적으로 보고하고 체포하려는 일이나¹⁹⁾, 청양현감 임순(任純)이 호서의병장 조헌을 도우려하자 순찰사 윤국형(尹國馨)이 그를 체포하여 치죄한 일,²⁰⁾ 건의대장(建義大將) 심수경(沈守慶)이 충청도 유생들의 의병장 추대를 거절하면서, “조정의 명령 없이 의(義)를 들어 기병하는 것은 사리와 체통이 편치 못하다.”²¹⁾라고 한 경우 모두 조선전기의 공병제 관념 속에서 나온 말들이다.

조선전기에는 이러한 사병제 혁파, 공병제 시행에 대한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태종 14년(1414) 4월 대언(代言) 한상덕(韓尙德)은 사병제 혁파 이후

사병을 혁파하였기 때문에 군사가 장수의 얼굴을 알지 못하니,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장수가 비록 위험에 처해지더라도 아무도 구원하려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장수는 군사를 훈련하지 못하고, 군사는 (장수를) 사랑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서 모두 힘써 싸우지 않으니, 어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²²⁾

라는 비난이 조야(朝野)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국왕에게 아뢰고 있다. 세종 29년(1447) 신숙주(申叔舟) 역시 사병제 혁파로 ‘장수는 군인을 알지 못하고

17) 『太宗實錄』 22, 太宗 11년 11월 癸未, 1책, 611쪽.

18) 『世宗實錄』 66, 世宗 16년 10월 庚午, 3책, 599쪽. ‘無兵曹公文 雖一隊副 護軍不得擅發’

19) 『宣祖實錄』 27, 宣祖 25년 6월 丙辰, 21책, 505쪽. 『鶴峯集』 3, 申教郭再祐狀.

20) 『宣祖修正實錄』 26, 宣祖 25년 8월 戊子, 25책, 624쪽. ‘靑陽縣監任純以兵百餘人助憲, 國馨以爲, 違其節度, 囚繫治罪’

21) 『瑣尾錄』 2, 雜錄, 右建義大將沈相爲義兵都體察使. ‘無朝廷命令 而邊應儒士等之請 舉義起兵 事體未便’.

22) 『太宗實錄』 23, 太宗 12년 4월 丙子, 1책, 633쪽.

군인은 장수를 알지 못하여' 군사력이 허약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사병제의 복구를 요청하는 책문을 올리고 있다.²³⁾ 임진왜란 당시 유성룡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군사적 자질이 없다.”라는 국왕 선조의 말에 대하여

전조(前朝)인 고려 때에는 권신들이 병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조(我朝)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혁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내환(內患)은 없지만 외우(外憂)가 있게 된 것입니다. 출전할 때 장수는 있으나 그에 소속한 병사가 없게 된 것입니다.²⁴⁾

라고 하여, 전쟁에서 패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군사적 자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병제를 혁파하고 공병제를 시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조선전기 공병제는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군사들을 출전시켜야할 때 단지 장수만 있고 소속된 병사가 없는 상태를 가져왔다. 이에 조선은 초전에서 패배를 면치 못했다. 임진왜란 당시 이정엄(李廷穉:1541~1600)은 이러한 군제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지금 조정에는 숙장(宿將)이 없고, 장수에게는 친병(親兵)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평시에는 군인을 돌보지 않다가 갑자기 전쟁이 닥치면 군인들을 싸움터로 내몰고, 군인들은 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니 어찌 나라를 지키는 책임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마땅히 전조(前朝)의 폐기(牌記)나 명(明)의 속오제(束伍制)와 같이 뛰어난 자를 장수로 삼아 그로 하여금 군인을 스스로 택하여 훈련시키도록 해야 합니다.²⁵⁾

위에서 이정엄은 조선전기의 군제를 비판하면서 조선 건국 무렵 개혁의

23) 申叔舟, 『保閑齋集』 권13, 策『置私兵 禮大臣 分政權 復政房』, ‘革私兵者 懲高麗權臣跋扈之弊也 夫私兵之設 初欲居京城 而衛王室 及其弊也 君弱臣強 冠屢倒置 此私兵之不可不革也 而昇平日久 兵備惰弛 將不識兵 兵不知將 倉卒不可用也 此所以有復私兵之請也’

24) 『宣祖實錄』 48, 宣祖 27년 2월 丙子, 22책, p.229. ‘上曰 賊之號令風生 可見有才矣 我國之人無才 故不能耳 成龍曰 前朝高麗時 權臣持兵 而我朝則革去此弊 故無內患而有外虞矣 出戰時 只有將帥 而無素屬之兵矣’

25) 李廷穉, 『四留齋集』 6, 十條筭 丁酉(선조 30년:1597) (한국문집총간 51책 304쪽)

대상이 되었던 고려 말 사병제인 '패기(牌記)'²⁶⁾나, 명나라 속오제로 군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결국 임진왜란으로 인해 조선전기 군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태에서 명확한 지휘편제와 상하 연대책임으로 군대를 운영하는 사병제 형식을 다시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시기 정부 관료들은 '장수는 군인을 알고, 군인은 장수를 알아야(將知其兵 兵知其將)' 효과적으로 응적할 수 있고²⁷⁾, 장수가 병졸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병졸이 장수를 부모처럼 따라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병졸들이 장수의 명령에 따라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게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것이다.²⁸⁾ 이러한 분위기에서 임진왜란 중 새로이 설립된 훈련도감에서는 명확한 지휘편제를 강조하는 『기효신서』의 속오법을 도입하였다.

선조 26년(1593) 10월에 설립된 훈련도감에서는 『기효신서』의 속오법에 따라 대장(大將)-중군(中軍)-별장(別將)·천총(千總)-과총(把總)-초관(哨官)-군병으로 이어지는 명확한 지휘 체계를 수립하였다. 조선전기에 장관과 군인을 끊임없이 교체하는 공병제와는 달리, 훈련도감은 장관과 군인을 영속적·일원적인 지휘체계로 편제하였고, 이러한 군제 하에서 상명하복은 철저히 관철될 수 있었다. 군인들은 지휘관의 명령을 무조건 복종하였던 것이다.²⁹⁾ 이러한 군대 조직의 성격으로 인해 조선후기에 훈련대장의 정치적 영향력은 막강해졌다. 훈련대장은 훈련도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종2품 중군 이하 종9품 초관에 이르는 지휘관 전체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훈련대장은 훈련도감의 지휘권과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26) 『太祖實錄』 1, (總書) 辛禡 6년 8월, 1책 9쪽. '高麗末 官不籍兵 諸將各占爲兵 號曰牌記 大將'

27) 『宣祖實錄』 134, 宣祖 34년 2월 己卯, 24책 197쪽.

28) 『宣祖實錄』 51, 宣祖 27년 5월 丁未, 22책 287쪽.

29) 柳赫然, 『野堂遺稿』 권3, 附錄, 遺事 (한국문집총간 122책 345쪽). '上嘗欲觀李浣軍令 密教迫浣 浣於演場 麾旗向江 士爭赴水 如是者三 遂翻麾直向都城 … 浣兵直入 時水橋市人 姓黃者 拔折草刀向浣 爲所縛 上御敦化門觀之 兵到咫尺 鳴金始散 三司請浣罪 上不允' 위 사료에서 보이는 것처럼 도감군들은 훈련대장 李浣의 명령에 따라 강물 속에 뛰어들기를 세 번이나 하고, 심지어 국왕의 지적까지 달려들어 국왕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있었다. 1623년 인조반정에서 훈련도감군들은 훈련대장 이흥립(李興立)의 명령에 따라 반정군이 몰려올 때 국왕 광해군에 대한 호위를 포기하여 결국 반정을 성공하게 하였다. 이러한 반정을 통해 왕위에 오른 인조는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인물인 훈척 무신을 훈련대장에 임명하였고, 이것은 조선후기에 관례가 되었다.³⁰⁾

훈련대장은 국왕의 심복인 동시에 집권세력의 권력 기반이기도 하였다. 훈련대장은 왕권의 확립·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집권세력 내의 인물로 임명되어 집권세력의 정치질서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집권세력이 교체되는 환국(換局)이 일어날 때 훈련대장 역시 교체되었다. 인조반정 이후 숙종이 즉위할 때까지 60년 동안은 환국과 같은 격심한 정치적 변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기간에 훈련대장의 교체는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숙종 대에 들어와 서인과 남인, 노론과 소론의 정쟁이 심화되면서 환국이 거듭되었고, 이러한 환국이 발생할 때마다 훈련대장은 교체되고, 처형되는 것이 상례가 되었다. 새로운 집권세력은 과거의 훈련대장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새 정권의 안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영·정조대를 거쳐 세도정치기에도 김조순과 조만영 등 권력집단의 핵심 인물들은 훈련대장 등 군영대장을 맡고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그들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조선후기 정치에서 훈련대장 등 군부 세력은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즉 임진왜란 이후 조선 정부가 사병제를 다시 채택하자, 조선후기 정치에서 군사적 비중과 영향력이 다시 높아지게 된 것이다.

30) 『顯宗改修實錄』 권5, 顯宗 2년 6월 癸巳, 37책 237쪽. ‘盖以輩下掌兵之任 自仁祖以來 連付勳戚’

3. 번상병제에서 장번병제로 변화

임진왜란 이후 나타난 중앙군제의 두 번째 변화는 군인들이 번상병(番上兵)에서 장번병(長番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조선전기의 중앙군인 갑사(甲士)와 정병(正兵) 모두 일정한 번차에 따라 교대 근무하는 번상병제로 운영되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는 서울에서 교대 없이 계속 장번으로 근무하고 급료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훈련도감군이 등장하였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중앙군은 대체로 두 가지 계통의 군인으로 구성되었다.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으면서 군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있는가 하면,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수도 받지 못하고 군역을 치러야 하는 군인이 있었다. 전자를 대표하는 것이 조선전기의 갑사, 조선후기의 훈련도감군이라면, 후자를 대표하는 것이 조선전기의 정병, 조선후기 군영의 여러 번상병들이다. 이 중 중앙군의 중추적인 군사력을 이루는 것은 전자이다. 조선전기의 갑사는 부농, 지주층 출신의 무사로서, 그리고 조선후기의 훈련도감군은 수도에 상주하는 장번병으로서 국가와 정권의 존립을 보장하는 무력적 기반이었다. 이에 반해 후자는 지방에 거주하는 번상병으로서 상변 시에는 중앙군에 소속되었고, 하변 시에는 지방군에 편입되는 존재였다. 이들은 전시에는 모두 전투에 동원되었겠지만, 평시에는 인적·물적 수취대상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중앙군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수를 받으면서 군무를 수행하는 군인을 대표하는 조선전기의 갑사, 조선후기의 훈련도감군에 주목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전기의 갑사는 번상병제로 운영되었다. 중앙군의 중추적 군사력이 이와 같이 번상병제로 운영되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조선전기의 갑사가 유일하다. 삼국·통일신라시대 중앙군의 중추적 군사력은 골품제에 기반을 둔 무관으로서 이들은 국가로부터 토지와 녹봉을 받고 장번(長番)으로 근무하였다.³¹⁾ 고려시대 중앙군의 중추적 군사력은 5품 이하의

31)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군제에 대해서는 拙稿, 「고구려의 軍制와 그 承繼」, 『歷史敎

무관인 부병(府兵)으로서 이들 역시 국가로부터 전시과와 녹봉을 받고 장번으로 근무하였다.³²⁾ 그러나 조선전기 중앙군의 중추적 군사력인 갑사는 5품 이하 무관이었지만 번상병제로 운영되었다. 갑사가 번상병제로 운영된 내력은 다음과 같다.

갑사는 원래 태조 이성계의 휘하군사로 출발하였다. 고려 말의 군제는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무신정변 이후 공병제가 무너지고 사병제가 성립하면서 장수 중심의 군사체제를 갖추었다. 그래서 군대의 징발과 통솔권이 모두 장수에게 위임되는 형편이었다. 이에 따라 각 장수들은 자신의 휘하 사병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이것은 이성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성계는 대략 2,000명 정도의 휘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이야말로 이성계가 고려 말 정권을 장악하고 새 왕조를 창건할 수 있었던 무력적 기반이었다.³³⁾

이성계는 조선 국왕으로 즉위한 이후 그의 휘하 군사를 중심으로 의흥친군위(義興親軍衛)를 설치하였는데³⁴⁾, 여기에 소속된 군인을 갑사라 칭하였다. 그런데 당시 의흥친군위는 왕자와 공신들에 의해 병권이 분장(分掌)된 사병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갑사는 이들 각 통솔자에 의해 장악되었다. 이에 갑사는 1·2차 왕자의 난 때 권력의 향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후 갑사는 정종 2년(1400) 8월의 혁파 조치³⁵⁾와 그 해 12월 복립(復立) 조치를 겪으면서 국가의 공병으로 제도화되었다. 즉 정종 2년 12월 태종 즉위 이후, 태종은 그 해 8월에 혁파된 갑사 2,000명을 복립하여, 1년 고대로 1,000명씩 10사(司)에 충원하도록 하였다.³⁶⁾ 이로써 사병제로 운영되어

育』96, 2005. :『백제 軍制의 성립과 정비』, 『歷史教育』103, 2007. :『新羅 上古期 軍制의 성립과 개편』, 『軍史』73, 2009. :『新羅 中代 軍制의 구조』, 『韓國史研究』126, 2004. :『신라 하대 軍制의 변화와 그 붕괴』, 『軍史』80, 2011. 참조.

32) 고려의 군제에 대해서는 拙稿, 『高麗: 朝鮮初期의 府兵』, 『歷史教育』69, 1999. :『高麗 時期 府兵制의 運營과 그 原則』, 『歷史教育』73, 2000. 참조.

33) 拙著, 『朝鮮後期 中央軍制研究』, 도서출판 혜안, 2003, 25쪽.

34) 『太祖實錄』1, 太祖 원년 7월 丁酉, 1책 20쪽.

35) 『定宗實錄』6, 定宗 2년 8월 癸巳, 1책 183쪽.

36) 『定宗實錄』6, 太宗 즉위년 12월 辛卯, 1책 187쪽. ‘復立甲士二千 一千充諸衛之職 一年相遞爲式’

국가기구보다는 왕실과 공신들의 개인적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던 갑사는 중앙군사조직인 10사에 소속되어 삼군부(三軍府)에 의해 통솔되었다. 갑사가 삼군부로 귀속된 이후 무신정권 이래 존속한 군사와 장수의 사적 유대는 해체되고 국가 기관에 의한 공적인 군사의 통솔만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10~30인에 이르는 삼군부의 진무(鎭撫)들이 윤번으로 갑사를 지휘·통솔하였고³⁷⁾, 지휘관과 갑사의 사적 접촉은 일체 금지되었다.

그런데 태종 10년(1410) 3월 국왕은 2,000명이었던 갑사의 군액을 3,000명으로 증액하고, 이들을 상·하번으로 나누어 번상하는 군인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³⁸⁾ 이것은 그 이전에는 갑사가 모두 서울에 상주하면서 근무하였는데, 이제 이들을 2교대로 나누어 당번이 되면 상경하여 근무하면서 녹봉을 받고, 하번이 되면 귀농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호조판사 이응(李膺)은 “어찌 녹을 받는 관직자들로 하여금 상·하번으로 번상하게 할 수 있습니까?”라 하여 반대의 뜻을 표명하지만, 그 해 4월 사간원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결국 갑사는 번상하는 병종으로 굳어지게 되었다.³⁹⁾ 태종 10년 5월에는 갑사 3,000명의 번상제도가 확정되고, 동시에 각 품직에 따른 인원수도 정해졌다.⁴⁰⁾ 이로써 조선전기 중앙군의 중추적 군사력인 갑사는 무관으로서 항상 서울에 상주하면서 근무하던 상태에서 일반 민의 의무 균역인 시위패(후에 정병)와 마찬가지로 병농일치(兵農一致)에 따라 번상하는 병종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갑사를 번상제로 운영하는 것은 국왕 태종의 강력한 의지에

37) 徐居正, 『四佳集』 권1, 記「五衛都總府題名記」(한국문집총간 11책 199쪽).

38) 『太宗實錄』 19, 太宗 10년 3월 戊辰, 1책 531쪽. '予將使甲士 更迭番上 當番者受祿 下番者歸農'

39) 『太宗實錄』 19, 太宗 10년 4월 丁巳, 1책 543쪽.

40) 『太宗實錄』 19, 太宗 10년 5월 丙戌, 1책 550쪽.

이때 甲士는 10司 50領의 매 1명마다 司直(5품) 6명, 副司直(6품) 12명, 司正(7품) 18명, 副司正(8품) 24명, 合計 60명이 배정되었다. 즉 갑사는 1사=5명 당 300명으로, 10司로 이루어진 三軍 전체 3,000명의 군액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상번 갑사 2,000명은 녹봉을 받고, 하번 갑사 1,000명은 녹봉을 받지 못하였다. 마침내 태종 10년 5월 국왕이 상·하번 갑사 3,000명에게 職牒을 정식으로 수여함으로써 갑사의 번상은 제도화되었다.

의해 가능하였다. 태종은

(갑사를) 1천 명을 더 정해 2번(番)으로 나누어 1년 만에 서로 교대하면, 나라에는 시위(侍衛)의 허소(虛疎)함이 없고, 집안에는 폐농(廢農)의 탄식이 없을 것이며, 사람들은 부모(父母)·처자(妻子)가 여러 해 동안 떨어져 있는 원망이 없을 것이다.⁴¹⁾

라고 하면서 갑사의 번상제를 추진하였다. 사간원에서 “전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고 중농(重農)의 뜻 역시 지극합니다.”라고 동조하면서 갑사의 번상제가 관철되었다. 태종은 갑사의 수를 늘려 번상제로 운영하면 ‘시위의 허소함이 없고, 폐농의 탄식이 없으며, 부모·처자가 여러 해 떨어져 있는 원망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갑사의 번상제를 추진하였지만, 그의 의도는 이와 같이 백성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역사상 태종만큼 병권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왕도 드물었다. 태종은 자신의 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개창할 수 있었던 것은 병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했다.⁴²⁾ 따라서 그는 병권의 향방에 대하여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기울였다. 태종 스스로

자고(自古)로 병권(兵權)의 연혁(沿革)에 대하여 과인(寡人)같이 용심(用心)한 자가 없다.⁴³⁾

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와 같이 병권의 향방에 대하여 촉각을 곤두세운 태종은 갑사가 교대 없이 장번제로 근무를 할 경우 그 지휘관인 장군과 필연적으로 가까워질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즉 사병제 혁파로 일단 장군과 갑사의 사적 관계를 공식적으로 차단시켰지만, 이들이 서울에서 오랫동안 함께 있을 경우 사병적 관계가 필연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41) 주 35)와 같음.

42) 『太宗實錄』 14, 太宗 7년 9월 丁巳, 1책 413쪽. ‘上曰 … 我太上 由都摠諸軍而卽位’

43) 『太宗實錄』 18, 太宗 9년 8월 丁卯, 1책 504쪽.

태종은 갑사의 번상제를 적극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지방에서 살면서 교대로 서울로 번상 근무하면 장군과 만날 기회가 적어지고 따라서 사적 관계가 형성될 우려도 적어지기 때문이다.

태종 때 장번제에서 번상제로 바뀐 갑사는 세종대 이후 번수(番數)가 들어나면서 실제 서울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게 된다. 즉, 갑사들은 태종 10년(1410)에는 2교대로 1년씩 근무하던 데서, 세종 10년(1428)에는 3교대로 1년씩 근무하였고, 세종 22년(1440)에는 6교대로 6개월씩 근무하였으며, 세조 3년(1457)에는 11교대로 4개월씩 근무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차례 변동이 있었던 갑사의 근무 번수는 결국 『경국대전』에서 5교대로 6개월씩 근무하는 것으로 확정된다.⁴⁴⁾ 갑사는 2년 6개월마다 서울로 올라와 6개월간 근무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갑사의 근무 번수가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갑사의 정원도 증가하여 실제 서울에서 근무하는 갑사의 수는 대략 1,500명 선을 유지하였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갑사의 정액은 14,800명인데 여기에는 수도에 번상하지 않는 양계갑사(兩界甲士) 6,800명과 호랑이를 잡는 착호갑사(捉虎甲士) 440명이 포함되어 있다. 갑사는 5교대로 나누어져 6개월씩 복무하였으므로 실제 근무하는 자는 2,860명이었는데, 양계갑사와 착호갑사를 제외하면 수도에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병력은 1,500명 정도이다.

이와 같이 갑사의 정원을 증가시키고 번수(番數)를 늘리어 이들이 지방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자 점차 갑사의 무예 수준이 떨어지고, 번상근무 역시 부실하게 되었다. 세종 27년(1445) 의정부에서는

갑사는 국왕을 시위하는 정졸(精卒)인데 번상(番上)하는 날은 적고 퇴휴(退休)하는 날은 많으며, 그 수효도 외람되게 많아 정예(精銳)라 할 수 없사운데, 하번(下番)할 동안은 한가하게 놀면서 해이해져서 군장(軍裝)과 마필(馬匹)을 버려두고 돌아보지 않다가, 번상(番上) 때가 되면 혹 서로 대차(貸借)하니, 만일 급한 일이 있게 되면 실상 쓸모없는 군인이 될 것입니다.⁴⁵⁾

44) 車文燮, 「鮮初의 甲士」, 『朝鮮時代軍制研究』, 檀大出版部, 1982, p.27. <표> 참조.

45) 『世宗實錄』 109, 世宗 27년 7월 庚寅, 4책 626쪽.

라 하여 번상제로 운영되는 갑사의 실태를 지적하고 있다. 갑사들이 하번 하여 집에서 한가하게 놀면서 지내니, 이들은 쓸모없는 군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갑사들은 “상변할 때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대립(代立)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 점열하는 것이 상례이다.”⁴⁶⁾라고 할 정도였다. 이와 같이 상번 시 다른 사람을 대립시키고 자신은 고향에서 군사 훈련과는 무관하게 편안히 지내던 사람들이 정예 군사가 될 리 없다.

갑사의 번상제는 태종이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도입하였지만, 갑사의 군사적 실력을 저하시키고 국가의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선조는 “이른바 정병·갑사라 하는 자들은 모두 군사가 아니다.”⁴⁷⁾라 하면 당시 군사력의 허약함을 통탄하였다. 또 선조는 갑사와 정병같이 병농일치로 운영하는 군사들은 군인이 아니라 농부라고 하였다. “병사들을 농토로 보내면 이들은 농부이지 어떻게 군사 훈련할 수 있겠는가?”⁴⁸⁾라고 반문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번상제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다. 중앙군의 중추적인 군사력을 번상제로 운영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임진왜란은 조선과 중국, 일본이 참전한 전쟁이기 때문에 삼국의 군제가 극명하게 비교되었다. 당시 국왕과 관료들은 임진왜란 초기 패전 원인을 규명하는 가운데 우리 측 군사력의 열세가 군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인식하였다. 일본이나 중국은 모두 병농분리(兵農分離), 장번제로서 군인들이 급료를 받으면서 생활하여 평소 훈련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병농일치(兵農一致), 번상제로서 군인들이 농사일 때문에 군사 훈련은 등한히 한 것이 군사력의 열세를 가져왔다는 것이다.⁴⁹⁾ 이에 선조

46) 『中宗實錄』 57, 中宗 21년 7월 壬辰, 16책 518쪽.

47) 『宣祖實錄』 45, 宣祖 26년 윤11월 癸巳, 22책 138쪽.

48) 『宣祖實錄』 50, 宣祖 27년 4월 乙丑, 22책 254쪽. ‘上曰 … 若使兵就農 則是乃農夫也 豈能坐作擊刺乎?’

49) 『宣祖實錄』 33, 宣祖 25년 12월 己酉, 21책 592쪽. ; 『宣祖實錄』 34, 宣祖 26년 정월 庚申, 21책 596쪽. ; 『宣祖實錄』 41, 宣祖 26년 8월 辛卯, 22책 68쪽.

26년(1593) 2월 국왕은 비변사에 군제 개혁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다.⁵⁰⁾ 그해 10월, 장변병제로 운영되는 훈련도감의 설립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훈련도감의 설립으로 중앙군제가 번상병제에서 장변병제로 변화하게 되었다. 훈련도감군은 장변 급료병으로서 서울에 상주하면서 국왕의 시위와 서울의 경비·방위 임무를 수행하였던 것이다. 선조 27년(1594) 비변사에서 “훈련도감을 설치할 때 여러 사람들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그 효과가 뚜렷하였다.”⁵¹⁾라고 말할 정도로 장변병인 훈련도감은 번상병보다 훨씬 우수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장변병제는 서울에 새로운 현상을 가져왔다. 우선 장변병제는 도성 내에 소비 인구의 증가를 가져왔다. 정상기(鄭尙驥: 1678~1752)는 『농포문답(農圃問答)』에서 임진왜란 이후 군문이 증설되면서 농사짓지 않는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어 전국의 물자를 소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⁵²⁾ 이러한 서울의 소비인구 증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서울의 상업 인구나 서울 근교의 상업적 농업을 경영하는 인구의 증가를 가져왔다.⁵³⁾ 즉 훈련도감과 같은 장변병의 등장은 군인과 그 가족들만으로도 서울의 인구를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군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업인구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것이 조선 후기 서울의 인구증가를 가져오게 한 원인이 되었다.

또 장변병제는 조선후기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을 가져왔다. 훈련도감군은 주로 빈천한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들의 군역 복무실태는 조선전기와 같지 않았다. 갑사와 정병으로 대표되는 조선전기의 중앙군은 대체로 지방에 근거가 확실한 사람들이었다. 특히 갑사는 지방의 부유층으로서 이들은 당번이 되면 기마(騎馬)와 복마(卜馬) 그리고 종자를 거느리고 서울로

50) 『宣祖實錄』 35, 宣祖 26년 2월 丁亥, 21책 622쪽.

51) 『宣祖實錄』 49, 宣祖 27년 3월 己卯, 22책 231쪽.

52) 鄭尙驥, 『農圃問答』 設兵制 (乙酉文庫 125, 乙酉文化社 270쪽).

我國兵制 當初五衛 頗合古制 壬辰以後 權設軍門 至於今日 多至四五營 不耕之民 聚于京師 食四方之貢賦 靡一國之錢布.

53) 서울 근교의 상업적 농업에 대해서는 金容燮, 「朝鮮後期の經營型 富農과 商業的 農業」, 『朝鮮後期農業史研究』, 一潮閣, 1971. 참조.

올라와 군역 근무에 임했다. 즉 조선전기의 중앙군은 지방에서 미·포(米·布)를 가져와 서울에서 소비생활을 하면서 단기간의 군역 근무만 했을 뿐이다. 그러나 훈련도감 군인들은 이와 달리 가족을 데리고 서울에서 상주하면서 군역 근무에 임했다. 그런데 훈련도감에서 지급하는 급료와 보포가 서울 생활에 충분하지 않자 이들은 군역 근무 이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각종 상업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도감군의 상업 활동은 시전 상인과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조선후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⁵⁴⁾

이외에도 장번병제의 등장은 서울에 주택문제, 위생문제, 범죄문제 등 이른바 도시문제를 야기했다. 훈련도감군의 서울 집중으로 인해 서울은 “집이 없는 소민(小民)들이 한 뼘의 땅을 얻고자 해도 얻을 수 없다”⁵⁵⁾라고 할 만큼 택지 확보가 쉽지 않게 되었다. 또 훈련도감군은 빈민층으로서 이들의 거주지는 불결하여 전염병이 돌 때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문제, 위생문제보다 지배층들이 더욱 우려한 것은 훈련도감군으로 인한 각종 범죄의 빈발과 사회질서의 문란, 중세적 국가체제의 동요였다. 대략 한성부 전체 호수의 10% 이상을 장번병인 훈련도감군이 차지하였는데, 이들에 의해 강도와 강간 사건이 빈발하였고, 양반 사족이 구타당했으며, 또 집단적으로 정부에 저항하는 시위가 일어나기도 하였다.⁵⁶⁾ 이와 같이 장번병제의 등장은 중세 사회질서를 동요시키고, 서울에 새로운 사회 현상을 가져왔다.

54) 拙稿, 『17세기 訓練都監 軍制와 都監軍의 활동』, 『서울학연구』 2호, 1994.

55) 『承政院日記』 270, 肅宗 5년 6월 23일, 14책 372쪽.

56) 拙著, 『朝鮮後期 中央軍制研究』, 도서출판 혜안, 2003, 277~292쪽.

4. 기병(사수) 중심에서 보병(포수) 중심으로 변화

임진왜란 이후 나타난 중앙군의 세 번째 변화는 기병 중심에서 보병 중심으로 군체가 변환하였다는 점이다. 임진왜란 이전까지 조선군 전술은 기병전술이 주축을 이루었다. 기병전술은 고대사회로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장기였다.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궁마(弓馬) 위주의 기병전술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알 수 있듯이, 삼국시대 이래 일찍부터 발달하였다. 이후 고려시대에는 기마전술에 능한 거란과의 3차 전쟁, 여진 정벌, 몽골과의 전쟁 과정에서 기병전술의 필요성이 고조된 바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건국한 조선왕조는 북방민족에 대한 기병전술 훈련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⁵⁷⁾

실제로 조선왕조의 주 방어대상은 임진왜란 전까지 늘 북방민족이었다. 물론 남쪽의 왜구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왜구의 침습에 대해서는 대마도정벌을 통해 그 근거지를 소탕하는가 하면, 계해약조(1443)를 맺어 일본의 무역요구를 적당한 수준으로 들어주어 대일관계는 비교적 안정되었다. 반면에 북방 야인들의 변경침략은 회유와 정벌이라는 교린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다. 특히 세종대에 4군 6진의 영토개척 과정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던 여진족과의 충돌이 벌어지자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었다.⁵⁸⁾

조선 초기에 여진족의 기병위주 전술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병서(兵書)인 『진도지법(陣圖之法)』과 『계축진설(癸丑陣說)』에는 50명을 기본 전투 단위로 편성하고, 다수의 예비 병력인 유군(遊軍)을 두어 적의 임기응변에 대처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구분된 기본 전투 단위에서 전체의 약 40% 이상의 병력은 기병으로 편성하여 여진족의 속도전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조선전기 군사 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기병과 보병의 편성 숫자를 5:5 정도로 동일한 인원으로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숫자상

57) 沈勝求, 『朝鮮時代의 武藝史 研究-毛毬를 중심으로-』, 『軍史』 38호, 1999. 126~127쪽.

58) 위의 글.

으로 볼 때 동일한 편성 인원이며, 보통 기병 1명당 보병 5~7명을 상대할 수 있으므로 전투력을 바탕으로 비교해 본다면 조선군은 보병에 비해 몇 배 이상의 비중으로 기병 전력을 편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⁵⁹⁾

이와 같이 조선전기 군사체제에서 기병은 중추적 군사력을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전기에 기병들이 타는 말은 매우 중시되었다. 태종 9년(1409) 사간원에서는 “나라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군사이고, 군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말이다.”⁶⁰⁾라고 하였고, 세종 29년(1447) 의정부에서도 “농사에서 소가 중요하듯이, 군사에서 말이 중요하다.”⁶¹⁾라고 하여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을 국가에서 기병들에게 분배해 준 것은 아니었다. 기병은 갑사와 기정병(騎正兵) 등의 병종이 담당하였는데, 이들은 자체적으로 말을 마련하여 군역 근무에 임하여야 했다. 즉 갑사는 스스로 기마(騎馬)와 복마(卜馬·짐말), 군장 등을 갖추고 종자를 거느리고 상경하여 도성 경비와 궁궐 숙위를 담당하였고, 기정병 역시 기마·복마를 갖추고 서울로 올라와 군장 점고를 받고 군역에 임했다. 갑사들은 취재 시험에서 합격하였더라도 말이 없으면 취소가 되었고⁶²⁾, 기정병들은 기마와 복마를 갖추지 못하여 군장 점고에서 빠질 경우 절도사와 수령, 호송 군관, 그리고 본인 모두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⁶³⁾ 따라서 갑사와 기정병 등 기병들은 군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말을 준비하여야 했다.

그런데 16세기에 들어와 지주제의 전개 속에서 확대되는 농지 개간에 의하여 목장이 줄어들면서 말의 수가 감소하고 있었다.⁶⁴⁾ 기존연구에 의해서도 14세기 후반부터 연해지역의 낮은 곳에 설치된 목장이 해도(海島)로 옮겨지고 있었고, 16세기에는 해도의 목마장도 대부분 개간되어 가는 추세에

59) 崔桐國, 『朝鮮後期 騎兵의 馬上武藝 研究』, 중앙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11쪽.
 60) 『太宗實錄』 18, 太宗 9년 11월 壬午, 1책 517쪽. ‘國之所重者兵也 兵之所重者馬也 故周制掌兵之官 不曰司兵 而曰司馬 馬之於國 其用重矣’
 61) 『世宗實錄』 116, 世宗 29년 5월 丙辰, 5책 25쪽. ‘牛之於農 馬之於兵 所係至重’
 62) 『世宗實錄』 44, 世宗 11년 5월 壬申, 3책 182쪽.
 63) 『成宗實錄』 29, 成宗 4년 4월 戊辰, 9책 15쪽.
 64) 『中宗實錄』 88, 中宗 33년 10월 癸未, 18책 224쪽.

있었다고 한다.⁶⁵⁾ 이에 따라 말의 수요는 격감하였다. 중종 17년(1522) 특진관 고흥산(高荊山)은 성종 대 말의 수요는 4만 여 필에 달하였는데, 지금은 겨우 2만 여 필에 불과하고 그나마 거의 쓸모없는 품종이라고 말하고 있다.⁶⁶⁾ 불과 3~40년 만에 말의 수가 절반으로 감소하였던 것이다. 그 후 선조 33년(1600) 좌의정 이항복 역시 조선초기에는 7만 필, 중종 대에는 3만 필, 명종 대에는 1만 필로 말의 수요가 점차 감축되고 있었다고 말하였다.⁶⁷⁾ 이외에도 당시 상품 유통의 진전 속에서 상인들은 말을 도살해서 판매하였고,⁶⁸⁾ 향촌에서는 운송용으로 말을 혹사시키면서 말의 수요가 격감하였다.⁶⁹⁾ 이러한 상황에서 말 값은 폭등하였다. 말 1필의 가격이 면포 200필에 달할 정도였다.⁷⁰⁾

16세기 이후 말은 줄어들고 말 값은 폭등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기병들은 말을 소유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 관료들은 ‘예전에는 기마 군사가 천여 명이었는데 지금은 겨우 4~50명에 불과하다.’⁷¹⁾라거나, ‘말을 가지고 있는 군사가 백에 하나, 둘도 안 된다.’⁷²⁾라고 탄식하였다. 또 기병들이 번상하여 서울에 머무르고 있을 때 말을 먹일 초가(草價)가 너무 올라 말을 사육할 수가 없었고, 또 그 비싼 말이 중간에 죽는 경우까지 생겼다.⁷³⁾ 그래서 감사들은 말이 있는 자도 적었을 뿐더러, 말이 있는 자라도 자신이 타고 온 말은 돌려보내고 서울에서 말을 빌려 타면서 군장 점고를 받고 시위근무에 임했다.⁷⁴⁾ 그러나 말의 대여료가 점차 인상되어 군사훈련 시

65) 李泰鎮, 「15·6세기의 低平·低濕地 開墾 동향」, 『國史館論叢』 2, 1989.

66) 『中宗實錄』 44, 中宗 17년 2월 丁亥, 16책 98쪽.

67) 『宣祖實錄』 121, 宣祖 33년 정월 甲戌, 24책 32쪽.

68) 『中宗實錄』 44, 中宗 17년 2월 丁亥, 16책 98쪽.

69) 『中宗實錄』 21, 中宗 9년 10월 辛丑, 15책 35쪽.

70) 『燕山君日記』 48, 燕山君 9년 2월 庚申, 13책 547쪽. ‘買馬時 … 幾至二百餘匹而得買’

71) 『中宗實錄』 5, 中宗 3년 2월 辛卯, 14책 232쪽.

72) 『中宗實錄』 36, 中宗 14년 9월 甲午, 15책 567쪽.

73) 『中宗實錄』 39, 中宗 15년 4월 壬戌, 15책 642쪽.

74) 『中宗實錄』 36, 中宗 14년 6월 甲申, 15책 548쪽, 『中宗實錄』 39, 中宗 15년 4월 壬戌, 15책 642쪽.

빌려 타는 것도 힘들게 되었다.⁷⁵⁾ 이와 같이 16세기에 들어와 기병들이 말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지면서 기병의 전투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전술의 변화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사실 당시에는 북방에서 소수의 여진족만을 상대하면 됐기 때문에 전술의 변화를 꾀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은 임진왜란을 맞이하게 되었다. 선조 25년(1592) 4월 13일 일본군이 부산포에 상륙했다는 장계에 따라 조선정부는 이일(李鎰)과 신립(申瑬)을 순변사와 3도순변사에 임명하고 조령에서 일본군을 저지하도록 하였다. 이일은 상주에서 8백여 명의 방어군을 편성하여 맞섰으나 일본군의 기습으로 궤멸하였고, 신립도 기병 8천 명을 이끌고 충주의 탄금대에서 진을 쳤지만 패배하였다. 당시 일본군은 근접전에 유리한 단병(短兵)과 기병을 주력군으로 편제했지만, 조총부대를 3개 조로 나누어 선봉대에 배치함으로써 일본군의 장기인 근접 백병전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반면에 조선군은 여전히 북방 여진족을 상대하기 위한 활과 화기를 이용한 장병(長兵)과 기병을 주력군으로 하는 전투 방식이었다.⁷⁶⁾ 충주 탄금대 전투를 이끌었던 신립(申瑬)의 경우, 천연의 요새인 조령을 포기하고 기병전술을 펼칠 수 있는 충주성 근처의 평야로 전투지를 옮기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심지어 조선군이 배수진을 친 곳은 논이 많아 실제도 말이 달리기가 어려운 곳이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기병전술을 펼치기에 한계가 있는 곳이었다. 이처럼 임진왜란 개전초기 조선군의 기병위주 전술체계는 일본군의 조총과 근접 백병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한계를 드러냈다.⁷⁷⁾

임진왜란 초전에서의 참패를 통해 조선 정부는 일본군이 지닌 조총의 위력을 실감하였다. 유성룡은 개전 20일 만에 서울을 내주는 참패는 실로 조총

75) 『中宗實錄』 60, 中宗 23년 2월 丙午, 16책 625쪽. ‘習陣馬價 前則給半匹買之 今則雖給三匹 常不得易買云’

『中宗實錄』 89, 中宗 34년 정월 己亥, 18책 247쪽. ‘一馬一日之借 價幾四十四’

76) 李弘斗, 「임진왜란초기 조선군의 기병전술」, 『白山學報』 74, 2006.

77) 崔炯國, 앞의 논문, 27쪽.

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진단하였다.⁷⁸⁾ 국왕 역시 ‘적의 승리는 단지 화포 때문이다.’⁷⁹⁾라 하여 이것을 인정하였다. 물론 조선에서도 조총과 같은 소화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고려 말 이래 우수한 화약병기가 계속 발달하였고, 특히 16세기 말 임진왜란 직전에는 ‘승자총통’이라는 총이 개발되었다.⁸⁰⁾ 그러나 이것은 손으로 약선(藥線)에 불씨를 점화, 발사하는 방식으로, 방아쇠를 당겨 발사하는 조총에 비해서는 그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었다. 이것마저도 당시의 주 무기인 궁시(弓矢)에 밀려 제대로 그 능력을 평가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임진왜란 초전에서 조총의 위력을 목격하면서 조선 정부는 즉시 포수의 양성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서 임진왜란 발발 5개월 후인 선조 25년(1592) 9월 정부에서는 당시 의주 근처에 주둔하고 있었던 명의 참장(參將) 낙상지(駱尙之)에게 포수 양성을 의뢰할 계획을 논의하였다.⁸¹⁾ 조선 정부가 조총의 제조 및 사용법을 전습한 것은 임진왜란 이듬해인 선조 26년(1593) 2월이었다.⁸²⁾ 이후 선조는 중앙과 지방의 군사들로 하여금 조총을 학습하도록 명령하였고, 조총의 사격술을 과거의 시취 과목에 넣도록 지시하였다.⁸³⁾ 그리고 포로로 잡힌 왜군을 통해 화약제조법을 알아낼 것을 명하고⁸⁴⁾, 역관 표헌(表憲)이 이들로부터 화약 제조법을 알아내자 그에게 포상을 내리기도 하였다.⁸⁵⁾ 이후 조선 정부는 포수 양성에 주력하였다. 심지어 선조는 나라 안의 모든 군사들을 포수로 만들라는 명령을 내릴

78) 柳成龍, 『西厓集』 권16, 雜著 記鳥銃製造事(한국문집총간 52책 320쪽) ‘及壬辰之變 內外靡然 旬日之間 都城失守 … 實由於倭賊有鳥銃之利’

79) 『宣祖實錄』 39, 宣祖 26년 6월 壬子, 22책 21쪽.

80) 조선초기 화약 병기의 발달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許善道, 「火藥兵器」, 『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篇』, 陸軍本部 : 1969, 『韓國火器發達史上』, 軍事博物館, 1968 ; 李康七, 「韓國의 火炮」, 『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篇』, 陸軍本部, 1976.

81) 『宣祖實錄』 30, 宣祖 25년 9월 甲戌, 21책 545쪽 ; 31, 宣祖 25년 10월 癸巳, 21책 551쪽.

82) 『宣祖實錄』 35, 宣祖 26년 2월 乙未, 21책 628쪽 ; 36, 宣祖 26년 3월 丙寅, 21책 661쪽. ‘鳥銃之制 則已爲傳習矣’

83) 『宣祖修正實錄』 27, 宣祖 26년 2월 丙戌, 25책 637쪽.

84) 『宣祖實錄』 36, 宣祖 26년 3월 丙寅, 21책 661쪽.

85) 『宣祖實錄』 36, 宣祖 26년 3월 壬午, 21책 675쪽.

정도였다.⁸⁶⁾ 이로 인해 우리나라 군제가 기병(사수) 중심에서 보병(포수)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특히 조총의 등장이 조선후기 사회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조총은 '나는 새도 맞출 수 있어 조총(鳥銃)이라고 한다.'⁸⁷⁾라고 하는 바와 같이 당시로서는 명중률이 대단히 높은 무기였다. 또한 조총은 종래 조선의 총포와 같이 손으로 약선에 불을 붙여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방아쇠를 당겨서 발사하는 것으로 명중률뿐만 아니라 발사 속도에 있어서도 종래 조선의 총포에 비해 2~3배나 빠른 우수한 무기였다.⁸⁸⁾ 또 사정거리도 멀었고, 소리도 위력적이었으며⁸⁹⁾, 사용법도 간단하였다.⁹⁰⁾ 이와 같이 조총은 종래의 무기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무기였다.

조총의 등장은 궁시를 위주로 하는 조선전기 무기·군사체제에 대한 일대 전환을 요구하였다. 비록 조선전기에도 개인 휴대용 소화기인 승자총통 등이 개발되어 실전에도 사용되었으나 임진왜란 전까지는 여전히 궁시 위주의 무기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무사의 모습이 조선전기 군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것이다. 조선전기의 대표적인 군사였던 갑사는 바로 이러한 무사를 시취(試取)하여 편성한 군대였다. 그러나 궁시는 상당한 근력과 고도의 숙련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숙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을 하여야 했다. 육체적 힘뿐만 아니라 생산 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궁시 연습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했다. 또한 무사는 궁시를 비롯하여 말과 안장, 갑옷 그리고 종자까지 보유해야 했다. 조선전기에는 이러한 것들을 갖출 수 있는 경제력을 보유한 무사를 갑사로 흡수하여, 군직(軍職)을 수여하고 과전과 녹봉을 지급하면서, 국왕에

86) 『宣祖實錄』 39, 宣祖 26년 6월 壬子, 22책 21쪽.

87) 『宣祖實錄』 71, 宣祖 29년 정월 丁酉, 22책 643쪽. '能中飛鳥 故曰鳥銃'

88) 『星湖僿說』 4, 萬物門, 陸若漢. '鳥銃不用火繩 而石火自發 其放丸 比我國二放之間 可放四五丸'

89) 『仁祖實錄』 16, 仁祖 5년 5월 丙寅, 34책 198쪽. '禦敵之備 莫如用砲 其力可以及遠 其巧可以命中 其威聲 又可以僻易人馬'

90) 『承政院日記』 109, 孝宗 즉위년 11월 13일, 6책 199쪽. '鳥銃易於習熟 不在多放 可以成材' 『愚伏集』 5, 玉堂論時務劄 (한국문집총간 68책 90쪽) '砲非難習之技 人人可學'

대한 충성과 봉사를 요구하는 군사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조총의 등장은 이러한 무사의 존재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다. 조총은 궁시보다 5배나 성능이 뛰어났다.⁹¹⁾ 비싼 갑옷으로 무장하고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무사들도 조총 앞에서는 힘을 못 쓰고 죽어간 것이 임진왜란 전장에서의 모습이었다. 아무리 항우장사처럼 힘이 세다 하여도 조총 앞에서는 당해낼 수가 없었다.⁹²⁾ 조총의 등장은 말을 타고 활을 쏘는 호쾌한 무사의 모습에서 대오를 갖춘 보병들이 조총을 쏘는 모습으로 군대의 모습을 변화시켰다. 또 전투 형태도 개인의 무예가 중시되던 것에서 이제는 조직적인 집단의 운용이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총의 등장은 군사체제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부문에도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조총은 궁시와 같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복잡한 제조 공정을 거쳐서 제작되는 무기였다. 또 조총은 역시 복잡한 공정을 거쳐 제작되는 화약과 연환(鉛丸)을 필요로 하였다. 훈련도감은 이러한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 분업과 협업으로 운영되는 무기제조장을 설립하고, 그 원료 조달을 위해 둔전, 시장(柴場)을 설치하였으며, 철광, 유황광, 연광(鉛鑛) 등의 광산 개발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조선후기 군수 광공업과 수공업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5. 맺음말

오늘날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한국사 개설서로 정평이 있는 신편 『한국사』는 조선을 초기, 중기, 후기로 3분하는 시기구분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구분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양분하는 종래의 방식은 역사를 타율적으로 인식할 위험이 있으며,

91) 『宣祖實錄』 68, 宣祖 28년 10월 丁未, 22책 575쪽. ‘鳥銃五倍于弓矢’

92) 『英祖實錄』 47, 英祖 14년 8월 乙丑, 42책 602쪽. ‘鳥銃出而 項羽無以容其力’

임진왜란 전후에는 단절보다 연속성이 더 많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과는 달리 조선 사회 내부에서 진행된 군제의 여러 문제점들이 임진왜란을 통해 드러났고, 또 이를 계기로 군제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본다. 군제의 변화가 임진왜란이란 외침으로 인해 나타났지만 변화의 요인과 주체는 어디까지나 조선 사회 내부이고 임진왜란은 변화의 촉발점이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임진왜란을 전·후기로 나누는 시기구분의 기점으로 삼는 다하여 역사를 타율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임진왜란을 계기로 진행된 군제의 변화는 중세 사회가 해체되는 새로운 사회 현상을 가져왔다. 즉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은 그 이전의 중세 사회에서 중세 사회 해체기라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갔다고 본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입장에서 임진왜란 전후 중앙군제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임진왜란 이후 나타난 중앙군제의 변화로서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군사지휘체계가 공병제에서 사병제로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사병제와 공병제의 채택을 둘러싸고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몇 차례 변동이 있었다. 역사상 국가가 등장하고 군사제도가 출현한 이후 군사지휘체계는 사병제로 운영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대부터 각 지역의 부족장이 군사 지휘관이 되어 부족원들을 군인으로 만들고 이들을 훈련시키며 전투에 동원하여 자신의 세력을 넓힌 것이다. 이와 같이 고대부터 성립한 사병제는 1000년이 지난 신라 하대에 들어오면 그 폐해가 극단적으로 노출되었다. 이에 나말여초의 혼란기를 겪은 이후인 고려 광종(949~975) 때에 이르러 사병제가 혁파되고 공병제가 확립되었다. 이후 지휘관과 병사 간에 사적인 접촉은 일체 금지되었다. 이러한 고려의 공병제는 대략 200년이 지난 후인 1170년 무신정변이 발발했을 때 폐지되고 다시 사병제로 돌아갔다. 이때에는 군인들이 집권자와 장군의 마음대로 소집·동원되고 이들의 집권 도구로 이용된 것이다. 이러한 사병제는 다시 230년이 지난 후인 1400년(정종 2년)에 태종에 의해 혁파되고 다시 공병제가 수립되었다. 그런데 조선전기 공병제는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군사를 출전시켜야 할 때 단지 장수만 있고 그에

소속된 병사가 없는 상태를 가져왔고, 조선은 초전에서 패배를 면치 못했다. 이에 공병제가 수립된 지 193년만인 1593년(선조 26)에 설립된 훈련도감에서는 『기효신서』의 속오법에 따라 명확한 지휘체계를 수립하였는데, 이것은 사병제의 도입을 의미하였다. 이와 같이 고려 광종 때부터 임진왜란까지 공병제와 사병제는 대략 200년마다 한 번씩 바뀌었다. 즉 임진왜란은 조선전기의 공병제에서 조선후기의 사병제로 바뀌는 분기점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병제의 수립에 따라 조선후기 정치에서 군사적 비중과 영향력은 다시 높아지게 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나타난 중앙군제의 두 번째 변화는 군인들이 번상병에서 장병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점이다. 조선시대 중앙군의 중추적 군사력은 조선전기에는 갑사, 조선후기에는 훈련도감이 담당하였는데, 조선전기의 갑사는 번상병제로 운영되었다. 중앙군의 중추적 군사력이 번상병제로 운영되는 것은 조선전기의 갑사가 유일하다. 이러한 번상병제의 도입은 태종의 병권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짐작된다. 태종은 사병 혁파로 일단 장군과 갑사의 사적 관계를 차단시켰지만, 이들이 서울에서 오랫동안 함께 있을 경우 사병적 관계가 형성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갑사의 번상제를 추진하였다. 이들이 지방에 머물면서 교대로 번상 근무하면 장군과 만날 기회도 적어지고 따라서 사적 관계가 형성될 우려도 적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갑사를 번상병제로 운영하자 갑사의 무예 수준이 떨어지고, 번상 근무 역시 부실하게 되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국왕 선조는 이들은 군인이 아니라 농부라고 통탄하였다. 따라서 임진왜란 중 설립된 훈련도감은 군인을 전원 장병병제로 운영하였다. 훈련도감군들은 서울에 상주하면서 급료를 받고 생활하면서 군역 근무에 임했다. 그런데 이러한 장병병제는 서울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서울의 인구를 증가시키고, 상품 화폐 경제를 발전시켰으며, 주택문제·위생문제·범죄문제 등 각종 도시문제를 가져왔던 것이다. 즉, 임진왜란으로 인해 등장한 장병병제는 중세 사회 질서를 동요시키고, 서울에 새로운 사회 현상을 가져왔다.

임진왜란 이후 나타난 중앙군의 세 번째 변화는 기병 중심에서 보병

중심으로 군제가 변환하였다는 점이다. 임진왜란 이전까지 조선군 전술은 기병전술이 주축을 이루었다. 그런데 번상병제로 인해 갑사나 기정병 등 기병들이 먼 지방에서 말을 끌고 와야 했기 때문에 이들의 근무 상황은 점차 부실해졌다. 특히 16세기 이후 지주제의 전개에 따른 농지 개간 등으로 목장이 줄어들고 말의 수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말 값은 폭등하여 대부분의 기병들은 말을 소유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기병들의 전투력은 약화되었는데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임진왜란을 맞이한 조선은 충주 탄금대에서 기병 전술을 펼쳤지만 조총을 주 무기로 하는 일본군에게 궤멸 당하였다. 조총의 위력을 목격한 조선은 즉시 포수 양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조총을 제작하고 훈련도감을 설립하였다. 조총의 등장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조총의 등장은 종래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무사의 모습에서 대오를 갖춘 보병들이 조총을 쏘는 모습으로 군대의 모습을 변화시켰다. 또 전투 형태도 개인의 무예가 중시되던 것에서 조직적인 집단의 운용이 중요하게 되었다. 조총의 등장은 군사체제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부문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훈련도감은 조총과 화약, 탄환 등을 마련하기 위해 분업과 협업으로 운영되는 무기제조장을 설립하고, 그 원료 조달을 위해 둔전을 설치하였으며, 철광, 유황광, 연광 등 광산 개발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조선후기 군수 광공업과 수공업 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조선전기 사회 내부에서 진행된 군제의 여러 문제점들이 임진왜란을 통해 드러났고, 이를 계기로 군제에 변화가 나타났다. 즉 공병제에서 사병제로, 번상병제에서 장번병제로, 기병(사수) 중심에서 보병(포수) 중심으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임진왜란 중에 나타난 군제의 변화는 중세 사회가 해체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원고투고일 : 2012. 6. 15, 심사수정일 : 2012. 8. 10, 게재확정일 : 2012. 8. 14)

주제어 : 壬辰倭亂, 中央軍制, 公兵制, 私兵制, 番上兵制, 長番兵制, 騎兵, 步兵, 射手, 砲手

<ABSTRACT>

The Changes of Central Army System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

Kim, Jong-soo

The government of Joseon Dynasty transformed the central army system in three respects. First, it transformed the way to control the soldiers. It abolished the personal control system which was made in the period of military regime of Goryeo Dynasty and introduced a public control system in 1400. But there was a serious shortcoming in this system. While the generals could command soldiers allotted to them in theory, they did not have any soldiers in fact. Because the soldiers were consisted of peasants who worked in their fields in peacetime. To overcome this shortcoming Hunryondogam(訓練都監) introduced the private control system in 1593.

Second, the government of Joseon Dynasty abolished the rotation system of soldiers. King Taejong(太宗) introduced the rotation system of Gabsa(甲士) to prevent any 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generals and Gabsa. But military abilities of Gabsa fell severely and the rotations were not kept correctly. King Seonjo(宣祖) said in a sharp regret that Gabsa were not soldiers but peasants. Therefore Hunryondogam which was founded in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 was consisted of standing armies.

Third, The government of Joseon Dynasty transformed the main forces of armies from cavalry soldiers to infantry soldiers. Because cavalry soldiers who should take their turns from distant regions tried to evade their duties in early period of Joseon Dynasty.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horses which was made worse in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after 16 century and the sharp rise of price of the horse made their carrying out their duties more difficult. Moreover the government of Joseon Dynasty learned

the superiority of matchlock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 The armies of Joseon Dynasty whose main forces were cavalry soldiers were defeated by the Japanese armies which used matchlock. So the government of Joseon Dynasty tried to train soldiers to use guns. The introduction of matchlock influenced greatly the military industry of Joseon Dynasty.

Key Words :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 the central army system, the public control system, the private control system, the rotation system of soldiers, standing army, cavalry, infantry, bowman, artillerist

임진왜란을 통한 조·명·일 삼국의 문화교류

박재광*

1. 머리말
2. 조선과 일본의 문화교류
3. 조선과 명의 문화교류
4. 맺음말

1. 머리말

전쟁이라는 것은 다분히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그렇지만 전쟁을 통해서 이질적인 문화가 상호 침투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쟁을 통한 문화교류는 상호 평등한 상태의 교류는 아니지만 군사적인 우열관계를 떠나서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문화유입은 아니었다. 각기 다른 문화가 고유성을 바탕으로 상호 침투과정을 통해서 융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전쟁기념관 교육팀장

전통시대에 있어서 전쟁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이 물자 확보 측면인데, 물자 확보의 수단으로는 전쟁 외에도 교역이라는 것이 있다. 따라서 전쟁과 교역은 어쩌면 동전의 양면 관계와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쟁이 문화 파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전통시대에 민족과 국가간의 문화교류를 촉진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개별 민족들 고유의 문화가 이민족에 전달되었다.

BC 4세기에 서양인들에게 동양에 관한 지식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알렉산더대왕의 동방 원정이라는 전쟁을 통해서였다. 이 원정 후에 건설된 알렉산드리아 등의 도시에서는 동서의 문화가 융합되고, 그 영향은 인도 북부 간다라 지방에까지 미쳤다. 그리스·로마의 미술과 불교가 결합되어 간다라 미술로서 후에 북중국과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까지 전해진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세에도 유럽에서 발전한 기독교와 서남아시아의 이슬람교가 전쟁 과정에서 상호 다른 문화권에 전파되었다. 동서의 교섭은 이슬람교의 대두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슬람교는 아시아·아프리카·유럽의 광대한 지역에 확대되고, 유럽의 그리스도교와 충돌하여 십자군의 원정이 있었지만, 동서 문화교류에는 매우 커다란 구실을 하였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도 몽골과의 전쟁을 통해서 고려의 전 국토가 유린되어 폐허가 되었고, 황룡사 목탑 등 귀중한 문화재들이 파괴되었지만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어 고려의 문화와 융합되어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였다. 몽고의 풍습은 상류사회에 먼저 유행해 시간이 흐른 뒤에는 민간에도 깊이 침투됨으로써 전통문화는 크게 변질되었다. 족두리도 몽고의 풍습이었고, 목마장이 설치되었던 제주도에는 몽골어의 잔재가 지금까지도 크게 남아 있다. 또 고려 말에 일부 관리층들에게 나타난 일부다처제도 몽골의 영향이다.

조선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전쟁인 임진왜란도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판도를 바꾼 대사건이었고, 그 결과 전쟁 당사자인 조·명·일 삼국 간에 정치·

경제적 변화뿐만 아니라 문화교류와 접촉이 폭넓게 이루어졌다. 큰 성리학(朱子學), 금속활자와 전적, 도자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의 연구 성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하게 이루어졌다.¹⁾ 지금까지는 주로 임란 직후 조선 문물이 일본으로 전래되어 조선

-
- 1) 구태훈, 「일본에서 꽃핀 조선의 도자기 문화」, 『역사비평』 85, 한국역사연구회, 2008
 김정호, 「사료를 통해 본 조선 피로인의 일본 나에시로가와(苗代川) 정착과정 연구」, 『한국 정치외교사논총』 31,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1.
 김현덕, 『한국 천주교 전래의 기원설에 대한 비판연구』,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마백락, 「임진왜란 때 세스페데스 신부의 방한과 예수회 신부들의 포교활동」, 『역사와 사회』, 현암사, 1997.
 문명대, 「개일 한국불화조사」, 『강좌미술사』 4, 한국미술사연구소, 1992.
 米谷均, 「17세기 조일관계에서의 조선피로인의 송환」, 『사명당 유정』, 사명당기념사업회, 2000.
 민덕기, 「임진왜란 중의 납치된 조선인 문제」,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사지마 아키코, 「임진·정유왜란과 크리스찬 장병」, 『누리와 말씀』 6, 인천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9.
 小宮陸之, 「浩浩然と佐賀藩」, 『佐賀縣立名護屋城博物館研究紀要』 2, 名護屋城博物館, 1996.
 손보기,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건너간 금속활자 인쇄술」, 『고인쇄문화』 1, 청주고인쇄박물관, 1993.
 손승철, 「임란 때의 피랍조선인들과 일본 천주교회」, 『누리와 말씀』 6, 인천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9.
 손홍렬, 「壬辰倭亂과 朝鮮의 醫學」, 『청대사림』 6, 청주대학교 사학회, 1994.
 신현승, 「17세기 한 조선 지식인의 일본 인식」, 『일본사상』 17,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09.
 아베 요시오, 김석근(역), 『퇴계와 일본유학』, 전통과 현대, 2001.
 유마리, 「일본에 있는 한국불화조사-京都·奈良지방을 중심으로」, 『문화재』 29, 문화재관리국, 1996.
 이동근, 「임진왜란과 문학적 대응」, 『관악어문연구』 20,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5.
 이채연, 「임진왜란 포로실기 연구」, 박이정출판사, 1995.
 이채연, 「한일 실기문학에 나타난 임진왜란 체험의 형상화전략」, 『한국문학논총』 22, 한국문학회, 1998.
 전경목, 「임진왜란으로 말미암은 문화재 피해 상황」,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조재곤, 「임진왜란시기 조선과 명의 문화교류」, 『아세아문화연구』 6, 경원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02.
 中村質, 「壬辰丁酉倭亂の被虜人の軌跡-長崎在住者の場合-」, 『한국사론』 22, 국사편찬위원회, 1992.
 최호균, 「임진·정유왜란기 인명 피해에 대한 계량적 연구」, 『국사관논총』 89, 국사편찬위원회, 2000.
 하우봉, 「일본에 주자학을 전한 조선인 포로 강항」, 『한국과 일본』, 자작나무, 1998.

문화가 일본에 끼친 영향에 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대상은 대체로 조선성리학(주자학), 금속활자와 서적, 도자기 등에 집중되어 왔다. 물론 조선성리학의 전래과정과 금속활자와 서적의 약탈규모와 전달과정, 현재의 보존실태, 그 활자와 서적의 구체적인 활용내용, 영향 등이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질 필요가 있다. 특히 도자기의 경우에 주로 陶工의 피랍과 일본군의 약탈과정에 관해서는 비교적 소상히 밝혀지고 있지만, 납치된 도공들의 일본내에서의 활동이나, 각 지역에서의 陶窯의 분포와 활동 현황, 현재까지의 전승관계 등 앞으로 자세하게 규명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아울러 전쟁 중이나 직후 일본으로부터 조선에 전래된 조총·도검 등 무기, 천주교, 고추 등도 같이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간의 여러 연구 성과를 토대로 조·명·일 삼국이 임진왜란을 통해서 어떻게 이질적인 문화 상호간의 접촉과 전파가 이루어졌고, 이후 각국의 사회·문화가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발전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2. 조선과 일본의 문화교류

1) 각종 문화재 약탈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전쟁 초기부터 전투부대와는 별도로 6개의 특수부대를 편성하여 조선의 문물을 조직적으로 약탈하였다. 도서부(전적류), 공예부(공예품 및 목공·도공), 포로부(민간인), 금속부(병기·금속

하우봉, 「임란직후 조선 문화가 일본에 끼친 영향」,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한문중, 「조선전기 일본의 대장경 求請과 한일간의 문화교류」, 『한일관계사연구』 17, 한일관계사학회, 2000.

(1990년 이전의 논문과 저서도 있으나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음)

공예품·금속활자), 보물부(금은보화와 진기품), 축부(가축)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약탈을 정부가 조직적으로 진행시켰다는 점에서 일부 연구자의 경우에 임진왜란을 ‘문화 약탈전쟁’이라고 성격 규정하기도 한다. 일본은 전쟁을 통해서 인적·물적 자원을 약탈해감으로써 조선의 선진문화를 대량으로 흡수하였고, 전쟁 이후 에도시대(江戸時代)의 문화 발전에 전기를 마련하였다.

(1) 불교 문화재

조선전기의 한일간의 외교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문화교류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대장경과 범종, 불화 등의 불교문화와 관련된 것이 많았다. 이는 조선전기에 일본에서 대장경 구청이 무려 107회 달했다는 사실에서도 증명된다.²⁾ 일본에서는 대장경 외에도 대종과 대불 등의 불교 문화재를 요청하는 사례도 많았는데 대부분이 태종과 세종대에 집중되어 있다. 양국간의 사절 왕래를 통한 문물 교류의 형식을 통해서 고려 대장경을 비롯한 불화, 불상, 범종 등이 일본에 유입되어 일본의 불교문화를 발달시키는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삼포왜란 이후 양국 관계의 쇠퇴로 인해서 점차 줄어들었다.

이후 도요토미는 전쟁 기간 중에 다양하고도 많은 불교 문화재를 약탈해 갔다. 당시에 일본에 약탈된 불교 문화재로 추정되는 것³⁾은 수세기지(出石寺)의 고려종⁴⁾를 비롯한 오노헤진자(尾上神社)의 고려종⁵⁾, 게이니지지(惠日寺)의 고려종⁶⁾, 조오구우진자(常宮神社)의 신라종⁷⁾, 사이다이시(四大寺)의

2) 한문종, 앞의 논문 참조.

3) 전경목, 앞의 논문 참조.

4) 愛媛縣 喜多郡 長濱町の 수세기지에 있는 고려시대 종(일본 국보).

5) 병고현 가고시 미상정의 오노헤진자에 있는 고려시대 종(일본 국보).

6) 1026년(현종 17)에 제작된 고려 종(일본 국보).

7) 833년(태화 7)에 제작된 신라 종. 정유재란 때 오오다니 요시다가(大谷吉隆)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을 받고 기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려종⁸⁾, 우사진구우(宇佐神宮)의 신라종⁹⁾, 후도오인(不動院)의 고려종¹⁰⁾ 등의 범종과 안고구지(安國寺)의 조선 불화¹¹⁾, 고오세이지(興正寺)의 조선 불화¹²⁾, 호오세이지(寶性寺)의 불화¹³⁾ 등의 불화가 있으며¹⁴⁾, 불상으로는 가가미진자(鏡神社)의 양유관음상¹⁵⁾, 주우린지(十輪寺)의 五佛尊像¹⁶⁾ 등이 있다. 이들 불교 문화재는 이후 일본의 불교문화를 형성·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전적류

도요토미는 전쟁을 통하여 조선의 많은 문화재를 약탈해 반출할 계획을 세운 뒤 相國寺의 승녀 承兌, 南禪寺의 승녀 靈三, 東福寺의 승녀 永哲, 文英, 安國寺의 승녀 惠瓊 등의 많은 學僧들을 함께 보냈다. 이들 학승들은 일본 장수와 함께 조선에 들어와 각종 서적 등을 약탈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¹⁷⁾

여러 장수 중에서도 우키다 히데이에(宇喜多秀家)와 안국사의 승녀 惠瓊가

8) 고려시대 종(일본 국보).

9) 904년에 제작된 종(일본 국보).

10) 고려 초기의 종(일본의 국보). 원래 안고구지 에게이(安國寺惠瓊)가 약탈해 자신의 사찰인 안국사에 보관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 1583년에 전라도 담양 龍龜山 般若庵에서 제작된 불화로 안고구지가 약탈해 간 것이다.

12) 임진왜란 당시 가도오 기요마사가 조선 왕궁에 걸려있는 것을 약탈하여 일본으로 가지고 돌아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구가와 이에야스의 손을 거쳐 오하리(尾張)의 도구가와 가문에 양도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13) 조선시대의 불화(시 지정 문화재).

14) 이외에 阿彌陀三尊圖(14세기, 京都泉屋博古館), 水月觀音圖(1323년, 京都泉屋博古館), 水月觀音圖(14세기, 京都泉屋博古館), 七星圖(1569년, 京都高麗美術館), 紺紙金字大寶積經卷 32, 紺紙銀泥變相圖(1006년, 京都國立博物館), 紺紙金字大寶積經卷 32, 寫成記(1006년, 京都國立博物館), 紺紙銀字文殊師利問菩提經 紺紙銀泥變相圖(1276년, 京都國立博物館), 觀經十六觀變相圖(1323년, 京都高麗美術館) 등 현재 일본 각 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불화 중 상당 부분이 임진왜란때 일본군에 의해 약탈당한 것으로 추정된다.(전경목, 앞의 논문 461쪽)

15) 고려시대 楊柳觀音像(일본 국보).

16) 일본 국보.

17) 전경목, 앞의 논문 462-466쪽.

가장 많은 서적을 약탈했다고 알려져 있다. 우키다는 약탈한 서적을 도요 토미에게 헌상했는데 이후 도요토미가 이 중의 일부를 曲直瀨正琳에게 주었다.¹⁸⁾ 또 1600년 세키가하라전투(關原合戰)에서 승리한 도쿠가와와는 우키다와 안고쿠지 에케이(安國寺惠瓊) 등이 전란 중 약탈한 조선 서적을 몰수하였는데, 1602년 후시미테문고(富士見亭文庫)나 스루가문고(駿河文庫)는 이들 조선 서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스루가문고의 소장본은 약 1만여 권이었었는데, 도쿠가와와 유언에 따라 네 군데에 나누어 보관됐다. 이와 같이 도쿠가와막부와 고산케(御三家)로 구성된 친번(親藩)에서는 주자학을 지도이념으로 채택하여 문치주의 정책을 주도하였는데 그 바탕에는 조선의 전적이 있었다.

도쿠가와 가문 뿐만 아니라 조선에 출정하였던 지방의 다이묘(大名)들도 임진왜란 때 약탈해온 조선의 서적을 바탕으로 문고를 형성하였다. 마에다 도시이에(前田利家)의 손케이가쿠문고(尊經閣文庫)¹⁹⁾를 비롯하여 모리 데루모토(毛利輝元)의 약탈 서적으로 토대로 형성된 동경의 세이카도문고(靜嘉堂文庫), 야마구치현(山口縣)에 있는 모리문고(毛利文庫), 우에스기 가게카쓰(上杉景勝)의 약탈 서적이 소장된 요네자와(米澤)도서관,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의 약탈 전적이 소장된 가고시마대학(鹿児島大學) 도서관, 쓰시마번(對馬藩)의 중가문고 등이 그것이다. 에도시대에 세워진 이러한 문고는 오늘날 일본의 도서관을 형성하는 모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²⁰⁾

이와 같은 전란을 통해 대량으로 유입된 서적은 일본에 있어서 지식의 생성과 전파를 촉진하고 출판문화의 성장에도 기여함으로써 에도시대의 문화적 부흥을 일으켰다. 에도 초기의 문화부흥기의 형성은 물론 도쿠가와와의

18) 養安院文庫로 장서목록인 『懷選樓書目』이 현재 內閣文庫에 소장되어 있으며, 목록상의 서적들은 일부 훼손되었으나 현재 熊本縣 소재 仁吉高等學校와 天理大學 도서관에 일부가 소장되어 있다.(이준길, 1986 『조선시대 일본과 서적교류연구』, 홍익재, 181쪽)

19) 조선 전적 1,073책 소장.

20) 이들 도서관에 소장된 조선 서적의 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水戶市の 蓬左文庫(약 3,000여 권), 和歌山市의 南葵文庫(약 3,000여 권), 彰考館文庫(약 3,000여 권), 金澤市の 尊耕閣文庫(1,000여 권), 山口縣의 毛利文庫(상당수), 東京市の 靜嘉堂文庫(상당수), 가고시마(鹿児島) 대학도서관(상당수).

문치주의 정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또 대중화에 성공한 바탕에는 조선에서 유입된 서적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금속활자

조선의 금속활자 제조 기술은 독일의 구텐베르크(J. H. Gutenberg)가 금속활자를 시기(1450년) 보다 200여 년이 앞선 1234년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로 인쇄된 『詳定古今禮文』에서 출발했다. 이후 조선 전기에는 더욱 발전하여 꽃을 피웠다. 태종 3년(1403)에는 주자소(鑄字所)가 설치되어 재미자 10만 자를 만들었고, 세종 2년(1420)에는 경자자와, 16년(1434)에는 갑인자 20만 자가 만들어졌으며, 성종 15년(1484)에는 계축자 30여만 자가 만들어졌다. 특히 세종대의 갑인자는 조선시대 인쇄기술의 정화라고 평가되는 우수한 활자로서 세종대의 각종 편찬사업에 사용되었으며, 일본에도 널리 알려져 '高麗銅印'이라고 불리었다. 조선전기 일본의 아시카가 막부(足利幕府)에서는 사신을 보내어 동활자와 그 제조기술을 수입하기 위해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조선 조정에서는 들어주지 않았다.²¹⁾

한편 일본은 1590년에 그리스도판용으로 제조한 鉛活字를 도입하여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이 연활자는 유럽파견 소년사절단에 의해 규슈(九州)에 전래한 구텐베르크 방식에 의한 활자이나 그리스도 禁書으로 인쇄기와 함께 국외로 추방되었다.

따라서 일본군의 약탈 대상 중에는 금속활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유재란 때 우키다는 경복궁의 교서관 주자소를 습격하여 조선의 금속활자 20만 자와 인쇄기구, 및 조선본과 중국본의 서적을 가져가 도요토미에게 진상하였다고 한다.²²⁾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약탈해간 각종 금속활자, 목활자의 수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20만 자 정도

21) 하우봉, 앞의 논문(2005) 487쪽.

22) 이준걸, 앞의 책 181쪽.

를 약탈해갔다고 알려진다.²³⁾

이들은 약탈한 활자를 활용하여 1593년에 『古文孝經』²⁴⁾, 1596년에 『蒙求』(1596)를 간행했다. 이어 1597년 7월에 목활자로 『錦繡段』을 인쇄하고, 다음해 8월에 『勸學文』²⁵⁾을 간행하였다. 또 도쿠가와 가문의 하나인 기이 번의 와카야마(和歌山) 남규문고(南葵文庫)는 조선의 금속활자와 그것을 모방하여 만든 동활자에 의해 이루어졌다.²⁶⁾ 이후 에도시대 인쇄술의 발전은 물론 학문 발달의 촉매가 되었다. 이에 반해 전란 중의 대량 약탈로 인해 전후 조선은 한동안 서적을 출판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정도였다고 한다.²⁷⁾

2) 피로인을 통한 교류

임진왜란은 수많은 문화재들이 소실되거나 일본으로 유출되었고, 조선의 유학자를 비롯하여 도공, 세공인, 농부, 한의사 등 많은 포로들이 잡혀가서 전쟁 복구에 혹사당하였으며, 많은 수는 포르투갈과 일본상인들에 의해 세계 각지로 팔려 나가기도 하였다.

일본군이 조선인을 납치한 목적은 농촌 노동력의 보충, 가사 노예나 공장 노예의 획득, 노예 매매, 병력 충원, 기술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피로인의 대상은 어린이와 아녀자를 포함하여 유학자, 한의원, 승려와 같은 지식층, 도자기, 여행용구, 옷, 직물, 염직, 서예, 의약, 향과 같은 다양한 기술을 지닌 기술자층 등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 당시에 피로인 규모는 일본측 연구자의 경우에 피로인 규모를 2만~3만명²⁸⁾으로 보고 있고, 한국측의 경우에는 5만~11만명까지 다양하나 10만명을 전후하는 의견이

23) 전경목, 앞의 논문 467쪽.

24) 일본에서 동활자를 사용하여 인쇄한 최초의 서적이며, ‘文錄勅版’이라 한다. 현재 전하지 않고 있다.

25) 이것을 ‘慶長勅版’이라 한다.

26) 하우봉, 앞의 논문(2005) 487쪽.

27) 『선조실록』 권133, 34년 1월 계해; 권162, 36년 5월 신미; 권164, 36년 7월 정축.

28) 內藤雋輔, 『文祿・慶長役における被虜人の研究』, 東大出版會, 1976, 215~217쪽.

지배적이다.²⁹⁾

이후 조선에서 납치된 피로인들은 일본 정착 초기에는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5~6년간 극심한 고통을 당했다. 생활터전도 불확실 했고, 언어도 통하지 않았으며, 일본인들과의 충돌도 많았다. 그러나 일본 정치가 안정된 이후 번주의 지원을 다양한 지원을 받아 안정화되기에 이르렀다. 사츠마번(薩摩藩)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조선의 무용과 복장의 보존, 조선식 이름의 사용,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일체의 난폭한 행위의 금지, 내외부인의 나에시로가와 지역 출입의 제한 등을 통해서 정착을 도왔다. 여기에는 조선 전통의 도자기 제조 기법을 유지하여 번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와 함께 번 주 개인의 조선 문화에 대한 보호의지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³⁰⁾

이후 이들은 자신의 장점을 살려 각 분야에서 조선의 문화를 일본으로 유입시켰고, 이후 일본의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1) 유학자

에도시대 이전까지 일본 사상계의 주류는 불교였고, 유학은 그 학문수준과 영향력이 미약하였다. 유학의 경우 漢唐學이 중심이었고, 중국의 송대에 발전한 성리학은 아주 미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이전에 주자학이 남북조시대의 승려 겸 유학자 겐에(玄惠:1279~1350)에 의해 도입된 일이 있었지만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자취를 감추었다. 따라서 임진왜란 이전까지 일본의 주자학은 경도오산(京都五山)의 일부 학승(學僧)들의 호기심의 대상으로 일부 전승되었을 뿐이다.

29) 이원순, 「임진·정유재란시 조선 俘虜 노예문제」, 『번태섭박사회갑기념사학논총』, 1985, 629쪽; 이재연, 『임진왜란 포로실기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93, 34-35쪽; 최호균, 「임진·정유왜란기 인명 피해에 대한 계량적 연구」, 『국사관논총』 89, 국사편찬위원회, 2000, 51-55쪽; 민덕기, 「임진왜란 중의 납치된 조선인 문제」,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382-390쪽.

30) 김정호, 「사료를 통해 본 조선 피로인의 일본 나에시로가와(苗代川) 정착과정 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1,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1, 16-25쪽.

1603년 도쿠가와막부(德川幕府)를 개설하여 새로운 시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는 국내외적으로 평화적인 질서를 정착시키려 하였다. 그는 체제 안정을 위해 병농 분리, 신분제도의 확립, 윤리의식의 강화 등의 개혁정책을 실시하면서 그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 제적인 통치원리를 지니고 있는 주자학의 사상체계가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지도이념을 불교에서 주자학으로 바꾼 것인데, 이것은 일본사상계에 있어서 일종의 변혁이었다.

도쿠가와에게 주자학의 이념을 가르친 사람은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였다. 그에 의해 일본 유학은 유불습합에서 분리로, 한당유학에서 주자학으로 한 단계 비약하게 되었다. 그런데 후지와라와 학문적 혹은 지적 교류를 했던 인물이 조선의 유학자 姜沆이다. 강항은 전쟁 중에 포로로 일본에 잡혀와 있던 중 당시 불교와 주자학 사이에서 사상적 모색을 하고 있었던 후지와라를 만나 그가 유학자로서 독립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강항과 세이카가 만나 교류한 곳은 1598년 가을 후시미성(伏見城)에 있는 아카마쓰 히로미쓰(赤松廣通)의 저택에서였다. 그 후 이들의 교류는 강항이 귀국할 때까지 1년반 동안 지속되었는데, 주자학에 대한 지적 욕구에 갈급하였던 이들에게 강항은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하지만 강항이 후지와라에게 일정한 학문적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지, 강항이 일방적으로 영향을 끼친 일방적 영향 관계라고는 말할 수 없다. 강항과의 만남 이전에 후지와라는 이미 주자학과 양명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식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³¹⁾ 강항은 일본 체류 기간 동안, 후지와라와의 교류 과정에서 그의 학식을 “조선 삼백년 이래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는 듣지 못했다. 비록 (내가) 일본에 떨어졌으나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난 것, 역시 큰

31) 후지와라는 30세 때에 이미 조선의 사절단과 사귀었으며, 특히 서장관인 許篈과 마음을 터놓고 사귀었다. 허성이 쓴 문장과 시가 세이카문집(惺窩文集)에 실려 있기도 하다. 허성은 1590년 통신사의 종사관으로 일본에 다녀온 인물이다. 이때 후지와라는 조선의 유학자와 교류하였고, 조선에서 유입된 서적을 읽었음이 확인된다(아베 요시오, 김석근(역), 『퇴계와 일본유학』, 전통과 현대, 2001, 103쪽).

행운이 아닌가?”라고 평가하였다.³²⁾

이렇듯 두 사람은 동북아시아의 초국가적 공간에서 수평적인 학문적인 교류를 행하였고,³³⁾ 일본 내 주자학의 보급에 일정의 영향을 끼쳤다. 또한 강항은 성리학 서적 등 16종 21책을 직접 필사하여 일본에서의 주자학 보급에 힘을 기울였는데, 당시 필사본 원본이 현재 일본의 內閣文庫에 보존되어 있다.

따라서 후시미성에서의 강항과 세이카, 히로미쓰의 교류는 세이카가 승려에서 유학자로 자립하게 되고, 나아가 주자학이 근세 일본의 敎學으로 수용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일본 유학사상 큰 의미를 지니며, 조선 후기 한일 문화교류의 선구적인 사례라고도 할 만하다.

강항이 세이카를 통해 막부의 주자학 수용에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면, 李眞榮과 李全直 부자, 洪浩然 등은 藩의 차원에서 유학사상을 전한 조선 포로들이라 하겠다. 이진영과 이전직은 제1차 진주성 전투에서 아사노 나가 마사(淺野長政)의 군사에게 포로되어 紀伊藩에 살게 되었다. 이후 藩主 도쿠가와 요리노부(德川賴宣)의 侍講이 되어 조선의 성리학을 紀伊藩에 정착 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그들이 남긴 저술을 통해 후대에 이르기까지 紀伊藩의 정치와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홍호연 역시 12세 소년 때 1593년 진주성 전투에서 佐賀藩의 장수 나베시마 나오시게(鍋島直茂)에게 포로로 잡혀가 번주인 나베시마 가쓰시게(鍋島勝茂)의 시강이 되어 佐賀藩의 학문의 기초를 세웠다. 특히 그는 유학자 뿐 아니라 서예가로서도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타쿠가(多久家)라는 자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2) 도공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 하기도 한다. 도요토미가 도자기에 흠뻑

32) 『梶窩先生文集』 『行狀』, 『梶窩先生行狀』, 7쪽.

33) 신현승, 『17세기 조선 지식인의 일본 인식』, 『일본사상』 17, 2009, 211-212쪽.

빠졌던 도자기 광(狂)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조선의 ‘도자기를 빼앗아 가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서 1595년 6월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를 불러 陶工들을 붙잡아 오도록 명령을 내렸다.³⁴⁾

일본에서의 茶道는 15세기 중반에 시작되었으나 16세기말에 센노 리큐(千利休)에 의해 완성되었다. 이후 문화·경제의 중심지역이었던 사카이(堺)·교토(京都)·나라(奈良)의 부유한 상인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여 유력한 다이묘(大名)나 승려들에게 전파되어 유행을 일으키고 있었다. 당대의 시력자였던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도요토미 등이 다도 애호가였다. 다도는 아시카가막부(足利幕府)시대부터 다이묘들의 고상한 취미생활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일반화되었다. 따라서 다도를 위한 도자기의 수요가 급속히 늘어났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도자기는 세련된 조선 도자기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 도자기는 ‘고라이모노(高麗物)’라고 하여 일본의 다이묘들은 보배로 여겨졌다.³⁵⁾ 따라서 일본 장수들은 조선에 들어오자 앞을 다투어 도자기를 약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공을 납치하였고, 심지어는 흙과 유약까지도 가져갔다. 특히 여러 지역에서 가장 많은 조선인 도공들을 납치한 장수는 나베시마 나오시게(鍋島直茂)와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였다.

특히, 나베시마 나오시게(鍋島直茂)는 경상도 남부의 웅천·진주·김해·울산 등지에서 조선인 도공을 많이 납치하였다. 조선 도공 이삼평(李參平)이 나베시마를 만난 것은 1596년을 전후한 시기였다. 당시 이삼평과 함께 일본으로 납치되어 온 조선인 도공은 155명이었다.³⁶⁾ 나베시마는 자신의 영지에 조선인 도공을 살게 하면서 도자기를 만들게 했다. 사가번의 아리타(有田)에는 있는 이삼평이 세운 아리타 도자기(有田燒)를 비롯하여 가라쓰 도자기(唐津燒), 시마즈의 사쓰마 도자기(薩摩燒)·가타노 도자기(堅野燒)·

34) 구태훈, 앞의 논문 174쪽.

35) 하우봉, 앞의 논문(2005) 491쪽.

36) 구태훈, 앞의 논문 176쪽.

쇼사 도자기(帖佐燒), 후쿠오카번(福岡藩)의 다카도리 도자기(高取燒)·아가노 도자기(上野燒)·다카다 도자기(高田燒) 등 일본의 큐슈와 중부지역에는 조선 포도들에 의해 개설된 가마(窯)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밖에도 무명의 도공들이 각지에 퍼져 일본 도자기의 원류를 이루게 되었다.

조선 도공들은 일정한 지역에 집단을 이루며 지방 영주의 보호하에 도자기를 제작하였다. 각 藩에서는 그들이 재정에 큰 기여를 하였기 때문에 지원을 하였던 것이다. 예컨대 아리타 도자기에서는 1663년부터 대량의 자기가 수출되었다. 같은 해 10월 네덜란드에 수출된 3,543점을 포함하여 42,000점에 가까운 자기가 수출되었다. 이때부터 1682년까지 23년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통해 수출한 자기는 19만 점이 넘었다.³⁷⁾

16세기말까지 일본의 도자기 제조기술은 유치하였으나 임진왜란 때 끌려온 조선 도공에 의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에도시대 일본은 세계 최고의 도자기 수출국가가 되었다. 이들의 후예들이 도예 명문의 유파를 형성하였으며, 오늘날까지도 일본 도자기업계의 주요세력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3) 군사무기의 유입 : 조총

한편 임진왜란에서의 전투의 경험을 토대로 피아 화기의 성능상의 우열과 전술상의 차이를 파악한 조선은 이후 일본과 명나라의 선진화기를 도입하여 전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조선은 降倭를 동원하여 조총에 대한 기술을 알아내고, 노획한 조총을 분석하여 시험 제작하는 동시에, 명군을 통하여 보다 발전된 화기 제조술을 배우려고 시도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³⁸⁾

그 결과 조선은 조총의 제조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또 조선은 지방의

37) 吉田光邦, 『やきもの』, NHKブクス, 1982, 132쪽(구태훈, 앞의 논문 183쪽에서 재인용).

38) 『선조실록』 권35, 26년 2월 을미; 권40, 26년 7월 신유; 권46, 26년 12월 기해; 권48, 27년 2월 병인; 권49, 27년 2월 무인; 권49, 27년 3월 기해; 권53, 27년 7월 기축; 권53, 27년 7월 경자; 권53, 27년 7월 을사.

조총 자체 조달과 상납을 적극 권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조총의 총신 제조는 기술 문제로 제조가 쉽지 않았고, 총의 성능도 떨어졌다. 또한 조총 제조를 위한 철물이 매우 부족하고 재정도 궁핍하여 제조 수량이 매우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조총의 제조 기술도 점차 향상되었고, 제조도 꾸준히 이루어졌다.³⁹⁾

그 결과 인조때에 이르면 조선에서 생산된 조총이 일본의 조총 보다 성능이 더 우수하다는 자신감까지 표명하기에 이르게 된다. 또 조총 생산량도 꾸준히 증가하여 병사의 조총 장비율이 높아졌다. 조총 생산량은 1627년(인조 5)에 연간 1,000정에서 10년 뒤인 1637년에는 그 두 배인 2,000정까지 증가되었다. 이는 1614년 심하전투에 파병되었던 조선군의 편제에서 포수 3,500명, 사수 3,500명, 살수 3,000명으로 포수 비중이 35%에 달하고 있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⁴⁰⁾

이후 조총의 성능도 개량되어 위력이 높아졌고, 병자호란때의 방어전투에서의 조총 사격의 효용성으로 인해 점차 조총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이후 훈련도감의 편성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조선에서 제작한 조총의 우수성은 대외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1657년(효종 8) 3월 청나라가 조선에 조총을 대량으로 무역해 줄 것을 요청해 오기도 하였고, 또한 우수한 조총병의 지원을 요청하기에까지 이르렀다.⁴¹⁾ 그 결과 18세기에 들어서면 조선군은 보병의 경우에 전원이 조총으로 무장하고, 일제 사격전술을 구사하기에 이른다.

4) 천주교

임진왜란 기간 중에 서양의 선교사가 일본의 중군신부로 조선에 들어와 선교활동을 하였다. 이 사실은 천주교신부가 최초로 조선에 와 선교를

39) 자세한 내용은 줄고, 『임진왜란기 동아시아 삼국의 무기체계』, 『군사』 5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참조.

40) 『광해군일기』 권130, 10년 7월 경인.

41) 『효종실록』 권18, 8년 3월 정미.

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일본군 내에서 嫌戰 의식이 증대되고, 도망가는 자가 늘어나게 되자⁴²⁾ 고니시 유키나가는 일본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예수회 준관구장인 베드로 고메스(P. Comez) 신부에게 특정한 이름을 지칭하지 않은 채 신부 한 사람을 조선 땅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청원에 고메스 신부는 예수회 소속의 그레고리오 데 세스페데스(G. Cespedes) 신부와 한칸 레온(Hankan Leon)이라 불리는 일본인 수사를 조선으로 보냈다.⁴³⁾ 이들은 1593년 12월 27일부터 1595년 6월까지 고니시의 본영이었던 경상도 웅천성에 체류했다. 이들은 처음 얼마 동안은 아무도 만나지 않은 채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후 이들은 일본군을 상대로 고해성사를 베풀고 전도하는 활동을 하였다.⁴⁴⁾ 그 결과 다른 진영에 있던 병사들도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 모여들었으며, 심지어 이교인 병사들까지도 그의 교리 강론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⁴⁵⁾

한편 세스페데스 신부는 조선인들에게도 교리를 전파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만날 수 없었다.⁴⁶⁾ 단지 그가 만나본 조선인은 일본군에 포로가 된 사람들뿐이었다.⁴⁷⁾ 따라서 그가 조선인에 대한 직접적인 선교활동을 했다는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지만, 아울러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손수 세례를 주는 선행을 베풀기도 했고, 세례를 준 아이들은 무려 200명이나 된다고 주장도 있다.⁴⁸⁾

이러한 세스페데스의 종군 활동은 도요토미의 허락 없이 고니시가 그의 측근인 천주교인 다이묘들의 요청에 따라 비밀리에 취해진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니시의 적수이고 불교 신자인 가토가 세스페데스 신부가

42) 사지마 아키토, 『임진·정유왜란과 크리스찬 장병』, 『누리와 말씀』 6, 인천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9, 58-59쪽.

43) 박철, 『예수회 신부 세스페데스』, 서강대학교출판부, 1987, 41쪽.

44) 박철, 위의 책, 39쪽.

45) 메디나, 박철(역), 『한국 천주교 전래의 기원』, 서강대학교출판부, 1989, 29-31쪽.

46) 메디나, 위의 책, 31쪽.

47) 샤를르 달레, 안웅렬·최석우(역), 『한국천주교회사』, 한국교회사연구소, 1990, 284쪽.

48) 메디나, 박철(역), 『한국 천주교 전래의 기원』, 서강대학교출판부, 1989, 37쪽.

병사들에게 선교 활동을 하면서 고니시 휘하의 응천성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가토는 도요토미에게 고니시가 천주교 금지 명령을 거역하고 신부를 조선 땅으로 데려왔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고니시는 세스페데스와 그의 일본인 동료 수사를 조선에 들어온 지 1년 만에 다시 일본으로 돌려보내야만 했다.⁴⁹⁾

이후 이들 선교사들은 조선인 포로들을 자기들 구역에 수용하여, 먼저 신문을 보호하게 한 뒤에 조선어로 번역한 교리서들을 가지고 선교활동을 하였다. 이 때 나가사키에서만 수용된 포로들의 수가 300여 명이었으며 조선어로 번역한 23종 이상의 교리서로 그들을 가르쳤음이 보고되고 있다.⁵⁰⁾ 일본에 끌려간 조선 포로들은 절망 속에서 천주교에 귀의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1594에는 규슈(九州)에서만도 2,000명의 조선인 신자들이 있었고, 1595년에는 3,000명을 넘어서게 되었다.⁵¹⁾ 이후 이들은 나가사키에서 조선인 천주교 연합회를 조직하려고 했고, 또한 1608년 12월에는 예수회 총장 신부가 일본인들이나 중국인들과 동등한 조건하에서 조선인들의 입회 요청을 수락하기도 하였다.⁵²⁾ 비록 한반도에서 천주교가 전파되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수천 명에 달하는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에서 천주교도로 입교하였던 것이다.

5) 고 추

한편 임진왜란을 통해서 고추도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는 조선인의 식생활과 기호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선후기 경제사 및 생활사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49) 김현덕, 『한국 천주교 전래의 기원설에 대한 비판연구』,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78쪽.

50) 김현덕, 앞의 글, 82-83쪽.

51) 손승철, 『임란 때의 피랍조선인들과 일본 천주교회』, 『누리와 말씀』 6, 인천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9, 121쪽.

52) 마백락, 『임진왜란 때 세스페데스 신부의 방한과 예수회 신부들의 포교활동』, 『역사와 사회』, 현암사, 1997, 51쪽.

고추가 문헌상에 등장하는 것은 『지봉유설』(1613)이 처음이다. 이후 『산림경제』(1715)에는 고추의 재배법이 처음 기록되어 있고, 『증보산림경제』(1766)에는 고추가 향신료로 이용되고 있다고 나와 있다. 아울러 고추장은 『林園十六志』(1827)에 처음으로 담그는 법이 나온다. 따라서 고추가 전래된 초기에는 채소로서 가공되지 않은 채 이용되다가 17세기 이후에야 가루로 하여 고추장을 담거나 각종 음식의 향신료로 이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전기에 쓰인 음식에 사용되었던 향신료는 후추, 川椒, 생강 등이 있었다. 여기에 고추가 전래됨으로써 필수적인 향신료가 되었다. 고추가 향신료로 이용됨에 따라 식생활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김치의 발달과 김장 풍속의 정착, 동·식물성 식품의 조화, 맵게 먹는 식습관의 형성 등이다.⁵³⁾ 특히 고추는 김치의 다양하게 발달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조선시대에도 김치는 기본적인 부식으로서 중요하였는데, 겨울철 김장을 통해서 신선한 채소를 대신하여 비타민 A와 C의 공급원으로서의 의미가 컸었기 때문이다. 또한 김치에 각종 젓갈이 이용되면서부터는 고추의 사용량이 더 많아졌다.

그런데 김치는 일종의 저장식품으로 가능한 한 변질되지 않은 채 오래 보관될 수 있으면 바람직하였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치에 젓갈이 이용되고 고추 사용량이 많아진 것은 고추의 불포화지방산 산패 억제효과를 경험으로 체득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고추는 지방산의 산패 억제 효과와 아울러 생선의 비린 맛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고추는 김치에 젓갈이 첨가될 수 있게 함으로써 동식물성 식품이 조화를 이룬 김치의 개발에 기여했다고 본다.⁵⁴⁾ 또한 마늘과 고추는 김치의 숙성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고추에는 비타민 C의 함량이 높고 안정된 형태로 함유되어 있어 조리시 손실이 적다는 점, 비교적 당분과 아미노산의 함량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⁵⁵⁾

53) 이성우, 『한국식품문화사』, 교문사, 34쪽, 1984, 114-124쪽.

54) 김희선, 『조선후기 사회경제적 변동이 식생활에 미친 영향』,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7, 60쪽.

55) 이성우, 앞의 책, 67~73쪽.

이상과 같이 고추는 강한 풍미를 가진 향신료로 잡냄새를 없애주는 효과가 크며 거칠고 익숙지 않은 각종 초근목피들을 먹기 위한 방법으로 소금의 짠맛과醬의 익숙한 풍미와 맛, 그리고 고추의 자극적인 매운 맛과 잡냄새를 없애는 효과로 인해서 조선 후기 부식류의 발달과 식생활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3. 조선과 명의 문화교류

1) 명나라 서적의 유입

한편으로 동아시아 중세사회 구조에서 임진왜란이라는 새로운 국면은 조선과 명나라 양국 상호간의 문화가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는 이른바 ‘嘉靖~萬曆의 문화전성기’로 명나라에서 흥성하던 다양한 소설문학이 조선에 들어와 조선 후기의 새로운 文運에 큰 기여를 하였다.

16세기부터 명나라의 소설인 『전등신화』, 『전등여화』, 『효빈집』, 『교홍기』 등이 구입되어 들어오기 시작하였는데 임진왜란을 전후로 더욱 활성화되었다. 유몽인의 『於于野談』에는 70여 종의 중국 소설이 소개되었는데 이들 서적들은 임진왜란을 전후로 들어온 것이었다.

특히 나관중의 『삼국지연의』는 임진왜란 직전에 조선에 들어와 일반인들이 모두 통독할 정도로 호평을 받아 많은 나아가 인쇄출판까지 할 정도에 이르렀다.⁵⁶⁾ 또한 이후 조선후기 소설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외에도 『西遊記』와 『水湖志』가 있다. 오승은의 『서유기』는 1592년에 완성된 것으로 사신들을 통해서 조선에 빠르게 유입되었다. 『서유기』는 『壘固執傳』·『洪吉童傳』·『田禹治傳』·『九雲夢』·『玉樓夢』·『朴氏傳』·『玉郎返魂傳』 등에

56) 『선조실록』 권3, 2년 6월 20일; 김만중, 『西浦漫筆』.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⁵⁷⁾

이러한 중국 소설들은 당시 많은 정통 유학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크게 성행하여 일반인들이 모두 통독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이후 급속도로 대중화되어 조선후기에 이르면 그 내용이 과거시험의 시재로 활용될 정도로 품미하였다.⁵⁸⁾

이처럼 임진왜란 시기 명나라의 문학작품은 조선의 중앙정부 뿐 아니라 일반민들에게 까지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나아가 전쟁 과정에서 중국의 자극을 받아 조선후기 한문학 융성의 기틀을 닦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전쟁을 치르면서 조선은 무기 및 전술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 조총을 비롯하여 다양한 화기가 개발되었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조, 운용하기 위한 화기·화약·전술(전략) 등에 관한 병서류의 도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척계광의 『기효신서』이다.

임진왜란 초기 연전연패를 거듭하던 조선은 1593년 1월 초, 평양성 전투에서 명나라 군 가운데 남병(南兵, 浙江兵)이 화기와 단병기를 적절하게 구사해 일본군을 무력화시키는 전술을 접하였다. 당시 명나라군은 절강·복건·강소·강서 등지의 남병 군사로 대부분 보병이며 화기와 검술에 뛰어나 왜구 방어에 동원되었다. 명군이 구사한 전법은 명나라 장수 척계광이 개발한 禦倭戰法이었다. 척계광은 왜구 피해가 극심한 절강·복건 등지에서 왜구를 상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술을 개발했고, 이 경험을 토대로 『紀效新書』를 저술했다. ‘浙江戰法’ 또는 ‘戚法’이라 불리는 이 전술은 보병을 중심으로 화기와 단병기의 긴밀한 협조로 운용되었다. 기병을 쓰지 않은 채 군사를 小隊로 편성해 한 손에는 단병기, 다른 한 손에는 방패를 착용한 것이 특징이다.

평양성 전투에서 명나라 남병은 먼 곳에서 火攻으로 일본군의 기선을 제압한 후 다양한 단병기를 든 병사가 돌진해 적을 공격하는 전법을 구사했다.

57) 조재곤, 앞의 논문 참조.

58) 조재곤, 앞의 논문 참조.

이 전법은 조선인 눈에 매우 낯설었고, 명군이 사용한 불랑기나 호준포, 단병기인 장창·낭선·당과 등도 당시 조선에서는 생소한 무기였다. 이에 조선은 일본군을 막는 시급한 대비책으로 척계광 병법을 적극 수용하려고 했다.

선조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이 책을 입수한 뒤 훈련도감의 낭청 韓嶠를 통해서 번역하도록 했다.⁵⁹⁾ 이어 무신들에게 『기효신서』의 내용과 다양한 병장기 사용법을 익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훈련도감에서는 撮要도 만들었다.⁶⁰⁾ 뿐만 아니라 무과시험에도 활용하기를 결정하자⁶¹⁾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중국의 『武經總要』를 비롯하여 『武經要覽』·『練兵實記』·『握機橐籥』·『百戰奇法』·『孫子』·『吳子』 등 다양한 중국의 병서에도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⁶²⁾

이후에 이러한 병서를 토대로 다양한 병서들이 저술되었다. 먼저 전쟁 와중에 신무기였던 조총을 도입하려고 류성룡이 조총에 관한 교범서를 지었으며,⁶³⁾ 1596년(선조 29) 12월에는 『기효신서』의 각 편에 보이는 화기론을 모아 번역한 『火器翻譯』이란 교범서가 나오기도 하였다. 『화기번역』은 조총 외에도 명나라에서 도입한 불랑기·호준포 등 여러 화기들의 제조·사용방법 등을 수록한 병서로⁶⁴⁾ 그 구성이나 내용면에서 후에 편찬된 화기 교범서 『神器秘訣』에 크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 조선은 『기효신서』를 요약·발췌하여 『兵學指南』을 편찬하여 배포하였다. 『병학지남』은 이후 조선후기 군사제도의 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전술을 제도화, 표준화하기 위한 『병학통』과 알기 쉽게 풀이한 『병학지남의』를 비롯한 병서가 편찬되었다.⁶⁵⁾

59) 『선조실록』 권42, 26년 9월 병자; 권43, 26년 10월 병술; 권49, 27년 3월 무술; 권51, 27년 5월 갑오.

60) 『선조실록』 권64, 28년 6월 을사; 6월 갑인;

61) 『선조실록』 권48, 27년 2월 경신; 권65, 28년 7월 기축.

62) 『선조실록』 권132, 33년 12월 병자.

63) 『서애선생문집』 권19, 잡저, 「記鳥銃製造事」

64) 『선조실록』 권83, 29년 12월 경오.

65) 정해은, 『한국전통병서의 이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198-239쪽

따라서 기효신서는 조선에 도입된 이후 단순히 지식과 정보의 전파나 지식과 정보의 유통 차원을 넘어 국가의 국방정책과 결합함으로써 그 저술의 중요성이 배가되었던 것이다. 이런 연후로 『기효신서』는 더욱 광범위하게 널리 보급되게 된 것이다. 이는 서적의 전파가 단순히 지식의 생성 유통을 넘어 사회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겠다.

2) 관왕묘의 유입

『삼국지연의』의 도입과 더불어 임진왜란 직후 조선에 새롭게 유입된 문화의 하나가 蜀의 장수로 유명한 關羽의 사당을 조성하고 그를 기리는 일이었다.

관왕묘 설치는 1594년(선조 27) 가을부터 시작되어 1598년(선조 31) 4월 승례문 밖에 南關王廟(南廟)의 준공을 보았다.⁶⁶⁾ 이러한 문화는 제갈량을 ‘武侯’로 관우를 ‘軍神’으로 추앙하던 명나라의 장수들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지만 단순한 개인적인 혹은 민간 차원에서 관우에 대한 숭배를 요구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명대의 禮制를 조선에 강요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후 1602년(선조 35)에 동대문 밖에 또 하나의 관왕묘(동묘)가 건립되었고, 서울 이외에도 경상도(성주, 안동)와 전라도(고금도, 남원) 등 4곳에 추가로 관왕묘가 세워졌다. 아울러 서울에는 제사를 위해 수직인 참봉과 호위군사를 배치하였다.⁶⁷⁾

관왕묘가 창건되자, 명나라 장수는 5월 13일 관우의 생일을 맞아 선조의 친제를 요구하였다. 시급한 전시에 명장의 요구를 거절키 어려웠던 선조는

66) 남관왕묘는 임진년과 정유년에 관우의 신령이 도움을 주었다는 믿음을 가진 명장 진린의 요구로 남산 기슭 도제고를 이용하여 관우의 흙으로 만든 塑像과 좌우로 2인이 대검을 들고 모시고 썼는데, 關平和 周倉이었다(『春官通考』권44, 길례, 관왕묘). 당시 남묘의 소상은 생시 관왕으로서 동묘의 소상 死時 관왕에 비해 생기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남묘에는 僧像이 있었으나 숙종때 제거하였다. 아울러 남묘에는 청룡도가 세워져 있었다.(『숙종실록』권38, 29년 6월 계사; 『영조실록』권79, 29년 3월 병인)

67) 심승구, 「조선후기 무묘의 창건과 향사의 정치적 의미 - 관왕묘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의 정치와 제도』, 집문당, 2003, 425-6쪽.

분향·헌작하고 再拜禮를 하였다.⁶⁸⁾ 다만, 비가 온 탓으로 첫 친제는 5월 15일에 이루어졌다. 배례를 마치자, 명장이 묘정에서 광대의 잡희를 베풀어 선조와 함께 관람하였다. 의례 후 배우들의 잡희를 베풀고 구경하는 일은 중국에서 관왕묘 廟會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조선 조정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제사를 지낸 것은 1612년(광해군 4) 6월이다. 당시 광해군은 동남 관왕묘 의례를 독제의 예에 따라 매년 경칩과 상강에 관원을 보내 치제케 하였다.⁶⁹⁾

관왕묘는 임진왜란 이후에도 우리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물론 선조 이후 광해군의 외교정책 변화에 따라 그 비중이 달라졌다. 광해군은 대명의리를 준수하고 명칭교체에 따른 외교문제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再造之恩’의 상징으로 관왕묘를 정비하였다. 그러나 강요에 의해 이식된 문화인 관왕묘 제사는 이후 명나라의 멸망과 함께 이제 더 이상의 정치적 의미는 찾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대명의리의 상징 공간이던 관왕묘는 두 차례의 호란을 거친 후에는 청 사신이 꼭 들리는 관광지로 바뀌었다. 특히 동관왕묘는 병자호란 때 청 태종이 거처했던 공간으로서, 청의 입장에서조차 역사적 의미가 깊은 장소였기 때문이었다. 인조대 이후 숙종대 초반까지 관왕묘의 관리와 향사는 계속되었지만, 호란의 쓰라린 경험은 관왕묘에 대한 일상 관리만 그칠 뿐 그 이상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는 않았다.⁷⁰⁾

그러나 관우와 그의 사당에 대한 신령스러운 소문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부 무속인들에게는 ‘군신’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재물의 財神으로 관우와 관우사당은 여전히 숭배와 제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어 임진왜란 시기 명나라가 남긴 문화적 영향을 생각하게끔 한다.

68) 『선조실록』 권100, 31년 5월 무술.

69) 『광해군일기』 권54, 4년 6월 갑자.

70) 심승구, 앞의 논문, 423-432쪽.

3) 군사무기의 유입 : 불랑기, 삼안총, 단병무기

조선군은 초기 전투의 경험을 토대로 彼我 화기의 우열과 전술상의 차이 점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구원병이었던 명나라 군 조차도 1592년 7월 중순의 평양성전투에서 일본군에 패배하게 되자⁷¹⁾ 새로운 화기의 도입과 화기를 이용한 전술 개발의 중요성은 매우 커졌다. 따라서 조선은 명나라의 선진 화기를 도입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하였다.

1593년(선조 26년) 2월 선조는 火砲匠으로 하여금 명군 백총 周某라는 자와 비밀리에 접촉하여 조총과 염초의 제법을 전습받도록 하였다.⁷²⁾ 또한 같은 해 6월에는 軍器寺로 하여금 서울에 와 있는 명나라 참장 駱尙志의 진지에 약간명의 砲匠을 보내어 포술을 익히게 하고,⁷³⁾ 다음 달에는 행재소의 무신 및 금군과 화포장에게 명군의 각종 화포를 비롯한 방패·전차·낭선·창검 등을 학습하게 하였다.⁷⁴⁾

그 결과 개발된 화기가 화승식 소총인 조총을 비롯하여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사용하였던 것으로 유명한 虎蹲砲라든가, 명나라에서 사용해 온 일종의 연발식 개념의 총인 三眼銃, 후장식 화포였던 佛狼機, 百字銃筒 등이다.

전쟁 이후에도 국방에 대한 인식과 무기체계에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무기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조총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전문기구 鳥銃廳이 설치되었는데, 1614년(광해군 6) 7월 14일에 조총청을 火器都監으로 확대·개편하였다.⁷⁵⁾ 이 화기도감에서는 조총을 비롯하여 불랑기·백자총·삼안총·소승자총통 등 다양한 화기들이 제작되었는데, 1622년 10월에만 조총 900여정과 화포 90문을 제작할 정도로 활발히 진행되었다.⁷⁶⁾

71) 『징비록』 권6, 辰巳錄.

72) 『선조실록』 권35, 26년 2월 을미.

73) 『선조실록』 권39, 26년 6월 신묘.

74) 『선조실록』 권40, 26년 7월 갑인.

75) 『광해군일기』 권80, 6년 7월 갑자. 조총청의 설립연대나 구조, 구체적인 성격 등을 알 수 있는 기사는 없다.

76) 『화기도감의궤』

새로운 화약병기의 도입 외에도 조선은 단병전술의 중요성도 깨닫게 되어 다양한 단병기의 개발과 단병무예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술교범의 발간과 훈련도 강조되었다. 임진왜란 이전까지만 하여도 조선 병사들의 개인적인 무예보다는 진법 훈련을 통한 병사들의 집단 전투력을 우선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계기로 집단 전술 외에 개인의 무예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단병 훈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1593년 훈련도감의 창설되면서 명나라의 藤牌·狼筈·雙手刀 등의 단병기가 도입되었다. 또한 환도는 보병과 기병의 필수 휴대무기가 되어 단병기의 주종이 되었다. 당시 훈련도감 병사들에게 지급되었던 무기를 살펴보면 환도는 사수인 기병과 포수·살수인 보병 모두에게 분급된 무기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임진왜란 때 명군 혹은 이여송이 조선에게 미친 영향력은 매우 컸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던 단도나 提督劍은 조선의 환도의 개량에 모델이 되었을 것이다. 단도나 제독검은 모양과 규격에 있어서 조선후기의 환도와 동일하였다. 또 조선후기에는 환도의 길이는 점차 길어지게 되는데, 이는 임란의 경험의 작용하였고, 이후 도검류는 일정한 규격화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개인 무예의 근간이 되는 이러한 단병기의 보급은 조총이나 궁사와 달리 많은 시간을 필요하였기 때문에 단병무기가 조선의 전술적 무기체계로 정착하는 과정은 쉽지 않은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단병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랜 숙련기간이 필요한데다가 민간에서 단병기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한 몫을 작용하였다.⁷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1598년(선조 31) 10월, 한교에 의해 개인 무예와 관련한 조선 최초의 무예서인 『무예제보』가 완성된다. 이를 통해서 명나라의 단병무예는 조선에 도입되어 근접전에 필요한 개인무기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의 진보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무예제보』는 1759년(영조 35)의 『무예신보』를 거쳐 정조대 무예 종합 교범이라 할 수 있는 『무예도

77) 정해은, 「임진왜란기 조선이 접한 短兵器와 武藝諸譜의 간행」, 『군사』 5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보통지』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렇듯 임진왜란을 계기로 조선후기에는 근접전에 필요한 개인무기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의 진보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단병무기의 기예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술교범의 발간과 훈련도 강조되었다.

4) 조선 시문과 서적의 반출

임진왜란을 시작으로 명나라에서는 조선 시를 알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고, 이는 양국간의 문화교류 상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전에도 명나라에서도 조선에 관한 많은 책들이 출간되었다. 그러나 명대의 많은 중국인들이 조선의 문화를 보다 현실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임진왜란이라는 현장 경험을 통해서였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 조정은 전투 상황 외에도 구원군으로 들어온 명나라 사신과 장수들에 대한 접대 문제로 고심하였다. 그들 대다수는 우리의 어려운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과도한 금품과 娼妓 뿐만 아니라 경쟁적으로 詩文 교환을 강요하였다. 이에 대해 선조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비상상황에서 신하가 시를 읊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관료들에게 시문을 짓지 말 것을 지시하기도 하는 등⁷⁸⁾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현실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관료들에게 알아서 행하라고 하였다. 따라서 일부 거절한 적도 있었지만 조선 조정은 그들 요구의 대부분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⁷⁹⁾

이후 명 지휘관과 사신들은 조선 관료들과 시문을 교환하면서 양국 지식인 상호간의 시문에 대한 인식과 수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양국 간의 문화교류 상 획기적인 일이었다. 조선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문학적 재주가 뛰어난 인사를 엄선하여 그들과 시문을 교류하게 하였다. 그 결과 역대 우리의 명시와 문장이 명나라에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78) 『선조실록』 권29, 25년 8월 을묘.

79) 『선조실록』 권36, 26년 3월 갑자; 8월 을미; 8월 무신.

한편 1595년에는 명나라 사신이 科場의 詩·賦·論 등의 작품을 보기를 원하자, 예조에서는 전란으로 상고할 만한 서책이 없기 때문에 약간만 뽑아 보내게 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선조는 “우리나라 사람의 작품은 중국인의 안목에 차지 않을 것이니, 병화에 소실되어 얻기 어렵다고 하며 보여주지 않더라도 구애될 게 없을 것이다”라 하면서 이를 참작하여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⁸⁰⁾ 또 명나라 장수들은 서적과 글씨 요구를 요구하였고⁸¹⁾, 심지어는 국초의 사적을 이해할 수 있는 서적을 원하기도 하였다.⁸²⁾ 이렇듯 명나라 측의 지속적인 서책 요구에 조선 측에서는 난리를 치른 뒤라서 구하기 어렵다는 뜻을 여러 차례 알렸지만 요구가 계속 되자 어쩔 수 없이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전란 중에 다양하고도 많은 수량의 조선의 서적과 시문이 명나라로 유입되었다. 이는 1599년 봄에 좌의정 이항복이 광해군에게 “우리나라 서책으로 중국에 유입된 것 또한 어찌 한스럽지 않겠습니까?”⁸³⁾라 한 것을 보아 우리나라의 많은 서적들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과정에서 명나라 내부로 흘러 들어갔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17세기까지 이어진다.

당시 명나라에까지 알려지게 된 대표적인 사람으로 許筠을 비롯하여 車天輅, 許蘭雪軒, 申欽 등이 유명하였다.⁸⁴⁾

허균은 중국과 조선에서 한시로 유명하였는데, 조선 초기부터 당대에 이르기까지의 시를 모아 『國朝詩刪』을 편찬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중국 소설의 수입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했는데, 1615년 천추사로 중국에 갔다 각종 서적을 많이 가져왔다.⁸⁵⁾ 특히 그는 명나라 장수 오명제의 청을 받아 『朝鮮詩選』에 참여하여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수백편의 시를 바쳤다.⁸⁶⁾

80) 『선조실록』 권64, 28년 6월 무신.

81) 『선조실록』 권97, 31년 2월 갑신; 3월 갑오.

82) 『선조실록』 권98, 31년 3월 기유.

83) 『迎接都監賜祭廳儀軌』, 기유 4월 14일(규장각 소장)

84) 조재근, 앞의 논문 30-31쪽.

85) 『광해군일기』 권91, 7년 6월 5일.

86) 허균, 『朝鮮詩選』 後序

우리나라의 역대 주요 시문이 중국에 본격적으로 전파된 것은 허균의 노력을 통해서 『조선시선』이라는 시 모음집이 간행되면서 가능하였다. 차천로는 서경덕의 문인으로 전쟁 중에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제술관으로도 활동하였다. 그의 『강촌별곡』은 문장이 정밀하고 화려하여 중국인들로부터 '東方文士'라고 불리울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허균의 누이이자 조선 최고의 여류시인인 허난설헌은 명나라 유격장군으로 참전했던 藍芳威의 『朝鮮古詩』에 25수가 『朝鮮詩選』에 58수가 수록될 정도로 중국에서 인기가 높았다. 후에 그의 시 168편을 모아 1612년에 시집 『聚沙元倡』을 발간하기도 하였다.⁸⁷⁾ 한시와 시조로 유명한 신희은 임진왜란 때 중국 장수들에게 보내는 揭帖을 많이 썼다.

4. 맺음말

조선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전쟁인 임진왜란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판도를 바꾼 대사건이었고, 그 결과 전쟁 당사자인 조·명·일 삼국 간에 정치·경제적 변화뿐만 아니라 문화교류와 접촉이 폭넓게 이루어졌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쟁 초기부터 전투부대와는 별도로 6개의 특수부대를 편성하여 조선의 문물을 조직적으로 약탈하였다. 이러한 약탈을 정부가 조직적으로 진행시켰다는 점에서 일부 연구자의 경우에 임진왜란을 '문화 약탈전쟁'이라고 성격 규정하기도 한다. 일본은 전쟁을 통해서 인적·물적 자원을 약탈해감으로써 조선의 선진문화를 대량으로 흡수하였고, 전쟁 이후 에도시대(江戶時代)의 문화 발전에 전기를 마련하였다. 임진왜란을

87) 『취사원창』은 독립되지 않고 安徽省 출신 문인인 潘之恒이 말년에 편찬한 『巨史』라는 문집에 들어있다.(박현규, 「許蘭雪軒의 또 하나의 중국 간행본 『聚沙元倡』, 『한국한문학연구』 26, 한국한문학회, 2000)

통해 일본으로 전래된 조선의 문물 가운데 그 영향력이 큰 것은 불교문화재와 성리학(朱子學), 금속활자와 전적, 도자기라 할 수 있다.

임진왜란과 관련하여 일본 메이지시대(明治時代)의 역사학자 도쿠도미 소호(徳富蘇峯)는 “이 전쟁으로 인해 일본과 조선 양국이 이익을 얻은 것은 결코 없지만, 일본으로서는 문화상으로 活版印刷의 수입, 공예상으로 도자기가 있고, 외교상으로는 명과의 접촉이라는 수익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사치스런 해외 유학이었다”라고 평하였다.⁸⁸⁾

그의 지적과 같이 일본은 임진왜란을 통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대신 조선의 문화와 문물을 많이 흡수할 수 있었다. 조선에서 반출된 수많은 선진적 문화와 학술 서적, 문화재들은 이후 근세 일본사회의 형성과 문화부흥의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반면 조선은 납치와 살육, 문화재 약탈, 농지 훼손 등 많은 분야에 걸쳐 참담한 피해를 입었지만 일본으로부터 얻은 것도 전혀 없지는 않았다. 국가 방위를 위한 신무기 조충 제조기술과 천주교의 접촉, 그리고 고추의 전래 등은 조선후기 사회에서 일정한 의의를 지니는 사실이다. 특히 임진왜란을 통해서 들어온 고추는 조선후기 조선인의 식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선후기 경제사 및 생활사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조선을 돕기 위해 들어온 명나라와의 문화교류도 활발하였다. 문화전성기에 흥성하던 명나라의 소설문학이 조선에 들어와 임란 후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였고, 전란을 극복하기 위해 각종 병서와 신무기가 도입되어 조선 후기 국토방위전략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명나라 장수와 사신들은 조선 관료들과 시문을 교환하면서 양국 지식인 상호간의 시문에 대한 인식과 수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역대 우리나라의 명시와 문장이 명나라에 널리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지식과 정보의 전파나 지식과 정보의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양국 간의 문화교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후 사회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88) 徳富蘇峯, 『근세일본국민사9, 豊臣氏時代已篇 朝鮮役』하, 民友社, 1935, 759쪽.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관왕묘 설치 및 제사는 전쟁으로 인해 강요에 의해 이식된 문화의 표본으로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부 무속인들에게는 '군신'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재물의 신(財神)으로 관우와 관우사당은 여전히 숭배와 제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어 명나라가 남긴 문화적 영향이 오늘날까지 이어짐을 느낄 수 있다.

유유히 흐르는 역사 속에서 전쟁이란 소용돌이와 같다. 그런 만큼 가장 역동적인 사건으로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참혹한 전장 위에 꽃을 피우기도 하였다. 그런 점에서 전쟁은 새로운 질서를 태동해 내는 바탕이 되었고, 때로는 역사 발전의 동력이 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원고투고일 : 2012. 6. 30, 심사수정일 : 2012. 8. 10, 게재확정일 : 2012. 8. 14)

주제어 : 임진왜란, 조선, 에도시대, 불교문화재, 금속활자, 피로인, 유학자, 도공, 도자기, 천주교, 조총, 불랑기, 삼안총, 호준포, 관왕묘, 고추, 삼국지연의, 기효신서, 병학지남

<ABSTRACT>

The Cultural Exchange of Joseon(朝鮮), Ming(明) Dynasty and Japan by the Japanese Invasion in 1592(壬辰倭亂)

Park, Je-gwang

The Japanese Invasion which was the most representative war during the Joseon Dynasty, was an event that altered an international order in Eastern Asia. As a result, there wer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 among Joseon, Ming Dynasty and Japan.

Toyotomi Hideyoshi created 6 more special forces in addition to the main combat forces and pillaged the advanced cultural artefacts of Joseon. Buddhist heritage, neo-Confucianism, movable metal type, books, and ceramics were the major products of civilization of Joseon which were handed to Japan by the Japanese Invasion. They helped Japan to form modern society and cultural revival.

However, there was not only the damage in Joseon after the Japanese Invasion. They obtained new manufactural techniques of matchlock, were exposed to Christianity, and imported pepper.

Furthermore, exchange with Ming Dynasty was also active. Ming's novels created new culture in Joseon after the Invasion. Their new books on military science and new weapons were introduced to Joseon. This was a crucial opportunity of cultural exchange between Joseon and Ming, and played a role that altered social institutions.

Key Words : Japanese Invasion, Joseon, Buddhistic heritage, neo-Confucianism, metal type, ceramics, Christianity, military science, matchlock, military book

명나라 후기 척계광의 ‘원앙진’과 팔진 원리

홍을표*

1. 머리말
2. 고대 중국 팔진의 연원
3. 송·명대의 팔진 연구
4. 원앙진의 출현배경과 구성 원리
5. 맺음말

1. 머리말

원앙진(鴛鴦陣)은 명나라 척계광이 저술한 『기효신서(紀效新書)』에 있는 진법(陣法)의 하나로 왜구 토벌작전에 탁월한 효력을 발휘한 전법(戰法)으로 알려져 왔다. 우리나라가 『기효신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임진왜란 때 척계광의 전법을 사용하여 평양성 탈환작전을 성공시킨 명나라 장수 이여송(李如松)의 군문에서 소개 받은 이후부터이다. 조선에서는 이 책에 관심을 갖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입수해 부대훈련에 이용하면서 여러 차례

* 강원대학교 사학과 강사

수정증보판을 간행하였다.¹⁾ 국립 진주박물관에 소장된 정경달(丁景達)²⁾의 반곡진법(盤谷陣法)에는 『기효신서』의 목차가 첨부되어 있어서 당시 무관들이 『기효신서』를 학습하였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현종 때는 조선의 실정에 맞는 『기효신서』를 간행하여 원본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명나라의 병서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조선만의 병서로 발전시켰던 면모를 찾아 볼 수 있다.³⁾ 이와 같이 척계광의 저술은 조선의 병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몇 가지 예로 『병학지남』·『무예제보』·『연병지남』·『무예도보통지』와 『기효신서』의 중요한 요점만을 요약한 『기효신서절요』 등은 직간접적으로 『기효신서』나 『연병실기』의 영향을 받아 간행된 병서들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1998년에는 국방군사연구소에서 조선본 『기효신서』를 영인하여 군 부대와 전국 연구기관에 배포하였고 2011년에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그 일부를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 선조 때부터 시작된 『기효신서』에 대한 관심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이 책의 내용이 현대는 물론 미래에도 연구해 볼 가치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앙진은 척계광이 창안한 독창적인 진법으로 고대 중국의 전통 진법인 팔진법과는 별개의 것으로 알려져 왔다. 팔진법은 나관중의 『삼국지연의』에 의하여 축한의 제갈량이 창안한 것으로 알려져 왔고, 원앙진 또한 명나라의 척계광이 왜구를 막기 위해 만든 진법으로 인식되어 왔기에 팔진이나 원앙진은 별개의 진법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리고 그것들은 학문적인 연구보다는 소설이나 전설을 통해 고대의 신비한 진법으로 간주되거나 세간의 흥밋거리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대로부터 진법이 출현하게 된 동기를 보면, 개인의 전투능력을 조직의 전투력으로, 조직의 전투력을 대단위 전력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1) 『紀效新書 上』, 국방군사연구소, 1998, 1~37쪽.

2) 정경달(1542~1602)은 임진왜란 때 선산부사로서 관찰사 김성일, 병마절도사 조대근과 함께 경상도 금오산에서 적을 물리쳤다. 1594년에는 수군통제사 이순신의 종사관이 되어 활약하였다. [『盤山世稿』, 아세아문화사, 4~7쪽].

3) 『紀效新書 上』, 국방군사연구소, 1998, 30~31쪽.

고안되었다. 조직적인 전투를 하게 되면 전차에 탑승한 승무원들과 같이 용맹한 전사라도 독단적으로 공격할 수 없고, 나약한 병사라도 홀로 물러서지 못하며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 손무(孫武)는 이것을 '한 배에 승선한 사람들'로 비유하였고, 제갈량은 '훈련된 병사는 무능한 장수가 지휘하더라도 패배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한신(韓信)은 고대 중국 5000년 전쟁 역사를 통해 가장 뛰어난 명장이라 한다.⁴⁾ 한신과 같은 명장도 구리산에 있는 항우의 강동 8,000명 정예부대를 격파할 방법이 없어 사면초가라는 심리전으로 분산시킨 뒤에야 각개 격파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항우는 남아 있는 28명의 기병들을 4개 조로 나누어 한군의 포위망을 돌파하였다.⁵⁾ 이와 같이 조직적으로 훈련된 부대는 쉽게 격파 당하지 않는데 그것은 개개인의 전투능력이 아닌 진법이란 부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전장에서 진법이 출현하게 된 배경은 작게는 군대의 존폐를 판가름하는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투쟁의 결과였으며, 크게는 국가의 흥망을 결정짓는 전쟁터에서, 상대국의 군대를 격파하고 승리를 거두기 위한 최종적인 수단 중 하나였다. 하나의 진법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국가가 처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제반 현상은 물론 그 국가를 수호하는 군대의 규모나 무기체계, 부대편성, 전투방법, 인재의 등용 등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조건들이 수반되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 국가나 군대의 상황 역시 자국과 대등한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되었다. 그러기에 진법이 역사에 끼치는 영향은 사소한 듯 보이지만 한 시대의 상황을 심도 있게 조명해 보기 위해서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하여 오늘날에도 이에 대한 연구가 다음과 같이 계속되고 있다.

4) 中國軍事史 編寫組, 『中國歷代軍事家』, 北京解放軍出版社, 2004, 245쪽. [현대 중국 문헌은 한자로 표기함].

5) 사마천, 『史記』 제7권, [『文淵閣四庫全書(이하 『사고』로 약칭)], 項羽本紀. “乃有二十八騎, 漢騎追者, 數千人…乃分其騎, 以爲四隊…四面騎馳, 下期山東.”

1981년에 허선도가 「〈진법〉고(考)」⁶⁾를 발표한 이래 1983년에는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가 『병장설·진법』을 성백효에게 번역시켜 출간한 바 있다. 이후 1987년에는 황병국이 「조선조의 진법고찰」⁷⁾이란 제목으로 손빈⁸⁾의 팔진법·십진법과 충무공의 학익진 등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고, 1990년에는 성백효가 송규빈⁹⁾의 『풍천유향』을 번역하였는데 그 가운데 상승진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1996년에는 김광수가 「정도전의 진법에 대한 고찰」¹⁰⁾을, 1998년에는 백기인이 「고대 중국의 군사조직과 진법운용」¹¹⁾, 노영구가 「양완¹²⁾의 악기도설과 전차운용론」¹³⁾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000년에는 노영구가 『오위 진법의 복원과 '(어정)이진총방』¹⁴⁾을 단행본으로 간행하고, 『조선후기 병서와 전법의 연구』¹⁵⁾를 발표하였다. 같은 해에 서영교는 「나당전쟁기 당병법의 도입과 그 의의」¹⁶⁾를 발표하였으며, 2003년과 2004년에는 백기인이 「동아3국 근대 전법 형성의 군사사상적 배경」¹⁷⁾과

6) 허선도, 「〈陣法〉考」, 『군사』 제3호,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1981.

7) 황병국, 「조선조의 진법고찰」, 『군사』 제15호,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1987.

8) 손빈(?~BC316)의 본명은 실전되었으나, 손무의 후손으로 산둥 건성 사람이다. 스승 귀곡자 밑에서 방언과 동문수학을 했으나 방언의 무고를 받아 두 무릎이 잘리는 형벌을 받고 제나라로 달아난 뒤, 제의 군사가 되어 마릉의 전투에서 방언을 격파하고 자살하게 했다. 1972년 임기현 은작산 한묘에서 그의 병서 30권이 죽간본으로 발견되었다. [張搗之 等 主編, 『中國歷代人名大辭典』, 中國 上海古籍出版社, 1999(이하 『인전』으로 약칭), 779쪽].

9) 송규빈(1696~?)은 조선 숙종과 정조 때의 무관으로 그의 생애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백기인, 『조선후기 국방론 연구』, 도서출판 해안, 2007, 29~38쪽].

10) 김광수, 「정도전의 진법에 대한 고찰」, 『육군사관학교 논문집』 제50호, 육군사관학교, 1996.

11) 백기인, 「고대 중국의 군사조직과 진법운용」, 『군사』 제36호, 국방군사연구소, 1998.

12) 양완(1744~1816)은 정조 때의 무관으로 선전관, 장연부사(長淵府使), 영종방어사(永宗防禦使), 경상좌도 수군절제사를 역임하였고 『악기도설(握奇圖說)』을 저술하여 진법의 원리를 밝혔다. [양완, 김영길 역, 『國譯握奇圖說』, 기창족보사, 2005, 151~153쪽].

13) 노영구, 「양완의 악기도설과 전차운용론」, 『문헌과 해석』 제6호, 1998.

14) 노영구, 「오위 진법의 복원과 「(御定)肄陳總方」」, 문헌과 해석사, 2000.

15) 노영구, 『조선후기 병서와 전법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16) 서영교, 「나당전쟁기 당병법의 도입과 그 의의」, 『한국사연구』 제116호, 한국사연구회, 2002.

17) 백기인, 「동아3국 근대 전법 형성의 군사사상적 배경」, 『군사』 제48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조선후기 국방론 연구』¹⁸⁾를 발표하고, 2005년에는 남원 양씨의 문중에서 양완의 『악기도설』을 번역한 『국역 악기도설』¹⁹⁾과 노영구의 『조선시대에 재현된 각종 고전 진법의 형태와 내용』²⁰⁾이 단행본으로 간행된 바 있다. 그리고 2007년에 노영구의 「18세기말 양완의 전차, 기병, 보병 통합 전술」,²¹⁾ 2008년에 최형국의 『군사들의 진법, 그 비밀을 풀다』,²²⁾ 2009년에 박낙현의 「조선전기 습진과 군사훈련」²³⁾ 등이 나왔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는 2010년에 안명노²⁴⁾의 『연기신편』²⁵⁾을, 2011년에는 조선본 『기효신서』 중 상권을 유재성에게 번역시켜 출간한 바 있다.²⁶⁾ 같은 해에 김동경은 「정도전의 '진법'과 태조대 군사력 재건」²⁷⁾을, 최형국은 「조선후기 진법 원앙진의 군사무예 특성」²⁸⁾을 내 놓은 바 있다.

이상의 연구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일반적인 학술연구와 같이 학계의 연구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군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척계광이나 이순신 같은 명장들도 선인들이 남겨 놓은 지식을 토대로 삼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현재는 물론 후대까지도 적지

18) 백기인, 『조선후기 국방론 연구』, 도서출판 해안, 2007.

19) 양완, 김영길 역, 『國譯握奇圖說』, 기창족보사, 2005.

20) 노영구, 『조선시대에 재현된 각종 고전(古典) 진법(陣法)의 형태와 내용』, 문헌과 해석사, 2005.

21) 노영구, 「18세기 말 양완의 전차, 기병, 보병 통합 전술」, 『군사』 제64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22) 최형국, 『군사들의 진법(陳法), 그 비밀을 풀다』, 인물과 사상사, 2008.

23) 박낙현, 「조선전기 습진과 군사훈련」, 『동양고전연구』 제35호, 동양고전학회, 2009.

24) 안명노(1620~1680)의 본관은 순흥이다. 효종 1년에 증광문과에 급제하였다. 양산군수로 재직 중에 『연기신편』을 저술하여 척계광의 병제를 개편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채택되지 못하고 유배지에서 사망하였다. [안명노, 유재성 역, 『演機新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0, 11~19쪽].

25) 안명노, 유재성 역, 『演機新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0.

26) 척계광, 유재성 역, 『紀效新書(上)』,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27) 김동경, 「정도전의 '진법(陣法)' 과 태조대 군사력 재건」, 『한국문화』 제53집,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2011.

28) 최형국, 「조선후기 진법 원앙진의 군사무예 특성」, 『국방부 간행물』 제78호, 국방부, 2011.

않은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고대의 전사를 보면 사소한 듯 보이는 착안 하나로 전쟁의 승패가 갈라졌고 국가와 역사의 운명이 달라졌던 일들이 비일비재하였다. 때문에 이 글 역시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이 있었기에 받아들일 수 있었으나 국토를 방위하는 장병들에게 일말의 참고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발표하게 되었다.

중국 측 연구로는 1982년에 구지광(谷霽光)이 발표한 「고대 전술 중에서 중요한 진형의 하나인 방진〔古代戰術中的主要陣形一方陣〕」²⁹⁾, 위 따지(余大吉)의 「제갈량의 팔진도 및 진법에 대한 탐구를 시도하다〔諸葛亮的八陣圖及陣法試探〕」,³⁰⁾ 리우 더정(劉德增)의 「진시황 병마용의 군진은 팔진중의 방진이다〔秦始皇兵馬俑軍陣實即八陣中的方陣〕」,³¹⁾ 왕 후이창(王輝強)의 「진나라 병마용과 진군의 진법〔秦兵馬俑與秦軍陣法〕」,³²⁾ 탄 량샤오(譚良嘯)의 「다시 제갈량 팔진도를 논하다〔再論諸葛亮八陣圖〕」,³³⁾ 리 바이순(李伯勛)의 「고대 팔진의 연원과 제갈량 팔진의 고략〔古代八陣淵流及諸葛亮八陣考略〕」,³⁴⁾ 티안 자오린(田昭林)의 「제갈량의 팔진도〔諸葛亮的八陣圖〕」,³⁵⁾ 환 수량(宦書亮)의 「제갈량 팔진도 탐색〔諸葛亮八陣圖探蹟〕」,³⁶⁾ 왕 루핑(王路平)의 『송나라 진법과 진도를 탐구하다〔宋代陣法與陣圖初探〕』³⁷⁾ 등을 열람해 볼 수 있었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한(漢)나라 이전의 팔진이나 제갈량의 팔진도를 다루고 있지만 주제에 비하여 소개되는 내용들은 소량으로 제한적이었다. 일본 측의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근대화 이후 화약무기의 발전으로 인하여 진법의 효율성을

29) 谷霽光, 「古代戰術中的主要陣形一方陣」, 『江西社會科學』 第十期, 中國, 1982.

30) 余大吉, 「諸葛亮的八陣圖及陣法試探」, 『中國史研究』 第三期, 中國, 1994.

31) 劉德增, 「秦始皇兵馬俑軍陣實即八陣中的方陣」, 『文博』 第四期, 中國, 1994.

32) 王輝強, 「秦兵馬俑與秦軍陣法」, 『文博』 第四期, 中國, 1994.

33) 譚良嘯, 「再論諸葛亮八陣圖」, 『天府新論』 第四期, 中國, 1997.

34) 李伯勛, 「古代八陣淵流及諸葛亮八陣考略」, 『成都大學學報(社科版)』 第1期, 中國, 1998.

35) 田昭林, 「諸葛亮的八陣圖」, 『軍史歷史研究』 第二期, 中國, 1999.

36) 宦書亮, 「諸葛亮八陣圖探蹟」, 『南昌大學學報(人社版)』 第1期, 中國, 2003.

37) 王路平, 「宋代陣法與陣圖初探」, 中國 西北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 [각주 29)~37)의 중국 논문들은 국내에서 구해 보기 어려웠는데 중국 장춘에서 교환 근무 중인 정병하 선생께서 자료를 구해 주셨기에 지면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상실한 것이 관심을 잃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 한다. 특히 원양진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글에서는 명나라 말기에 척계광에 의해 창안되어 왜구를 격퇴하는데 운용되었고, 임진왜란 때는 조선에 도입되어 군사훈련의 지침으로 삼았다는 척법, 즉 원양진이 출현하기까지 고대 중국의 팔진법을 조명해 보면서 진법의 기본이라 하는 팔진법과 척계광이 창안한 원양진이 별개의 진법인지 아니면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옛 문헌들을 중심으로 탐구해 보고자 한다. 팔진법과 원양진법이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다면 신비에 싸인 팔진법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그것은 곧 역사의 반복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삼황 때부터 출현했다고 알려진 진법은 50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형태들이 출몰하였지만 그 원리는 하나라는 것이 명나라 중기까지 내려 온 정설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원양진이 출현하여 그 정설을 흔들어 놓았다. 때문에 팔진이나 원양진이 같은 원리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도 진법을 창안하고 운용하는데 흔들림 없는 근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고대 중국 팔진의 연원

고대 중국에서 진법이 생성된 유래는 복희·신농·황제 등으로 불리는 삼황의 신화와 함께 시작한다. 그것은 단순한 전설로서가 아니라 하도(河圖)를 보고 팔괘를 만들었다는 복희의 사괘진(師卦陣)과 황제가 탁록(涿鹿)에서 치우를 물리칠 때³⁸⁾ 진법을 운용했다는 기록들이 적지 않은 문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악기경(握奇經)』은 황제가 탁록 전쟁에서 사용했던 진법을 풍후(風后)에게 명하여 기록으로 남긴

38) 사마천, 『史記』 제1권, [『사고』 제243책, 39쪽]. “蚩尤作亂, 不用帝命, 於是黃帝, 乃徵師諸侯, 與蚩尤戰於涿鹿之野.”

것이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일들은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되고 있지만, 서구화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물론 조선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있었다. 한 예로 당 태종³⁹⁾이나 송 신종⁴⁰⁾과 같은 황제들이나 조선의 안명노(安命老)와 양완(梁完) 같은 연구자들도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⁴¹⁾

고대 중국의 진법은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출현하였지만 ‘진법’이란 명칭보다는 ‘팔진’이란 명칭이 자주 사용된 것 같다. 그것은 황제 때 저술되었다는 『악기경』을 진법의 정종으로 간주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악기경』의 서두에 “팔진이란 4개는 정진이고, 4개는 기진이다”⁴²⁾라는 문구와 고대 중국의 부대 배치인 정전법(井田法)에 의해 8개의 방진을 편성했던 데서 유래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⁴³⁾ 『악기경』 외에 팔진이란 용어를 사용한 예는 전국시대 손빈의 병서에서 찾아 볼 수 있다.⁴⁴⁾ 팔진이란 용어는 병서가 아닌 여타의 문헌에서도 다수 찾아 볼 수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한(漢)나라 정씨(鄭氏)가 주를 달았던 『주례주소』와 송나라 정이동의 『주역상의』 등을 포함한 많은 문헌에 팔진이란 용어가 나오며 『후한서』에는 두헌(竇憲)이 팔진법으로 흉노를 격파했다⁴⁵⁾는 기록도 찾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진법이란 명칭이 팔진으로 사용된 시기나 그 변화 과정을 정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현대 중국의 연구자들 역시 팔진이란 용어는 제갈량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다고 하였고,⁴⁶⁾ 리 바이쉬은 “중국 고대에서는 진법을

39) 이정, 『李衛公問對』, [『사고』 제726책, 147쪽]. “太宗曰, 深乎. 黃帝之制兵也, 後世雖有, 天智神畧, 莫能出其闔闔.”

40) 탁극탁, 『宋史』 제195권, [『사고』 제283책, 593쪽]. “帝, 諭近臣曰, 黃帝始置, 八陣法, 敗蚩尤於涿鹿.”

41) ① 안명노, 『演機新編』,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문서, 간사자 연도 미상, 29쪽. “八陣之制, 本於河洛…八陣之法, 始於此也.”

② 양완, 『握奇圖說』, 간사자 연도 미상, 4~6쪽. “軒轅之井田, 本於河圖…五爲陣法 四爲閑地.”

42) 풍후, 『握奇經』, [『사고』 제726책, 3쪽]. “八陣, 四爲正, 四爲奇.”

43) 왕응전, 『周禮翼傳』, [『사고』 제96책, 432쪽]. “握機奇正圖.”

44) 손빈, 『孫臏兵法』, [『中國兵書集成』 (이하 『병집』으로 약칭)] 第1冊, 北京解放軍出版社, 1987, 174쪽.

45) 범욱, 『後漢書』 제53권. “(竇)憲, 字伯度, 父(竇)勳…勒以八陣, 洩以威神.”

46) 中國軍事科學院, 『中國軍事通史』, 中國 軍事科學出版社, 2005, 434쪽.

습관적으로 팔진으로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였다.⁴⁷⁾

팔진법은 제갈량에 의해 팔진도(八陣圖)로 승화되어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삼국시대 촉한의 입지조건은 조조의 위(魏)나라나 손권의 오(吳)나라에 비하여 열악하였다. 그래서 수적 열세에 있는 촉한의 군사로 위나라의 대군을 격파하기 위해서는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하였고, 제갈량은 그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팔진도를 창안하였다. 팔진도의 위력은 실전을 통하여 입증되었다. 제갈량의 촉군에 맞서 위군을 지휘한 사마의 역시 위나라에서는 뛰어난 전략가로 인정받았기에 발탁되었다. 그런 그가 촉군에 비해 수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제갈량과 싸울 때마다 패전을 면치 못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서진(西晉)의 진수(陳壽)가 쓴 『삼국지』에는 그에 대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 ① (제갈량은)병법을 연구하여 팔진도(八陣圖)를 만들고, 그 요결을 터득하여 완성시켰다.⁴⁸⁾
- ② 선왕(宣王-사마의)이 그들의 영누(營壘)와 처소를 둘러보고 나서 “천하의 기재이다”라고 말하였다.⁴⁹⁾

①은 진수가 제갈량의 팔진도에 대하여 말한 것이고, ②는 제갈량이 죽고 촉군이 철수하자 그들의 진터를 둘러 본 사마의가 제갈량을 가리켜 한 말이다. 사마의는 제갈량과 싸울 때 마다 패전하였기에 수비만 하였다. 속전속결을 원했던 제갈량은 건흥 12년(234)에 사마의에게 아녀자의 옷을 보내며 ‘남아 대장부라면 당당하게 출전하여 싸우자’고 모욕을 주었다. 그러나 사마의는 수모를 받으면서도 촉군과 싸울 엄두를 못 냈다.⁵⁰⁾ 그만큼 촉군의 전투력이 나 제갈량의 전법이 강력했기 때문이다.

47) 李伯勳, 「古代八陣淵流及諸葛亮八陣考略」, 『成都大學學報(社科版)』第1期, 1998, 51쪽.

48) 진수, 『三國志』, [『사고』 제254책, 587쪽]. “推演兵法, 作八陣圖, 成得其要云.”

49) 위의 책 587쪽. “宣王, 案行其營壘處所曰, 天下奇才也.”

50) 양시위 편, 『諸葛忠武書』, [『사고』 제447책, 182쪽]. “十二年, 丞相亮…甘受畏蜀如虎之譏 巾幗婦人之辱.”

수적으로 열세했던 촉군이 위나라의 대군과 결전할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촉군이나 제갈량에게 위군이나 사마의가 풀어 낼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며, 진수는 그것을 팔진도라고 하였다. 따라서 팔진도는 실존했던 전법이며 제갈량이 남긴 진법의 유적지까지 <그림 1>과 같이 몇 군데 전해진다고 한다. 당나라의 시인 두보는 대력 원년(766)에 기주(夔州)에 있는 팔진도의 유적지를 둘러보고 팔진도라는 영사시(詠史詩)를 읊은 바 있다.⁵¹⁾

제갈량이 군사훈련을 실시했던 훈련장 중 몇 군데는 명나라 때까지 남아 있었다고 한다. 그 훈련장을 둘러 본 동진(東晉)의 환온(桓溫)은 “상산의 뱀과 같은 기세를 갖고 있다”⁵²⁾라고 하였으며, 당나라 이정(李靖)(571~649)은 이것을 토대로 육화진(六花陣)을 만들었다⁵³⁾고 하였다. 조설(趙高)은 희녕 2년(1069) 11월에 변경 수비를 담당하는 장수들에게 제갈량의 팔진도를 가르치게 하자며 제안하기도 하였다.⁵⁴⁾

명나라 중기에 『팔진합변도설』을 저술한 남장(藍章)⁵⁵⁾과 용정(龍正)⁵⁶⁾은

<그림 1> 팔진의 유적지(백색)



51) 邱燮友 註譯, 『新譯 唐詩三百首』, 臺灣 三民書局, 1989, p.330.

52) 방교, 『晉書』 제98권, 열전 제68. <桓溫>. “初諸葛亮, 造八陣圖於魚復平沙之上, 壘石爲八行, 行相去二丈, 溫見之謂, 此常山蛇勢也.”

53) 이정, 『李衛公問對』, [『사고』 제726책, 152쪽]. “太宗曰, 卿所制六花陣法, 出何術乎. 靖曰, 臣所制, 本諸葛亮八陣法也.”

54) 탁극탁, 『宋史』 제195, 진법, [『사고』 제283책, 591쪽].

55) 남장(1453~1526)은 성화(成化) 20년에 진사가 된 뒤 여러 관직을 거쳐 정덕(正德) 원년에 도찰원 좌첨도어사가 되었으나 유근(劉瑾)의 미움을 사 무주(武州) 통판으로 좌천되었다. 유근이 실각하자 다시 발탁되어 섬서의 순무가 되었다. 용정과 같이 제갈량의 팔진도를 연구하고 『팔진합변도설』을 지어 여러 차례 공을 세웠다. [臧勵和 等編, 『中國人名大辭典』, 中國 上海書店印行, 1984(이하 『명전』으로 약칭), 1724쪽].

56) 용정(?~?)은 무도 사람으로 명나라 정덕 연간에 한중에 있는 남장의 진중에서 『팔진합변도설』을 저술했다고 하지만 자세한 행장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명전』, 1632쪽].

제갈량이 남긴 유적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었다.

④진도(陣圖)의 유적은 네 곳이 있는데, 한 곳은 면양(沔陽)⁵⁷이고, 한 곳은 신도(新都)⁵⁸이며, 한 곳은 어복(魚腹)⁵⁹이고, 한 곳은 남시(南市)⁶⁰이다. 내가 면양을 찾아 무후의 묘에 절하고 그 옛 진터를 답사했으나 식별하기 어려웠다. 들은 바 대로 신도와 남시를 찾았으나 이 또한 파괴와 훼손이 심하여 옛 흔적을 살펴 볼 수 없었다. 오직 어복에 설치된 것만은 지금도 옛날 그대로의 형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사람을 시켜 그 배치도를 그리게 하여 관찰해보니 ⑥64개의 무더기는 전방에 배치되어 팔진을 이루고 있고, 24개의 무더기는 후방에 에둘러 각월진(却月陣)을 형성하고 있었다.⁶¹⁾

위에 내용에 따르면 남장과 용정은 제갈량 팔진도가 있는 유적지를 모두 찾아 다녔음을 알 수 있다. ④에 의하면 당시까지 전해진 팔진의 유적은 면양·신도·어복·남시 등 네 곳이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제갈량이 부대를 주둔시켰거나 훈련시켰던 지역으로 진터의 유적이 남아 있었지만 세 곳은 훼손이 심하여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하였다. 어복포는 기주(夔州) 구당현(瞿塘縣) 남일리(南一里) 어복강을 말하는 것으로 유비가 오나라의 정벌에 실패한 뒤 제갈량을 볼 날이 없다며 자신의 촉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백제성에서 죽었는데 그곳을 영안궁이라 불렀고 어복강은 그 부근이다. 어복강변에 설치된 누석은 당시에도 옛날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기

57) 면양(沔陽)은 홍원부 서현 동남쪽으로 10여리 떨어진 정군산 동쪽에 있는 계곡이다. 높고 평탄한 지역으로 제갈량이 숙영하던 팔진도가 있었으나 훼손이 심하여 식별하기 어렵다고 한다. [왕응린, 『玉海』 제142권, 漢諸葛亮八陣圖].

58) 신도(新都)의 팔진향을 말하는 것으로 성도부 서현 북쪽 30리에 미모진(彌牟鎭)이 있었다고 한다. [출전은 위와 같다].

59) 어복(魚腹)은 기주 구당현 남일리 영안궁의 남강 탄수 위에 있었다. [출전은 위와 같다].

60) 남시(南市)는 일명 기반시(碁盤市) 또는 광도(廣都)라고 하며 성도(成都) 근처에 있는 곳으로 팔진의 진영이 있던 곳이다. [출전은 위와 같다].

61) 용정, 『八陣合變圖說』, [『병집』 제40책, 37~38쪽]. “④圖之蹟有四, 一在沔陽, 一在新都, 一在魚腹, 一在南市. 予尋至沔陽, 拜武侯之墓, 而訪其舊壘, 已不可識. 聞新都·南市者, 亦殘破不可考, 惟魚腹者, 迄今如故, 予使人圖而觀之. ⑥六十四壘, 布于前者, 八陣也. 二十四壘, 環于後者, 却月陣也.”

때문에 사람을 시켜 그 포진 형태를 그리게 하여 관찰하였다고 한다. ⑥는 어복강 누석이 배치된 의미를 설명하였다. 64개의 돌무더기는 전방에 배치되어 팔진을 이루고 있고, 24개의 무더기는 후방에 에둘러 각월진〔반달진〕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이정의 『이위공문대』나 이진(李筌)⁶²⁾이 쓴 『태백음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8 \times 8 = 64$ 의 방진과 유사한 것이다.

팔진도는 제갈량이 죽은 뒤에도 활용되거나 연구되었다. 진(晉)나라 무제(236~290)는 진협(陳懿)에게 제갈량의 진법을 배우게 했다는 기록이 있고,⁶³⁾ 같은 시기에 서량(西涼) 원정을 자청한 마룡(馬隆)⁶⁴⁾도 팔진법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목민족들은 기사(騎射)를 잘하였기에 고대 중국의 보병이나 기병·전차로는 상대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왔다.⁶⁵⁾ 그러나 마룡은 편상거(偏箱車)를 만들어 팔진법으로 싸우면서 독발수기능(禿髮樹機能)이 만든 자석진을 통과하였고, 협곡에 포위를 당했어도 편상거 속에서 적을 쏘아 죽이며 천 리를 진격하여 양주의 수기능을 평정하였다.⁶⁶⁾ 이로보아 흉노나 돌궐, 몽고와 여진으로 불리는 유목민족들은 기마전투를 잘하였으나 대응할 방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단지 마룡과 같이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지 못했을 뿐이었다.

마룡은 진법의 역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제외시킬 수 없는 인물이다. 왜냐하면 진법의 경전이라 할 수 있는 『악기경(握奇經)』은 풍후가 저술한

62) 이진(李筌)은 당나라 숙종~대종 연간 사람으로 추정되며 형남절도부사와 선주자사를 지냈고 소실산에서 거처하며 장략이 있어 『太白陰經』을 지었지만 이후의 종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명전』, 428쪽].

63) 방교, 『晉書』, [『사고』 제255책, 439~440쪽]. “武帝甚重, 兵官…先是, 陳懿, 爲文帝所待. 蜀破後, 令懿, 受諸葛亮圍陣, 用兵倚伏之法…甚爲武帝所任.”

64) 마룡(?~?)은 동평 평록 사람이다. 삼국시대 조조의 무관이었으나 후에 서전에서 벼슬하여 양주의 반란을 평정한 뒤 그 곳을 십 여 년간 진수하였다. [『인전』, 65쪽].

65) 반교, 『前漢書』 49권, [『사고』]. “爰盜鼂錯傳 第十九…今匈奴, 地形技藝與中國異, 上下山阪, 出入溪澗, 中國之馬弗與也. 險道傾仄, 且馳且射, 中國之騎, 弗與也. 風雨罷勞, 飢渴不困, 中國之人, 弗與也. 此匈奴之長技也.”

66) 방교, 『晉書』, [『사고』 제255책, 943쪽]. “隆依八陣圖, 作偏箱車…且戰且前…轉戰千里, 殺傷以千數.”

뒤 춘추시대에는 범려(范蠡), 전국시대에는 악의(樂毅)가 주석을 달았으며, 전한의 공손홍(公孫弘)⁶⁷⁾이 해설을 덧붙였다고 하지만, 마룡이 찬(讚)을 쓴 책만이 지금까지 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자는 『악기경』의 저자는 풍후가 아니라 마룡이 제갈량의 팔진도를 바탕으로 저술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악기경』의 저자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진법을 연구했던 인물들은 한결같이 『악기경』을 진법의 정종으로 보고 그 비법을 찾고자 노력하였다.⁶⁸⁾

『악기경』의 부대 배치는 단순하다. <표 1>과 같이 하나의 진을 9개의 진으로 나누고 전·후·좌·우 또는 네 모서리에 정진(正陣)이나 기진(奇陣)을 편성한 뒤 중앙에는 지휘부인 악기(握奇)를 위치시켰다. 그리고 천(天)·지(地)·풍(風)·운(雲)과 비룡(飛龍)·호익(虎翼)·조상(鳥翔)·사반(蛇蟠)이라는 여덟 가지 진세를 운용하며 충(衝)·형(衡)·축(軸)과 풍(風)·운(雲)의 부대들을 작전 상황에 따라 배치하였다.⁶⁹⁾ 이 부대들의 기능을 보면, 충이란 오늘날의 기갑부대와 같은 강력한 공격 부대이고, 형이란 보병부대, 축이란 방어부대, 풍과 운은 역습부대였다. 이와는 별도로 유군(遊軍)이 있었는데 유군은 예비 병력으로 대기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

<표 1> 악기진의 9진

正陣	奇陣	正陣
奇陣	握奇	奇陣
正陣	奇陣	正陣

당나라 개국공신 이정은 육화진을 창안하여 변경의 이민족들을 격파한 일세의 명장이었으나 당태종과의 문답에서 자신

67) 공손홍(BC200~BC121)은 전한의 치천 설 사람이다. 집안이 가난하여 가축을 길렀으나 40세부터 학문을 시작하여 한 무제 때 오경박사(五經博士)가 되었다가 무제의 신임을 받아 원사 5년(BC124)에 승상으로 발탁되었다. [『인전』, 2002쪽].

68) 『握奇經』의 내용은 : 홍을표, 「풍후의 악기경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 각주 5)의 「고대 진법의 원리」에서 참고할 수 있음.

69) 충·형·축·풍·운·유의 기능에 대해서는 : 홍을표, 「제갈량의 팔진법 탐구」,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 제65호, 2011, 139~173쪽 참조.

의 육화진도 제갈량의 팔진법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말하였다.⁷⁰⁾ 그래서 제갈량의 팔진법은 당나라 초기까지만 해도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실전되었다고 한다.⁷¹⁾

현존하는 진법 문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이전(李筌)의 『태백음경』이다. 그는 군인이 아니고 도가의 현학에 심취되어 신선술을 찾아 입산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태백음경』이란 병서를 저술하면서, 영도(營圖)에 휴(休)·생(生)·상(傷)·두(杜)·경(景)·사(死)·경(驚)·개문(開門)이란 8개의 문을 그려 놓았는데 이것이 팔진법으로 와전되어 후세의 연구자들이 진도에 문을 배치하며 진을 방어개념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전은, “영누에서 전쟁 방법을 가르치려면 도식이 있어야만 군사들이 진격과 정지할 바를 알게 되며, 징과 북의 신호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적과 싸우는 전진은 미리 예측할 수 없기에 한 번 승리한 방법은 두 번 다시 사용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시켜야 한다. 군대의 움직임은 물과 같다. 물이 지형에 따라 흐르듯 군대는 적에 따라 승리하는 방법을 달리한다. 적의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화하면서 승리하는 자를 귀신과 같다고 한다. 그래서 전진에 도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러나 못난 장수들은 진도를 그려 놓고 그걸 군사들에게 가르쳐 고정된 방법으로 싸우려 한다. 그렇듯 우둔한 자들이 적진에 대한 상황판단 또한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⁷²⁾라고 하면서 전진(戰陣)은 일정한 형태로 그려 낼 수 없다고 기술하였다.

당나라 때의 진형(陣形)에는 이전이 남긴 것과 배서(裴緒)가 남긴 것이 있다. 이전의 진도는 『태백음경』에 수록되어 있다고 하나 『문연각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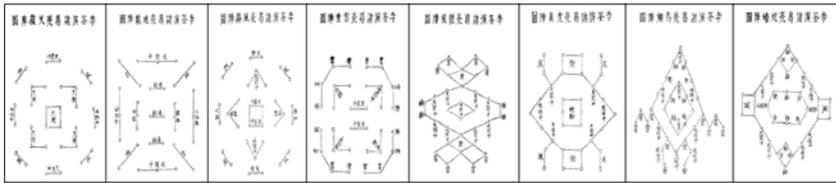
70) 李靖 撰, 任孔閃 注譯, 『唐太宗李衛公問對』, [『中國經典兵書』 上卷, 山東 友誼出版社, 2002, 691쪽]. “臣所本, 諸葛亮八陣法也.”

71) 안명노, 『演機新編』,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문서, 간사 연도 미상, 3쪽. “唐李靖以後, 其法無傳.”

72) 이전, 『太白陰經』, [『사고』 제26책, 204쪽]. “夫營壘教戰有圖, 士卒知進止, 識金鼓, 其應敵戰陣, 不可預形, 故, 其戰勝不復, 而應形無窮, 兵形象水, 水因地而制形, 兵因敵而戰勝, 能與敵變化, 而取勝者, 謂之神則, 其戰陣無圖明矣. 而庸將以教習之陣, 爲戰, 敵之陣, 不亦謬乎.”

전서』의 판본에는 모두 '원도궐(原圖闕)'이라 하며 진도들은 누락시켰기에 모원의(茅元儀⁷³)가 편집한 『무비지(武備志)』에서 <그림 2>와 같은 진도들을 발췌하여 하나로 묶어 보았다.

<그림 2> 이전의 팔진도



출처 : 『중국병서집성』 29책, 2218~2232쪽.

<그림 2>의 진도들은 이전이 제갈량의 팔진을 그려 놓은 것이라 한다. 왼쪽으로부터 하늘의 광대 원만한 의미를 상징하는 천복진(天覆陣), 땅을 상징하는 지재진(地載陣), 바람을 상징하는 풍양진(風揚陣), 구름을 상징하는 운수진(雲垂陣), 용의 비상을 상징하는 용비진(龍飛陣), 호랑이의 맹격을 상징하는 호익진(虎翼陣), 맹금(猛禽)의 박격을 상징하는 조상진(鳥翔陣), 독사의 맹독 공격을 상징하는 사반진(蛇蟠陣) 등 여덟 가지 진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일견하여 천지풍운 4개의 진형은 방어형태를 띠고 있지만, 용호조사 4개의 진형은 공격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위 진도들은 후세 연구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쳐 왔다.

73) 모원의(1594~1640)는 절강성 귀안(지금의 절강성 오흥) 사람이다. 명대의 대장이자 문학가 모곤의 손자로 부총병을 지냈다. 1621년에 『武備志』 240권을 완성하였다. [『명전』, 716쪽].

3. 송·명대의 팔진 연구

송나라를 개국한 조광윤은 공신들의 반란을 색원하기 위하여 장수들의 병권을 회수하고 문관들에게 군의 지휘권을 맡기는 중문경무(重文輕武) 정책을 폈기에 무신들의 세력을 억제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점차 군사력의 약화를 초래하여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기 어렵게 되었다. 신종(1067~1084) 때는 국방력의 강화를 위해 진법을 포함하여 많은 군사문헌들을 종합해 『무경총요』를 간행하였다. 이 『무경총요』에는 '본조평음만전진법'과 '본조팔진법'을 포함하여 '풍후악기진도'와 당나라 배서의 '배자법' 등 여러 진도 등이 수록되어 있어 고대 중국의 진형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황제가 직접 참여하여 작성한 진도를 야전 부대에 하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간섭은 야전 지휘관이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해야 하는 전장 현실을 무시하였기에 성공할 수 없었다.⁷⁴⁾

송나라 때에도 개인적으로 진법을 연구한 인물들이 적지 않았겠지만 현재까지 전해지는 문헌은 많지 않다.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왕응린(王應麟)의 『옥해(玉海)』와 고사손(高似孫)의 『자략(子略)』, 허동(許洞)의 『호검경(虎鈴經)』 등을 꼽을 수 있다. 『호검경』에는 '악기도'·'연월도'와 '비악진도'·'장홍진도'·'중하진도'·'팔괘진도'와 같은 독특한 형태의 진도가 수록되어 있다. 이들은 고대 중국의 진법을 연구하는데 간과할 수 없는 자료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민족의 지배를 받던 원나라 때는 진법을 연구했던 문헌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후 명나라 때의 진법 연구가들은 한결 같이 팔진법의 비밀을 풀어보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대표적인 인물로 장엽(張燁)과 남장(藍章)·용정(龍正)·조본학(趙本學)⁷⁵⁾·유대유(俞大猷)·척계광(戚繼光)·하량신

74) 王路平, 『宋代陣法與陣圖初探』, 中國 西北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 10쪽.

75) 조본학(1478~1544)의 본명은 조세욱으로 송 태조 조광윤의 후예인 조자손의 직계 자손이다. 유대유의 스승으로 역학과 군사에 뛰어나 『趙注孫子兵法』과 『韜鈴內外篇』을 지었는데 『趙注孫子兵法』은 일본에서 번역 출판되었을 정도로 유명하다. [『명전』, 1393쪽].

(何良臣)⁷⁶)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외에도 당순지(唐順之)⁷⁷)·왕명학(王鳴鶴)⁷⁸)·모원의(茅元儀)와 같은 인물이 『무편(武編)』·『등단필구(登壇必究)』·『무비지(武備志)』 등을 저술하여 강군육성에 이바지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직접 연구한 성과를 저술한 것이 아니고 여러 문헌을 수집하여 편찬했기에 연구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제갈량 팔진법의 복원에 있었다. 그것은 『이위공문대』에 수록된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진과 진 사이에 진이 배치되고, 부대와 부대 사이에 부대가 배치되며, 전방이 후방이 되고, 후방이 전방이 되며, 진격할 때는 서둘러 돌진하지 않고 후퇴할 때도 급히 달아나지 않는다. 머리가 네 곳이고 꼬리가 여덟 곳이라 적과 접촉하는 곳이 머리가 된다.⁷⁹⁾

진이나 부대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전후방의 부대가 임무교대를 해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진이나 부대가 진출입할 수 있는 기동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전방이 후방이 되고 후방이 전방이 되어 적과 접촉하는 곳이 공격부대가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이다. 모든 면이 견고하게 되려면 쇠로 만든 둥근 구슬과 같아야 한다. 그러나 구슬에는 날카로운 공격부위가 없다. 그래서 방어에는 완벽할지 몰라도 공격의 효과는 발휘시키기 어렵다. 그럼에도 명대의 연구자들은 이 말 때문에 저마다 팔진의 비법을 찾는데 주력하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연구를 폄하하고 자신들이 연구한 것만이 팔진법의

76) 하량신(?~?)은 절강 여요 사람으로 가정(1522)에서 만력(1615) 연간에 생존했던 인물로 추정된다. 『軍權』·『陣紀』·『利器圖考』·『制勝便宜』 등을 저술하였다. [姜國柱, 『中國軍事思想簡史』, 中國 新世界出版社, 2006, 324쪽].

77) 당순지(1507~1560)는 명나라 양명학자이다. 저서로 『武編』 등이 있다. [『인진』, 2039쪽].

78) 왕명학(?~?)은 명나라 남직예 산양(지금의 강소성 회안) 사람이다. 대략 명나라 후기 가정에서 만력 연간 사이에 생존했던 인물로 추정하며 『登壇必究』를 써서 군사 분야에 공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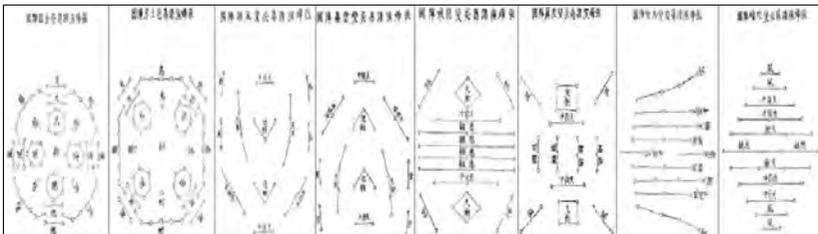
79) 이정, 『李衛公問對』, [사고] 제726책, 146쪽]. “太宗曰…陣間容陣, 隊間容隊, 以前爲後, 以後爲前, 進無速奔, 退無遽走, 四頭八尾, 觸處爲首.”

진수라고 주장하였다.

영락(1402~1424) 때 장엽이 『태을통종보감(太乙統宗寶鑑)』 속에 다수의 진법을 수록한 것이 명대 진법연구의 효시가 되었다. 장엽의 행장기는 확인하기 어렵다. 조본학이 저술한 『도검내외편』에 장엽이 그렸다는 여러 가지 진도들이 인용되고 있고, 그가 '영락제 시대에 과거에 등과했다'는 짝막한 기록이 전부이다. 영락제는 정난의 변으로 정권을 잡은 뒤 여러 차례 북벌을 단행하였기에 장엽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에 살았던 인물이다. 이때는 병법이나 진법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며 장엽의 진법이나 진도는 이러한 시대 상황에 맞춰 출현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엽은 당나라 이전(李筮)의 『태백음경』을 바탕으로 많은 진도들을 그려 놓았다. 그 중 팔진분변도는 <그림 3>과 같이 64진을 32개 진씩 나누어 놓았지만 이것은 이전의 팔진도를 약간 변형시킨데 불과하다. 현재 장엽이 지었다는 『태을통종보감』은 접해 볼 수 없고, 조본학이나 모원의가 편찬한 『속무경총요』나 『무비지』에 의존하여 연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에 이 글에서는 장엽의 진도를 분석하지 않았다.

<그림 3> 장엽의 팔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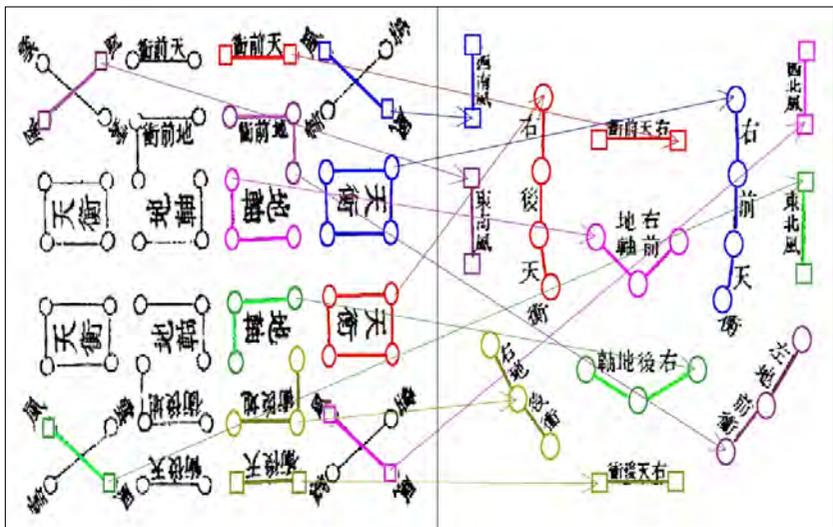
출처 : 『중국병서집성』 29책, 2254~2280쪽.

장엽 이후에 팔진을 연구한 인물은 정덕 연간(1505~1521)에 사천의 내란을 평정했던 남장(藍章)과 용정(龍正)을 꼽을 수 있다. 용정은 평생 많은 병서를 연구하여 군사에 대한 조예가 깊었다. 남장이 사천에서 발생한 민란을 토벌하기 위해 순무로 부임하였을 때, 남장과 교분이 있던 용정은 그의 진중에 들어가 제갈량이 설치했다는 팔진의 유적지를 답사한 뒤 이를

연구하였다. 그들은 <그림 3>의 진도들을 일부 변화시키며 어복강에 배치된 64개의 누석들을 안과 밖, 좌와 우, 전과 후, 그리고 사유(四維) [네 귀퉁이] 등 네 단계로 나누어 <그림 4>와 같은 변화를 도출하면서 그때마다 각각 32개 부대씩 양분하였다. 그리고 그 연구를 『팔진합변도설(八陣合變圖說)』로 저술하였다. 이 방법으로 관군을 훈련시킨 결과 나약했던 군졸들이 용맹한 정예부대로 탈바꿈하여 반란세력을 토벌할 수 있었다고 한다.⁸⁰⁾

그들이 제갈량의 팔진법을 터득하였는지 여부는 제갈량이 입증해 주지 않는 한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관군들에게 제갈량의 팔진법이란 이름만으로도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자신감을 심어 주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조직력을 강화시켜 전장이탈 행위를 방지하면서 싸우게 한다면 팔진법이 아니라도 전투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남장과 용정은 어떤 형태가 되었든 반란세력 토벌에 진법을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64진에서 풍양진으로 변화하는 각 부대의 위치와 변화선



출처 : 『중국병서집성』 40책, 18쪽과 24쪽의 진도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80) 용정, 『八陣合變圖說』, 『병집』 제40책, 3~6쪽].

〈그림 4〉는 8개의 진형 중에서 좌와 우로 양분한 풍양진의 부대이동 방향이다. 이 도식을 보면, 64개 부대들을 32개씩 둘로 나누어 왼쪽은 운수진으로 오른쪽은 풍양진으로 변화시키면서 부대들을 선으로 연결하여 충·형·축과 풍·운으로 구분해 놓고 이동하는 위치와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도식의 왼쪽에는 풍양진의 역방향으로 배치된 운수진이 있으나 여기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용정의 팔진도는 척계광이 쓴 『기효신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조선에서는 『기효신서』의 증보판을 간행하면서 '15권 별집 진도편'에 추가시켜 놓았다.

이후의 연구가로는 조본학을 꼽을 수 있다. 그는 이전이나 장엽의 진도에 대하여 일고할 가치가 없다고 혹평하면서⁸¹⁾ 진법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역리로 설명하였다.

나, 조본학이 옛 진법을 살펴보니, ㉠복희가 만든 역(易)을 근본으로 삼고 현원이 만든 악기(握奇)를 조화시켜 이루어진 것이다…㉢무후는 이미 죽었고, 구당현에 설치한 종횡의 누석만 남았으나 이정이란 인물이 그 비법의 열쇠를 얻어 한 시대를 풍미했다. …㉡글 줄이나 익혔다는 선비들은 어지러이 천착하며 망령되게 형세를 논한 것이라 교묘하지만 쓸모가 없다.⁸²⁾

위 글의 내용을 보면, ㉠는 팔진법이 역리와 『악기경』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이라고 하였고, ㉢는 당나라 이정(李靖)도 제갈량이 남긴 구당현 어복포의 유적에서 비결을 얻어 육화진을 만들었기에 육화진 역시 팔진법의 일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며, ㉡는 다른 사람들의 연구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저술한 『도검내외편』 속에 있는 18세의 진도⁸³⁾들이야 말로 팔진의 정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이다.

81) 유대유, 『屬武經總要』, 『병집』 제17책, 593~595쪽. “何辯之…李筌張燁, 漫不知兵, 徒泥合.”

82) 위의 책, 699~700쪽. “學, 按古陣法, ㉠伏羲易象爲之宗, 軒轅握奇, 觀象而成者也…㉢武侯既沒, 賴瞿塘遺跡, 縱橫獨存, 有李靖, 能識其扁鑰, 一代之民域…㉡文士紛紛, 穿鑿陳言, 妄立形勢, 巧而無用.”

83) 위의 책, 701~720쪽.

그러나 그 진도들 역시 번거롭기 때문에 지면 관계상 제시하지 않았다. 조본학이 명성을 얻게 된 것은 그의 제자 유대유와 무관하지 않다. 조본학에게 유대유와 같은 제자가 없었다거나 유대유가 왜구들의 토벌작전에 실패하였다면 조본학 역시 주목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유대유는 많은 전투에서 전공을 세워 척계광과 함께 명나라 때 명장의 반열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스승의 유지를 받아 『속무경총요』를 저술하였는데 이 책은 현존하는 유일한 진법전문 서적으로 간주되고 있다.

고대 중국의 전통 진법은 명나라 신종(1572~1619) 때 척계광이 창안한 원양진 때문에 고정관념이 깨져버리게 되었다. 많은 학자들이 제시한 팔진도는 전장에서 사용해 본 일이 없지만 척계광의 원양진은 싸울 때 마다 승리를 가져다주었다. 또한 그의 진법은 북방 계진(薊鎮)에서 이민족들의 침략을 방어하는데도 성공하였다.

척계광 이후에는 하량신이 4권으로 된 『진기(陣紀)』를 저술하였다. 그는 당시 명군의 실상을 날카롭게 분석하면서 군의 기강을 확립하려면 어떻게 훈련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3권에서는 고대 중국의 역대 진법을 <표 2>와 같이 개관하며 논평한 부분이 있는데 이 글 II장에서 개관한 '고대 중국 팔진의 연원'도 하량신의 『진기』를 참고하여 엮어 본 것이다.

<표 2> 하량신이 제시한 중국의 대표적인 진법

시 대	인 물	진의 명칭	시 대	인 물	진의 명칭
삼황오제	복희(伏羲)	사괘진(師卦陣)	춘추시대	전양저(田穰苴)	악기영진(握奇營陣)
"	현원(軒轅)	악기진(握奇陣)	"	손무(孫武)	승지진(乘之陣)
주(周)	태공(太公)	삼재진(三才陣)	전국시대	이인(異人)	상기진(象棋陣)
"	주공(周公)	병농진(兵農陣)	진한시대	한신(韓信)	해하진(垓下陣)
춘추시대	고거미(高渠彌)	어려진(魚麗陣)	삼국시대	제갈량(諸葛亮)	팔진도(八陣圖)
"	순오(荀吳)	숭졸진(崇卒陣)	서진(西晉)	마룡(馬隆)	편상거진(偏箱車陣)
"	함려(闕閭)	계부진(鷄父陣)	당(唐)	이정(李靖)	육화진(六花陣)
"	관중(管仲)	내정진(內政陣)	명(明)	(척계광)	(원양진)

출처 : 하량신, 『진기』, 『문연각 사고전서』, 제727책, 703~705쪽의 내용을 정리함.

『사고전서』의 『진기』 제요(提要)를 쓴 청나라 관료들이 하량신을 평하길 “명나라 중엽에는 군비가 망가져 국경에 변란이 잦았으나 오합지졸로 싸웠기에 열 번 출전하면 아홉 번은 패하였다. 그래서 하량신은 구구절절 먼저 훈련을 시킨 뒤에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설명한 요결에는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그것은 야전에서 입증되었다.(중략) 명나라 때에 병법을 담론한 자들은 척계광이나 몇몇 사람을 제외하곤 허황된 논리를 펴고 있었다. 예로 탕광열(湯光烈)이나 팽상(彭翔)의 논리는 연극이나 잡기에 가깝지만 오직 하량신은 직접 군중에서 실상을 체험했기 때문에 허망한 논리나 잡설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래서 명나라의 다른 병가들에 비해 그의 주장은 절실하고 사리에 맞는다”⁸⁴⁾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II장과 III장에서 분석해 본 고대 중국의 팔진법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었지만 그 원리는 수학의 가감승제(加+·減-·乘×·除÷)와 같은 일정한 공식을 갖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약기경』에서는 진도를 제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제갈량의 팔진도는 팔진법을 토대로 창안한 것으로 보이며 『무비지』나 여타의 문헌에 수록된 우수한 진도(陣圖)들은 대부분 팔진법이나 팔진도를 응용한 변진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팔진법의 공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으며 필자는 이것을 십원방각(十圓方角)이라는 진호(陣號)로 표현한 바 있다.⁸⁵⁾

- ① 팔괘와 구정법에 의해 창안되었다.
- ② 전·후·좌·우·중의 조직으로 부대를 인체와 같이 운용한다.
- ③ 기(奇-공격)와 정(正-방어)의 전법을 함께 사용한다.
- ④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84) 하량신, 『陣紀』, [『사고』 제727책, 675~676쪽]. “^㉑明之中葉, 武備廢弛, 疆圉有警, 大抵鳩烏合以赴敵, 十出九敗, 故, ^㉒良臣所述, 切切以選練爲先, 其所列機要亦多, 卽中原野戰, 立說…明代, 談兵之家, 自戚繼光, 諸書外, ^㉓往往摺摭陳言, 橫生鄙論, 如湯光烈之掘穿藏鐵, 彭翔之木人火馬, 殆如戲劇, ^㉔惟良臣, 嘗身在軍中, 目睹形勢, 非憑虛理斷, 攘袂坐談者, 可比在明代兵家, 猶爲切實, 近理者矣.”

85) 홍을표, 「고대 진법의 원리」, 『군사』 제75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0, 236~238쪽.

전장에서 진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한 예로 『손자』·『오자』와 같은 병서들을 줄줄 외우고 있더라도 진법을 모른다면 전국시대 조괄⁸⁶⁾과 같이 성공적인 작전을 할 수 없다는 데서 그 중요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 이것은 오늘날 각각의 병종(兵種)으로 기능화 된 소부대 전술을 모르면 대부대 작전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

4. 원양진의 출현배경과 구성 원리

원양진을 창안한 척계광은 군직(軍職)을 세습하는 가문에서 태어났다. 『명사』 척계광 전에 따르면, 그는 1528년에 태어난 인물로 등주(지금의 산둥성 봉래현) 사람이다. 아버지는 척경통으로 조상 대대로 등주위 지휘참사를 세습하였고, 도지휘라는 관직을 거쳐 대녕(지금의 하북성 보정현) 도사의 서리로 있다가 궁궐에 들어가 신기좌영의 부장이 되었다. 그는 청렴 검소하며 자애로운 덕망이 있었다.

척계광은 어렸을 때부터 호방한 뜻을 품어 뛰어난 기개와 비범한 기상이 있었다. 집안이 가난하였으나 책 읽기를 좋아하여 경서와 역대 사서에 통달하였다. 가정 23년(1544), 17세 때 아버지가 죽자 조상의 관직을 세습하여 등주위 지휘참사가 되었다가 몇 년 후에는 서도지휘참사로 추천받아 산둥 지역에서 왜구 방어 임무를 수행하였다. 1555년에는 절강도사(浙江都司)의 첨사(僉使)로 부임하였지만 호종헌(胡宗憲)⁸⁷⁾의 추천으로 참장(參將)에 보임되어 영파(寧波)·소흥(紹興)·태주(台州) 세 고을의 부대를

86) 조괄(?~BC260)은 조나라 장수 조사(趙奢)의 아들로 병서에 달통하였으나 장평(長平)의 전투에서 진나라 장수 백기(白起)에게 패하여 조나라 40여만 대군을 몰살 당하게 하였다. [『인진』, 1632쪽].

87) 호종헌(?~1565)은 휘주부 속계사람으로 가정 17년에 진사가 된 이래 승진을 거듭하며 절강 일대를 순안해 공을 세우고 우도어사 태자태보로 승진했으나 당시 조정의 권세를 독점한 대학사 엄숭(嚴嵩)·엄세번(嚴世蕃) 부자의 역모사건에 일당으로 몰려 투옥되었다가 죽었다. 그의 막료 정약중 등을 시켜 편집한 『주해도편』이 있다. [『인진』, 1699쪽].

관리하였다. 척계광이 절강에 부임해 보니 그곳의 관군은 농사꾼이었지 적과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아니었다. 그 실정에 대하여 “오늘날 군대를 보니 고달프고 지쳐 나약하기가 인형과 같다”⁸⁸⁾라고 표현한 바 있다. 물론 훈련이 잘 된 부대였다면 왜구들이 난동을 부리게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고 척계광도 발탁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명군의 전력이 왜 상실되었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명군은 개국 초에 진우량(張友諒)이나 장사성(張士誠)을 격파하고 원(元) 제국을 중국에서 몰아내었으며, 영락제 때는 다섯 차례나 막북을 원정할 정도로 강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영락제가 죽고 한동안 안정된 시대가 지속되면서 점차 전투력을 상실해 갔다. 명나라는 화약과 무기가 발전하고 많은 병서들이 저술되는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군부가 황실을 위협할 수 없도록 병부(兵部)와 오군도독부로 병권을 이원화시키면서 장수와 병사들을 격리시켰다. 전쟁이 발생하면 장수에게 병력을 주어 출전시켰지만 전쟁이 끝나면 다시 각자의 소속 부대로 복귀시켰다. 이런 상황이라 병사들은 유능한 장수로부터 제대로 된 훈련을 받기가 어려웠기에 그의 지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려웠고, 장수는 장수대로 병사들의 전투능력을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⁸⁹⁾ 그래서 손자가 말하는 지피지기(知彼知己)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점차 개선되어 갔지만 한 번 무너진 군의 기강은 회복되기가 쉽지 않았다.

명나라 초기의 병력 자원에는 주원장이 기의할 때 참여한 종정(從征) 군사와 항복해 온 귀부(歸附) 군사, 죄를 지어 충군(充軍)한 적발(謫發) 군사, 징집한 타집(垛集) 군사 등 네 종류가 있었는데 일단 천하가 안정되자 군호제(軍戶制)를 만들었다. 이 제도는 고급 군관들에게는 자손대대로 음직되는 혜택이었으나 군졸들은 자손 대대로 병역의무를 충당해야 하는 형벌이 되었기에 극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⁹⁰⁾ 그 결과 정통 3년(1438)에는

88) 척계광, 『紀效新書』, [『사고』 제228책, 491쪽]. “見今日之軍, 疲憊孱弱, 略似人形.”

89) 中國軍事科學院, 『中國軍事通史』 第十五卷, 中國軍事科學出版社, 2005, 150쪽.

90) 남의현, 『명대 요동지배 정책 연구』,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8, 354~365쪽.

달아난 군졸들의 숫자가 1,633,664명이나 되었다.⁹¹⁾

전국 각처에 위소(衛所)를 설치하여⁹²⁾ 병력을 분산시키고 둔전을 하게 한 것도 전투력이 상실된 원인 중 하나이다. 위소와 둔전은 강력한 군사집단이 집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국가규모의 대부대의 전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군사들은 자신들의 군량은 물론 가족들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기에 영농에 매달려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⁹³⁾ 그럼에도 주원장은 “나는 백만 대군을 양성하였지만 백성들에게는 쌀 한 톨도 거두지 않았다”⁹⁴⁾라고 하며 자만에 빠져 있었다.

이 외에도 환관의 전횡과 관리들의 부패, 군부에 대한 지나친 감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나 병사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은 군호의 세습과 둔전이였다. 그들은 군사훈련보다는 자신과 가족의 호구지책이 더 급했던 것이다. 그래서 건장한 남자들은 달아나고 늙고 병약한 군졸들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들은 없었다.⁹⁵⁾

척계광이 부임한 절강의 사정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척계광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병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상부에 모병을 건의하였다. 당시는 금화(金華)와 의오(義烏)의 백성들이 용맹하다고 소문이 나 있었기에 특별히 그들 3,000명을 모병하였다. 약삭빠른 도회지 백성들보다는 우직하지만 용맹스러운 농민들이 훈련시키기에 용이했던 것이다. 척계광은 그 병사들에게 무기 사용법과 공격·방어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서 지역의 특수성도 고려하였다. 남쪽 지방은 늪과 연못이 많아서 기병이나 전차가 빨리 치달을 수 없었기에 지형에 맞는 전법을 연구하다가 가정 39년

91) 中國軍事科學院, 『中國軍事通史』第十五卷, 中國軍事科學出版社, 2005, 14쪽.

92) 위소(衛所)는 명나라의 군대의 기본 편제이다. 명태조 주원장은 오군도독부(五軍都督府) 예하에 도사(都司)·행도사(行都司)·유수사(留守司)·호위(護衛)·위(衛)·소(所) 등으로 나누어 부대를 배치하였다. [① 中國軍事科學院, 『中國軍事通史』, 第十五卷, 中國軍事科學出版社, 2005, 139쪽; ② 張金奎, 『明代衛所軍戶研究』, 中國 線裝書局, 2007, 50~76쪽.; ③ 남의현, 『명대 요동지배 정책 연구』,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8, 47~191쪽].

93) 남의현, 『명대 요동지배 정책 연구』,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8, 325~335쪽.

94) 『續文獻通考』 제122권. “吾養兵百萬, 要不費百姓一粒米.”

95) 中國軍事科學院, 『中國軍事通史』第十五卷, 中國軍事科學出版社, 2005, 14쪽.

(1560)에 긴 병기와 짧은 병기가 서로 도우면서 싸우는 원앙진을 창안하였다. 원앙진으로 훈련된 군사들은 척가군(戚家軍)이란 이름으로 세상에 그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이후 척계광은 전함이나 화기·병기들은 정밀하게 정비하여 재배치하고 왜구 토벌작전에 참가했다. 『명사』 척계광전에 기록된 대규모 전투만 보더라도 가정 40년(1561)에 태주(台州)의 왜구들을 격파하였고, 가정 41년(1562)에는 복건에 침입한 왜구를 토벌하였으며, 이 승세를 타고 복청(福淸)의 우전(牛田)에 있는 왜구의 본거지를 소탕하였다. 그해 4월에는 홍화성을 수복하고, 다음 해 2월에는 선유(仙遊)를 포위한 왜구를 공격하였다. 그 뒤 영녕(永寧)에 있던 왜구들을 추격하여 전공을 세우는 등 다수의 대소 전투에서 모두 승전하였다.

척계광의 군대가 싸울 때마다 전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원앙진이란 독특한 전법으로 왜구의 장기인 왜검 등과 같은 무기들을 제압했기 때문이다.⁹⁶⁾ 당시 왜구들이 소지한 장검에 대한 제원을 찾아보니 『사고전서』에

〈표 3〉 岡山縣立博物館에 소장된 平安~延寶시대 太刀의 규격

시 대 구 분	칼날 두께(cm)	칼날 길이(cm)
平安시대(794~1185) ①점	2.4	79.0
平安~鎌倉시대 ①점	1.8	73.8
鎌倉시대(1185~1333) ①번	3.4	79.5
" ②번	2.6	73.4
" ③번	3.3	80.1
" ④번	2.4	69.1
" ⑤번	2.0	73.0
" ⑥번	2.6	69.9
應永시대(1423) ①점	2.3	63.8
延寶시대(1677) ①점	1.7	73.0
평 균	2.45	73.46



출처 : 岡山縣立博物館, 『晴れの國の名寶 -岡山の國寶・重要文化財-』, サンコー印刷株式會社, 2010. 83~116쪽의 내용을 정리하였음.

96) 장정옥, 『明史』 제18책, 북경 중화서국, 1995, 5611쪽.

수록된 『기효신서』에는 언급이 없었으나 조선본 『기효신서』에서는 비교적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그에 따르면 칼날의 길이는 5자 (151.5cm) 인데 그 범위 안에는 구리로 날을 싸 맨 동호(銅護)가 1자 (30.3cm)가 되기에 실제 칼날은 4자 (121.2)라고 하였다. 칼자루는 1자 5촌 (45.45cm) 이라 전체의 길이는 6자 5촌 (약 197cm)에 무게는 2근 8량 (1.68kg)이라 하였다.⁹⁷⁾ 그러나 여기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당시 왜구들은 체격이 작았다고 하는데 아무리 힘이 좋다 해도 자신들의 키만 한 장검을 들고 날아다니듯 싸우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조선본 『기효신서』의 장도(長刀)는 『중국 병기사고』에 수록된 명나라의 장검과 제원이 같았다.⁹⁸⁾ 당시 왜구들이 사용하던 칼은 어떠하였을까? 이 궁금증을 갖고 2012년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일본 서해안 지역을 답사하며 마츠에쵸 성(松江城)과 돗토리(鳥取) 현립박물관, 시마네(島根) 현립박물관, 고대 이즈모(出雲) 역사박물관 등에서 살펴 본 고대 일본의 칼들과 오카야마(岡山) 현립박물관에서 간행한 도록을 통하여 <표 3>과 같은 평균치를 얻을 수 있었다. 이로 보면 당시 일본인들이 사용한 장검의 평균 날 길이는 73cm 정도였다. 자루의 길이를 30~45cm로 볼 때 전체의 길이는 대략 103~118cm 남짓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지금 검도인들이 사용하는 진검과 별 차이가 없는 규격이며 이 칼이라면 자유롭게 싸울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분안(文安) 4년(1447)에 제작된 길이 226.7cm의 긴 칼도 있었으나 많은 군사들의 사용한 무기로 보기는 어려웠다. 일본도에는 다양한 형태와 규격이 있기에 이 칼들이 왜구가 사용한 칼로 보기는 어렵지만 여러 박물관에 전시된 이 시기의 대다수 칼들이 대동소이한 규격을 보이고 있는 점과 병기는 국가와 시대에 따라 유사하게 제작된다는 통용성을 고려해 볼 때, 명나라를 침구한 왜구들도 <표 3>과 비슷한 규격의 칼을 사용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었다.⁹⁹⁾

97) 『紀效新書』, 국방군사연구소, 1998, 175쪽.

98) 周緯, 『中國 兵器史稿』, 中國 百花文藝出版社, 2006, 308쪽. “5.長刀.”

99) 도검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만, 중국·한국·일본 등의 여러 문헌들을 참고하여 쓴 酒井利信의 『刀劍觀の日本精神史的研究』와 같은 논문에서도 왜구들이 독특한 무기를 제작하여 사용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척계광은 왜구의 장기인 장검과 창, 활 등의 공격을 막기 위해 원양진을 창안하여 훈련시켰다. 이 진법은 5명을 1오(伍)로 하고, 2오를 1대(隊)로 조직하여 1명의 대장(隊長)이 지휘하였다. 그리고 지휘자를 잃으면 소속 원들을 모두 죽이는 연좌제를 통하여 대열의 이탈을 방지하였다. 원양진의 전법이나 무기체계는 『기효신서』에 수록되어 있지만 자세한 분석을 위하여 정약중의 『주해도편』과 당순지가 쓴 『무편』 등을 참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오장(伍長)은 키가 장대하고 힘이 좋은 사람을 1명 선발하여 한 장의 방패를 들게 하였다.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장비로 전장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수 있었다. 오장의 공격 무기로는 단도와 표창을 각각 하나씩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후에는 조총을 휴대시키기도 하였다.¹⁰⁰⁾ 그는 최전방에 서서 왼쪽만을 담당하게 하고 우측이나 후방은 신경 쓰지 못하게 하였다. 두 번째 사람은 낭선(狼筵)을 갖고 방패의 오른 쪽 다섯 자 (약 1.5m)를 벗어나지 않는 곳에 바짝 붙어 싸우게 하였다. 낭선은 대나무로 만들었는데 짧은 마디에 가지가 많은 대나무가 가장 좋다고 하였다. 많은 겹가지가 달린 낭선은 방어와 공격을 겸할 수 있는 무기로 날렵한 왜구들의 장검이나 창을 방어하는데 방패 못지않은 효과가 있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사람은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 중 하나인 창을 각각 한 자루씩 들고 낭선의 3보 (3.65m) 뒤에서 좌우로 갈라져 싸우게 했다. 다섯 번째 사람은 당과(鎗鈹)라는 삼지창을 들고 싸우게 하였다. 당과는 화총(火銃)을 설치한 이화창(梨花槍)으로 대치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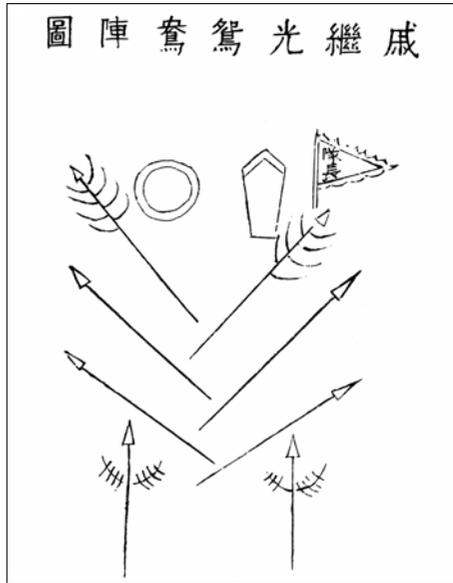
『기효신서』나 『주해도편』에서는 낭선은 물론 창이나 당과 등의 병기에 대하여 일정한 제원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것은 같은 무기라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길이나 중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본 『기효신서』를 보면 창(槍)의 제원은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낭선은 길이가 1장 5척 (약4.54m)이며 무게는 7근(4.2kg)이고, 당과는 길이가

100) 王兆春, 『中國古代軍事工程技術史』, 中國 山西教育出版社, 2007, 355쪽.

7자 6촌(약 2.3m)에 무게가 5근(3kg)이라고 기록해 놓았다.¹⁰¹⁾

원앙진의 전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등패수가 전진하면 나머지 군사들은 바짝 붙어 따라다니며 혼연일체가 되어 싸웠다. 예를 들어 적이 등패수의 머리를 공격하면 등패수는 등패로 막고, 그 순간에 원앙진의 창수(槍手)가 적을 찌른다. 훈련이 잘 되었다면 적의 창이 등패를 공격하는 순간 창수는 적을 찌를 수 있었다. 적이 등패의 왼쪽에서 남

〈그림 5〉 척계광의 원앙진도



출처 : 『중국병서집성』 제29책, 2579쪽.

선수의 등 뒤를 찢러 중상을 입히려 하면 적의 창은 등패수의 눈 앞 3자 남짓한 거리를 지나가기 때문에 등패수는 적의 창을 손으로 잡을 수 있었다. 등패수가 적창을 잡고 있으면 뒤에 있는 창수가 신속히 적을 죽였다. 적창이 오른 쪽에서 등패수의 엉덩이를 찢러 중상을 입히려 하면 남선수는 남선으로 적창을 찢히고 뒤에 있는 창수가 다시 공격하였다. 적창이 등패수의 다리를 공격하면, 등패수는 등패로 적창을 누르고, 그 틈에 뒤에 있는 창수가 적을 죽였다. 적이 갖고 있는 칼이나 구(鉤)와 같은 짧은 병기는 원앙진의 무기들이 길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다. 등패수는 오직 한 쪽 면만을 주시하며 남선수의 등을 보호하고, 남선수 역시 한 쪽 면만을 주시하여 등패수의 등을 보호해 주었다. 창수나 당파수 등은 등패의 6~7척(2.1m) 뒤에 서 있으면 적이 날리는 화살이나 돌을 피할 수 있었기에 좌우를

101) 『紀效新書』, 국방군사연구소, 1998, 186쪽과 195쪽.

모두 보호 받을 수 있었다.¹⁰²⁾ <그림 5>는 원앙진의 배치를 도식한 것이다.

척계광은 이와 같은 전법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엄격한 군율을 만들어 전투에서 생명을 아끼는 군졸들을 처벌하였다.

원앙진은…오(伍)로 뭉쳐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첫 번째 전법은 후방에서 진식(陣式)을 전개 시킨 뒤 두 명의 등패수가 나란히 정렬하면 낭선수는 각각 그 뒤에 바짝 따라 붙는다. 등패수 한 명이 적의 공격을 방어하면 그 뒤에 있던 장창수 두 명은 각자 분담하여 등패수 한 명과 낭선수 한 명을 지켜 준다. 당파수는 장창수가 공격을 머뭇거리면 그를 죽여 버린다.

②상오장(上伍長)이 등패수의 앞에서 지휘하면 나머지 병사들은 원앙진을 구성하여 등패수 뒤에 밀착해 등패수를 엄호한다. 등패수는 고개를 낮추어 방패를 잡고 전진한다. 만약 북소리를 듣고도 머뭇거리며 전진하지 않으면 군법에 따라 그 나머지 병사들까지 참수한다.

③병사들은 등패수의 후방에 밀착해 같이 전진하면서 싸운다. 낭선수는 등패수를 구하고, 장창수는 낭선수를 구하며, 당파수는 장창수를 구한다. 등패수가 죽으면 그가 속한 오(伍)의 병사들은 모두 참수한다. 이 방법대로 싸운다면 승리하지 못할 전투가 없다.¹⁰³⁾

102) 당순지, 『武編』, [『사고』 제727권, 384쪽]. “秘戰 第七. 一秘戰者, 卽新名, 鴛鴦陣之謂也. 每衝鋒, 五人爲伍, 用長挨牌, 一面, 伍長, 選身長力大者, 一名, 在前執牌面, 左止許顧左, 不許顧右後身, 第二名, 執狼筴, 面右, 以筴出牌, 右五尺, 緊緊靠牌, 其鎗手, 在筴之後三步, 平執鎗, 伍長執牌, 徑進, 餘各緊緊依法隨行, 敵決不敢以鎗戳牌, 如將鎗由牌頂戳來, 伍長用牌一起, 卽將鎗高闊, 急待收鎗, 我之鎗兵出, 而戳敵矣. 如左面戳來, 必欲中傷執狼筴兵之後, 脊鎗須由, 牌兵面前過三尺餘, 牌兵可以手握其鎗, 後之鎗手出矣. 如敵兵將鎗, 由右來欲傷, 牌兵之聲, 筴兵以用筴, 按其鎗鋒, 而後行鎗手又出矣. 如賊用鎗, 由牌下戳牌兵之足, 牌兵用牌一坐, 下壓其鎗, 而後之鎗手又出矣. 至于賊之, 短兵刀鉤等項, 必不能近. 惟牌兵專視一面, 而既護筴兵之脊, 筴兵亦專一面, 而護牌兵之後. 鎗射銃手, 俱立, 牌後六七尺, 則正面矢石, 已不能及, 而復左右皆救矣. 再如, 賊衆道平, 我則通將牌齊列, 雖有萬賊, 進不能與我, 相交刃退, 後有所逼, 而不敢心生. 延望相持, 稍久, 而我之奇伏, 相機遣出, 又張聲勢, 兩翼漸逼, 賊必分兵, 四禦我, 則開牌縫, 而出甲士麾之, 賊計窮矣.”

103) 척계광, 『紀效新書』, [『사고』 제728권, 516쪽]. “凡, 鴛鴦陣, 乃殺賊必勝, 屢效者. 此是緊要束伍. ①第一戰法, 令開式於後, 二牌平列, 狼筴各跟, 一牌以防拿, 牌人後身長鎗, 每二枝, 各分管一牌一筴, 短兵, 防長鎗進的老了. 卽便殺, ②上伍長, 執挨牌在前, 餘兵照鴛鴦陣, 緊隨牌後其挨, 牌手低頭執牌前進, 如已聞鼓聲, 而遲疑不進, 卽以軍法斬首, ③其餘兵仗牌刀遮抵手, 後緊隨牌, 進交鋒, 筴以救牌, 長鎗救筴, 短兵救長鎗, 牌手陣亡, 伍下兵通斬, 要依此法, 無不勝矣.”

예로부터 기강이 해이된 군대는 생명을 걸고 적과 싸우지 못하였다. 겁을 먹고 달아나거나 최악의 경우 자신들의 지휘자를 죽이고 적에게 항복해 버렸다. 그래서 싸우기 전에 자멸해 버린 경우가 많았다. 척계광은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사들을 오(伍)와 십(什)이라는 조직 속에 철저히 묶어 두었고, 용감하게 싸우지 않고 망설이는 병사는 즉각 처형한다는 군율을 정하였다. 그래서 ㉠, ㉡, ㉢의 결론은 모두 참수다. 이 때문에 척계광의 군사들은 '적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라는 사생결단 외에 다른 생각 없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기에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척계광이 왜구를 물리칠 때는 단순하게 원양진만을 운용한 것이 아니라 치밀한 작전계획을 세워 기습하기도 했다. 그 한 예를 다음과 같은 상풍령(上風嶺) 전투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척계광은 이동하는 왜구들을 섬멸하기 위해 상풍령에 매복을 하였다. 상황을 판단해보니 왜구들이 중도(中渡)에서 출발하여 셋길을 따라 백수양(白水洋)에 가려면 70리를 행군해야 도달할 수 있지만, 명군은 국도를 따라 백수양에 가기 때문에 50리만 행군하면 도착할 수 있었다. 병법에서 '전투할 지역에 먼저 도착하여 적을 기다리면 쉽게 싸울 수 있다. 적은 숫자로 많은 숫자를 막으려면 피를 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적을 만나 전투할 때 아군의 숫자가 적고 적병의 숫자가 많으면 반드시 군사들의 마음을 격려하여 분발시켜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한 말을 가슴에 되새기면서 말과 군사들을 독촉하여 40리를 행군해 상풍령에 도착한 뒤 여러 곳에 정찰병들을 보내 어디에서 왜구들이 출현할 것인지를 살피면서 약탈하려는 다음 목적지가 어딘지 확인하였다.

왜구의 상황이 파악되자 군사들을 고개 위에 올려 5일 동안 매복을 실시하였다. 한편 왜구의 선봉부대가 통과하게 되면 자칫 명군의 매복이 조기에 노출될 수 있기에 군사들에게 각자 소나무 가지 하나씩 꺾어 잡고 매복 장소에 앉게 하였다. 기다리던 왜구들이 나타나자 척계광은 그들의 행군 대형을 관찰해 보았다. 왜구들은 숲이 있어도 복병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고 이동해 오는데 그 행렬이 20리나 이어져 있으며 의갑과 기치가 매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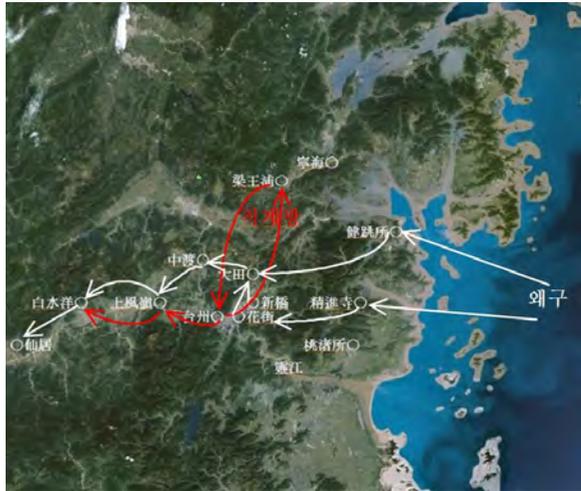
거창하였다. 명군은 이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왜구들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들이 절반쯤 통과하자 병사들은 소나무 가지를 뉘어 놓고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돌격하였다. 갑작스런 기습에 놀란 왜구들은 3~400명씩 일자진(一字陣)을 구성하며 대항하였다. 명군은 태학생 규여란(葵汝蘭)과 좌증(左蒸)이 일두양익일미진(一頭兩翼一尾陣)으로 공격하고, 진유성(陳惟成)·진법(陳法)·진조(陳蚤)·양문통(楊文通) 등은 조대하(趙大河)와 함께 원양진을 편성하여 무찔렀다. 척계광은 전투하기 전에 부하들에게 명령하길 적의 목을 벨 생각을 하지 말고 비바람 몰아치듯 신속히 공격하되 전진만 할 뿐 후퇴는 못하게 하였다. 전투 중에 전공만 생각하다 보면 죽기로 적과 싸울 수 없기 때문이었다. 명군의 기습을 받은 왜구들은 패주하여 산 밑으로 도주하자 정방언(丁邦彦)의 군사들은 셋길을 따라 산 아래로 추격했다. 왜구들이 다시 산 위로 도주하자 명군은 사방에서 산 위를 향해 공격하였다.

척계광은 북산(北山)에 항복을 권유하는 흰 색 깃발인 백고초(白高招) 하나를 세워 놓고 병사들을 시켜 큰 소리로 “항복하면 살려 줄 테니 흰색 깃발 아래로 모여라!”하고 외치게 하자 수 백명의 왜구들이 달려와 투항하였다. 군사들이 도주하는 왜구를 추격하자 수백 명이 아래로 달아났다. 다시 큰 산 위로 도망갔다. 명군은 그들을 추격하여 산 위로 공격하였다. 왜구들은 다시 대패하여 상계령의 정상으로 달아났다. 이 산의 정상은 험준하기가 기둥 꼭대기와 비슷하였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단지 한 곳뿐이었다. 정방언의 부대가 제일 먼저 산 위로 오르면서 앞뒤로 응원하며 생선 껍데기 위듯 일렬종대로 돌진하자 후속한 오유충(吳惟忠)의 부대가 그 뒤를 잇달았다. 몇 명의 적이 급히 달려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찍으며 베려 하였으나 명군은 장창으로 그들을 찔렀고 창에 찔린 왜구는 바위 아래로 떨어졌다. 명군이 이렇게 싸우면서 정상에 다 올라가자 왜구들은 6~700명이 일제히 달려들어 접전을 벌였고, 피차 죽을힘을 다해 크게 싸웠다. 왜구들은 패주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다 계곡이나 구렁이 사이로 떨어져 죽은 자들이 헤아릴 수 없었다. 도망친 자들은

백수양의 주가(朱家)로 달아났다.”¹⁰⁴⁾ <그림 6>은 이때의 전투 상황도를 표현한 것이다.

상풍령 전투와 같이 척계광의 왜구 소탕작전은 사전 치밀한 작전계획을 세워 놓고 싸웠지만 적을 격파하는 최종 수단은 원양진이나 이를 응용한 삼재진으로 공

<그림 6> 태주 및 상풍령 전투 상황도



Google earth의 사진에 『주해도편』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이 매복에 걸렸더라도 마룡의 부대와 같이 역공한다면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강력한 진법 훈련은 최후의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

104) 정약중, 『籌海圖編』, [『사고』 제584책, 255쪽]. “戚繼光曰, 賊出中渡, 由裏路, 至白水洋七十里, 我兵由官路, 至白水洋五十里, 兵法云, 先處戰地而待敵者伏, 且以寡禦衆, 非謀不克, 而臨敵交鋒, 我少彼多, 必兵心激發, 乃勝. 遂策馬鼓. 行四十里, 至上風嶺, 屯止. 多令探者, 出賊前後, 視其向往. 知狀即, 率兵上嶺, 伏五日. 前鋒兵, 出頗早光, 乃下令, 令人各砍, 松枝一樹, 執而坐. 賊望之, 爲林不介意, 行列二十里, 衣甲旗幟甚盛. 我兵對山, 瞭之俟其行. 過半, 乃仆松吶喊齊出. 賊驚, 以三四百人, 作一字陣, 衝來. 我兵, 分爲一頭兩翼一尾陣, 以太學生, 蔡汝闌·左蒸監督, 而陳惟成·陳法·陳蚤·楊文通等, 俱趙大河, 監督, 以鴛鴦陣, 衝鋒擁殺. 夙受令, 不許取首級, 疾若風雨, 有前無退. 賊遂敗遁, 上一小山, 然猶格鬪不已. 丁邦彥兵, 出裏路徑擣山下, 四面仰攻之. 而戚叅將, 乃樹, 白高招一竿于北山, 下令, 兵大呼脅從者, 從招下走, 走者數百人. 賊復上大山, 我兵又仰攻之, 賊又大敗奔. 上界嶺山巔, 山巔陡峻如柱, 上平廣賊立營, 其上若蓬麻, 然只一徑可攀陟, 丁邦彥等, 首先攀援魚貫上, 吳惟忠等繼之, 數賊疾前來, 從上斫下, 我兵用長鎗, 鎗賊墮岩下, 遂得登頂之, 我兵盡登, 賊六七百人齊來, 交鋒我兵, 戮力大戰, 賊敗走四散, 投落坑塹林谷間, 死者不計. 走者, 奔白水洋, 朱家.”

보편적으로 원양진은 척계광이 독창적으로 창안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¹⁰⁵⁾ 그러나 원양진과 팔진법의 이치를 비교해 보면 원양진 역시 팔진법의 원리를 응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청나라 육세의(陸世儀)¹⁰⁶⁾와 같은 인물은 원양진을 가리켜 옛날의 진법이며 방진으로 편성되는 팔진의 정형이라고 하였다. 원양진은 척계광이 만든 별개의 진법이라는 설과는 대조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육세의가 주장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무비지』를 열람해 보면 무려 100여 가지나 되는 진법이 있으나 그 요령을 깨달을 수 없었는데, ①척계광의 원양진을 읽고 나서 비로소 진법의 오묘한 이치를 알 수 있었다. ②원양진은 모두 옛날의 진법이라 반드시 방진으로 편성하여 팔진의 정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적과 마주치는 곳은 정병으로 팔진에서 말하는 사두팔미(四頭八尾)와 촉처상생(觸處相生)이 된다. 양의(兩儀)와 오행, 대삼재(大三才)와 소삼재(小三才)를 병용하며 대진은 소진을 포용하되, 중군은 움직이지 않고 악기(握奇)가 된다. 진에는 반드시 복병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팔진에서는 유병이라 한다. 진을 편성할 때는 먼저 부대를 편성해야 하며, 부대를 편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기를 편성해야 한다. ③원양진의 오묘한 이치는 부대를 편성하고 병기를 편성하는데 있다.¹⁰⁷⁾

위 글 ①은 육세의가 『무비지』에 수록된 많은 진도들을 봤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다가 척계광의 원양진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이치를 터득하였다는 뜻으로 팔진과 원양진이 별개의 진법이 아니라 같은 원리를

105) 모원의, 『武備志』, [『병집』 제29책, 1961쪽]. “近世戚少保, 始爲鴛鴦陣, 亦其便宜, 非古陣制也.”

106) 육세의(1611~1672)는 명말, 청초 때 강남 태창사람으로 유종주의 제자이다. 청이 건국되자 과거를 보지 않았으나 천문지리 등에 모르는 것이 없었다. 또한 무예에도 정통하여 석경암에게 창법을 배우기도 하였다. 저서에는 『思辨錄』·『三吳水利志』·『桴亭先生詩文集』 등이 있다. [『인전』, 1316쪽].

107) 육세의, 『思辨錄輯要』 제17권, 「治平類」. “向閱武備志, 陣法無慮百數, 不能得其要領, 心頗輕之, 及閱戚少保, 鴛鴦陣, 始知陣法之妙…鴛鴦陣, 皆是古法, 必爲方陣, 八陣之正形也. 遇敵者, 爲正兵, 八陣之四頭八尾, 觸處相生也. 兩儀五行, 大三才, 小三才, 大陣包小陣也. 中軍不動握奇也. 陣必爲伏, 八陣之遊兵也…制陣, 先制隊, 制隊先制器, 鴛鴦陣之妙, 制隊制器之妙也.”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㉞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원양진 역시 방진을 운용했던 옛 진법의 하나이며 팔진법에서 말하는 각종 원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㉟는 진법에서 조직편제와 무기체계의 중요성을 말한 것으로 이것은 원양진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법에 적용되는 원칙과 같다.

육세의 말에 따라 『기효신서』에 수록된 원양진과 진법의 원전이라 하는 『악기경』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먼저, 원양진은 매 돌격대마다 5명으로 구성했는데 이것은 『악기경』의 진법에서 전·후·좌·우·중의 다섯 자리로 구성된 1오(伍)의 편성과 같다.

둘째, 원양진에서는 힘이 좋고 신장이 장대한 사람을 선발해 오장으로 임명하고, 오장은 등패(籐牌)나

애패(挨牌)를 들고 부하들을 지휘했는데, 패는 공격무기가 아니고 방어 장비이다. 『악기경』에서는 방어진을 형성하는 부대로 지진(地陣)이 편성되었고 지진을 구성하는 부대들은 축 또는 지축이라 하며 대장이 그 중앙에 위치하였다.¹⁰⁸⁾ 이것은 원양진에서 오장이 패를 들고 수비하며 부하들을 지휘하는 이치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원양진에는 1오에 1자루의 낭선이 편성되었다. 낭선의 역할은 왜구의 장검이나 창과 같은 공격을 막아내며 적을

〈표 4〉 팔진과 원양진의 비교

구분	팔진	그림	원양진
지휘	握奇		隊長
방어	地軸		籐牌
攻防	天衡		狼筈
공격	天衝		槍
역습	風雲		銃
예비	遊兵		火槍

108) 척계광, 『紀效新書』, [『사고』 제728책, 577~578쪽].

살상할 수 있는 공방 겸용의 병기였지만 주 임무는 패를 보조하면서 창수가 재빠르고 정확하게 적의 허점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었다.109) 『악기경』에는 전투의 균형을 유지하는 부대라는 의미로 천형(天衡)을 편성하고 있다. 이 부대는 공격과 수비를 병행하며 돌격부대의 공격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낭선의 역할은 천형의 기능과 같다고 본다.

넷째, 원양진에는 1오에 2자루의 창을 편성하였다. 창은 공격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십팔반병기 중에서 장병기의 으뜸으로 꼽고 있다.110) 『악기경』의 천진(天陣)은 공격진으로 이를 구성하는 부대는 천충(天衝) 또는 충이라 한다. 충은 강한 파괴력을 갖고 적을 궤멸시키는 부대로 오늘날 전차 부대와 같다. 그래서 창은 진법에서 천충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다섯 째, 원양진에는 1오에 1자루의 당파(鎗鈹)를 편성하였다. 당파는 삼지창으로 창에 비하여 공격기능은 떨어지지만 방어기능이 보완되었다. 그래서 방어하며 공격해야 하는 근접전에 유리한 무기이다. 왜구의 도검이 지척에 근접하면 긴 창으로는 공격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파로 공격하게 하였다. 당파는 창보다는 자루가 짧지만 왜구의 칼보다는 길어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111) 『악기경』에서 풍운이나 유병(遊兵)의 역할은 역습에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대장은 전투를 지휘하며 상황을 지켜보다가 적의 허점이 발견되면 즉시 풍운진이나 유병을 출동시켜 전세를 결정짓는다. 그래서 당파는 풍운의 역할과도 같다고 본 것이다.

여섯 째, 원양진에 따라서 화창(火槍)을 편성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지만, 화창은 팔진에서 기습이나 역습을 담당하는 예비부대인 유병의 역할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공통점을 <표 4>로 정리해 보았다.

물론, 척계광이나 그가 지은 저서에 팔진과 원양진의 원리가 같다고 명시한 것은 없다. 만약 명시해 놓았다면 이것을 연구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팔진의 원리와 원양진의 원리를 분석하다 보니 우연의 일치

109) 위의 책, 581쪽.

110) 위의 책, 568~569쪽.

111) 위의 책, 584~585쪽.

라고 볼 수 없는 공통점이 발견되었으며, 척계광이 팔진법을 연구했다는 사실을 『기효신서』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혹 전투원 중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오(伍)의 구성원이 아닌 군사들 중에서 선발하여 보충시키고 중군에 비축된 무기를 보내 전투하는 진영이나 행오에 단 한 명의 군사라도 결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며, 단 한 자루의 무기라도 부족하지 않게 해준다. 그런 다음에 다시 출전시켜야 한다. 팔진에서 '24개 부대의 유병으로 부족한 부대를 보충한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하여 각개 진영의 전투력은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가 되고 그와 더불어 군사들의 사기 역시 항상 충만하게 된다. 지금 나의 중군은 바로 팔진의 유병인 셈이다.¹¹²⁾

위 글은 척계광이 중군 즉, 지휘소이자 본부대의 역할 중 하나를 설명하는 것이다. 본부는 항상 예비 병력과 전투장비를 확보해 두고 있다가 전투 부대에서 결원이 발생하거나 무기가 손실될 경우 즉시 보충해 주어 전투부대로 하여금 항상 완편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임무를 수행하기에 팔진에서 24개의 유병부대를 예비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 말은 척계광의 병법이 팔진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간접적으로는 원양진 역시 팔진법에서 응용한 것이라는 점을 뜻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원양진은 척계광의 창의력에 의해 고안된 것이지만 그 원리는 팔진법에서 인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팔진에서 다양한 진들이 분화되는 것 같이 원양진 역시 분화된 변진(變陣)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척계광은 장엽이나 조본학 등과 같이 진의 외형에 집착하지 않고 원리만을 응용하였던 것이다. 그가 병법이나 진법에 탁월한 군사전문가였으나 『기효신서』나 『연병실기』 어디에도 장엽이나 조본학 등이 그려

112) 위의 책, 502쪽. “或頭目，有事故者，伍下之人，分投補足，以中軍所蓄器械，那移貸之，務使戰營行伍，一卒不缺，一器不之。然後，又爲再出之舉也。八陣所謂，遊兵二十四隊，防備設疑補缺之用，正謂此也。是以，各營，時時有常足之額，士卒有常盈之氣，今予之中軍者，卽八陣之遊兵也。”

놓은 것과 같은 진도는 없고 몇 가지 무기의 형태만 그려 놓았다. 이것은 그가 진법의 외형에 치중하지 않고 원리만을 응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팔진에서는 정병(正兵)이 기병(奇兵)이 되며 기병이 정병이 되는데 원앙진에서도 그 이치를 찾아 볼 수 있다. 방패의 기능은 방어(正兵)에 있지만 척계광은 공격(奇兵)에도 활용하여 방패를 앞세워 적진을 뚫고 들어가게 하였다. 이것은 마룡이 녹각편상거를 앞세워 진격한 것과 같은 원리이다. 패의 뒤를 이어 낭선을 배치한 것은 팔진에서 충이 개척한 통로에 형을 투입시켜 전과확대 하던 이치를 적용시킨 것이다. 적진을 헤쳐가려면 창보다는 낭선이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팔진에서 풍과 운의 역할은 기습과 돌격이다. 척계광은 이것을 두 자루의 창으로 풍운의 기능을 발휘시켰다. 맨 뒤에 단병수를 배치하여 창과 낭선·패를 근접 보호하게 한 것은 팔진에서 축의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지휘하는 오장이나 십장이 기를 들고 지휘한 것은 팔진에서 보면 악기(握奇)의 역할인 셈이다.

이와 같이 팔진과 원앙진은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었다. 그렇다면 제갈량이 창안한 팔진도 역시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같이 대규모 부대의 방진 대형이 아니라 원앙진과 같은 소규모 부대의 전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제갈량의 팔진도를 연구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8 \times 8 = 64$ 의 누석 방진만을 연구하였지 척계광과 같이 진법의 이치를 응용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외형에 치중한 진법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없었지만, 원리를 응용한 원앙진은 탁월한 전과를 올릴 수 있었다. 그렇다면 원앙진법은 화력무기의 파괴력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부대 단위로 분산 작전하는 현대 전장의 전투 방법과도 부합된다.

원앙진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그 한 예로 척계광이 죽은 후 허국한(許國翰)은 연동도(兗東道)에서 왜구들을 토벌할 때 무강차(武剛車)와 원앙진법으로 여러 차례 승전하여 연동 지역의 인심을 안정시켜 놓았다.¹¹³⁾ 조선에서는 정도전의 오위진법을 바탕으로 『진법』을

113) 『陝西通志』 제57권, 〈人物 三〉. “許國翰, 涇陽人. 天啓壬戌進士, 爲儀封令, 開支河以洩水, 又損俸置義倉, 以備賑. 歷陞岳州道, 練水兵焚賊船, 洞庭積寇一清. 改兗東道, 用武剛車,

간행하여 군사훈련을 시켰다가 임진왜란 때 평양성 전투에서 명군이 승리하는 것을 보고 척계광의 전법을 도입하고, 『기효신서』를 간행하여 군사훈련의 지침서로 삼았다. 이것은 고대의 진법 훈련은 단순한 부대 훈련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혹자는 오위진법이니 원양진이니 하며 진법의 외형만을 논하며 척계광의 진법이 기마민족에게 효력이 없다¹¹⁴⁾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척계광은 북변에서 계진(薊鎭)을 수비할 때도 진법의 원칙을 준수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북변은 광활하고 험준한 지역이 많으며 기마민족들은 말을 달리며 활을 잘 쏘았기에 왜구와 싸우던 방패 대신 전차를 만들고 적대(敵臺)를 축조하는 등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명사(明史)』에 기록된 것을 보면, “척계광이 맡고 있던 계문(薊門)의 수비가 워낙 견고하여 빈틈이 전혀 없었기에 적들이 침입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적들은 요동만을 공격하였기에 요동을 지키는 이성량(李成梁)이 전공을 독점하였다”¹¹⁵⁾라고 기록되어 있다. 물론 척계광은 한(漢)나라의 위청(衛靑)이나 괘거병(霍去病)과 같이 막북으로 진출하여 원거리 토벌은 하지 못했지만 그 원인은 그의 능력 부족이라기보다는 당시 명군의 전력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5. 맺음말

진법(陣法), 또는 팔진법(八陣法)으로 불리우는 고대 전법(戰法)은 부대가 적과 전투를 하기 위해 구성하는 대형의 하나로 시대와 인물에 따라 각자

駕爲陣，屢挫賊鋒。克東人心，始固終。”

114) 안명노, 유재성 역, 『演機新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0, 29~32쪽.

115) 장정옥, 『明史』 제18책, 북경 중화서국, 1995, 5616쪽. “自順義受封，朝廷以八事課邊臣，曰積錢穀·脩險隘·練兵馬·整器械·開屯田·理鹽法·收塞馬·散叛黨。三歲則遣大臣閱視，而殿最之。繼光用是頻陰賚，南北名將馬芳·俞大猷前卒，獨繼光與遼東李成梁在。然薊門守甚固，敵無由入，盡轉而之遼，故成梁擅戰功。”

독특한 방법을 사용해 왔으며 척계광이 만든 원양진 역시 그와 같은 고대 진법의 하나이다. 복희와 황제로부터 유래하였다고 하는 고대 중국의 진법은 춘추·전국시대에는 어려진·승졸진·형시진·계부진·아관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되었고, 촉한의 제갈량은 팔진도를 만들어 위(魏)나라를 공격하였다. 이후 서진의 마룡은 팔진법으로 서량의 수기능(樹機能)을 격파하였고, 당나라의 이정은 육화진으로 돌궐을 물리치며 기마민족의 장기인 기사(騎射)를 극복하였다.

반면에 당나라의 이전(李筌)이나 송나라의 증공량과 허동, 명나라의 장엽과 용정, 조본학과 같은 문사(文士)들은 진법을 학문적인 체계로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팔진법의 비결을 진의 외형에서 찾고자 하였기에 실전에 사용될 수 없었다. 그래서 명나라 중기까지도 뛰어난 진법이 출현하지는 못하다가 만력(萬曆) 시기에 척계광에 의해 원양진이 창안되었다. 원양진의 등장은 이정(李靖) 이후 천 년 가까이 신비 속에 묻혀 있던 진법이 재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척계광이 왜구를 토벌할 때 주도면밀한 매복 작전 등을 구상하여 적을 함정에 빠뜨려 놓았지만 원양진이라는 강력한 진법이 없었다면 전승을 보장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동안 원양진은 고대의 팔진법과 별개의 진법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그 구성 원리를 보면 팔진법의 원리를 응용하여 만든 것이었다. 팔진에서 충·형·축·풍·운·유·의 기능들은 원양진에서 패(축), 낭선(형), 창[충], 당파[풍운], 화창[유병] 등의 기능을 갖고 있었으며, 2개의 오(伍)가 긴밀하게 협조하며 싸우는 것은 팔진에서 기병(奇兵)과 정병(正兵)이 호응하며 싸우는 이치와 같다. 이와 같이 팔진과 원양진의 원리가 동일한 것이라면 제갈량이 사용했던 팔진도 역시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같이 대규모 부대의 방진대형이 아니라 원양진과 같이 소규모 부대의 전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것은 화력무기의 파괴력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부대 단위로 분산 작전하는 현대 전장의 전술 상황과도 부합된다.

원양진은 남방의 왜구를 토벌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으나 북변의 기마민족과

싸우기에는 적합하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평가였다. 그러나 『명사』의 기록을 보면 척계광은 계진(薊鎭)에서도 팔진법의 원리를 이용하여 원양진의 방패 대신 전차를 제작하였고, 수비를 견고히 하기 위해 적대(敵臺)를 축조하였다. 북변을 침략한 변경 민족들은 척계광이 두려워 계진을 피하고 요동만 공격했기 때문에 척계광이 전공을 세우지 못했을 뿐이지 그가 무능했기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역대의 전장에서 뛰어난 진법을 강구하게 된 이유는 그것이 전쟁에 대비한 전략·전술·전법 등에서 최후의 승패를 가르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법은 '죽느냐 사느냐! 존립하느냐 망하느냐!'하는 시대의 절박한 상황에 의해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중요성으로 인하여 송나라 신종이나 조선의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진법서를 간행하며 군사훈련을 시켰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진법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팔진법이나 그에 대한 연구들이 보편화되지 못하고 대부분은 역사 속에 묻혀 버렸다.

진법은 역사적으로도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진법은 단순한 전투 수단만이 아니었다. 하나의 진법을 창안하여 성공시키면 이에 따르는 다양한 시대 상황이 고려되어야 했다. 그 국가는 물론 상대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의 제 분야에 뒷받침되는 조건들을 무시하고 만든 진법은 성공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진법은 다른 시각으로 역사를 관찰해 볼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라고 본다. 둘째, 역사의 반복성을 찾아보기 위함이다. 역대 진법들의 출현을 보면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운용하였지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원리는 동일하였다. 즉 진의 조직과 부대의 편성, 공격과 방어에 따른 기정의 운용, 상황에 따른 적절한 변화, 기습과 충격행동 등의 원칙은 미래에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척계광이 방진이니 원진이니 하며 옛 사람들이 운용했던 고정된 외형에 집착하지 않고 팔진법의 원리를 응용하여 원양진을 만든 것 같이 진법을 운용하는 이치를 탐구해 본다면 현대나 미래의 전장에서조차 적지 않은 교훈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2. 6. 26, 심사수정일 : 2012. 8. 10, 게재확정일 : 2012. 8. 14)

주제어 : 팔진(八陣), 팔진법(八陣法), 방진(方陣), 진법(陣法), 원앙진(鴛鴦陣),
척법(戚法), 척계광(戚繼光), 『악기경(握奇經)』, 『기효신서(紀效新書)』,
왜구(倭寇).

<ABSTRACT>

Qījī Guāng's Yuānyāngzhèn in the later Míng Dynasty and the principle of the Bǎizhèn

Hong, Eul-pyo

The reason to devise excellent zhènǎ(dispositions of troops) on the ancient battlefields was that it was one of the last means to determine victories in war. So zhènǎ appeared at the time of the critical moment of life and death.

For a while, Yuānyāngzhèn had been considered different from the ancient Bǎizhènǎ but the analysis of its composition principles shows that it was made by applying Bǎizhènǎ's principles. The functions of Chōng(a spear), Héng(balance), Zhóu(the axis), Fēng(wind), Yún(cloud) and Yóubīng(a drifting weapon) in Bǎizhèn were also applied to Yuānyāngzhèn. Namely, Pái(a shield) had Zhóu(the axis)'s, Lángxiǎn(a spear with some blades) had Héng(balance)'s, Qiāng(a spear) had Chōng(a spear)'s, Dǎng(a trident) had FēngYún(wind and cloud)'s and Huǒqiāng(a burning spear) had Yóubīng(a drifting weapon)'s functions and the fighting principle that two lines cooperate closely with each other was the same that Qībīng and Zhēngbīng acted in concert. If the principles of Bǎizhèn and Yuānyāngzhèn were the same, there would be a high chance that Bǎizhènǎ used by ZhūgěLiàng was not Fángzhèn(a square formation) for the large army but tactics for the small one like Yuānyāngzhèn.

From these, we could find that the principles to compose zhènǎ were the same throughout history. Accordingly, the principles organizing battle units, forming zhèn, operating Qízhēng according to attack and defense, changing properly depending on situations and attacking suddenly or shockingly would remain unchanged in the future. Therefore, like the way that QījīGuāng made Yuānyāngzhèn using the inner principles without being

obsessed with the fixed outward forms, which ancients sought, as calling them Fángzhèn(a square), Yuánzhèn(a circle) and the like, if we study on the principles of ancient Zhènǎ, we could also search for not a few lessons for the modern or future battles.

Key Words : Bāizhèn(八陣), Bāizhèn fǎ(八陣法), Fángzhèn : a square formation(方陣), Zhèn-fǎ(陣法), Yuānyāng zhèn(鴛鴦陣), Qífǎ (戚法), Qījī Guāng(戚繼光), “Wò jī jīng(握奇經)”, “Jī xiào xīn shū(紀效新書)”, Wōkòu : Japanese pirates(倭寇).

18~19世紀 忠淸兵營의 編制와 財政

유 동 호*

1. 머리말
2. 編制와 機能
3. 財政과 그 運用
4. 맺음말

1. 머리말

兵馬節度使(以下 兵使)는 조선시대 각 도의 육군을 총괄하던 사령관으로서 종2품 西班職이었다. 병사는 專任兵使인 單兵使와 觀察使가 兼職하는 兼兵使가 있었다. 단병사는 충청도·경상좌·우도·전라도·평안도·영안남·북도에 각각 1명씩 총 7명이 임명되었으며, 겸병사는 8도의 관찰사가 병사를 겸직하였기 때문에 총 8명이 있었다. 두 부류의 병사가 각 道內 최고 군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단, 경기도·강원도·황해도에는 단병사가 과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겸병사만 존재하였다.¹⁾ 이들의 주요 임무는 국방과 치안에 관련된 것이었다. 평시에는 지방군의 훈련·무기 제작 및

* 충북대학교 강사

1) 『經國大典』 兵典 外官職.

정비·군사시설 유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유사시에는 즉각 대응하여 적절한 군사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지방에는 별도의 치안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병사가 捕虎, 捕盜, 內亂防止 등의 치안임무를 책임지기도 하였다.

단병사가 여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이 兵馬節度使營(以下 兵營)이었다. 조선후기의 병영은 각 도의 主鎮으로서 군사조직이라는 체계적인 조직망을 활용하여 여러 임무를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방 및 지방통치 기능을 강화하는데 일조하였다. 특히 사회경제적 변화가 극심했던 18~19세기의 兵營 軍事行政과 財政運用은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조선후기 병영의 운영실태 파악은 당시 지방군제 및 통치체제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사 및 병영 관련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다행히 근래 조선후기 지방군제 관련 연구가 제도적 측면에서 벗어나 다양화되면서²⁾ 병사 및 병영과 관련해서도 몇몇 연구 성과가 나왔다. 兵馬節度使制의 成立과 職任을 살펴본 연구³⁾, 조선 초 兵使制度를 중심으로 兩界의 軍事制度와 國防體制를 고찰한 연구⁴⁾, 慶尙右兵營穀 運營의 弊端이 1862년 진주 농민항쟁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밝힌 연구⁵⁾, 전라병영의 역사적 변천과정·편제·재정·기능 등을 通史의으로 살펴본 연구⁶⁾, 전라병영과 충청병영의 설치과정·편제·재정구조 등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연구⁷⁾들이 그것이다. 위 연구들로 인해 조선시대 중앙 군영과 지방군영의 架橋役割을 하였던 병영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제도적 측면과 지역사례

2) 김우철, 「조선후기 군사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 비평사, 2000 ; 오종록, 「조선시기 군사사 연구의 동향」, 『군사』 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3) 오종록, 「조선 초기 병마절도사제의 성립과 운용」, 『진단학보』 59-60, 진단학회, 1985 ; 장병인, 「조선 초기의 병마절도사」, 『한국학보』 34, 일지사, 1984.

4) 오종록, 「조선 초기 양계의 군사제도와 국방체계」,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1993.

5) 송찬섭, 「19세기 경상우병영의 재정구조와 진주농민항쟁」, 『한국문화』 11,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1990.

6) 유승주 외, 『전라병영사 연구』, 조선대학교박물관, 1999.

7) 이해준 외, 『강진 병영성』, 목포대학교박물관, 1991 ; 이강길, 「조선후기의 충청병영」, 『역사와실학』 27, 역사실학회, 2004.

연구에 그쳐 조선후기 병영의 총체적 모습 및 역할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구조 및 운용실태를 비교 분석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필자는 조선후기 충청도 청주에 소재했던 충청병영의 편제와 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하고자 한다.

충청병영에 관해서는 구조와 기능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연구⁸⁾와 이설배경을 살펴본 연구들⁹⁾이 있다.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18~19세기 충청병영의 편제 및 재정의 운용에 초점을 두고 병영의 實際에 다가서고자한다. 군사편제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재정은 병영이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며, 병영의 실체를 밝히는 핵심사항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충청병영의 이설배경을 간략히 정리하고, 다음으로 군사편제 및 기능 등을 파악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兵營穀을 중심으로 재정현황 및 특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編制와 機能

1) 忠淸兵營의 淸州 移設

충청병영은 임진왜란 이후 내륙방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효종 2년(1418)에 沿海地域인 海美縣에서¹⁰⁾ 淸州牧으로 이설되었다.¹¹⁾ 충청병영이

8) 이강길, 위의 논문, 2004.

9) 서태원, 「조선후기 해미진영 연구」, 『역사교육』 92, 역사교육연구회, 2004 ; 임선빈, 「내포 지역 해미읍성의 축성과 기능변천」, 『역사와답론』 58, 호서사학회, 2011.

10) 충청병영은 최초 고려 공민왕 때에 崔瑩의 건의로 伊山縣(후에 德山縣으로 改稱)에 都巡問使營으로 설치되었다. 이후 조선 태종 2년(1402)에 兵馬節制使營으로 改稱되었고, 태종 18년(1418)에 海美縣으로 옮겨져서 조선전기 동안 유지되었다. (『大東地志』, 淸州 營衙 ; 『輿地圖書』, 忠淸道 兵營 官職 ; 『增補文獻備考』, 忠淸道 淸州牧 ; 『練藜室記述』, 別集 官職典故 ; 『萬機要覽』, 忠淸道)

11) 『承政院日記』, 효종 2년 11월 3일 ; 『孝宗實錄』 권8, 3년 2월 6일 戊申.

조선전기 동안 해미에 위치하였던 이유는 下三道 해안방어를 위해서였다.¹²⁾ 즉, 沿邊諸鎮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水營과는 掎角의 形勢를 갖추고 효율적으로 왜구에 대비하고자 함이었다.¹³⁾ 그러나 이러한 방어 전략은 대규모 전쟁 및 내륙방어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¹⁴⁾ 실제 임진왜란 초 내륙 요충지인 청주와 충주를 쉽게 내주면서 한양이 단기간에 함락되는 요인을 제공하였다. 이 때문에 병영과 수영을 모두 해안가에 두었던 충청도 방어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연해지역에 치우쳐 있는 충청병영을 三南의 요충지인 청주나 충주로 이설하여 내륙방어를 강화하자'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¹⁵⁾ 그러나 충청병영은 임진왜란 동안 이설되지 않았다.

충청병영 이설에 대한 논의는 왜란 후 인조 대에 다시 제기된다. 인조 16년 特選官 李時白은 “충청도는 병영과 수영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으니, 天險의 요새지인 조령과 한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충주로 이설하자”¹⁶⁾고 주장하였으며, 左承旨 朴明搏와 公淸兵使 李義培도 “2백여 년 동안 왜적의 배가 서해를 지나간 적이 없으니, 충청도 병영을 군사들이番禺러 가기도 쉽고, 호남과 영남의 두 길을 단속하기도 쉬운 道의 중앙인 청주로 이설하자”¹⁷⁾고 주장하고 있다. 인조 대에도 국방상의 이유로 삼남의 요충지인

12) 조선 초 잦은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태종은 전면적으로 군사제도를 재정비하였고, 이 과정에서 하삼도의 병영들은 모두 해안지역으로 이설되었다. 하삼도 병영들의 정비과정을 살펴보면 충청병영은 태종 18년(1418)에 이산현에서 해미현으로, 전라병영은 태종 17년(1417)에 光山縣(光州)에서 道康(康津)으로 옮겨졌다. 경상도 병영은 조선 초 昌原에 소재해 있었는데, 태종 7년(1407) 경상도가 左道와 右道로 分道된 이후 두 병영은 合屬과 分屬의 과정을 거쳐 우병영은 창원에 유지되었고, 좌병영은 태종 17년 慶州에서 蔚山으로 옮겨졌다. (『太宗實錄』 권33, 17년 1월 4일 辛卯; 『太宗實錄』 권33, 17년 1월 21일 戊申; 『備邊司謄錄』, 정조 3년 4월 27일; 이해준 외, 위의 책, 1991, 57~58쪽.)

13) 『備邊司謄錄』, 정조 3년 4월 27일.

14) 차용걸, 「조선후기 관방시설의 변화과정」, 『한국사론』 9, 국사편찬위원회, 1983, 71쪽.

15) 『宣祖實錄』 권67, 28년 9월 2일 壬申; 『宣祖實錄』 권70, 31년 12월 2일 癸丑; 『宣祖實錄』 권135, 34년 3월 17일 乙卯.

16) 『仁祖實錄』 권36, 16년 3월 7일 庚午.

17) 『仁祖實錄』 권19, 6년 12월 13일 己亥; 『仁祖實錄』 권36, 16년 7월 11일 壬申.

청주 또는 충주로 이설하자는 주장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외에도 支供의 폐단 및 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병영 이설이 제기되고 있었다.¹⁸⁾ 당시 병사와 수사는 官需와 支供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군역을 면제시켜 주고받은 배로 병영의 재정 및 식량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군병에 대한 侵虐이 매우 심하였고, 병·수사 지공의 폐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특히 충청도 내포지역은 병영과 수영이 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피해가 더욱 심각하였다. 아울러 내포지역은 임진왜란 이후 참화를 입은 충청도 각 고을의 역을 모두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의 부담이 다른 山郡보다 3배나 높았다.¹⁹⁾ 따라서 내포지역의 부담을 완화하고, 충청도의 역을 고르게 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였다. 이러한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수사가 큰 읍의 수령을 兼任하고, 병영을 타 지역으로 옮기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동안 지속되었던 충청병영의 이설논의가 실효를 본 것은 효종 대이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은 김육이다. 효종 2년(1651) 金堉은 “호서와 영남 사이에 토적이 아주 치성한데도 호서의 병사와 수사가 모두 해변에 있어서 토벌하기 어려우니, 호서와 영남의 교차점에 있는 청주로 병영을 옮기자”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병사가 청주의 목사를 겸하게 하여 그 고을의 세금을 받아쓰게 해서 지공의 폐단을 줄이자”²⁰⁾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김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효종 2년(1651)에 충청병영이 해미에서 청주로 이설되었고, 병사와 청주목사의 겸임도 이루어진 것이다.²¹⁾

약 60여 년 간 결론이 나지 않던 충청병영 이설 문제가 해결된 직접적 원인과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청도 지역방어 강화와 忠淸左道의 치안 공백을 보완하기 위함이다.²²⁾ 양란 이후 도성방어를 위한 내륙방어의

18) 『仁祖實錄』 권36, 16년 3월 7일 庚午 ; 『備邊司謄錄』, 인조 16년 3월 9일.

19) 『備邊司謄錄』, 효종 1년 6월 9일.

20) 『孝宗實錄』 권7, 2년 11월 13일 丁亥.

21) 『承政院日記』, 효종 2년 11월 23일 ; 『孝宗實錄』 권8, 3년 2월 6일 戊申.

22) 임선빈, 앞의 논문, 2011, 92쪽.

중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었다. 더욱이 李适의 亂과 잦은 도적의 출몰은 사회혼란 및 위기의식을 고조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영과 수영이 모두 바닷가인 내포에 위치하여 있었고, 監營조차 忠淸右道에 치우쳐 있어 효율적인 지역방어 및 치안을 이루기 어려웠다. 따라서 충청도 지역방어 강화와 忠淸左道의 치안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군영의 재배치가 불가피하였다. 결국 영남과 호남의 두 길을 단속하기에 편하고, 군사모집이 수월한 충청도의 중앙이자 충청좌도인 청주로 이설한 것이다. 둘째 호서지방 역의 부담과 지공의 폐단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병영 이설과 겸임은 필히 해결해야 할 과제였으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쉽게 이행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효종 2년 湖西 大同이 設行됨에 따라 충청병사와 청주목사의 겸임이 가능해졌고, 병영도 옮길 수 있었다.²³⁾ 湖西 大同法이 시행되면서 大同米에 郡縣의 官需 및 衙料와 함께 병영의 官需가 算定되었다.²⁴⁾ 이로써 병사도 대동미를 題給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병사의 지공이 대동미에 포함됨으로써 병영의 공식적 재정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²⁵⁾ 이로 인해 병영 이설이 가능해 진 것이다.²⁶⁾ 결론적으로 바닷가에 치우쳐 있던 충청병영을 중앙인 청주로 이설시켜 충청도 지역방어를 강화하고, 겸임을 통해 내포지역의 지공 부담을 줄임으로써 충청도 전체의 재정적 안정을 꾀한 것이다.

충청병영의 이설이 논의될 때 이설 후보지는 청주와 충주 두 곳이었다. 그런데 결국 충주가 아닌 청주로 결정하였다. 직접적 이유는 당시 시대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양란 이후 도성방어를 위한 내륙방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가운데 李适의 亂을 비롯한 잦은 도적의 출몰은 사회혼란 및 위기의식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 때문에 삼남의 길목이었으며 경기도 및 강화도와 맞닿아 있는 충청도의 방어 및 치안은 더욱 중요시되었다.

23) 『備邊司謄錄』, 효종 8년 9월 21일.

24) 『經世遺表』 권11, 地官修制 賦貢制 7 湖西大同節目.

25) 『孝宗實錄』 권8, 3년 2월 6일 戊申.

26) 『孝宗實錄』 권4, 1년 7월 11일 壬申.

따라서 충청도 군사지휘본부 역할을 해야 하는 병영의 위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했다. 충청도 중앙에 위치하여 유사시 군사 동원이 편리해야 했으며, 군량 수송 및 보관을 위한 수비형 背後山城이 있어야 했고, 都會地를 통해 필요한 군수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곳이어야 했다. 이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충주보다는 청주였던 것 같다. 청주는 국토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으면서, 일찍부터 “三南의 咽喉와 같다”²⁷⁾고 표현되었다. 이는 청주가 교통의 요지로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지역임을 말해준다. 과거 도로교통 시대에 중부 이북지역과 영남과의 소통에 있어 최대의 장애물은 험준한 노령산맥이었다. 이곳을 넘는 교통로는 크게 3곳이 있었는데, 그 곳이 죽령·조령·추풍령이었다. 이중 추풍령이 고도가 가장 낮아 소통이 가장 용이했었다.²⁸⁾ 따라서 적이 영남지역을 선점하고 중부 이북으로 진출 시 이 지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청주는 추풍령길의 중심도시였다. 즉 조선시대 청주지역은 그 만큼 서울과 가까운 곳이었고, 영·호남과도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요충지였다. 이러한 사정은 선조 28년(1595) 領議政 柳成龍이 “청주는 추풍령·황간·영동으로 이어지는 길로 병사가 항상 주둔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에서 잘 나타난다.²⁹⁾

그리고 청주에는 많은 군량 수송 및 보관이 용이하고, 수비가 유리한 배후산성이 있었다. 그것이 上黨山城이다. 상당산성은 청주읍에서 동쪽으로 20리 쯤 떨어진 上黨山의 八部稜線 위치하고 있으며,³⁰⁾ 둘레 7,773尺(2910步), 성벽의 높이 2丈(8天), 첩이 1176垛나 되는 대형 石築山城이다. 이러한 상당산성은 청주읍성에서 抗戰이 불가능할 경우 읍성의 官民이 모두 入保·守成하여 장기전의 형세를 갖출 수 있게 해주는 역할³¹⁾을 하였다. 즉, 상당산성은 높고 험한 산의 팔부능선에 위치해 있는 대형 산성으로서, 대량의 군량 및 물을 구비하여 장기간 항전할 수 있는 중요한 군사시설

27) 이중환, 「八道總論」, 『擇里志』, 1751.

28) 청주시지편찬위원회, 『청주시지』, 청주시, 1987, 199-200쪽.

29) 『宣祖實錄』 권61, 28년 3월 18일 辛卯.

30) 『輿地圖書』, 忠淸道 淸州牧.

31) 충청북도, 위의 책, 281쪽.

이었다. 상당산성이 關方重地로서 얼마나 좋은 요건을 갖추고 있었는지는 충청도 兵馬虞候였던 柳河喆의 기록에 잘 나타난다.

鵲川(지금의 청주 까치내)과 鳳林(지금의 청주 신봉동)에 바람과 모래가 아득한 것이 예부터 武略을 볼 수 있던 장소이니, 마땅히 들에 적당한 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鐵幢竿과 石橋에서 북소리와 호각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三使(충청도병마절도사, 관찰사, 청주목사를 合稱)가 자리 잡은 자리가, 서로 의지하는 형세가 장하다. 염담하고 관측을 잘 할 수 있는 곳은 것대고개의 봉우리가 있으며, 말을 타고 연락할 수 있는 곳은 栗峰의 驛이 있으니, 더욱 기회를 장악 할 수 있는 요충지가 된다.³²⁾

위의 기록은 상당산성이 청주 읍내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청주읍성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는데 유리하였고, 것대산 烽燧와 栗峰驛이 있어 주변 諸鎭과의 연락이 용이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렇듯 상당산성은 방어 전략상 매우 중요한 요충지로서 병영이 청주로 이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청주는 공주·충주·홍주와 더불어 호서지역 4牧으로서 땅이 넓고 인구가 조밀하였으며, 인근에 보기 드문 미호평야·대머리평야·오창평야 등 곡창지대를 끼고 있었다. 또한 청주를 지나는 무심천과 금강 상류의 미호천을 끼고 있어서 농업용수로서 사용할 水資源 역시 비교적 풍부하였다.³³⁾ 이는 청주가 충주 못지않은 높은 농업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상 시 군량미 확보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 청주가 가지고 있는 兵營 移設地로서의 조건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청도의 중앙이자 삼남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무기와 군대모집이 용이하였으며, 적군이 영남지역을 선점하고

32) 「柳河喆 記錄」(차용걸 외, 『상당산성 : 종합지표조사 및 문헌자료집』,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1999, 160-174쪽 수록)

33) 조선시대 청주는 전기에는 평양·해주·함흥·평산 다음으로, 후기에는 나주·해주·공주·전주 다음으로 많은 전결을 보유한 고을이었다. 이것은 청주가 농업 생산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었음을 말해준다.(『世宗實錄地理志』; 『經世遺表』 참조)

중부 이복으로 진출 시 방어하기 용이하였다. 둘째 전략상 중요한 배후산성인 상당산성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유사시 군량 수송 및 보관이 용이하고, 유리한 수비 조건을 제공해 줄 수 있었다. 셋째 충주 못지않은 비옥한 곡창지대였다는 점이다. 미호평야와 오창평야 등에서 생산된 많은 곡물들은 군량미로의 활용이 가능하였다. 즉 청주는 충청병영이 이설되기에 적합한 지리적·경제적·군사적 이점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이 선택이 왜 옳았는지는 1728년 戊申亂과 1894년 東學農民軍의 淸州城 점거 시도 사건에서 뚜렷이 증명된다. 영조 즉위 초 경상도에서 少論들에 의해 결성된 叛軍은 지름길인 청주와 진천을 거쳐 북상을 시도하지만, 이곳을 막는 방어군의 완강한 저지 때문에 謀反은 실패한다. 李麟佐는 붙잡힌 후 供草에서 “청주 병사를 먼저 제거해야 일이 완비되고, 단출한 군졸로는 서울로 들어갈 수 없기에 청주를 먼저 함락시켰다”³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청주가 군사 및 무기 소집에 있어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리고 1894년 동학농민군은 ‘京司로 直行’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았다. 그 전략적 방법으로 남·북접 농민군은 충청도 보은과 전라도 삼례에 집결한 후 서울로 북상하려고 하였다. 북접 농민군에게는 충청도 남단에서 청주와 진천을 지나가는 길이 지름길이었고, 남접 농민군에게는 전라도에서 논산·공주를 거쳐 목천을 지나가는 길이 직선 길이었다.³⁵⁾ 청주는 바로 북접 농민군이 서울로 향하는 길목의 요충지였다. 이 때문에 동학농민군은 3차례에 걸쳐 청주성을 점거하려고 시도하지만 결국 실패한다. 이 두 사건은 청주가 충청병영의 이설지로 선택된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34) 『英祖實錄』 권16, 4년 3월 26일 丙子.

35) 신영우, 「1894년 동학농민군의 청주성 점거 시도」, 『충북사학』 13, 충북사학회, 2002, 46쪽.

2) 編伍와 軍摠

충청병영의 청주 이설은 조선후기 충청도의 군사편제를 크게 변화시켰다. 병영이 이설되기 전 洪淸道는 진관체제에 따라 前營인 홍주, 左營인 청주, 右營인 공주, 後營인 충원(충주)의 4진영과 병영의 역할을 겸하던 해미의 中營이 있었다. 그러나 병영이 청주로 이설되면서 영장체계의 확립과 함께 전영-홍주, 좌영-해미, 중영-청주, 우영-공주, 후영-충주의 체계로 바뀌었다. 충청병영(병사) - 5진영(영장) - 54개 속읍(各邑 수령)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가 확립된 것이다.³⁶⁾ 아울러 충청병영은 5진영 외에도 배후산성인 상당산성을 管下에 둬으로써, 5鎭營 1山城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編伍方式과 軍額을 『忠淸兵營所管各城鎭編伍軍摠成冊(이하 淸營兵制總錄)』³⁷⁾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충청병영 소속의 각 산성과 진영은 東五法에 기초하여 그 조직이 구성되었다. 前·後·左·右·中營의 기본적인 5鎭營制를 채택하고, 그 營 밑에는 각 司를 그 밑에는 다시 각 哨로 편제하였다. 中營 淸州鎭의 예를 들어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編伍軍兵 4,322명 내 지휘관은 104명(別將 2, 把摠 6, 千摠 3, 哨官 33, 知穀官 1, 旗牌官 58, 旗鼓官 1)이며, 標下軍은 4,228명(馬兵 714, 步兵 3,514)이다. 標下軍 중 우선 馬兵을 살펴보면 총수는 714명인데 크게 左·右別將 소속으로 구분(左別將 소속 4哨, 右別將 소속 3哨)되어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左別將 소속군 458명(內 別將 1 - 標下軍 18, 前哨官 1 - 標下軍 109, 左哨官 1 - 標下軍 109, 右哨官 1 - 標下軍 109, 後哨官 1 - 標下軍 109)과 右別將 소속군 348명(內 別將 1 - 標下軍 18, 前哨官 1 - 標下軍 109, 左哨官 1 - 標下軍 109, 右哨官 1 - 標下軍 10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步兵을 살펴보면 총수는 3,514명인데 左·中·右部 밑에 각각 左·右司가 소속되어 있고,

36) 『孝宗實錄』 권12, 4년 2월 11일 壬申.

37) 『忠淸兵營所管各城鎭編伍軍摠成冊』에 기재된 군병내역을 『輿地圖書』(18세기 중반) 및 『湖西邑誌』(19세기 후반)와 비교해 보았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점을 미루어 보아 동 사료는 19세기 전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각주 40 참조)

다시 그 밑에 左·右司 別로 4개의 哨(前·左·右·後哨)로 구성되어 있다. 步軍 1哨는 哨官 1인과 標下軍 1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別將·千總·把總 아래에는 別도의 標下軍이 20~30여 명이 있다. 이어서 大旗手哨官 標下軍 101명, 吹鼓手哨官 標下軍 80명과 營장 휘하의 標下軍 250명(軍務兵房 1, 討捕兵房 1, 知穀官 1, 旗鼓官 1, 旗牌官 58, 軍務軍官 50, 討捕軍官 30, 前部軍 11)의 내역이 있다.

충청병영 편제의 특징은 馬兵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속 城鎮 標下軍의 마병 비율은 15%내외였는데, 당시 마병 육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비중이다. 특히 해안지역의 진영보다는 내륙요충지인 청주진·충주진·상당산성의 마병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³⁸⁾ 아울러 충청병영 성진의 마병부대에서는 소대급 지휘관인 旗總을 正將으로, 분대장급 지휘관인 隊長을 領將으로 불렀다. 이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편제상의 특징이다.³⁹⁾ 본래 속오법의 근간이 되는 紀效新書에는 왜적방어에 중점을 둔 三手兵만 편제되어 있었지 마병은 편제되어 있지 않았다. 16세기 이후 여진족이 급성장하면서 조선에 큰 위협이 되자 마병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여진족은 왜군과는 달리 기마전술을 구사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마병의 양성이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특징은 조선후기 방어 전략이 禦倭에서 防胡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⁴⁰⁾ 충청병영 소관 전체 성진의 군병내역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38) 충청병영 소속 성진의 표하군 내역 및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忠淸兵營所管各城鎮編伍軍總成冊』)

상당산성 (3,356명)		우영 공주진 (4,155명)		중영 청주진 (4,228명)		좌영 해미진 (3,879명)		전영 홍주진 (4,395명)		후영 충주진 (4,130명)	
마병	보병	마병	보병	마병	보병	마병	보병	마병	보병	마병	보병
960 (29%)	2,394 (71%)	528 (13%)	3,627 (87%)	714 (17%)	3,514 (83%)	432 (11%)	3,447 (89%)	412 (9%)	3,983 (91%)	617 (15%)	3,513 (85%)

39) <<국방일보>>, 2010년 4월 13일자, 「청영병제총록」.

40) 김중수, 『조선후기 중앙군제 연구 : 훈련도감의 설립과 사회변동』, 해안, 2003, 89~91쪽.

〈丑 1〉 忠淸兵營 所屬 各 城鎮의 軍兵⁴¹⁾

진영(편제)	군 병 종류 및 수
本營 (총 792명)	○ 將官 : 兵馬節度使 1 ○ 將校 : 知穀官 2, 旗鼓官 21, 吹鼓手哨官 1, 侍變軍官 134, 訓導 2, 大旗手哨官 1, 教鍊官 2, 把總 1, 哨官 3 ○ 衙前 : 鎮吏 53, 通引 20 ○ 工匠 : 冶匠 66, 冊匠 13, 梳省匠 12, 筒箇匠 21, 漆匠 5, 皮匠 10 ○ 留防軍 : 旗總 5, 旗手 80, 旗手 40, 軍牢 80, 隊長 14, 火兵 28, 吹鼓手 64, ○ 奴婢 : 營奴 20 ○ 기타 : 馬頭 8, 藥漢 9, 書記 2, 廚役 2, 輻重 2, 隨率 22, 弓矢人 62, 馬丁 2
上黨山城 (총 3,485명)	○ 將校 : 別將 2, 把總 4, 哨官 24, 旗鼓官 99, 旗鼓官 2 ○ 軍卒 : 標下軍 3356
右營 公州鎮 (총 4,277명)	○ 將校 : 別將 2, 把總 6, 千摠 3, 哨官 29, 旗鼓官 2, 教帥 20, 旗牌官 60 ○ 軍卒 : 標下軍 4,155
中營 淸州鎮 (총 4,322명)	○ 將校 : 別將 2, 把總 6, 千摠 3, 哨官 33, 知穀官 1, 旗牌官 58, 旗鼓官 1 ○ 軍卒 : 標下軍 4,228
左營 海美鎮 (총 3,977명)	○ 將校 : 別將 2, 把總 6, 千摠 3, 哨官 27, 旗鼓官 2, 知穀官 2, 旗牌官 55, 教鍊官 1 ○ 軍卒 : 標下軍 3,879
前營 洪州鎮 (총 4,534명)	○ 將校 : 別將 2, 把總 6, 千摠 3, 哨官 32, 知穀官 2, 旗鼓官 4, 教帥 30, 旗牌官 60 ○ 軍卒 : 標下軍 4,935
後營 忠州鎮 (총 4,428명)	○ 將校 : 別將 2, 把總 6, 千摠 3, 哨官 31, 知穀官 1, 旗鼓官 1, 教帥 30, 訓導 10, 旗牌官 60 ○ 軍卒 : 標下軍 4,130

충청병영 관하의 군병 수는 산성의 경우 3,500여 명, 진영의 경우는 4,000~4,500여 명 정도이다. 이 같은 군병 수는 18세기 중반에 편찬된 『輿地圖書』와 19세기 중·후반에 편찬된 『湖西邑誌』에 기재된 軍額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본영의 군병 수가 유독 큰 차이를 보인다. 『輿地圖書』와 『湖西邑誌』에 기재된 충청병영의 군병 수가 4,200~4,300여 명인데 비해 『淸營兵制總錄』에 기재된 본영의 군병 수는 792명이다.⁴²⁾ 이는 위 두

41) 『忠淸兵營所管各城鎮編伍軍摠成冊』(규장각 4483)

42) 『輿地圖書』, 『湖西邑誌』, 『淸營兵制總錄』에 기재된 충청병영의 군병 수를 비교해 보면

자료에 기재된 군병 수보다 매우 적은 수치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新選軍과 主鎮軍 등의 親兵이 『淸營兵制總錄』에는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⁴³⁾

충청병영 관하의 전체 군병 수는 다른 하삼도 병영들에 비해 매우 적었다. 『輿地圖書』와 『完營兵制總錄』를 통해 下三道의 군병 수를 도표화 하면 <표 2>와 같다.

<표 2> 朝鮮後期 下三道 兵營의 軍兵 數⁴⁴⁾

兵營(소재지)	管下 軍兵 數
忠淸兵營(淸州) 총 29,359	本營 4219, 前營 4459, 左營 3967, 中營 4485, 右營 4297, 後營 4447 上黨山城鎮 3485
慶尙右兵營(晉州) 총 43,572	本營 8238, 中營 4030, 右營 4030, 左營 5363, 金烏山城鎮 3543, 禿用山城鎮 5757, 巖石山城鎮 1463, 鳥嶺山城鎮 1041, 上番軍 4939
慶尙左兵營(蔚山) 총 27,900	主鎮 4000, 中營 6546, 前營 7823, 後營 6439, 東萊鎮 1420, 架山鎮 1672
全羅兵營(康津) 총 44,090	本營 7487, 前營 7193, 左營 4999, 中營 6714, 右營 7642, 後營 5263 笠巖山城 2496, 金城山城 1572, 赤裳山城 724

충청병영의 군병 수는 경상우병영과 전라병영에 비해서는 매우 적고, 경상좌병영 보다는 약 3,000여 명 정도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상병영이

다음과 같다.

史料 名	前營	左營	中營	右營	後營	本營	上黨
輿地圖書	4,459	3,967	4,485	4,297	4,447	4,219	·
湖西邑誌	4,459	·	5,471	·	5,287	4,330	2,600
淸營兵制總錄	4,534	3,977	4,332	4,277	4,428	792	3,485

43) 『輿地圖書』에는 ‘牙兵元軍 1,158명·新選元軍 2,239명’, 『湖西邑誌』에는 ‘新選軍 3,040명·主鎮軍 824명’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만, 『淸營兵制總錄』에는 이들에 대한 기록이 없다.

44) 전라병영의 군병 수는 『輿地圖書』에 누락되어 있어, 전라병영의 편제와 군역을 기록한 『完營兵制總錄』을 참고하였음.

좌·우도로 나뉘어서 설치된 것을 감안하면, 하삼도 병영 중 충청병영의 규모가 가장 작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충청도가 경상도·전라도에 비해 면적이 좁고, 인구와 물산이 孱弱하였기 때문이다.⁴⁵⁾ 그러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충청도의 군사적 중요성이 반감되는 것은 아니다. 충청도는 서울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충청도의 군사력은 남쪽에서 올라오는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주 임무였다. 충청도가 돌파되면 도성을 방어하는 京軍이 직접 상대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청도의 군사적 중요성은 매우 컸다. 1888년 봄에 고종이 청주에 남쪽에서 올라오는 외적을 막으라는 뜻에서 鎭南營이란 이름을 하사하고, 정예 군영을 만든 사례는 충청도의 군사적 중요성을 잘 말해준다.⁴⁶⁾

〈표 2〉에서 보듯이 병영을 중심으로 한 하삼도 지역의 군사편제는 각기 달랐다. 이것은 조선의 지방군이 속오법에 기초하여 조직되었으나, 기효신서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 변용하였음을 말해준다. 충청병영 소관의 五鎭營 一山城의 체제도 충청도의 특성 및 편차를 반영한 특유의 編伍體制였다.

3) 機能 및 實態

병영의 주요 임무는 국방 및 체제유지와 관련된 것이었다. 충청병영 또한 군사적 기능이 본연의 임무였다. 조선후기 충청병영의 군사적 주 임무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영·호남에서 서울로 북상하는 外敵을 차단하는 것이다. 특히 영남에서 충청도로 올라오는 길목인 추풍령 방어가 강조되었다.

45) 『戶口總數』에 나타난 18세기 후반 하삼도 지역의 행정규모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道名	郡縣數	面數	郡縣當面數	面當戶數	面當口數	里數	郡縣當里數	里當戶數	里當口數
충청	54	569	11	390	1,526	7,865	146	28	111
경상	71	819	12	446	1,943	8,760	123	48	182
전라	56	775	14	412	1,575	11,767	210	27	103

46) 신영우, 앞의 논문, 2002, 33쪽.

숙종 32년(1706) 同知事 李寅燁이 “병영이 해미에서 청주로 이전한 것은 호서와 영남 사이에 위치한 추풍령을 방어하기 위한 것”⁴⁷⁾이라고 말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둘째, 수도 외곽의 방어이다. 병자호란 이후 충주진영과 청주진영은 南漢山城에서 멀리 떨어진 안동과 대구를 대신하여 남한산성에 소속되었다.⁴⁸⁾ 그러다가 효종 2년(1651)에 ‘멀리 떨어진 군대는 제 때 산성에 들어와 지킬 수 없으므로 경기도의 군병을 남한산성에 移屬시키자’는 건의에 따라 淸州鎭 군병 2,289명 대신 竹山鎭 군병 1,504명을 남한산성에 소속시켰다.⁴⁹⁾ 이때 청주진영이 남한산성 소속 진영에서 제외되었지만, 유사시 충청병사가 청주진영의 군병을 이끌고 남한산성의 방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⁵⁰⁾ 이로 보아 충청병영도 조선후기 수도외곽 방어 및 왕의 피난처를 수호하는 임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속오군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던 충청도 군사편제는 조선후기 오랜 평화와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변질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유사시에 대비한 習操의 축소 및 변질이다. 정조대에 오면 지방군의 근간인 속오군 습조 정지가 상례화 되고, 습조의 정지 대신 이루어지던 ‘官門聚點’은 속오군의 요역 동원을 위한 장치로 변질된다. 정조대 충청병영에서 시행한 습조 현황을 표로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표 3> 正祖代 忠淸道 地域의 習操 現況⁵¹⁾

구 분	봄		가을	
	合同 訓練	營將 巡歷	合同 訓練	營將 巡歷
습조 기간(年)	24	24	24	24
미확인	1	9	·	9
시행	·	1	2	·
정지	23	14	22	15
정지 비율(%)	96	59	92	63

47) 『備邊司謄錄』, 숙종 32년 9월 6일.

48) 『孝宗實錄』 권6, 2년 6월 3일 戊申.

49) 『孝宗實錄』 권7, 2년 7월 26일 辛丑.

50) 『備邊司謄錄』, 효종 5년 6월 3일.

51) 김우철, 『조선후기 지방군제사』, 경인문화사, 2001, 216쪽 참조.

〈표 3〉을 보면 정조 대 충청병사가 주관하는 충청도 지방군의 合同訓練 정지비율이 봄에는 96%, 가을에는 92% 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습조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시행한 영장 순력의 정지비율도 60% 내외로 매우 높다. 즉 군사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다. 군사훈련의 빈도 및 강도가 줄어들었다면 지역민들의 속오역 부담도 줄어들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속오역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조련 정지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한 ‘관문취침’이 堤堰役과 같은 요역 동원장치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속오역은 賦役化되기 시작하였다. 지방의 속오군이 부역화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이유는 조선후기 移秧法의 보급으로 수리시설의 확충이 우선시되었기 때문이다. 즉 수리시설을 수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였는데, 이러한 인력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조직적으로 군사체제에 편성되어 있는 속오군 밖에 없었다.⁵²⁾ 두 번째 이유는 18세기 避役과 代立으로 인해 각종 役事의 부역 노동이 고용 노동으로 전환된 사정 때문이다.⁵³⁾ 즉, 비용 절감을 위해 군에 편제되어 있는 속오군을 동원하였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속오군으로 구성된 지방군의 부역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었고, 지역민의 부담은 가중되었다.

18세기 이후 충청병영은 군사적 활동보다 치안 및 체제유지 활동에 더욱 치중한다. 양란 후 오랜 평화가 유지되면서 捕盜廳과 같은 별도의 치안기구 없는 지방에서는 지방군영이 그 기능을 대신하였기 때문이다. 충청병영도 치안유지, 대민지원 등 조선왕조의 체제 유지에 활용되었다. 실제 도둑체포, 異樣船에 대한 대처⁵⁴⁾, 호랑이 포획⁵⁵⁾, 천주교도 체포⁵⁶⁾ 등의 치안유지와 失火로 인한 피해복구⁵⁷⁾ 등 대민지원에 충청병영의 군사가 활용된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 19세기 충청병영을 비롯한 지방군의 치안기능이 대

52) 최원규, 「조선후기 수리기구와 경영문제」, 『국사관논총』 39, 1992, 국사편찬위원회, 231쪽.

53) 윤용출, 『조선후기의 요역제와 고용노동』, 서울대 출판부, 1998, 24-25쪽.

54) 『忠淸兵營關子騰錄』(규장각 15121)

55) 『備邊司騰錄』, 숙종 25년 11월 12일.

56) 조광, 「19세기 해미지방에서의 서학신봉」, 『소헌남도영박사고회기념역사학논총』, 민족문화사, 1993, 578쪽 ; 뒤뜰 외, 『致命日記』, 1895, 성 황석두루가 서원, 5-6쪽.

57) 『忠淸兵營關子騰錄』(규장각 15121)

폭 강화된 이유는 대외적으로는 청과의 전쟁 위험이 감소하였고, 대내적으로는 정부의 賦稅收奪 및 농촌사회의 분해과정에서 몰락한 민의 불만이 증폭되어 치안이 크게 동요되었기 때문이다.⁵⁸⁾

충청도의 각 진영들은 기본적으로 主鎮인 병영의 지휘 및 통제를 받았다. 그러나 진영의 토포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병영과 진영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 처음에는 지방군영이 토포 기능을 수행할 때 병사로 하여금 수령을 통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⁵⁹⁾ 그러다가 현종 6년(1665)부터 토포사의 임무를 진영의 책임자인 영장이 대부분 담당하게 됨⁶⁰⁾으로써 진영의 지위 및 독립성이 향상되었다. 토포사는 병사와 동급인 堂上官⁶¹⁾이었기 때문에, 토포영을 겸한 진영은 감영·병영과 대등하게 상호 공문을 교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 볼 때 당시 병영과 진영은 軍務에 있어서는 상하관계를 이루었지만, 치안업무에 있어서는 대등한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군무와 토포라는 업무의 이중구조 속에서 상이한 지휘관계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런 특징은 충청도를 비롯한 하삼도에서 두드러진다. 본래 병영 및 수영은 虞侯가 토포의 책임을 주로 담당하였으며, 휘하에 討捕軍官·討捕兵房·捕校·捕卒 등이 소속되었다. 그런데 영장이 토포사를 겸임하면서부터 삼남의 병영에는 토포와 관련된 인원이 보이지 않고, 진영에서만 관련 인원이 발견된다.⁶²⁾ 실제 충청도의 경우 5鎮營에만 營將 標下軍 內에 토포 병방 1명과 토포군관 30명이 소속되어 있었다.⁶³⁾ 이것은 삼남의 영장이 토포사로서 지방의 치안을 담당⁶⁴⁾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진영 또한 토포와

58) 서태원, 『조선후기 지방군제 연구』, 혜안, 2002, 86쪽.

59) 『承政院日記』, 인조 16년 9월 7일 ; 『孝宗實錄』 권10, 4년 2월 19일 丙辰.

60) 『備邊司謄錄』, 현종 6년 11월 2일.

61) 『宣祖實錄』 권54, 27년 8월 22일 丁卯 ; 『英祖實錄』 권82, 30년 7월 17일 甲午.

62) 서태원, 위의 책, 2002, 78-79쪽 참조.

63) 『忠淸兵營所管各城鎮編伍軍摠成冊』(규장각 4483)

64) 서태원, 위의 책, 2002, 78-79쪽.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독립된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다음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영남 어사 심기태가 경주에 있으면서 체포의 기한을 어기었다는 이유로 영장 송응휴를 잡아다 치죄하려고 하니, 송응휴가 거절하고 따르지 않자 심기태가 장계를 올려 파직하였다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어사가 명을 받들고 나갔으니, 사체가 중하기는 하나 영장의 직책도 토포사의 명칭을 가지고 타도의 감영·병영과 상호 공문을 교환하고 있으니, 중군이나 우후와 같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중대한 군무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면 쉽게 잡아들일 수 없습니다 …… 임금이 이르기를, ‘어사가 한 일은 물론 선처했다고 할 수 없지만, 조정은 위계를 먼저 존중해야 한다. 영장은 이미 파직하였으니, 지금 논할 것은 없으나 어사 또한 처벌할 수 없다’ 하였다⁶⁵⁾

그러나 진관체제 속에서 병영의 節制를 받는 군사기구인 이상 중앙의 포도청과는 달리 진영은 완전히 독립된 치안기구로 존재할 수는 없었다. 다음이 사례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해미영장 李永喆, 충주영장 韓命祺 등을 본도의 병사로 하여금 곤장을 치도록 명하였는데, 대사간 金履禧가 상소한 것을 인하여 도적을 잘 다스리지 못한 영장을 거듭 신칙하여 살피게 한 것이었다⁶⁶⁾

위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영장에 대한 처벌권과 지휘권은 병사에게 있었다. 결론적으로 조선후기 토포 기능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던 기구는 진영이었지만, 이들을 節制하여 책임을 진 기구는 병영이었다. 충청병영과 충청도 5진영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그 중에서도 청주진영은 軍務는 물론 토포와 관련해서도 충청병영의 직접적 지휘를 받았다. 청주진영은 中營으로서 병영과 함께 청주에 소재하였기 때문에 다른 4진영에 비해 병사의 직할 병력

65) 『正祖實錄』 권15, 7년 6월 9일 己巳.

66) 『正祖實錄』 권35, 16년 5월 22일 己未.

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했다.⁶⁷⁾ 숙종 대 효율적인 추풍령을 방어를 위해 西原(청주) 영장을 추풍령에 가까운 옥천으로 잠시 옮겼으나, 유사 시 병사가 영장을 즉시 호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청주로 還設시킨 사례⁶⁸⁾를 통해 청주진영이 병사의 직할 병력으로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영장이 토포사를 겸한 이후 병영과 진영의 관계는 軍務적으로는 상하의 지위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토포와 관련해서는 독립적인 권한 및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기능에 따라 또는 현실적 여건에 따라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이중적 관계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군사체제와 행정체제가 분리되지 않았던 당시 통치구조의 모순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3. 財政과 그 運用

1) 財政 現況

충청병영의 이설과 병사의 목사 겸임으로 인해 병사의 支供 및 병영 官需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조정에서는 병사가 官供 없이 軍布로 재정을 꾸려 나갈 때 보다 군졸들을 착취하는 폐단⁶⁹⁾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병영 이설과 병사 겸목은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병영의 營屬·下人·家舍·田畓이 모두 해미에 있는 관계로 왕래하면서 入役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영속이 上番·下番으로 왕래하게 되면서 나타난 각 읍의 폐단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⁷⁰⁾ 게다가 병사와 목사를 겸임 이후 군병의 3분의 2를 병조에 속하게 하여 군병 수를

67) 서태원, 「조선 후기 청주진영 연구」, 『호서사학』 42, 호서사학회, 2005, 62쪽.

68) 『備邊司謄錄』, 숙종 11년 9월 4일 ; 『備邊司謄錄』, 숙종 13년 8월 13일.

69) 『孝宗實錄』 권8, 3년 2월 6일 戊申.

70) 『備邊司謄錄』, 효종 8년 9월 21일.

줄였으며, 노비 또한 50명에서 20명을 떼어 해미에 지급하였기 때문⁷¹⁾에 부족한 재정과 인력의 부담은 청주목으로 돌아갔다. 이로 인해 청주목은 더욱 피폐해져 갔으며 결국은 “客에게는 생계를 의지할 만한 땅이 없고, 주인은 그에 따른 폐해를 받고 있어서 主客이 다 같이 곤란하다”라는 이유로 병영의 상당산성으로의 이설과 해미로의 還設이 논의되기도 하였다.⁷²⁾

그러나 병영의 이설 및 환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變通策으로 병영과 청주목을 따로 설치하여 겸임하던 것만 분리시켰다.⁷³⁾ 하지만 병사와 목사가 나누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를 겸하던 예전의 관습은 고질적인 폐단이 되었다. 그 폐단의 대표적인 것들로 병영에서 사용되는 柴草와 氷丁의 進拜·병영 수리 등의 부역 동원·茶母 등의 노비 충원·백성의 전결로 숯 마련·병영 진상물의 加米·병영 소속인원 별도 모집·병영의 知印과 羅將의 하인을 충원 및 배정 등이 있었다.⁷⁴⁾ 이 때문에 청주목의 형편은 더욱 곤궁해지고 다급해져 갔다.

충청병영 이설 후 많은 재정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병사의 권한과 업무는 증가했다. 이 때문에 병영의 재정 증가를 수반하는 요인들이 점점 늘어났는데, 이는 조선전기와는 다른 재정구조를 형성하게 하였다. 조선전기 병영의 재정은 주로 官屯田과 貢物로 구성되어 있었다. 自耕無稅地인 관둔전을 소속 군병의 노동으로 경작하여, 그 수입으로 軍糧, 兵器, 什物, 公廩修理 등 각종 경비를 마련하였다. 그 밖에 官과 郡縣에서 바치는 공납으로 각종 수용품을 조달하였다. 또한 노동 용역은 營吏, 營隸, 匠人을 비롯한 丁役 부담자와 軍役 부담자가 제공하는 신역으로 충당하였다.⁷⁵⁾ 그러나 조선후기의 병영 재정은 중앙 재무기관이 일괄적으로 재원을 징수하여 병영에 재분배하는 구조와 병영 스스로 수취하여 재원에 충당토록 하는 구조가

71) 『備邊司謄錄』, 효종 3년 9월 13일.

72) 『備邊司謄錄』, 효종 7년 12월 12일

73) 南九萬, 『藥泉集』 제4권, 疏筭 淸州陳弊疏(남구만이 경술년(1670, 현종 11) 12월 청주목사로 재임 중 작성); 『備邊司謄錄』, 효종 8년 9월 21일.

74) 南九萬, 『藥泉集』 제4권, 疏筭 淸州陳弊疏.(남구만이 경술년(1670, 현종 11) 12월 청주목사로 재임 중 작성)

75) 김옥근, 『조선왕조 재정사 연구』, 일조각, 1984, 109쪽.

중첩·병행되었다.⁷⁶⁾ 이러한 큰 틀 속에서 충청병영의 재정도 같은 방식으로 운용되었는데, 주요 재원은 結役, 身役, 還穀利子 등이었다. 충청병영의 전반적인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忠淸兵營의 財政現況⁷⁷⁾

財政項目		규모	사용 내역	비고
結役	需米	500石	虞侯給料: 41石9斗 裁減: 57石4斗5升8分 병영경비: 401石1斗5升	○ 청주목에서 부담
	雜米	450石	虞侯給料: 64石10斗3升 裁減: 해마다 다름 병영경비: 잔액 사용	
身役	新選軍錢	3040兩(608石) ⁷⁸⁾	將士 給料	○ 각 읍에서 한사람 당 1兩씩 수취 ○ 6번으로 나누어 매달 초하루 640~650兩 상납
	主鎮軍錢	824兩(164石8斗)	將士 給料	
還穀	上黨軍餉米	2928石7斗5升	耗穀 병영경비	○ 上黨軍餉米: 1000穀 보관, 나머지 분급, 戶曹에 보고 ○ 盡還米: 청주목의 東州·西州·南州·北州에 분급, 戶曹에 보고
	賑還米	491石3斗8升8合4勺	耗穀 병영경비	

위 표에서 보듯이 충청병영의 재정은 청주목으로부터 올라오는 結役收入(營需米, 營雜米), 충청도 각읍에서 올라오는 身役收入(新選軍錢, 主鎮軍錢), 그리고 還穀收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전체 재정규모는 결역 950石, 신역 3,864兩(772石8斗), 환곡 3,420석1두3승8합4작이다. 『湖西邑誌』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각종 雜稅 및 공납 등의 수입을 더한다면 재정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76) 손병규, 「조선 후기 재정구조와 지방 재정부영 : 재정 중앙집권화와의 관계」, 『조선시대사학보』 25, 조선시대사학회, 2006, 137-138쪽.

77) 『湖西邑誌』, 忠淸兵營 事例.

78) 米換算은 『賦役實總』 환산가에 준하여 1錢=0.2石으로 하였음.

이 가운데 결역에 해당하는 兵營需米와 雜米는 청주목에서 모두 수납하였다. 본래 병영의 官需는 관둔전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관둔전이 복구되지 않아 儲置米로 채웠는데, 실상 대동미의 대부분은 중앙으로 상납되었기 때문에 재정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⁷⁹⁾ 결국 소재지인 청주목의 부담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 같은 사정은 『湖西邑誌』 「忠淸兵營 事例」의 충청병영 세입내역과 『賦役實總』 「忠淸道 淸州」의 청주목 세출내역을 비교해 보면 뚜렷이 드러난다. 즉 병영에서 받는 官需米 500석과 雜米 450석이 청주목에서 병영으로 지출되는 結役 부담액과 일치하고 있다.⁸⁰⁾ 한편 청주목에서는 淸州鎭營과 本官의 재정도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부담액은 청주진영 49석 13두 8승, 청주본관 400석이다.⁸¹⁾ 그러나 충청병영에 대한 부담액보다는 매우 적은 양이었다.

신역에 의한 수입은 軍役負擔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비용은 충청병영에 속한 각 읍진에서 한 사람당 1냥 씩 收捧하였다. 당시 충청병영 소속의 군역 부담자가 대략 4,000명 정도였음을⁸²⁾ 감안하면, 신역수입은 약 4,000냥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7세기 후반에서 19세기 후반에 이르는 기간에는 충청도 전체 군역자원에 많은 변동이 있었다. <표 5>를 살펴보도록 하자.

79) 송찬섭, 앞의 논문, 1990, 207쪽.

80) 『湖西邑誌』, 忠淸兵營 事例 ; 『賦役實總』, 忠淸道 淸州.

81) 『賦役實總』 忠淸道 淸州.

82) 『湖西邑誌』, 『良役實總』에 기재된 충청병영 소속의 군역부담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군병 종류 및 수	총 액
양역실총	新選軍 3,277명, 主鎭騎兵 893명	4,170명
호서읍지	新選軍 3,040명, 主鎭軍 824명	3,864명

〈표 5〉 朝鮮後期 忠淸道 軍役資源의 變動 現況

	戶數	口數	男口數	軍摠	軍摠/戶數	軍摠/男口數
17세기후반(興地書)	239,163명	972,233명	491,293명	119,743명	50.17%	24.37%
18세기후반(興地圖書)	214,970명	.	381,875명	135,148명	62.87%	35.39%
19세기후반(大東地志)	216,306명	.	.	183,766명	84.96%	.

조선후기 충청도의 군역부담 추세를 살펴보면 17세기 후반 숙종 초에는 戶數當 軍摠率이 50.17%, 男口數當 軍摠率이 24.37%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18세기 후반 영조 41년 시기에는 호수당 군총 비율이 62.87%, 남구수당 군총비율이 35.39%로 증가된 현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에는 호수당 군총비율이 84.96%로 영조대의 군역 부담률보다 많은 상승폭을 보인다.⁸³⁾ 이는 당시의 군정문란과 직결된 현상으로 풀이된다. 조선후기 군역은 군현을 단위로 호구와 남구 수를 감안하여 균등하게 부과되었는데, 일단 군역이 책정되면 거의 변동 없이 고정된 액수를 유지해야만 했다. 그런데 死亡·逃亡·除役·他鄉移居와 같은 군역자원의 변동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일정한 軍役稅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共納制 방식을 취해 그 闕額을 충당하였다. 이 때문에 일정한 군역 내의 군역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잔여 양정들에게는 그만큼 과중한 군역부담이 돌아오게 되고, 군역세 징수 과정에서 黃口添丁·族徵·隣徵과 같은 양역폐가 발생하였다. 즉 19세기 후반 충청도 지역은 군역부담이 과중한 軍多民小의 폐가 만연하였던 것이다.

특히 청주·영동·황간·목천·한산·대흥·아산·평택 등의 병영 및 진영 주변의 읍들이 과중한 군역부담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 청주목은

83) 김진봉·차용걸·양기석, 「조선시대 군역자원의 변동에 관한 연구 : 호서지방의 경우를 중심으로」, 『호서문화연구』 3, 호서문화연구소, 1983, 93~103쪽 ; 이강길, 앞의 논문, 2004, 127~131쪽 참조.

병영의 전체 신역수입 4,864냥 중 약 20%에 해당하는 약 940냥을 부담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정은 헌종 5년 忠淸左道 暗行御史 任百經이 ‘청주는 군역의 태반이 虛名에다 逃故者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良丁 實應役者의 절대부족이 良役弊의 근원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한 내용에서 잘 드러난다.⁸⁴⁾

이러한 모습은 이 시기 군역이 사실상 허구화된 채 납포군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방군의 주요 병종인 新選軍 및 正兵의 番價가 전체 세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은 충청병영의 기능이 점차 군사적인 측면에서 재정적인 측면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충청병영은 軍餉穀인 上黨山城米와 일반 환곡인 賑運米를 분급한 후, 그 耗穀을 재정운영에 활용한 듯하다. 상당군향미는 上黨軍餉穀·上黨僧倉軍餉穀·上黨軍需米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상당군향곡은 康熙 更子年(숙종 46, 1720년)에 인근 楊津·貢津·安興의 군량미를 移劃받아 청주에서 수취한 세금과 합하여 설치하였고, 상당승창향곡은 擁正 癸丑年(영조 9, 1733년)에 監賑御史가 쓰고 남은 空名帖을 僧徒들에게 내어 준 후 공명첩을 쌀로 바꾸어서 설치하였으며, 상당군수미는 乾隆 壬戌年(영조 18, 1742년)에 兵使 韓範錫이 별도로 돈 1,000냥을 만들어 설치하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환곡의 이자를 城內 壯士들의 支放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며, 비변사에서 관리하였다는 점이다. 아울러 일반 환곡인 進환米(忠淸兵營還米)는 乾隆 庚辰年(영조 36, 1760년)에 兵使 趙啓泰가 常賑穀 일만 석(米 4500석, 太 1000석, 租 4500석)을 획득하여 설치하였다. 이 또한 營 재정의 위축 및 支放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⁸⁵⁾

군향곡의 운용방식에서 눈여겨 볼 점은 산당산성미 전체 2,928石7斗5升 중 1,000석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분급하였다는 점이다. 즉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半留半分の 원칙을 깨고 一留二分으로 운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군향곡의 성격이 점차 재정보충 재원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관리

84) 『憲宗實錄』 권6, 5년 7월 12일 乙巳.

85) 『穀總便考』, 忠淸道.

기관이 최초 備邊司에서 19세기 이후 戶曹로 변경되었다는 점도 이러한 성격 변화를 반증한다. 그리고 상당군항미가 원칙적으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군량미였다면 충청병영환미는 흉년에 기민을 구제하기 위한 賑恤穀이었다.⁸⁶⁾ 그러나 이 또한 병영의 부족한 支放을 메우기 위해 轉用되고 있었다. 이렇듯 환곡이자가 병영 재정에서 주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배경은 18세기 말부터 진행된 환곡의 부세화에 있다.

이상 충청병영의 대부분 재원은 虞侯와 장사들의 급료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支放의 성격 자체가 영 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要諦였음을 의미한다. 즉, 고정된 액수의 軍官 및 下吏 외에 다양한 軍務 종사자의 料米 · 料資의 충당과 매사 돌아가면서 付番하는 流動 軍摠의 안정적 유지는 병영운영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들 군병에게는 料米가 그들의 日用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곡물이 여타의 물종보다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⁸⁷⁾

충청병영은 소재읍인 청주목과 병영 소속 읍들로부터 크게 결역 · 신역 · 환곡 등을 통해 재정을 얻었다. 특히 군항곡과 기타 兵營穀을 확보 후 이를 각 읍에 분급하여 얻은 그 이자으로써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支放의 資金으로 활용하였다. 이것은 충청병영 재정운용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忠淸兵營穀의 變化 및 軍餉穀의 弊端

충청병영의 환곡은 재정적 상황 및 필요에 따라 증가 및 감소하였다.⁸⁸⁾ 그 추세를 살펴보면 18C 중반부터 19C 초까지 급격히 환총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급격히 환총이 감소한다.⁸⁹⁾ 18세기 중반 이후 환총이 증가한

86) 『公忠兵營重記』(순조 33, 1833년); 『湖西兵營重紀』(고종 12, 1875년).

87) 김현구, 「조선후기 통계영의 재정운영에 관한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1994, 63쪽.

88) 오일주, 「조선후기 재정구조의 변동과 환곡의 부세화」, 『역사와실학』 3, 역사실학회, 1992, 81쪽 참조.

89) 18~19세기 중반까지의 충청병영 환총 변화 액을 간략히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穀簿

이유는 당시의 전반적인 재정상황에 起因한다. 영조 대에는 時起結의 축소로 인해 전세 및 대동미 수입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조와 宣惠廳의 지출은 증가되어 재정수지가 악화되었다. 선혜청은 대동미의 수입 감소를 지방 留置分을 줄이고 중앙 상납을 증가시키므로써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지방 관청에서는 부족해진 재정을 메우기 위해 환곡을 크게 활용하였던 것이다. 균역법 실시 직후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減匹로 인한 재정결손의 給代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오히려 중앙으로 會錄이 증가되어 지방재정이 압박을 받았던 것이다. 이때에도 지방 관청은 환곡의 모곡으로써 재정결손을 보충하였다.⁹⁰⁾ 충청병영도 대동 저치미의 부족과 균역법 실시로 인한 재정결손을 모곡으로써 보충하고자 했다. 실제 상당산성군향곡과 승창군향곡의 耗穀 대부분이 우후 및 장사들의 급료와 병영경비로 사용되었고, 軍器 마련 및 상당산성 改補修와 관련하여 군항미의 모곡 사용을 廟堂에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⁹¹⁾ 이로 인해 상당산성곡이 과다하게 분급되었고, 인근 고을의 백성들은 분급된 상당산성곡의 모곡을 갚느라 많은 고충을 겪어야만 했다.⁹²⁾ 그런데 모곡을 받아 이용하는 과정에서 耗의 일부는 병영운영 경비로 사용하였지만, 일부는 다시 원곡이 되어 합해지니 還摠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19세기 이후 분급률 증가와 용도 변경으로 인해 환충은 급격히 감소한다. 원래 환곡은 원곡의 절반만을 분급하는 半留半分이 원칙이었고,

合錄], 『穀總便攷』, 『萬機要覽』, 『公忠兵營重記』, 『湖西兵營重記』 참조)

1776(穀簿合錄)		1797(穀總便攷)		1808(萬機要覽)		1833(公忠兵營重記)		1875(湖西兵營重記)	
軍餉	兵營米	軍餉	兵營米	軍餉	兵營米	軍餉	賑恤	軍餉米	賑還米
13,065석	2,979석	17,010석	7,832석	19,833석	7,899석	16,200석	977석	2,928석	491석3

90) 오일주, 위의 논문, 1992, 86쪽.

91) 『備邊司謄錄』, 영조 5년 10월 22일 ; 『備邊司謄錄』, 영조 34년 7월 19일 ; 『備邊司謄錄』, 영조 35년 3월 22일 ; 『備邊司謄錄』, 영조 37년 4월 10일 ; 『備邊司謄錄』, 영조 37년 4월 15일 ; 『備邊司謄錄』, 영조 38년 6월 12일 ; 『備邊司謄錄』, 영조 39년 12월 19일.

92) 『備邊司謄錄』, 영조 35년 11월 3일.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반도록 되어 있었다.⁹³⁾ 그러나 이것은 원칙일 뿐이고, 실제로는 改色·半留半分·定式分給·二留一分·一留二分·一留三分·盡分 등 제 각기 운영되었다. 충청병영 또한 상당군향곡은 반류반분·상당승창군향곡은 일류이분으로 운영되었고, 상당군수미와 병영환미곡은 진분으로 운영되었다.⁹⁴⁾ 그런데 상당군향곡과 상당승창군향곡은 備邊司句管穀으로서 설치목적이 긴급한 일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일정한 留庫가 전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들어서면서 상당군향곡의 분급률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加分때문이었다. 원래 가분은 “흉년 등으로 從量이 넉넉하지 못할 때 감사가 중앙에 요청하여 허락받아”⁹⁵⁾ 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충청병영은 상당산성의 수축 및 개보수 등 많은 물력이 필요할 때나, 군포로 인한 수입이 부족할 때마다 재정 보전을 위해 수시로 군향곡의 가분을 요청하였다.⁹⁶⁾ 그런데 분급률이 점점 높아질수록 19세기 이후 충청병영 군향곡의 元穀은 점점 감소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未捧되는 액수와 逋欠으로 인한 虛留가 점점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원래의 용도와 사용규칙을 벗어난 병영곡의 운용실태는 악순환 되던 19세기 재정상황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병영곡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것은 군향곡이었다. 이 때문에 충청병영에서는 군향곡의 변동에 따라 전체의 재정변화가 일어났으며, 그 폐단은 일반 환곡보다 심하였다. 본래 양란을 겪으면서 山城의 곡식이 전쟁에 대한 對備가 되는 것을 보고, 군향곡에 대한 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전쟁 없는 평화시대가 지속되면서 군향곡은 변질되어 민폐가 되었다. 산성 所在의 군향곡은 산성 주위의 여러 읍에서 읍민을 보내어 환곡을 받아다가 나누어 주게 하였고, 읍민들은 별도로 사람을 파견하여 산성에 가서 환곡을

93) 『續大典』, 戶典 倉庫.

94) 『穀總便攷』, 忠淸道.

95) 『萬機要覽』, 糶糴.

96) 『備邊司謄錄』, 영조 34년 7월 19일 ; 『備邊司謄錄』, 영조 37년 4월 10일 ; 『備邊司謄錄』, 영조 38년 3월 22일 ; 『備邊司謄錄』, 영조 38년 6월 12일 ; 『備邊司謄錄』, 영조 39년 12월 19일 ; 『備邊司謄錄』, 영조 41년 8월 17일 ; 『備邊司謄錄』, 순조 9년 4월 2일 ; 『備邊司謄錄』, 순조 9년 12월 24일.

받아다가 곧바로 산성 밑 가까운 촌락에서 팔아서 作錢하게 하였다. 그리고 가을에 또 사람을 파견하여 돈을 지고 산성 밑에 가서 곡식을 사서 수납하게 하였다.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운반에 어려움을 겪자 防納의 폐단까지 발생하였다. 이런 폐해는 군항을 둔 병영의 소재지에서 더욱 크기 마련이었다.⁹⁷⁾

앞서 보았듯이 19세기가 진행되면서 환충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환곡 부담의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 군항은 정해진 액수가 있었기 때문에 줄어든 만큼 본래 액수를 채워야 했기 때문이다. 충청병영에서는 줄어든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중앙에 군항곡의 가분 요청을 계속함으로써 분급률을 점차 증가시켰다. 이러한 사정은 순조 9년(1809) 公忠兵使 崔朝岳이 비변사에 올린 狀啓에 잘 나타나 있다. 내용인, 즉 “新選軍錢 停退의 數가 3000냥이나 되니, 이를 채우기 위해 예전과 같이 상당산성의 留庫米 중 500석을 특별히 대출하여 가을에 곡식 대신 돈으로 받아 숫자를 채우고자 한다”는 내용이다.⁹⁸⁾ 그런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도 군량미 대출이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가분이 이미 보편화 된 것 같다. 순조 33년(1833년)에 작성된 『公忠兵營重紀』의 軍餉庫 자료를 정리 해보면 <표 6>과 같다. 이를 통해 19세기 이후의 충청병영 군항곡의 분급실태를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6> 忠淸兵營 軍餉穀의 分給 및 加分 實態

(단위 : 石-斗-升-合-勺-厘-分)

種 類	穀 總	舊還(未捧, 仍停 등)
軍餉米	5650-8-4-1-4-2-1	5539-12-9-65-8 (己丑未捧米) 719-3 (壬辰除耗停退米) 176-14-3-5 (乙酉除耗停退米) 16-6-5-28-3 (乙酉除耗仍停米) 16-6-5-28-3 (乙巳除耗仍停米)
軍餉太	886-7-2-5-5-3	970-1 (壬辰除耗停退太) 147-7-6-6-5 (乙酉除耗仍停太) 8-1-3-1 (乙巳除耗仍停太)

97) 丁若鏞, 『牧民心書』 戶典 6條, 1818.

98) 『備邊司謄錄』, 순조 9년 12월 24일.

常賑貸割太	8805-13-6-6	372-1-1-8-9 (乙丑未捧太)
守成米	89-8-2-3-7	41-9-3-3-2-2 (己巳除耗仍停米)
僧軍餉米	424-7-3-2-8-4-8	41 (壬辰除耗停退米) 7-1-8-7-5 (乙酉除耗仍停米) 4-8-8-4-9 (己巳除耗仍停米)

『公忠兵營重記』로는 정확한 분급액과 분급률을 알 수 없다. 그러나 舊還(未捧, 仍停 등)⁹⁹⁾에 대한 액수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 대략적인 분급액을 추정 해볼 수는 있다. 收捧하지 못한 액수가 크면 클수록 분급 액수도 클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표 6>을 보면 기축년(1829년)의 군향곡 未捧米는 1833년의 軍餉米의 총액과 거의 비슷하며, 임진년(1832년)의 除耗停退太는 1833년의 軍餉太의 총액을 넘어서고 있다. 이것은 충청병영의 군향곡이 진분화 되었음을 의미하며, 운영이 극도로 어려웠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분급률의 증가는 환곡의 액수보다 留庫를 적게 하였고, 환곡의 폐단을 심화시켰다.¹⁰⁰⁾

분급률 증가와 함께 환곡 폐단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虛留穀 문제였다. 허류곡이란 환곡이 逋欠되어 원곡은 없어졌는데, 장부상에는 남아 있는 것을 말한다. 실제 壬戌農民抗爭 이후 釐政策으로 마련된 「三政釐政策」에서는 허류곡의急增과 그로 인한 白徵을 환곡 폐단의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었다.¹⁰¹⁾ 특히 충청도는 19세기 중엽에 들면서 환곡의 기능이 정지될 정도로 파행적이었다.¹⁰²⁾

『壬戌錄』 「釐整廳節目」의 기록을 보면 '충청도의 환총 60만 7,528석 가운데 虛留가 58만 4,178석이고 實留는 2만 3,350석'이라고 하였다.¹⁰³⁾ 이는

99) 停退 된 뒤 2년 후까지 못 받은 것을 구환이라고 하나, 각 도에서는 미·잉정·구환을 합하여 구환으로 계산하고 있다. 즉, 朝令이 있어서 정식으로 수봉이 보류된 환곡은 모두 구환으로 정한 것이다. (『四政考』, 還政攷 舊還 ; 오일주, 「앞의 논문」, 1992, 100쪽)

100) 송찬섭, 앞의 논문, 1990, 219쪽.

101) 『壬戌錄』, 釐整廳謄錄 還政.

102) 송찬섭, 위의 책, 2002, 251쪽 참조.

103) 『壬戌錄』, 釐整廳謄錄 壬戌 윤8월 19일

환곡의 약 96%가 허류로서 전라도(54%)와 경상도(56%) 보다도 절대적으로 높았던 수치이다.¹⁰⁴⁾ 이러한 상황 속에 충청병영의 산성군항미도 대부분 허류곡이었다. 이 같은 사정은 “산성의 군항미와 콩과 팥이 만 오천 석으로 되어 있으나, 거반이 장부상으로만 있는 虛數이다”¹⁰⁵⁾라고 한 기록에서 잘 드러난다.

환곡의 허류화가 심화되는 이면에는 환곡의 賦稅化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환곡의 모조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질수록 환곡의 허류화와 분급의 형식화는 급진전되었다. 이로 인해 19세기 이후 환곡은 더 이상 분급의 개념이 아닌 직접적인 부세의 형태를 보이게 된다. 충청도의 경우 19세기 이후부터 환곡이 거의 허류화되어 道 전체가 분급 없이 모조만 수취하였으며, 모조의 수취방법은 거의 結稅였다.¹⁰⁶⁾ 특히 청주지역은 軍布와 환곡 모두 結斂이었다.¹⁰⁷⁾

이렇듯 환곡이 부세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용되면서, 그 운영과정에서 吏胥層의 逋欠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 또한 원곡의 감소를 불러왔다. 이서층들은 부세수취의 실무자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환곡을 빼돌려 상업 활동을 하거나 高利代 資本으로 이용하여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였다. 이서층의 포획은 충청병영의 환곡 운영에서도 심각하였다. 특히 상당산성 군항곡의 운영에서 이서층의 포획은 매우 심하였다. 다음의 기록들에서 이 같은 상황을 잘 살펴볼 수 있다.

倉倉을 임용하는 예는 병영 解縣色으로 차출한 바, 해현색은 지극히 잔약한 자리인데 일 년을 근무하며 상환하지 못한 곡식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항곡을 농간을 부려 자기 빚을 갚는 자금으로 삼았으며, 돈놀이하는 것이

104) 송찬섭, 위의 책, 2002, 251쪽 참조.

105) 『柳河喆 記錄』(차용걸 외, 『상당산성 : 종합지표조사 및 문헌자료집』,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1999, 160-174쪽 수록)

106) 『日省錄』, 고종 1년 9월 13일. “每年耗作之出於結而納於公者 以錢以米各邑不同 …… 該道各邑排結便成流例”

107) 『日省錄』, 고종 1년 5월 12일. “本邑軍糶兩政 都歸於結”

이르지 않는 것이 없으니, 군향의 逋缺의 폐단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¹⁰⁸⁾

公忠監司 朴齊聞이 알려 온 狀啓를 보니 '생각건대 還鄕을 아직 바치지 못한 곳을 도회관으로 하여금 끝까지 조사하게 하였더니, 상당산성의 환향곡을 거두지 못한 것이 4,392석으로 이는 모두 吏胥輩와 중놈들이 포탈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¹⁰⁹⁾

포함은 환곡의 무리한 운영과 중간실무 층이 私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확대되었다. 포함이 쌓이면서 재정확보에 큰 문제가 생기자, 포함을 充緩할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 일반적으로 이용된 포함의 充緩方式은 '限年排捧'이었다.¹¹⁰⁾ 이는 還逋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몇 년간 시한을 두면서 이자를 동결시키고 분납하게 하는 조치였다. 특히 還布 가운데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에 대한 대책으로서 시행되었다. 국가에서는 오래된 환포를 收捧하고자 이러한 방식을 허용한 것이다. 한년배봉은 포함의 납부 기한을 늘려 준다는 의미와 일정한 기한 동안 모조를 면제해 주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除耗排捧'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¹¹¹⁾ 이와 같은 한년배봉의 방식은 환곡의 포함이 확대되는 19세기에 들어와 많이 행해졌다.¹¹²⁾

〈표 6〉을 보면, 충청병영의 군향곡도 을사년 이후부터 제한배봉이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역을 보면 軍餉米는 환총 약 5,650여 곡 중 총 미봉 액이 약 6,450여 석이고, 軍餉太는 환총 약 886여 석 중 미봉 액이 1,125여 석이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둘 다 제한배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봉된 액수가 920여 석과 1,125여 석으로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이는 제한배봉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충청병영은 군향곡의 부세화로 인해 나타난 포함을 充緩하려고 노력

108) 『柳河喆 記錄』(차용걸 외, 『상당산성 : 종합지표조사 및 문헌자료집』,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1999, 160-174쪽 수록)

109) 『備邊司謄錄』, 순조 30년 3월 20일.

110) 『備邊司謄錄』, 현종 3년 3월 11일. “近來糶法蕩然 穀輒有逋 逋輒請排”

111) 송찬섭, 앞의 책, 2002, 49쪽.

112) 『備邊司謄錄』, 순조 20년 10월 20일.

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이다. 결국 원곡의 감소·허류곡의 증가·백징 등 수취과정의 폐단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병영의 재정은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갔는데, 특히 병영 소재지인 청주와 인근 읍들이 더욱 큰 피해를 입었다. 더군다나 청주지역은 邑還·營還·城餉이 모두 각각 운영되어 백성들의 고충은 가중되었다.¹¹³⁾ 청주지역은 戶數에 비해 호서지역에서 가장 많은 환곡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19세기 환곡 문제는 1862년 농민항쟁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실제로 진주민란은 경상우병영의 환곡 부담의 不均과 결손된 환곡 포함이 읍민에게 부과되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었다.¹¹⁴⁾ 진주 이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환총의 과다(단성 : 10만 석·군위 : 87000석·함평 : 11만 석, 장성 : 13만 석)와 환곡의 포함(단성·군위·함평·상주·성주·홍양·진안·무주 등)이 농민항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충청도에서는 5월에 집중적으로 항쟁이 발생하였다. 농민항쟁이 일어난 지역은 대부분 병영과 감영이 소재하고 있는 청주와 공주 인근의 郡縣이었는데, 그 원인은 병영과 감영의 환포와 모곡의 결핍이었다.¹¹⁵⁾ 이는 당시 병영과 감영의 농민 收奪이 매우 심각했음을 보여준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후기 충청병영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병영의 이설배경, 군사편제 및 기능, 재정현황 및 운용실태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해 보면

113) 『純祖實錄』 권14, 11년 3월 30일 戊寅.

114) 송찬섭, 앞의 책, 2002, 161쪽.

115) 송찬섭, 「삼남지방의 민중항쟁」, 『한국사』 36, 국사편찬위원회, 1997, 277~299쪽 ; 오영교, 『조선후기 사회사 연구』, 혜안, 2005, 284~286쪽 ; 최진옥, 「1860년대의 민란에 관한 연구」, 『전통시대의 민중운동』, 풀빛, 1981, 280~383쪽 참조.

다음과 같다.

조선 초 잦은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해안가에 설치되었던 충청병영은 효종 2년(1651)에 충청병사와 청주목사의 겸임 시행과 함께 청주로 이설되었다. 이것은 도성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전면적인 군영의 재배치였으며, 호서지방의 역을 균등화하여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었다. 아울러 이설지로 청주가 선택된 이유는 첫째 청주는 충청도의 중앙이면서 삼남의 길목에 위치하여 영·호남의 두 길을 단속하기에 편하였고, 둘째 군사적 요충지로 주목받고 있는 상당산성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며, 셋째 미호평야와 오창평야 등에서 생산된 많은 곡물들이 군량미로 사용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즉 청주는 충청병영이 이설되기에 적합한 지리적·경제적·군사적 이점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충청병영이 이설됨으로써 '전영-홍주, 우영-공주, 좌영-해미, 중영-청주, 후영-충주'의 충청도 5진영 체제가 확립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상당산성과 함께 충청병영의 관할 하에 있었다. 소속 성진의 편오방식은 東五法에 기초하여 그 조직이 구성되었다. 前·後·左·右·中營의 기본적인 5鎭營制를 채택하고, 그 營 밑에는 각 司를 그 밑에는 다시 각 哨로 편제하였다. 이 편제의 큰 특징은 馬兵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속 城鎭 標下軍의 마병 비율은 15% 내외였는데, 당시 마병 육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비중이다. 특히 해안지역의 진영보다는 내륙요충지인 청주진·충주진·상당산성의 마병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울러 충청병영 성진의 마병부대에서는 소대급 지휘관인 旗總을 正將으로, 분대장급 지휘관인 隊長을 領將으로 불렀다. 이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편제상의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조선후기 방어 전략이 禦倭에서 防胡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군병 수는 산성의 경우 3,500여 명, 진영의 경우는 4,000~4,500여 명 정도였다. 이것은 하삼도 병영 중 가장 작은 규모였다. 그러나 충청도는 서울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남쪽에서 올라오는 外敵을 방어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충청도의 방비는 매우 중요했다. 1888년 봄에 고종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외적이나 병란을 막으라는 뜻에서 충청병영에 鎭南營이란 이름을 下賜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19세기 이후 충청병영은 군사적 활동보다는 치안 및 체제유지의 활동에 더욱 치중한다. 실제로 충청병영은 조선후기 도둑체포, 이양선에 대한 대처, 호랑이 포획, 천주교도 체포 등과 같은 치안활동을 통해 체제유지기구로 자리매김한다. 영장이 당상관인 토포사를 겸함으로써 치안유지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독립된 지위를 확보하였으나, 진관체제 속에서 병영의 절제를 받는 軍營인 이상 완전히 독립된 치안기구로 존재할 수 없었다. 즉, 영장에 대한 처벌권과 지휘권을 병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군사체제와 행정체제가 분리되지 않았던 당시 통치구조의 모순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18~19세기 충청병영의 재정구조는 결역수입(營需米·營雜米), 신역수입(新選軍錢·主鎭軍錢), 환곡수입으로 이루어졌다. 결역에 대한 官需는 관하읍인 청주목에서 모두 부담하였는데, 이로 인해 청주목의 재정부담은 매우 컸다. 그리고 신역에 대한 官需는 軍役負擔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충청병영에 속한 각 읍에서 收捧하였다. 충청병영의 軍額은 조선후기 군역을 부담할 수 있는 인구 및 호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00여 명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이는 군역폐단의 심각성을 말해 준다. 일정한 군액 내의 군역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잔여 양정들에게는 그만큼 과중한 군역 부담이 돌아오게 되고, 군역세 징수 과정에서 黃口添丁, 族徵, 隣徵과 같은 양역폐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환곡이자는 부족한 충청병영의 재정을 보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재원이었다. 그 중에서 군향곡의 비중이 가장 컸다. 따라서 군향곡의 변동에 따라서 재정의 변동도 일어났다. 조선후기 충청병영의 군향곡은 18세기 중반까지 급증하다가 19세기 접어들면서 급감한다. 군향곡의 가분에 의해 분급률이 높아짐으로써, 허류곡의 폐단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환충은 점차 허류화되고 분급 자체도 형식화됨으로써, 부세의 형태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환곡이 부세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용됨으로써 吏胥層 및

중간 기구의 逋欠도 증대했는데, 이는 병영의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였다. 이 때문에 병영은 포핍의 充緩을 위해 '限年排奉을 실시하였으나, 실효를 보지 못하였다. 결국 원곡의 감소·허류곡의 증가·수취과정의 폐단 등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갔다. 특히 병영의 소재지인 청주와 인근 읍들의 부담이 매우 컸다. 1862년 농민항쟁이 전국적으로 발발했을 때 충청도에서는 청주와 공주 인근의 郡縣에서 항쟁이 대부분 발생하였다. 이는 당시 병영과 감영의 收奪이 매우 심각했음을 보여준다.

18~19세기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 충청병영은 하나의 독립된 기구로서 자체적인 재정체계 및 수취체계를 형성하였다. 이것은 지역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통제수단 및 체제유지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군정과 환곡에 기반을 둔 병영의 재정운영은 삼정의 문란 속에서 심각한 폐단을 초래했다. 이것은 1862년 농민항쟁 시 청주 및 인근 읍의 봉기 원인이 되는 등 체제 붕괴의 단초를 제공했다.

최초 이 연구의 목적은 충청병영의 軍事 및 財政의 運用實態를 통해 병영의 운영원리를 究明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했던 필자의 욕심과 사료의 불충분으로 인해 구체적인 운영원리를 추출해내지 못한 채 평면적인 서술에 그친 것 같다. 특히 유관기관 간의 역학관계 및 지휘체계·소속 城鎮의 자세한 운영모습·구체적인 수입 및 지출 원리 등을 규명하지 못한 것이 끝내 아쉽다. 향후 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선후기 군제 및 재정 정책의 변화과정 속에서 각 도 병영들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듯하다.

(원고투고일 : 2012. 6. 14, 심사수정일 : 2012. 8. 10, 게재확정일 : 2012. 8. 14)

주제어 : 忠淸兵營, 兵營(兵馬節度使營), 兵使(兵馬節度使), 地方軍制, 地方財政, 軍役, 軍餉穀, 還穀, 農民抗爭, 淸州

<ABSTRACT>

The Organization and Finance of Chungcheong Byeongyeo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Yu, Dong-ho

Chungcheong Byeongyeong was reinstalled from Hae-mi to Cheongju in 1651. That was the total re-disposition of military camp to reinforce the defence of the main fort city, and a plan to stabilize finance in Hoseo area. After the reinstall, the military organization of Chungcheong province was changed into 5 camps and 2 mountain fort systems. The number of soldiers was the smallest among the three southern provinces, but it had an important mission to defend province against a foreign enemy from the south.

As the period of peace went on in Late Joseon Dynasty, the military function of Byeongyeong was diminished, and the function to keep the public peace got expanded. Actually Chungcheong Byeongyeong was positioned as an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system as it performed the missions for the public security like arresting thieves, management of the foreign ships from the western countries, catching tigers and arresting the catholics.

The financial structure of Chungcheong Byeongyeong in late Joseon consisted of Gyeol-yeok, Shin-yeok, and the income of Hwan-gok, and the last one was the biggest source of income. As the rate of distribution of Hwan-gok became higher after the nineteenth century, the abuse like a Heoryugok came up. As this Hwangok became a real tax, the abuse of the government official was increased. As the abuse was increased, Chungcheong Byeongyeong enforced the installment of paying tax. But it was not effective and the pressure from this went to local people directly. When the peasant protest broke up in 1862, most of the protests in

Chungcheong province occurred in the villages around Cheongju, it means that the financial running of Byeongyeong based on the military service and Hwan-gok was the cause of the break down of the local establishment systems because of the disrupted Sam-jeong, the three tax system.

Key Words : Chungcheong Byeongyeong(Chungcheong Military Barrack), Byeongyeong(a barrack for the army officer), Byeongsa(a army officer), Local Military Organization, Local Finance, Military Service, Goonhyanggok, Hwan-gok, peasant protest, Cheongju

16~17세기 近世 일본의 戰術과 조선과의 비교

노영구*

1. 序 論
2. 16세기 近世 日本 戰術의 변화와 歩兵化
3. 17세기 이후 일본의 전술과 군사조직 구성의 변화
4. 17세기 이후 조선의 전술 변화
5. 맺음말

1. 序 論

약 20년 전부터 한국과 일본 학계에서 16~17세기 近世 시기 군사사 연구에서 주요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 이전까지 한국과 일본의 군사사학계의 경우 군사와 관련된 적지 않은 연구가 나타났지만 군사사는 독자적인 역사학의 분야로 분명하게 자리잡지 못하였다. 이는 20세기 두 나라 사회가 겪었던 전쟁, 군사와 관련된 아픈 역사적 기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즉 태평양전쟁 이전 일본의 억압적인 軍國主義 체제와 해방 이후 상당기간 지속된 한국의 파행적인 정치 체제인 軍部 중심의

*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부 부교수

정치체제로 인해 일반 연구자들은 이에 대한 소극적인 태향으로 군사사와 관련된 연구보다 이에 비판적인 연구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실제 戰後 일본의 경우 일부 전술, 무기 등의 일부 개설적 서술을 제외하고는 近世의 군사제도 등 군사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빈약하였다. 이는 당시 일본 역사학계의 풍조와 관련된 것으로 거대 담론 및 이론 중심의 이른바 戰後歷史學의 융성과 함께 전쟁과 군대를 군국주의를 구성하던 절대악으로 보고 기피하던 당시의 사상적 풍조와 관련이 있다.¹⁾ 이에 군사 관련연구가 이루어진 부분도 기본적으로 軍國主義나 近代 軍制의 전제로서 연구가 이루어지거나 1960년대 幕藩構造論 연구에서 軍役論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따름이다.²⁾ 다만 1970년대 중반 幕府 권력의 주요한 요소의 하나로서 直轄 軍團에 대한 이해가 시도된 적이 있는 정도이다.³⁾ 1980년대 이후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근세 일본의 군사제도를 미시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한 연구가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笠谷和比古가 근세의 군사 편제를 騎馬隊, 足輕隊, 小荷駄隊로 분류하고 각각의 역할을 밝힌 것을 시작으로,⁴⁾ 高木昭作은 大名의 軍團을 구성하는 하위 군사조직인 備를 중심으로 보다 정치한 군사제도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는 일본 근세국가의 본질을 거대한 兵營國家로 파악하고, 近世 武士를 戰士로 인식하는 시각에서 그 군사력과 군단 편성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주목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⁵⁾ 그러나 아직 근세 군사력의 軍備나 戰術 등에 대한 본격적인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 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까지 보이는 일본의 근세 군사사 연구의 경향은 한국의 근세 군사사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보이고 있다. 한국의 근세 군사사 연구는

1) 鈴木直志, 「タブーカラの脱却-戰後の西洋史學における近世軍事史研究-」, 『戰略研究』3, 2005, 192~195쪽.

2) 根岸茂夫, 『近世武家社會の形成と構造』, 吉川弘文館, 2000, 17~18쪽.

3) 朝尾直弘, 「將軍政治の權力構造」, 『岩波講座 日本歷史』近世2, 岩波書店, 1975.

4) 笠谷和比古, 『近世武家社會の政治構造』, 吉川弘文館, 1993.

5) 高木昭作, 『日本近世國家史の研究』, 岩波書店, 1990 ; 笠谷和比古, 『近世武家社會の政治構造』, 吉川弘文館, 1993.

1940~50년대 15세기 軍役과 兵種에 대한 연구가 나타난 이래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중반 『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篇, 近世朝鮮後期篇)으로 정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군사제도사를 정치사, 사회경제사의 시각에서 분석함에 따라 구체적인 軍備나 전술 등에 대한 고찰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1980년대 중반까지 존속하였던 한국의 군사정권에 대한 역사학계의 반발 의식이 본격적인 군사사 연구를 꺼렸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일본과 한국 모두 근세의 군사사에 대한 구체적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1990년대 이후 들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사회경제사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거대 이론(Grand Theory)이 쇠퇴함에 따라 변혁의 역사보다 지속의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보다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관심을 끌게 되었다. 아울러 1990년대 초반 냉전체제의 해체와 걸프전쟁, 북한 정세의 긴박감 등으로 인하여 안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전에 관심이 적었던 군사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군사사 연구의 활성화로 나타났다.⁶⁾ 군사사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軍事의 기본 원리인 전술과 무기체계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아울러 유럽의 군사사 연구가 꾸준히 소개되면서 그 영향을 받았던 점은 주목할만한 변화이다.

특히, 1995년 Geoffrey Parker의 저서인 “The military revolution”이 『長篠合戰の世界史』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번역되면서 근세 유럽 軍事革命 시기의 주요한 군사적 변화, 예를 들어 머스킷총과 같은 개인화기와攻城用 火炮의 도입에 따른 전술과 성곽의 변화가 단순히 군사적 변화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근세 유럽사회 전반에 미친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음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일본 근세의 군사조직과 전술, 무기 및 전쟁 양상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근세 일본 사회의 성격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江戸幕府의 直轄 軍團의 형성 과정과 구체적 조직이 규명되었고⁷⁾ 특히 구체적인 군사체제의 규명을 위해

6) 鈴木直志, 「앞의 논문」, 2005, 203쪽.

7) 小池進, 『江戸幕府直轄軍團の形成』, 吉川弘文館, 2001 ; 根岸茂夫, 『近世武家社會の形成と

이전에 주로 軍事思想史 연구에 이용되던 일본의 兵書나 『雜兵物語』와 같은 자료들이 적극적으로 연구에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중세 후반 일본의 전쟁 양상에 대한 종합적 성과가 제출된 것도 활발해진 군사사 연구의 양상을 엿보게 한다.⁸⁾ 최근 久保田正志는 근세초기 일본의 전술, 무기 등 군사적 변화의 양상을 兵書 등을 이용하여 규명하고 유럽의 군사혁명 시기의 그것과 비교한 연구를 발표하였다.⁹⁾ 아울러 유럽 軍事革命論의 주요한 지표로서 언급되는 전술적 변화, 군사조직편성의 변혁, 국가와 군대의 관계 변화 등의 요소 이외에 보다 광의의 사회의 변화에 주목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¹⁰⁾ 이러한 변화에는 일반 역사학계의 연구경향과 관련 없이 군사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개인과 단체에 의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왔다는 점과 함께 日本史 이외에 다양한 인접 학문 분야에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1980년대 초 이태진, 허선도 등에 의해 국난극복사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던 임진왜란을 최초로 보편적인 전쟁사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것을 주장하였다.¹¹⁾ 이 연구는 전쟁사를 구성하는 주요 소재인 전술, 군제, 보급, 통신, 성곽 등을 전쟁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의 선구가 되었다. 실제 1990년대 중반 이후 군사사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그동안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던 兵學과 전술에 대한 연구가 등장한 것은 주목되는 현상이다. 노영구는 16세기 후반 이후 조선후기 주요 兵書에 나타난 조선의 전술을 소개 분석한 본격적인 연구를 제출하였다. 아울러 조선의 군사적 변화를 유럽의 군사혁명론의 시각에서 비교한 연구도 발표하였다.¹²⁾ 그러나 아직 조선의 군사적 변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構造』, 吉川弘文館, 2000.

8) 小林一岳·則竹雄一, 『戰爭 I - 中世戰爭論の現在』, 青木書店, 2004.

9) 久保田正志, 『日本の軍事革命』, 錦正社, 2008.

10) 石津朋之, 「『軍事革命』の歴史について-「ナポレオン戦争」を中心に-, 『戦史研究年報』4, 2001.

11) 이태진, 「임진왜란에 대한 이해의 몇가지 문제」, 『군사』창간호, 1980 ; 허선도, 「임진왜란론-올바르고 새로운 인식」, 『千寛宇先生 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1985.

12) 노영구, 「朝鮮後期 兵書와 戰法の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노영구, 「軍事

미쳤는지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인접한 국가인 일본이나 중국과의 비교 연구 및 상호 영향에 대한 검토는 부족하다. 그리고 조선후기 무기와 전술의 문제에 대한 강성문, 박재광, 정해은, 장정수 등의 연구가 주목되고 있다.¹³⁾ 이외에도 무기발달에 따른 성곽 등 군사시설의 변화와 전략의 변화에 따른 조선의 전반적 방어체제 등에 대한 연구 등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즉 1980년대 초 변화의 단초가 나타난 이후 1990년대 중반을 계기로 본격적인 관련 연구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나라간의 군사상의 변화에 대한 비교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16~17세기 근세 일본과 조선의 전술 변화 양상을 소개,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두 국가 사이의 전술의 공통적인 요소와 다른 요소를 밝히고 그 원인을 검토하고 맺음말에서 두 나라의 향후 戰略文化 및 전략사상의 상이성에 대한 試論의 검토를 할 예정이다.

2. 16세기 近世 日本 戰術의 변화와 步兵化

1) 近世 日本 戰術 변화의 前提와 足輕의 등장

근세 일본의 전술 변화에서 가장 주목되는 요소로 지목되는 것이 鐵砲(鳥銃의 일본식 표현)의 도입과 이에 따른 전투 양상의 변화를 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鐵砲의 사용이 일본의 전술과 전략에 곧바로 '革命的'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최근 논란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나가시노 전투(長篠合戰)에서 대량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鐵砲隊의 존재와 이를

革命論과 17~18世紀 朝鮮의 軍事的 變化, 『西洋史研究』36, 2007 등.

13) 강성문 외, 『한국무기발달사』, 국방군사연구소, 1994 ; 박재광, 「임진왜란기 화약병기의 도입과 전술의 변화」, 『학예지』4, 1994 ; 정해은, 「임진왜란기 조선이 접한 短兵器와 『武藝諸譜』의 간행」, 『군사』51, 2004 ; 장정수, 「17세기 전반 조선의 포수 양성과 운용」,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등.

이용한 연속 사격 전술인 齊射戰術의 실체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연구가 적지 않다.¹⁴⁾ 이는 鐵砲의 보급이 충분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鐵砲에 의한 전술적 변화보다는 오히려 鐵砲의 사용과 함께 평민출신의 보병 부대인 足輕의 등장도 당시까지 騎馬武士 중심으로 이루어져오던 전투 양식에 결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전투력이 武士 개인의 용맹보다는 장기적으로 많은 병력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大名의 능력(資源의 동원과 管理)에 더 의존하게 되었다는 점이 더 주목되고 있다. 이는 도입 초기 전체 군사 중에서 鐵砲를 가진 군사의 수가 충분하지 않았고 다른 보병 兵種, 예를 들어 長槍兵, 弓兵이 전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전투의 최종적인 단계는 騎馬武士에 의한 돌격이라는 사실 등이 규명된 것과 관련이 있다. 최근에는 나가시노 전투(長篠合戰)에 대한 통설에서 나타나는 대규모 鐵砲隊와 철포전술에 대한 강조는 근대 이후 武士를 부정하고 國民皆兵을 실현하였던 일본 구 參謀本部 등의 戰史 연구(예를 들어 『日本戰史』 시리즈)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¹⁵⁾

16세기 이후 일본의 전술 변화 단초를 鐵砲 도입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찾기 위해서는 전국시대 이전 일본의 주요한 전술 변화의 계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전술의 변화는 대규모 전쟁의 경험과 새로운 전술 체계의 도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국시대 이전 일본 군사사에서 가장 큰 대외전쟁의 경험은 13세기 후반 몽골의 일본 침공이라고 할 수 있다. 갑옷을 입고 弓矢와 太刀로 무장한 기병을 중심으로 개개 무사단의 돌격을 위주의 전술을 구사한 일본군에 대해 몽골군은 총대장의 지휘 하에 陣을 형성하여 공격과 퇴각을 하는 集團戰法을 구사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화약무기인 回回砲를 사용하여 일본의 기병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¹⁶⁾ 실제 13세기 후반 이후 일본의 전술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14) 藤本正行, 『長篠の戦い』, 洋泉社, 2010.

15) 根岸茂夫, 『앞의 책』, 2000, 18쪽.

16) 高橋典幸 外, 『日本軍事史』, 吉川弘文館, 2005, 75~78쪽.

14세기 초인 延慶年間(1308~1311)의 『太平記』에 의하면 騎兵의 弓矢 사격 전술이 그 이전 말을 달리며 활을 사격하는 騎射가 중시되던 것에서 이제는 말이 정지한 상태에서 사격하거나 아니면 말에서 내려 사격하는 이른바 下馬射가 적지 않았다. 아울러 歩兵에 의한 활 사격인 步射가 전투에서 점차 중시되었다. 이는 일본 활의 진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전의 활보다 대나무 부분을 증가시켜 탄성을 높인 우수한 보병용의 활인 三枚打弓이 개발되어 화살의 사격거리가 크게 늘어났다. 따라서 騎射보다 원거리에서 步射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되었으므로 弓射歩兵이 크게 증가하였다. 弓射歩兵은 개인별 사격이 아닌 수백인 단위의 전투 집단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투의 집단화와 武具 사용의 전문집단화를 촉진시켰다. 정지하여 사격하였으므로 군사보병은 자신의 방호를 甲冑가 아닌 방패에 의존할 수 있었으므로 무거운 甲冑를 착용할 필요성이 없었다. 14세기 들어 경무장 보병을 의미하는 足輕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변화와 관련이 있다. 상대적으로 騎射의 전술적 중요성이 줄어들면서 기병의 전술적 역할은 弓矢 사격보다 적에게 돌격하여 근접전을 벌이는 것이 중요해졌다. 따라서 기병은 말에서 내려 弓矢를 사격하고 이어서 말에 올라타 太刀로서 근접전을 하는 이른바 馬上打物을 행하게 된다.¹⁷⁾ 이러한 양상은 유럽에서도 백년전쟁 당시 영국은 새로이 개발한 6피트 크기의 우수한 長弓의 채택으로 1346년 크레시 전투에서 프랑스의 기병을 대패시킨 이후 弓兵의 우위를 바탕으로 적군의 기병을 창으로 무장한 보병이 저지하는 유기적인 전술이 도입되면서 급격히 보병의 비중이 증가하고 전투의 주역이 되는 이른바 ‘보병혁명(Infantry Revolution)’이 나타난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¹⁸⁾

몽골의 침입 이후 일본의 전술은 원거리 사격이 가능한 경무장 보병의 弓射가 점차 중요시되고 기병의 전술적 역할이 馬上打物로 변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각각의 武具를 전문적으로 익힌 兵種별 집단 전술이 나타

17) 近藤好和, 『騎兵と歩兵の中世史』, 吉川弘文館, 2005, 154-172쪽.

18) Clifford J. Rogers, “The Military Revolution of the Hundred Years War” *The Military Revolution Debate* (Westview Press, 1995) pp.59-60.

나는 점 등은 이후 일본의 전술과 군사제도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15세기 중반 일어난 應仁의 亂(1467)은 그 이전 기병이 전투의 주역이었던 일본의 전술상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應仁의 亂은 기본적으로 將軍 足利義政의 후계자를 둘러싼 幕府 내부의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격화된 것이었지만 細川軍(東軍)과 山名軍(西軍)이 각각 16만, 9만의 대군을 모아 17년 동안 교토(京都)를 중심으로 싸운 대규모 전쟁이었다. 특히 대부분의 전투가 들판에서 벌어진 野戰이 아닌 도시인 교토에서의 시가전이 반복되는 양상이었다. 시가전의 양상은 전투에서 보병의 확대와 역할의 증대를 가능하게 하였다. 보병의 역할 증대는 덜 부유한 계층 출신이 전공을 세워 武士 계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변화를 가능하게 하였다.¹⁹⁾ 이전보다 대규모 군사가 동원되어 전투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대규모 보병의 동원에 따른 것이었다. 이른바 足輕의 등장인 그것이다.

새로운 병종으로서 足輕의 출현은 사회경제적, 군사적 두 측면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이 시기의 足輕은 최초 정규군의 성격을 띤 것이 아니라 교토의 시가전에 수시로 참가하였던 일종의 傭兵隊였다. 그 출신도 교토 주변의 몰락 농민과 浮浪人들로서, 戰國時代 자신의 領國에서 조직, 훈련된 상비군적인 足輕隊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²⁰⁾ 대규모 몰락 농민과 부랑인이 교토 일대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당시의 기후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428년(正長 元年) 일어난 최초의 대규모 농민반란(土一揆) 직전에 기후 불순과 흉작, 그리고 '三日病'으로 불린 惡疾의 유행으로 정치, 사회적 불안정이 농민반란(土一揆)을 낳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몰락 농민과 부랑인이 발생하였다.²¹⁾ 기후 불순에 따른 대규모 몰락 농민과 부랑인의 도시 지역 이주는 이 시기 세계적 현상의 하나였다. 15세기 전반기 유럽에

19) Peter A. Lorge, *The Asian Military Revol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p.53-54.

20) 永原慶二, 『日本の歴史』10(下剋上の時代), 中央公論社, 1965, 281-283쪽.

21) 永原慶二, 『앞의 책』 68-69쪽.

서도 豪雨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빈발하게 발생하여 기근과 疫病이 만연하였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 따라 잦은 전쟁이 계속되었고, 전쟁을 피하여 농민들은 도시의 성벽 내로 도피함에 따라 프랑스 지역에서만 3,000개 마을이 폐허화되고 이로 인해 다시 식량 부족 문제가 나타나는 악순환이 일어났다.²²⁾ 應仁의 亂에 출현한 대규모 足輕은 이러한 사회적, 기후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울러 군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14세기 말부터 전투에서 본격적으로 徒歩化 현상이 나타난 것과는 관련이 크다. 예를 들어 이전의 전투에서는 근접전을 수행하는 기병인 이른바 打物騎兵이 전투의 주체였지만 말에서 내려 근접전을 벌이는 이른바 下馬打物の 현상이 나타나고 弓射騎兵이 점차 줄어들고 弓射歩兵이 증가한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弓箭과 근접전 무기[打物]의 역할 분담도 현저해졌다.²³⁾ 이러한 상태에서 應仁의 亂의 경우 시가전이 주요 전투 양상이었으므로 기병의 돌격보다는 시가지에 몸을 숨긴 보병에 의한 기습이 더 효과적이었다. 실제 그 직전인 남북조시대 주요 전투 양상이 영주의 강제적 명령에 따라 전장에 나가던 것이 아닌 지역의 안전보장 등의 반대급부가 확실한 경우 동원되던 무장한 주민인 ‘野伏(のぶし)’²⁴⁾에 의한 게릴라 전과 기습, 매복 전법 등의 이른바 野伏戰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應仁의 亂에서 대규모 足輕이 출현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대규모 몰락농민과 부랑인의 존재, 전투에서 徒歩化 경향과 이로 인한 보병의 중요성 증가로 인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전술의 모색과 전쟁 규모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였다. 다만 이 시기 足輕이 체계적인 편성과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시로 동원되는 傭兵의 성격으로 전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하였다. 이로 인해 곧바로 일본의 전술 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나타나지는 못하였으나, 사용이 편리하고 위력이 있는 새로

22) B フェイガン(東郷えりか/桃井綠美子 譯), 『歴史む變えた氣候變動』, 河出書房新社, 2009, 160-161쪽.

23) 近藤好和, 『앞의 책』, 2005, 200-201쪽.

24) 野伏에 대해서는 飯森富夫, 『野伏と戰場』, 『戰爭 I - 中世戰爭論の現在』, 青木書店, 2004, 97-102쪽 참조.

운 보병용 무기 체계가 도입될 경우 곧바로 혁명적 전술 변화와 사회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전쟁의 대규모화와 歩兵의 확대

應仁의 亂을 계기로 기병 중심에서 보병이 점차 중시되는 전쟁 양상으로 변하기 시작하였지만 본격적으로 보병이 전투의 주역이 된 것은 아니었다. 실제 15세기 말 戰國時代가 시작되어 키나이(畿内) 일대가 분열되고 각 大名의 領國이 分立되었지만 대규모 전쟁으로 곧바로 전환된 것은 아니었다. 16세기 전반기는 大名들이 幕府로부터 자립하여 경쟁적으로 分國을 형성하려 한 시기로 대규모 토지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와 知行의 貫高(칸다까 : 貫의 액수로 토지 면적을 표시하는 방법)를 정하는 등 내부적 체제 정비에 힘을 기울인 시기였다. 이를 통해 戰國大名들은 자신의 領國 내의 결제를 효과적으로 장악함으로써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550년 경 전환기를 맞게 되는데 國境 재편을 둘러싼 총력전의 단계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타케다(武田)氏와 우에스기(上杉)氏의 카와나까지마(川中島) 전투 등 대규모 전투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²⁵⁾ 이 시기 戰國大名 간의 전쟁에서는 만 단위의 군세가 동원되고 대규모 會戰과 공성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군대의 규모가 급격히 커짐에 따라 군대 내에 足輕 이하 雜兵의 비중이 매우 높았고 병참의 확보에도 한계가 있었으므로 쌍방이 국경 일대에서 대치하면서 장기간 전쟁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²⁶⁾ 이 시기 군사를 대규모로 동원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領國支配體制의 정비를 통해 농민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전문적인 군인으로 충원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15세기 후반~16세기에 걸쳐 동아시아 지역은 小氷期로서 기후가 寒冷化

25) 朝尾直弘 등(이계황 외 옮김), 『새로 쓴 일본사』, 창작과비평사, 2003, 236쪽.

26) 藤田達生, 『戰爭と城』, 『日本史講座』5(近世の形成), 東京大學出版會, 2004, 255-256쪽.

하여 잦은 비가 계속되었다. 장기간의 자연재해로 인해 동아시아 세계의 동요 현상이 나타났다.²⁷⁾ 잦은 자연재해로 농업 생산력은 크게 감소하였고 여기에 戰國의 爭亂이 계속됨에 따라 향촌사회가 황폐화되어 만성적인 기근과 疫病이 계속되었다.²⁸⁾ 한 기록에 의하면 1535년 美濃에 큰 홍수가 나서 2만여 명이 사망하고 만여 가옥이 유실되었다. 1540년 봄에는 유사 이래 大饑饉이 일어나 많은 아사자가 발생하고 아울러 疫病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였다.²⁹⁾ 비슷한 시기 조선에서도 소빙기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비와 큰 바람 등의 자연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고,³⁰⁾ 유럽에서도 1527년부터 급격히 기온이 내려가는 기후 변동의 폭이 커지다가 1560년대 이후에는 본격적인 소빙기로 접어들어 여름의 강우량이 크게 증가하고 산의 빙하가 내려오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³¹⁾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생산력 감소의 시기에는 농촌으로부터 대규모의 인구가 행정력이 유지되고 상품의 流通을 통해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적 현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6세기 중반 이후 戰國의 전쟁 양상이 이전보다 규모가 커지고 국경 재편을 둘러싸고 전투가 격화되면서 전투원의 피해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대규모 군사 확보가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기존의 주력인 騎馬武士를 보조할 병력으로서 도시 일대에서 급여 지급을 조건으로 대규모 군사를 모집하여 군병으로 충원하고 아울러 일정한 규모 이상의 토지를 가진 농민들도 군병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들은 일반 武士團이 主從制를 원리로 개인별로 충원되었던 것과 달리 촌락을 기초로 성립하였으므로 이들에 의한 전투는 자연스럽게 촌락별로 군사를 조직한 집단 전투로 전환되었다.³²⁾

도시와 촌락에서 모집한 다수의 군병은 주로 長槍으로 무장한 足輕으로

27) 이태진, 『새 한국사』, 까치, 2012, 335-340쪽.

28) 藤木久志, 『飢餓と戦争の戦國む行く』, 朝日新聞社, 2001.

29) 矢田俊文, 『戦禍・災害と人人の生活』, 『日本の時代史』12(戦國の地域國家), 吉川弘文館, 2003, 293쪽.

30) 李泰鎮, 「‘小氷期’(1500~1750년)의 天體 現象的 原因」, 『國史館論叢』72, 1996.

31) B フェイガン, 『앞의 책』, 163-167쪽.

32) 朝尾直弘, 「16世紀後半の日本」, 『岩波講座 日本通史』第11卷(近世1), 岩波書店, 1993, 18~19쪽.

활용하였는데, 이들을 대규모 집단으로 편성하여 적극적, 공세적인 전술로 운용한 인물이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였다.³³⁾ 기본적으로 長槍은 집단적으로 운용할 때에는 정면에 올바르게 정렬시키기만 하면 되었으므로 많은 훈련이 필요로 하지 않았다.³⁴⁾ 전투시 장창 足輕집단은 활과 鐵砲의 원거리 무기 부대와 武士 집단 사이에 위치하면서, 박자를 맞추어 장창을 내려치면서 상대의 장창 足輕 집단과 겨루는 형식의 전투를 주로 하였다.³⁵⁾ 이 시기 장창 足輕의 전술적 비중이 높았고 공세적으로 운용될 수 있었던 것은 16세기 중반까지 일본의 전술 형태에서 아직 충분한 鐵砲가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었다. 그러나 이는 철폐의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장창 足輕의 비중과 역할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일본에 鐵砲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1543년 타네가시마(種子島)에 표류한 포르투갈 상인에 의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1990년대 초 이후 최초 전래에 대한 논란은 적지 않다.³⁶⁾ 전래 직후 곧바로 種子島, 根來, 國友, 堺 등지에서 화약과 鐵砲의 제조가 이루어지고 급속히 일본 全國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1549년부터는 최초로 黒川崎의 전투에서 鐵砲가 사용되기 시작하여³⁷⁾ 30년만에 일본의 군제, 전술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³⁸⁾ 그러나 이는 몇 가지 측면에서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전체 군사의 구성에서 鐵砲의 낮은 비중 문제를 들 수 있다. 鐵砲를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전투로 알려진 나가시노 전투(1573) 직후인 1575년 우에스시 켄신(上杉謙信)의 「軍役帳」에 의하면 39인의 家中의 武將이 거느린 군사 5,514명 중 장창병(鎗持)은 3,609명, 鐵砲兵(鐵炮持) 321명, 旗手(大小旗持) 368명, 기병(馬上) 566명, 그리고 각종 雜兵(手明) 650명

33) 脇田修, 『織田信長-中世最後の覇者-』 中央公論社, 1987.

34) Michael Roberts, "The Military Revolution, 1560-1660" (*The Military Revolution Debate* 再收).

35) 久保田正志, 『앞의 책』, 2008, 22쪽.

36) 宇田川武久, 『鐵砲傳來』, 中央公論社, 1990.

37) 宇田川武久, 『東アジア兵器交流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993, 156쪽.

38) 杉山博, 「中國・朝鮮・南蠻と技術の軍事力」, 『岩波講座 日本歴史』 第8卷(中世4), 岩波書店, 1976, 80-82쪽.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³⁹⁾ 즉 당시 전체 군사에서 鐵砲兵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아직 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장창병은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기병의 비중도 10% 이상임을 고려한다면 16세기 후반 일본의 전술이 철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 전투에서의 鐵砲의 사용이 1560년대 후반 현저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鐵砲 사용에 가장 선진적이었다고 하는 織田信長の 경우에도 1569년 이후 鐵砲의 사용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나가시노 전투 이후에는 패자였던 武田氏에서도 鐵砲에 대한 중요성이 높게 인식되고 있었지만⁴⁰⁾ 이것이 곧바로 鐵砲의 대량 배치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아울러 野戰에서 철폭이 대규모로 사용되고 일본 전술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실제 전국시대 후반기까지 계속 弓을 가진 군사(弓衆)가 전투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고 鐵砲의 보급 후에도 그 규모가 鐵砲兵에 버금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⁴¹⁾ 다만 시대가 내려옴에 따라 弓兵의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었음은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 鐵砲의 방어적 속성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철폭은 안전성과 조작성은 떨어지지만 명중의 정확도가 높았다. 이는 명중의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안전성과 조작성이 높아 평원에서의 步兵의 집단 전투에 적합한 유럽형의 齒輪銃, 燧石銃과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鐵砲는 騎馬隊의 돌격을 성 내에서 방어하거나 아니면 앞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사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었다.⁴²⁾ 따라서 鐵砲 도입 이후 일본의 野戰 전술에서 한 동안 철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철폭의 비중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고 전술 체계에서 騎馬武士의 돌격이 계속 강조되는 것 등은 철폭이 가진 방어적 속성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는 유럽의 개인화기인 Musket의 도입 초기 대형의 중앙에 銃兵이 위치하지

39) 杉山博, 『日本の歴史』11(戰國大名), 中央公論社, 1965, 194-196쪽.

40) 宇田川武久, 『앞의 책』, 1993, 202-206쪽.

41) 高橋典幸 外, 『앞의 책』, 2005, 123-124쪽.

42) 所莊吉, 『火繩銃』 雄山閣, 1969.

못하고 주위에 위치하거나 아니면 16세기 중반 스페인의 *tercio* 전술과 같이 長槍 方陣의 주위에 포진하여 장창 방진을 엄호하는 소극적 역할에 그친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⁴³⁾ 따라서 鐵砲가 초기부터 곧바로 일본의 野戰 전술을 전반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철포는 성곽 방어전의 경우 초기부터 매우 큰 위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563년 11월 出雲白鹿城詰口 전투의 「吉川元春軍忠狀」에 의하면 공격측 부상자 45명의 부상 원인이 刀 1명, 돌〔礮〕 5명, 화살〔矢〕 6명, 鐵砲 33명인 것을 보면 성곽 방어에서 鐵砲의 위력이 매우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⁴⁴⁾ 점차 야전에서도 鐵砲는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전국시대 후반기 전투원의 피해가 급속히 커지고 있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⁴⁵⁾ 따라서 성능상의 제약은 있었지만 위력이 큰 철포를 전투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철포를 중심으로 일본의 군사제도와 전술상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조선과 일본의 전쟁인 임진왜란은 일본의 군사상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3. 17세기 이후 일본의 전술과 군사조직 구성의 변화

1) 임진왜란과 17세기 日本의 戰術 변화

16세기 후반의 전국시대 직후에 일어난 조선과의 제1차 전쟁(壬辰倭亂)은 일본의 기존 군대 편성과 근세 일본 전술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계기

43) Knox MacGregor · Murray Williamson, *The Dynamics of Military Revolution, 1300-2050*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37 ; Jorgensen Christer, *Fighting Techniques of the Early Modern World, AD 1500-AD 1763* (Thomas Dunne Books, 2006).

44) 大類伸 · 鳥羽正雄, 『日本城郭史』, 雄山閣, 1963, 450쪽.

45) 矢田俊文, 『앞의 논문』, 2003, 316쪽.

었다. 이는 당시 전쟁에 참여하였던 일본군의 구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국시대 직후에 일어난 조선과의 제1차전쟁 당시 豊臣秀吉이 高橋宗茂, 高橋統虎 형제에게 부과한 군역 내용을 보면 총 인원 3,000명 중에서 전투원은 1,400명으로서 구체적으로 歩士, 騎士가 각각 150명, 鐵砲足輕이 200명, 弓足輕이 100명, 槍足輕이 500명 등이었다. 따라서 鐵砲의 비중은 弓의 2배 정도로서 이전보다 상당히 증가하고 전체 전투원 중에서 14% 이상이였다.⁴⁶⁾ 즉 전국시대 후반에 비해 약 20년 동안 전체 군사 중에서 鐵砲足輕의 비중이 2배 가까이 완만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선과의 제2차 전쟁(丁酉再亂) 시기 高橋宗茂, 高橋統虎 형제에게 부과된 군역에서는 弓兵과 鐵砲兵의 비율이 1 : 3.8로 鐵砲의 비중이 2배 가까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⁴⁷⁾ 鐵砲의 비중이 이 전쟁 동안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임진왜란 직후인 1600년 일본의 패권을 놓고 벌인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東北 지방의 大名인 다테 마사무네(伊達正宗)가 보낸 3천 명의 군사 중에서 기병 420명 등을 제외한 보병 전투원 2,300명 중에서 鐵砲兵이 1,200명에 달하여 전체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다.⁴⁸⁾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기병 돌격에 적합하지 않은 조선의 지형으로 인해 長槍兵의 엄호가 그다지 요구되지 않은 것이 지적되기도 한다.⁴⁹⁾ 그러나 지형적인 요인보다 일본군이 이 전쟁에서 겪었던 전술적 어려움이 일본군의 鐵砲 확대와 전술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전쟁에서 野戰의 경우 일본군은 조선에 참전한 명나라 騎兵隊의 돌격에 무척 고전하였다. 명나라 기병은 창검만으로 가볍게 무장한 것이 아니라 각종 화포, 火箭의 지원을 받는 중무장 형태의 기병이었다. 보병의 경우에도 대형 화포 이외에 조총과 虎蹲砲 등 가벼운 화기와 長槍, 狼筈 등 신

46) 伴三千雄, 「朝鮮役における兵器と戦法の變遷」, 『日本兵制史』, 日本學術普及會, 1933, 141쪽.

47) 鈴木眞哉, 『戰國軍事史への挑戦』, 洋泉社, 2010, 73쪽.

48) 舊參謀本部, 『關ヶ原の役』, 徳間書店, 2009, 295쪽.

49) Peter A. Lorge, *The Asian Military Revol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60

형 근접전 무기로 무장하여 화력 면에서 일본군을 능가하였다. 예를 들어 평양성 전투(1593)에서는 대규모 화력전과 보병의 돌격이 큰 역할을 하였고, 稷山の 전투(1598)에서는 조총으로 공격하는 일본군에 대해 明軍은 화포와 火箭을 연이어 사격하고 이어 棍棒으로 무장한 明의 기병이 일제히 돌격하여 일본군을 격파하였다.⁵⁰⁾ 즉 이 전쟁의 주요 국면을 전환시킨 전투의 경우 明軍의 火力 우위가 전투를 결정지었다.⁵¹⁾

궁병의 비중이 줄어들고 이를 대체하면서 鐵砲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明軍의 화력 우위와 함께 기병의 돌격을 저지하기에 弓矢가 가진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鐵砲는 관통력이 뛰어나고 사정거리도 멀었지만 발사 속도가 弓矢에 비해 늦었고 급박한 상황이나 악천후에서는 사격하기 어려운 취약점이 있어 상당한 규모의 弓兵과 함께 편성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궁시는 甲冑로 보호된 기병의 돌격을 저지하기에는 관통력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비해 火繩銃은 탄환의 속도가 매우 빨라 명중할 경우 갑옷을 입은 신체의 관통 이후에도 신체 내부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어 적군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⁵²⁾ 임진왜란의 전쟁 경험은 이후 일본의 군사제도 및 전술에 큰 변화를 주게 된다. 즉 織田信長에 의해 확립된 鐵砲, 弓矢 사격 이후 長槍 근접전과 기마 무사의 돌격을 주된 양상으로 하던 일본의 전술은 鐵砲를 중심으로 다시 재편되었다.⁵³⁾ 이는 1616년 10월에 발발한 오사카 겨울 전투(大坂冬の陣)에 東軍으로 참가하였던 伊達家の 陣立書を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伊達正宗 군은 3,430정의 鐵砲를 갖춘데

50) 李光濤, 『朝鮮「壬辰倭禍」研究』, 中央研究院歷史言語研究所, 1972, 213-228쪽 ; 盧永九, 「앞의 논문」, 2002, 96-97쪽.

51) 杉山博, 「앞의 논문」, 1976, 51-52쪽. 명군의 경우에도 火器의 지원없이 기병 단독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는 일본군을 공격하기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벽제관 전투와 같이 기병 단독으로 전진하는 경우에는 일본군 鐵砲隊의 사격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金子常規, 『兵器と戰術の日本史』, 原書房, 1982, 126-129쪽).

52) Max Boot, *War Made New: Weapons, Warriors,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Gotham, 2007) p.58.

53) 예를 들어 1607년 家中에 대한 군역 규정에서는 1,000石의 경우 鐵砲 6, 槍 3, 旗 1로 규정되어 弓이 소멸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山口啓二, 「藩體制の成立」, 『岩波講座 日本歴史』 第10卷(近世2), 岩波書店, 1963, 135쪽).

비해 장창은 1,010本, 弓은 100張에 불과할 정도로 철포의 비중이 절대적이었고 弓은 전술적 의미가 상당히 약해졌다.⁵⁴⁾ 그리고 이듬해 일어난 오사카 여름 전투(大坂夏の陣)의 幕府軍役과 동일한 元和軍役令에 의하면 오사카 겨울 전투에 비해 다시금 長槍의 수가 반감하고 鐵砲가 추가되기도 하였다. 이는 오사카 겨울 전투를 치르면서 승패를 결정지은 것이 鐵砲임을 다시금 확인하였기 때문이다.⁵⁵⁾

鐵砲의 비중이 16세기 말부터 급속히 높아지면서 철포 중심의 전술로의 전환은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인다. 철포의 대량 사용은 철포가 가진 근본적인 취약점인 느린 발사 속도를 보완할 전술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당시 철포는 최대 사정은 500미터이고 유효사정은 100미터 정도로 1분간 최대 4발 사격이 가능하였지만 개인별 차이가 적지 않았고 기병이 질주할 경우 간단히 돌파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⁵⁶⁾ 弓兵은 거의 의미없을 정도로 축소되었지만 長槍兵을 17세기 전반기에도 상당한 규모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鐵砲 장전 시간 동안 대열의 앞에서 鐵砲兵을 엄호하기 위해 상당 규모를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7세기 유럽 군사사에서 보병의 주된 무기가 장창에서 원거리 화약무기인 머스킷 총(Musket)으로 변화하면서 장창의 역할이 銃兵이 장전하는 동안 전방에서 엄호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⁵⁷⁾

鐵砲의 연속적인 사격과 장창의 전방 엄호를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한 전술 체계와 훈련이 요구된다. 특히 16세기 후반 이후 전투의 규모가 만 단위 이상으로 확대되고 다양한 兵種이 함께 전투를 행함에 따라 정교한 전술 체계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졌다. 戰國時代 후반 군사조직에서 鐵砲, 長槍, 弓兵 이외에 다수의 대소 旗手が 나타나고 있는 점은

54) 谷口眞子, 「移行期戰爭論-大坂冬の陣の綜合的檢討」, 『戰爭と平和の中近世史』, 青木書店, 2001, 185쪽.

55) 山口啓二, 「앞의 논문」, 1963, 130-131쪽.

56) 朝尾直弘, 「앞의 논문」, 1993, 25쪽 ; 藤本正行, 『信長の戰爭』, 講談社, 2003, 199쪽.

57) Michael Roberts, "The Military Revolution, 1560-1660" (*The Military Revolution Debate* 再收)

단순히 적에 대하여 示威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⁵⁸⁾ 전술이 체계화, 정교화되는 상태에서 많은 군사를 효과적으로 지휘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6세기 후반 이후 전술의 체계화, 정교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陣立書와 備의 출현이다.

陣立書란 특정의 전투를 상징하여 지형을 고려하고 상대의 세력을 살펴서 우리측 세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병력의 배치와 행군 시 부대의 순서 등을 정한 군사 문서이다. 이를 통해 지휘관은 효과적으로 휘하의 군사들을 지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술을 발휘할 수 있었다.⁵⁹⁾ 陣立書가 최초로 작성된 것은 1584년 豊臣秀吉 진영과 織田信雄·徳川家康 연합군이 벌인 코마키 나가쿠테(小牧·長久手)의 戰鬪로서⁶⁰⁾ 일본의 전쟁 양상이 물량전, 소모전의 양상을 띠기 시작하던 이 시기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陣立書를 통해 당시 일본의 일반적인 전술 형태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대의 행군 순서 및 진법 등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陣立書는 대규모 부대를 지휘하기 위해 명령계통과 상하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여 중세 군대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이른바 公儀軍의 출현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⁶¹⁾

대규모 부대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행군 절차와 전술, 명령체계를 담은 陣立書와 함께 새로운 군사조직도 나타났다. 備(そなえ)의 출현이 바로 그것이다. 陣立書에 나타난 大名의 군단은 士大將 혹은 家老 등이 지휘하는 수 개의 備로 편성되는데, 備는 전투에서 보급까지 작전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독립된 전투수행 단위라고 할 수 있다. 備의 내부에는 여러 개의 전투 단위로 구분되었는데 그것은 적과 언제 조우하여도 곧바로

58) 高橋典幸 외, 『앞의 책』, 2005, 122~123쪽.

59) 陣立書의 정의와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三鬼清一郎, 「陣立書の成立をめぐって」,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38, 1992, 254~255쪽 참조.

60) 朝尾直弘, 「앞의 논문」, 1993, 20~21쪽.

61) 藤田達生, 「앞의 논문」, 2004, 258쪽.

전투할 수 있도록 배려된 押(=行軍)의 순서에 따라 기록되어 있다.⁶²⁾ 대체로 ① 大名 직속의 足輕으로 구성된 鐵砲隊, 長柄隊, 弓隊, ② 중핵 부대인 騎馬隊, 그리고 ③ 보급부대인 小荷駄隊 등의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한 備의 행군 부대의 배치를 재현한 다음의 그림을 통해 당시 備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1〉 備의 행군 양상



2) 17~18세기초 군사조직 구성 변화를 통해 본 일본의 전술 변화 양상

앞 절에서 소개된 備의 조직 구성을 통해 당시 일본의 구체적인 전술 양상을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절에서는 高木昭作의 다양한 備 구성에 대한 소개와 근세 일본의 여러 兵書에 나타난 備 구성의 변화 양상을 통해 17~18세기 초 鐵砲, 弓, 鎗 등의 足輕隊과 騎馬隊 등의 구성 변화를

62) 高木昭作, 『日本近世國家史の研究』, 岩波書店, 1990, 3쪽.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근세 일본의 전술 변화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먼저 나가시노 전투 직후인 1577년, 小田原後北條氏が 그 지배하의 岩槻城主 太田氏에 지시한 군단 편성 방식을 보면, 小旗(120명) - 鎧(600명) - 鐵砲(50명) - 弓(40명) - 徒士(250명) - 騎馬(500명) - 小荷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보급부대인 小荷駄隊를 제외하면 총 1,560명의 군사 중 무사인 徒士, 騎馬가 750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足輕은 전체 690명으로 그 중 장창병(鎧)은 600명으로 절대 다수(87%)를 점하고 있다. 아울러 鐵砲와 弓足輕의 비중은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⁶³⁾ 즉 전국통일 직전인 16세기 후반의 일본의 전술은 최초 鐵砲와 弓의 지원 사격 이후 이루어지는 장창대(鎧)의 집단 공격이 매우 중요한 전술의 하나였음을 군사조직 구성을 통해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鐵砲, 弓의 사격 및 장창대의 집단 공격 이후 가장 후위에서 대기하고 있던 무사의 돌격으로 전투의 승패를 결정지었다. 아직 원거리 무기로서 弓의 역할은 일정하게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과의 전쟁을 계기로 16세기 말부터 일본의 군사체제에서 鐵砲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철폐 중심의 전술체계가 나타났음을 앞 절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備 내부의 구성과 각 兵種의 순서와 구성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17세기 중반기 편찬된 여러 兵書を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兵書는 기본적으로 편찬 이전의 전쟁 경험 등을 정리하여 이를 전술로 체계화시킨 군사관련 서적으로서,⁶⁴⁾ 17세기 중반기 일본의 병서를 통해 그 직전인 17세기 전반기의 일본 전술을 이해 하는데 일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江戸幕府에 정식 채용되었던 北條流와 그 영향을 받았던 山鹿流의 여러 병서에서는 17세기 전반기 군사의 편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엿볼 수 있다.⁶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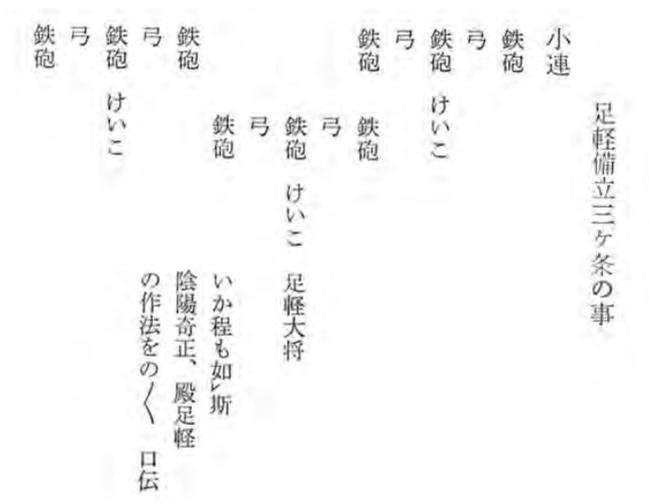
63) 高木昭作, 『위의 책』, 1990, 330-336쪽.

64) 袁庭棟·劉譯模, 『中國古代戰爭』, 四川省社會科學出版社, 1988, 644-647쪽.

65) 근세 일본의 兵學과 각 流派에 대해서는 石岡久夫, 『日本兵法史』(上·下), 雄山閣, 1972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北條流 兵學은 德川幕府에 들어가 大目付까지 올라갔던 北條氏長이 창시하였던 流派로서, 北條氏長은 17세인 1625년부터 43세인 1651년까지 27년간 다양한 병서를 저술하였다.⁶⁶⁾ 北條氏長이 저술한 병서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는 『兵法雄鑑』(1645)에 의하면 전투시 鐵砲와 弓足輕은 반드시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하였다. 足輕大將이 지휘하는 15명 편성의 작은 단위 편성인 小連의 경우 鐵砲 옆에 弓, 이어서 鐵砲足輕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즉 鐵砲足輕 9인, 弓足輕 6인으로 이루어졌다.⁶⁷⁾ 다음의 <그림 2>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림 2> 『兵法雄鑑』의 小連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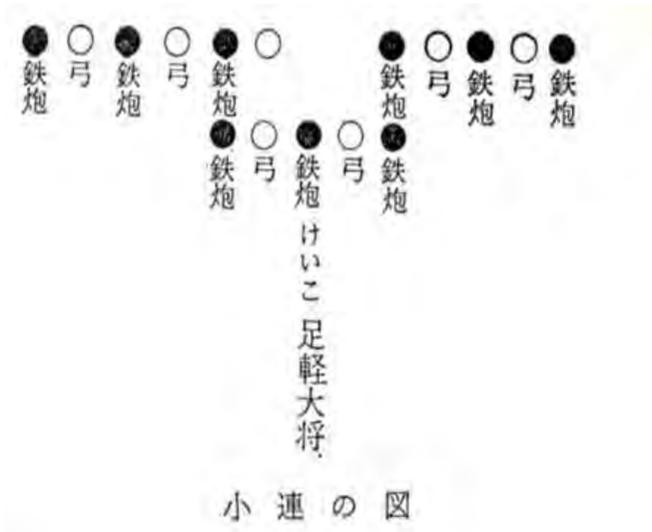
위의 <그림 2>와 같이 鐵砲足輕와 弓足輕이 함께 편성되어 있는 점을 통해 원거리 공격을 위한 弓足輕의 전술적 역할이 鐵砲足輕에 비해 그다지 낮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군사들의 행군시에도 鐵砲足輕隊과 弓足輕隊를

66) 石岡久夫, 『日本兵法史上』上, 雄山閣, 1972, 351~372쪽.
 67) 『兵法雄鑑』 권25 足輕(石岡久夫 編, 『日本兵法全集3, 北條流兵法』, 人物往來社, 1967, 308~309쪽).

구분하지 않고 一二先 - 足輕 - 長柄 - 持筒 - 持弓 - 持鎗 - 使武者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통해 이를 잘 알 수 있다.⁶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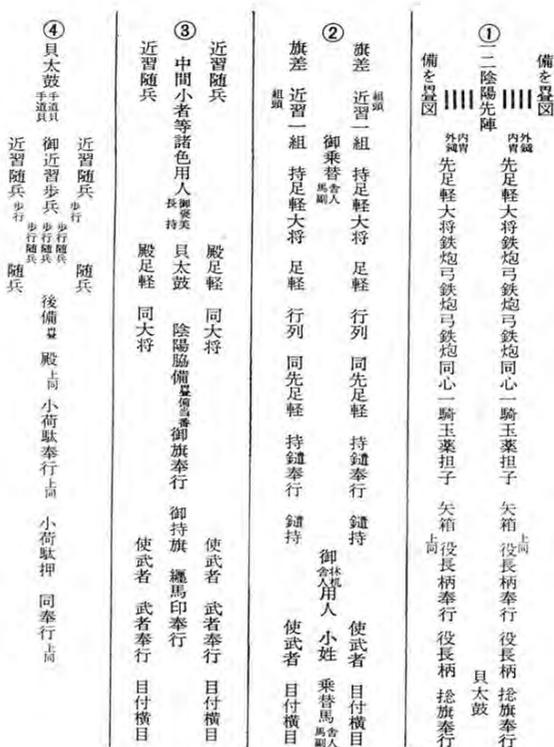
北條流 병학에서 제시된 鐵砲 및 弓足輕을 통합한 小連의 구성과 행군 대형의 양상은 山鹿流의 주요 병서인 『武教全書』(1675)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⁶⁹⁾ 이는 다음의 <그림 3>의 小連圖 및 <그림 4>의 備의 행군 순서를 보여주는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武教全書』의 小連圖



68) 『土鑑用法』行列(石岡久夫 編, 『日本兵法全集3, 北條流兵法』, 人物往來社, 1967, 191쪽).
 69) 『武教全書』권2, 「行軍, 備押之圖(石岡久夫 編, 『日本兵法全集5, 山鹿流兵法』, 人物往來社, 1967, 128-129쪽); 『武教全書』권4, 「步戰, 小連の圖(石岡久夫 編, 『日本兵法全集5, 山鹿流兵法』, 人物往來社, 1967, 187쪽).

〈그림 4〉 『武教全書』의 備押之圖



17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병서상에 나타난 弓足輕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17세기 중반인 寛文年間(1661~1672) 會津藩, 福岡藩 등에서 채택한 전술 체계로서 일본 近世 軍學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長沼流의 兵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長沼流의 가장 대표적인 병서로서는 長沼流 병학 및 전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兵要録』이 있다. 長沼流 병학의 창시자로 이 책의 저자인 長沼澹齋는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 중국의 주요 병서였던 『紀效新書』 및 『武備志』를 참조하여 이 책을 저술하였는데,⁷⁰⁾ 중국의 이 병서는 화약 무기가 전면적으로

70) 石岡久夫, 『總論』, 『日本兵法全集4, 長沼流兵法』, 人物往來社, 1967, 12쪽.

사용되던 16세기 후반~17세기 초반의 전술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兵要錄』은 다른 일본의 병학이 『孫子』, 『吳子』 등 중국고대 병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에 비해 江戸시대 초기 일본에 유입되었던 『紀效新書』 및 『武備志』의 내용을 참조하여 鐵砲 등 화약 무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 전술을 소개하고 있다.⁷¹⁾ 이는 이 책의 군사 편성체계에 잘 나타나 있다. 군사 편성은 銃手와 弓手는 5人을 1伍로, 5伍 또는 10伍를 1隊로 하고 隊長(혹은 銃頭)이 지휘하였다. 騎兵은 50명 또는 40명을 1隊(혹은 備)로 하고 隊長(혹은 隊總, 士隊長)이 지휘하도록 하였다.⁷²⁾ 기병과 보병의 여러 兵種을 합친 기본 전투편성(單隊)은 鳥銃手 2隊, 弓手 1隊, 長槍手 1隊, 騎兵 1隊로 이루어졌다.⁷³⁾ 즉, 鐵砲가 弓의 2배에 달하여 弓兵의 비중이 이전의 『兵法雄鑑』에 비해 상당히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이 완성된 것은 1666년으로서⁷⁴⁾ 『兵法雄鑑』 편찬 이래 20년이 지나면서 일본의 군사편성과 전술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長沼流 兵學에서는 鐵砲의 비중이 증가함과 함께 長槍(=長柄)의 전술적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군사들의 행군 순서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데, 행군 순서는 기본적으로 전투시의 전투 순서와 동일하므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兵要錄』에서는 1隊 행렬의 경우 선두에 甲長이 서고 이어 銃隊 - 弓隊 - 旌旗 - 騎兵 - 甲長이 서도록 하였다. 이어서 隊長의 銃手 - 弓手 - 長槍手が 서고 이어 旛幟·金鼓·兵器가 선 뒤편에 隊長이 親兵의 호위를 받으며 서게 된다.⁷⁵⁾ 이러한 모습은 다음의 <그림 5> 「軍行一隊列次之圖」에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71) 石岡久夫, 『日本兵法史』(下), 雄山閣, 1972, 231~2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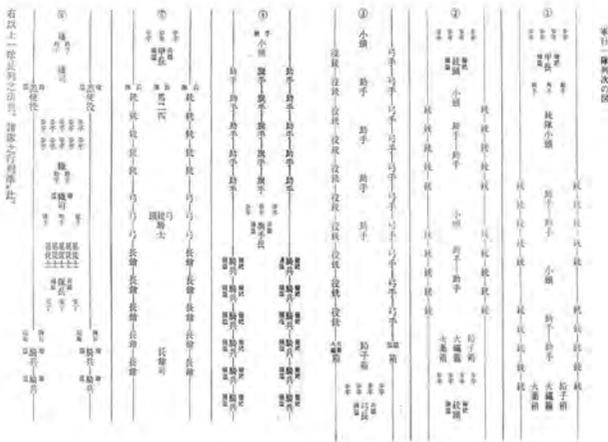
72) 『兵要錄』 권6, 「編步」, 「編騎」(石岡久夫 編, 『日本兵法全集4, 長沼流兵法』, 人物往來社, 1967, 100~103쪽).

73) 『兵要錄』 권6, 「合編步騎」(石岡久夫 編, 『日本兵法全集4, 長沼流兵法』, 人物往來社, 1967, 106쪽).

74) 石岡久夫, 『日本兵法史』(下), 雄山閣, 1972, 22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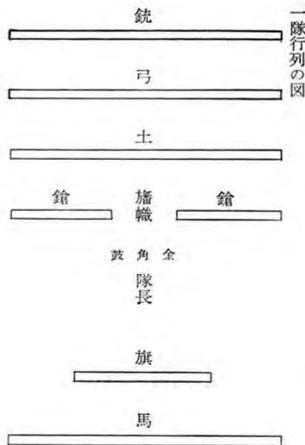
75) 『兵要錄』 권16, 「行列」(石岡久夫 編, 『日本兵法全集4, 長沼流兵法』, 人物往來社, 1967, 210쪽). ‘一隊行列 甲長一名先驅 次銃隊弓隊 次旌旗 次騎兵(右兵器 左頭盔) 次甲長一名 爲騎士之殿 次隊長之弓銃長鎗 次旛幟·金鼓·兵器(鎗鉞眉尖刀) 次隊長(親兵先後 差使役左右) 詳載之圖’

〈그림 5〉「軍行一隊列次之圖」



이 그림을 통해 鐵砲 - 弓 - 騎兵의 다음에 長槍手가 隊長의 앞에서 행군하고 있어 그 전술적인 중요성은 상당히 축소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투시 군사들이 배치되는 다음의 陣法 그림인 〈一隊行列之圖〉를 통해서도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一隊行列之圖



이 〈一隊行列之圖〉를 통해 長槍兵의 역할은 지휘관인 隊長의 앞에서 旛幟 좌우에서 호위를 담당하는 대단히 보조적인 군병으로서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⁷⁶⁾ 즉 長槍兵의 역할이 16세기 중반 전투의 승패를 겨루던 주요 병종에서 이제는 자신을 방어할 수단이 없는 弓이나 鐵砲 足輕을 방어하고 武士의 돌격 이후에는 측면에서 방어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⁷⁷⁾ 이러한 모습은 『兵要錄』 권12의 「教旗麾下陣列之圖」에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⁷⁸⁾

1660년대 이후 長沼流에서 나타난 鐵砲의 비중 증대 및 弓의 축소, 그리고 長槍의 보조 군병으로의 역할 축소 등은 17세기 전반기 대규모 화약무기가 사용된 여러 전투의 경험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후 일본의 군사 편성은 대체로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17세기 말 9개의 備(총원 5,438명)로 구성된 前橋酒井家の 군단 구성을 보여주는 다음의 〈표 1〉을 보면 17세기 후반 일본의 군사적 변화의 양상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당시 각 備는 旗奉行隊, 鐵砲隊, 長柄隊, 騎馬隊, 軍監, 士大將, 弓隊, 小荷駄隊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⁷⁹⁾

〈표 1〉 17세기 말 前橋酒井家の 軍團 구성⁸⁰⁾

	武士				足輕				中間	又者	職人	人足	小荷駄		合計	
	騎馬	徒士	小姓	小計	鐵砲	弓	鎗	小計					口取	馬	人	馬
小屋懸部隊	1	1		2	10			10		10	50	10	10	92	11	
①高須準人備	46	2		48	60	25	31	116	24	217		128	45	45	578	91
②松平内記備	36	2		38	60	25	31	116	24	172		122	39	39	511	75

76) 『兵要錄』 권17, 「陣法」(石岡久夫 編, 『日本兵法全集4, 長沼流兵法』, 人物往來社, 1967, 218~219쪽).

77) 根岸茂夫, 『앞의 책』, 2000, 27쪽.

78) 『兵要錄』 권12, 「教旗之法」(石岡久夫 編, 『日本兵法全集4, 長沼流兵法』, 人物往來社, 1967, 178쪽).

79) 高木昭作, 『위의 책』, 1990, 203~215쪽.

80) 高木昭作, 『앞의 책』, 1990, 326쪽의 〈표 1〉.

③松平左忠備	36	2		38	60	25	31	116	24	166		122	39	39	505	75
④本多民部左衛門備	36	2		38	60	25	31	116	24	165		118	40	40	501	76
⑤内藤半左衛門備	36	2		38	60	25	31	116	24	164		111	40	40	493	76
⑥酒井頼母備	36	2		38	60	25	31	116	24	159		116	39	39	492	75
⑦酒井彈正備	15	2		17	60	21	31	116	24	131		72	30	30	386	45
⑧若殿楊備	42	21	27	90	48		60	108	30	175		82	64	64	549	106
⑨御旗本備	63	51	57	171	65	48	90	203	98	345	29	258	227	227	1331	290
합계	347	87	84	518	533	219	367	1129	306	1694	39	1179	573	573	5438	920

위의 <표 1>에서 보듯이 대체로 각 備의 구성과 크기는 비슷한데, 9개 備 중 ②~⑥까지는 대체로 구성과 규모가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중 하나로서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는 本多民部左衛門備의 예를 보면, 武士 38명(騎馬 36, 徒士 2), 足輕 116명(鐵砲 60, 弓 25, 鎗 31), 中間 24명, 又者 165명, 小荷駄隊의 口取 40명 등 총 501명의 인원과 馬 76匹로 이루어져 있다. 전투원인 武士 및 足輕의 경우만을 보면 16세기 후반인 1577년 小田原後北條氏が 그 지배하의 岩槻城主 太田氏에 지시한 군단 편성 방식에 비해 武士의 비중은 상당히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48% → 24%), 足輕의 경우에는 鐵砲가 약 52%를 차지할 정도로 철포의 비중이 급격히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7세기 초부터 나타나던 鐵砲의 비중 증가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술적으로도 그 이전 사격의 정확성을 중시하던 것에서 足輕집단에 의한 일제 彈幕사격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환된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⁸¹⁾ 弓隊는 비중이 鐵砲의 절반 이하가 되어 전술적인 중요성이 매우 낮아졌다. 鐵砲의 비중이 높아짐에 비해 예전에 가장 비중이 높았던 장창(鎗)의 비중은 鐵砲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즉 16세기 후반 이후 鐵砲가 鎗을 대체하고 주력 兵種이 된 것이다. 鎗足輕은 그 성격도 이전에 공격 병종의

81) 久保田正志, 『앞의 책』, 2008, 48쪽.

성격에서 鐵砲를 엄호하는 방어적 병종으로 전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鐵砲兵이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장창이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野戰에서 鐵砲兵의 장창의 엄호에 의지하지 않고 자체 방어를 위해 곡식 자루로 쌓은 낮은 담장(胸牆, 囲壁)을 이용하여 銃眼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나타나기도 하였다.⁸²⁾

18세기 초가 되면 鐵砲의 비중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봐왔던 前橋酒井家の 군단을 구성하는 9개 備 중 앞서 검토하였던 本多民部左衛門備의 군사 구성을 보여주는 다음의 <표 2>를 살펴보자.

<표 2> 18세기 초 前橋酒井家の 本多民部左衛門備의 군사 편성⁸³⁾

	武士	奉公人	足輕	中間	人足	口取	小計	乘馬	駄馬	小計
旗差	2	5	16	5	4	1	33	1	1	2
鐵砲組	1	5	36		11	2	55	1	2	3
鐵砲組	1	4	36		11	2	54	1	2	3
長柄組	1	2	30		3	2	38	1	2	3
騎馬隊	22	58					80	22		22
目付	3	5				1	9	2	1	3
太鼓	2				3	1	6		1	1
士大將	1	27				4	32	2	4	6
弓組	1	4	19		5	11	30	1	1	2
小荷駄	1	2	4		2	8	17	1	8	9
合計	35	112	141	5	39	22	354	32	22	54

위의 <표 2>를 보면 18세기 초 本多民部左衛門備의 경우 총원 354명 중에는 주 전투부대는 足輕과 騎馬隊였다. 足輕의 경우 두 개의 鐵砲組와 각각 한 개의 弓組, 長柄組가 편성되어 있고 騎馬隊 1개가 있었음을 알 수

82) 金子常規, 『兵器と戦術の日本史』, 原書房, 1982, 135-136쪽.

83) 高木昭作, 『위의 책』, 1990, 326쪽 「表2」.

있다. 그 외 備의 旗手와 신호용 鼓手, 사령관인 士大將과 보조인인 奉公人, 그리고 치중병인 小荷駄 등이 편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鐵砲組에는 足輕이 각각 36인씩이 있고 長柄組와 弓組에는 足輕이 각각 30인, 19인이 있다. 그 외에 騎馬隊에는 武士 22인과 奉公人 58인 등이 있다. 즉 18세기 초의 本多民部左衛門備에는 足輕 구성이 鐵砲가 72인, 弓이 19인, 長柄이 30인으로서, 鐵砲에 비해 弓兵의 수와 비중이 17세기 말보다 다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25인 → 19인). 대신 鐵砲는 60인에서 72인으로 증가하였고 長柄(鎗)은 큰 변화가 없다. 즉 17세기말~18세기초에 걸쳐 鐵砲의 전술적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弓의 전술적 의미는 다소 줄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弓의 비중과 전술적 역할은 아직도 일정한 규모로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일본의 군사제도와 전술의 흐름은 17세기 전반기부터 나타난 鐵砲의 전술적 중요성과 비중 증대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18세기 초까지 鎗과 弓의 비중은 낮지만 일정한 수준으로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4. 17세기 이후 조선의 전술 변화⁸⁴⁾

1) 임진왜란과 조선의 전술 변화

16세기 후반의 戰國時代와 조선과의 2차례 대규모 전쟁은 일본의 전술과 군사조직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그 추세는 17세기 후반까지 계속되었지만 弓과 長柄足輕 계속 잔존하는 등 몇 가지 점에서 이전의 전술과 편성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조선은 16세기 말 일본과의 전쟁과 함께 17세기 북방의 女眞 勢力과 3차례의 대소 전쟁을

84) 본 장은 필자의 다음 논문의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盧永九, 「仁祖初-丙子胡亂時期 朝鮮의 戰術 전개」, 『韓國史學報』41, 2010 ; 盧永九, 「朝鮮後期 城制變化와 城郭史的 意味」, 『震檀學報』88, 1999 ; 노영구, 「16~17세기 鳥銃의 도입과 조선의 군사적 변화」, 『한국문화』58, 2012 등.

치르면서 임진왜란을 계기로 변화하기 시작한 전술적 변화가 가속화되었다.

16세기 후반까지 조선은 북방 女眞族의 침입이 가장 주요한 위협이었으므로 기병을 중시한 편제와 기병 돌격과 弓矢와 화약 무기 중심의 전술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근접전을 위한 전술과 무기체계를 적절히 갖추지 못하였다. 임진왜란 초기 조선군의 패배는 大刀와 長槍 등 기존의 근접전 능력에 더하여 신형 화기인 鐵砲로 무장한 일본군의 전술적 우위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조선은 명나라의 새로운 전술로 16세가 중반 戚繼光이 개발한 이른바 浙江兵法를 도입하였다. 이 전술은 먼저 각종 화포와 火箭을 이용하여 먼 거리에서부터 기선을 제압하고 이어 새로운 근접전 병기인 防牌, 長槍, 鎗鈸, 狼筈 등을 이용하여 근접전을 벌이도록 한 보병 중심의 전술체계였다. 그리고 이에 적합하도록 조선의 군사제도는 완전히 변화하였다. 한성의 訓練都監 창설과 지방의 東伍軍 편성이 그것이다.

浙江兵法은 기본적으로 군사 10명의 隊가 최하 단위이고 3개 隊가 1旗, 3개 旗가 1哨, 5개 哨가 1司, 5개 司가 1營을 편성 원리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防牌, 長槍, 鎗鈸, 狼筈를 가진 근접전 군사(일명 殺手)를 중심으로 편성하되 1개 司에는 반드시 鳥銃(=鐵砲)로 구성된 1개 哨를 두도록 하였다. 즉 전체 군사에서 鳥銃兵의 비중은 20% 정도이고 나머지는 殺手인 것이다. 弓兵은 따로 배치된 것이 아니라 長槍兵이 弓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시 사격하도록 하였다. 이 전술은 원래 騎兵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보병 중심의 전술이었다. 그러나 이 전술은 조선에 도입되어서는 상당한 변형이 불가피하였다.

먼저 임진왜란 중 일본의 조총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조선은 砲手(=조총병)을 양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殺手の 훈련을 보급하는데 노력하였다. 다만 기존의 장기인 弓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군사인 射手도 남겨두도록 하였다. 임진왜란 중인 1594년 11월의 訓練都監의 편성을 보면 砲手 7哨, 殺手 4哨, 射手 2哨로 편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지방군의 경우에도 이 무렵 砲手, 殺手, 射手로 편성하였는데 기존의 射手 비중이 가장 높았다. 군사의 배치는 대체로 殺手 - 砲手 - 射手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일본의 조총 도입 시기의 전술과 상당히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 전쟁 기간 중에는 아직 浙江兵法이 완전히 정착된 것은 아니었고 화약무기가 중시된 당시의 전쟁 상황에 따라 이후 상당한 변형이 나타났다.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초부터 조선은 만주의 건주 여진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조선이 당면하였던 전술적 문제는 기존의 전술과 군사체제로는 야전에서 여진 기병의 돌격을 저지하기 어려운 점이었다. 실제로 선조 38년(1605) 5월 忽濫 女眞을 공격하던 조선군 3천여 명이 50명에 불과한 여진 기병의 돌격에 큰 피해를 입는 사건이 있었다.⁸⁵⁾ 이 전투 이후 조선은 평지에서 조총 사격으로는 기병에 대응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아울러 여진 기병의 갑옷은 궁시로는 관통이 어렵고 총통으로만 관통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⁸⁶⁾ 後金の 군대는 철갑으로 방호된 기병의 돌격을 중시하는 전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일본군에 효과적이었던 보병 위주의 절강병법을 그대로 대응하기는 어려웠다. 기병의 돌격을 막기 위해서는 위력이 큰 조총을 갖춘 砲手를 대규모로 양성하여 연속으로 사격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였다. 다만 조총은 雨天시에 사격이 어려웠고 발사속도가 느렸으므로 상당한 규모의 射手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실제 17세기 초 明의 후금에 대한 반격 전쟁에 참여한 조선군은 砲手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초기 전투에서 큰 역할을 하였지만 강한 바람이 불어 사격하기 어렵게 되면서 크게 패하였다. 이후 砲手와 함께 射手를 육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조총이 전쟁의 주된 병종이 됨에 따라 殺手는 이전의 근접전을 통해 전투의 승패를 결정짓던 주도적 병종에서 점차 포수의 엄호가 주된 역할을 하는 다소 보조적인 병종으로 성격이 변하였다. 殺手도 근접전이 벌어지기 직전까지는 砲手와 함께 火箭이나 弓矢를 사격하도록 훈련이 요구되었다. 특히 후금 기병의 활동을 견제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융통성 높은 騎兵의 중요성이

85) 『宣祖實錄』 권187, 선조 38년 5월 壬辰.

86) 『宣祖實錄』 권188, 선조 38년 6월 庚戌. 이 전투와 조선의 대여진 전술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장정수, 장정수, 「17세기 전만 朝鮮의 砲手 양성과 운용」,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101, 32쪽 참조.

부각되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조선은 射手, 殺手, 砲手, 騎兵 등 다양한 병종을 함께 육성하고 이를 통합한 전술을 고안하여 후금(이후 淸)에 대항하려 하였다.

2) 병자호란 이후 조총 위주의 군사 편성

17세기 중반 일어난 淸과의 전쟁(丙子胡亂, 1636)은 조선의 기존 전술이 가진 장단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었다. 전쟁 이후 조선의 전술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여러 전투 경험을 통해 기병의 돌격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조총이 弓矢보다 매우 우수하다는 점이 확인된 점을 들 수 있다. 조총은 낮은 발사속도와 신뢰성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높은 관통력으로 기병의 돌격을 확실히 제압할 수 있었으므로 이후 조총을 중심으로 조선군의 편제를 개편하기 시작하였다. 실제 17세기 중반 이후 射手를 砲手로 전환하면서 射手의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고 砲手の 비중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병자호란 직후인 인조 17년 정월 어영군의 변상 군사 100여 명 중 포수와 사수의 비중이 절반이었는데 이중 사수를 포수로 전환하는 것을 모색하였다.⁸⁷⁾ 이에 사수 중에서 우수하지 않은 자는 포수로 전환하고 殺手를 폐지하도록 하였다.⁸⁸⁾ 이는 지방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인조 26년 함경 감영의 군병 중에서 장관이 거느린 8천 군사 중에서 포수가 4천여 명에 달하여 포수의 비중이 전체 군병에서 절반을 넘었다. 게다가 궁시는 군병들이 각자 준비한 것이 없어 관에서 지급하고 3차 정도 사격할 정도로 그 군사적 비중은 상당히 낮아졌다.⁸⁹⁾ 이는 인조 5년 정묘호란 당시 한성으로 올라왔던 지방군의 경우 전체 군사에서 포수의 비중이 20% 내외에 지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다면⁹⁰⁾ 그 20여 년 사이에 조선군의 병종 구성에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87) 『承政院日記』 제68책, 인조 17년 정월 15일 癸酉.

88) 『承政院日記』 제72책, 인조 17년 12월 17일 己亥.

89) 『承政院日記』 제204책, 효종 8년 10월 8일 己卯.

90) 『仁祖實錄』 권15, 인조 5년 2월 戊午.

다음으로 淸이 사용한 紅夷砲 등 대형 火砲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화포의 제작과 城郭 체제의 변화가 나타났다.⁹¹⁾ 병자호란 직후인 1644년 明 멸망 이후 성립된 南明 정권과 鄭成功의 海上 세력은 홍이포 등 크고작은 서양식 火砲를 갖추고 淸軍의 공격에 대항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1557년에는 일시적으로 南京이 鄭成功 세력에 장악되기도 하였다. 이에 淸軍도 明 말기의 화기를 대량 제조, 장비하여 이에 대응하였다.⁹²⁾ 화포는 이후에도 전쟁에서 주요한 역할을 계속 담당하였다. 17세기 중반 흑룡강 일대로 진출한 러시아 세력을 저지하고자 러시아 세력의 근거지인 雅克薩(Yakesa) 성을 둘러싸고 1580년대 러시아와 청군이 대규모 전투를 벌일 당시에도 청군은 홍이포 등 다량의 대형 화포와 각종 火箭 등을 동원하여 雅克薩성에 대해 수일간 포격을 가하여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⁹³⁾ 즉 동아시아 지역의 전쟁 양상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조선의 경우 실제 인조 이후 孝宗(1649~1659), 顯宗(1659~1674) 시대에 紙砲, 銅砲, 南蠻砲 등 각종 신형 화포의 제작이 이루어지고, 수어청 등에 別破陣 등의 화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대가 창설된 것은 변화하는 전쟁 상황의 반영이었다.⁹⁴⁾

조총의 성능이 개량되고 포수가 주요 병종으로 전체 군병에서 큰 위치를 점하게 되자 사수의 경우 효종대 중앙 군영에서는 거의 소멸하였다. 다만 지방군의 경우에는 아직 사수가 적지않게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⁹⁵⁾ 이와 함께 살수의 전술적 역할과 형태에서도 변형이 나타났다. 이전에 다양한

91) 盧永九, 「17世紀における朝鮮城郭の發達に關する一試論」, 『倭城研究シンポジウムⅡ, 倭城』, 城館史料學會, 2011, 84~85쪽.

92) 王兆春, 『中國火器史』, 軍事科學出版社, 1990, 255~258.

93) 中國人民革命軍事博物館 編著, 『中國戰爭發展史』(上), 人民出版社, 2001, 502~504쪽

94) 노영구, 「17世紀 朝鮮의 火器發達 推移와 關聯 兵書의 刊行」, 『朝鮮의 政治와 社會』, 集文堂, 2002.

95) 효종 4년(1653) 조선에 표류하였던 하멜의 표류기에 따르면 조선의 중앙군은 기병은 궁시와 도리개로 무장하며 보병은 화승총과 칼, 短槍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지방의 승군은 칼과 궁시로 무장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이는 중앙군의 경우 보병은 射手가 없이 대부분 포수로 이루어져 있었고, 지방군의 경우 아직 사수의 비중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헨드릭 하멜(김대진 옮김), 『하멜표류기』, 서해문집, 2003, 111~112쪽).

단병기를 가진 여러 형태의 殺手도 槍劔兵으로 통일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는 유럽 전쟁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16세기 중반 근접전 군사를 중심으로 총병을 결합한 스페인의 방진 전술인 Tercio의 경우에도 초기 근접전 군사가 방패수인 sword-and-buckler나 미늘창병인 halberdier, 그리고 창병인 pikeman 등이 혼합되어 있었으나 이후 이들의 수가 점차 줄어가다가 창병(pikeman)과 총병(arquebusier)이 동일한 비율로 형성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⁹⁶⁾

17세기 후반이 들어서면 조선의 전술에서 殺手는 이전의 砲手의 전방 엄호 역할도 점차 약해져 여러 부대에서 그 존재가 거의 없어지거나 아니면 대열의 후위에 위치하여 전투에서의 역할이 미미해져 갔다. 아울러 전국 각지에 대규모 기병 부대가 창설되고 鞭棍을 이용한 기병의 돌격 전술이 중시되었다. 당시 조선군은 적군이 120미터 이내로 들어오면 조총의 연속 사격을 실시하였고 계속하여 적군이 다가와 60~70미터 이내로 들어오면 騎兵이 일제히 돌격하는 전술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각종 화포를 이용한 전술도 도입되었다. 이처럼 17세기 말부터 조선은 騎兵과 조총병을 중심으로 하여 여기에 화포를 통합한 조선 특유의 '三兵戰術'이 확립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유럽에 비해 야전용 화포의 비중이 그다지 높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5. 맺음말-근세 조선과 일본의 전술적 상이점과 전략문화, 사상에의 영향

17세기 이후 동아시아 군사체제의 최대 목표 중의 하나는 기병의 일제 돌격을 화기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었다.

96) Trevor N. Dupuy, *The Evolution of Weapons and Warfare*, (1984, Da Paco Press) pp.113~114

조선은 청과의 전쟁 이후에도 계속 우수한 기동력을 가진 청의 군사력으로 부터 강한 압박을 받았다. 조선에서 조총의 개량과 연속 사격 전술의 도입, 弓兵과 殺手 등을 포수와 함께 육성한 것은 그 노력의 일환이었다. 아울러 야전용 화포 및 적정 규모의 기병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즉, 군사적 긴장이 계속 유지되었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는 사정이 다소 달랐다. 17세기 전반기에 있었던 세키가하라 전투(關ヶ原合戰)와 오사카성 전투(大坂の陣), 시마바라의 난(島原の亂) 이후 대규모 전쟁을 겪지 못하고 평화기가 됨에 따라 17세기 전반 野戰 전술과 군사조직에서 여러 변화가 나타난 이후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鐵砲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등의 편제 및 전술적인 변화는 나타났지만 18세기 전반까지 弓과 長槍이 상당한 비중으로 끈질기게 잔존하고 있음은 이를 반영한다. 18세기 후반까지 새로운 화기 제작 보다는 다소 변칙적이고 유희적인 砲術이 유행한 것도 평화의 시대에 따른 양상이었다. 따라서 조선과 같이 조총 등 화기를 중심으로 하는 전면적인 전술상, 편제상의 전환은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일본에서 17세기 중반 이후 실전적 전술을 담은 軍學 대신 추상적인 군사사상인 兵學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평화적 시대의 산물이다.⁹⁷⁾ 다만 18세기 후기 海洋으로부터의 대외적 위협이 발생하자 天山流 등이 등장하여 1778년에는 좌우 180도, 상하 80도로 선회가 자유로운 야전포대인 一種周發臺가 완성되고 새로운 전술이 개발되기도 하였다.⁹⁸⁾ 즉 보병의 근본적 개혁보다는 大砲의 제조와 砲兵의 확장을 통해 이러한 대외적 위협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江戶時代에 완만하나마 확장되었던 병종이 포병이었다는 사실은 이를 반영한다.⁹⁹⁾

대륙으로부터의 계속된 위협과 해양으로부터의 위협이라는 상이한 요소는 조선과 일본 두 나라의 이후 戰略文化 및 전략사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97) 野口武彦, 『江戸の兵學思想』, 中央公論社, 1999.

98) 宇田川武久, 『鐵砲と戰國合戰』, 吉川弘文館, 2002, 30-33쪽.

99) 久保田正志, 『江戸時代前期の大砲と砲手・砲術家』, 『軍事史學』186, 2011, 74쪽

된다.¹⁰⁰⁾ 조선의 경우에는 해군보다는 육군 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하여 야전 전술에서의 다양한 요소, 즉 기동과 화력의 요소를 함께 중시할 뿐만 아니라 수세성과 함께 공세성을 고려하는 전략 사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에 비해 일본은 육전의 경우에는 화력을 우선하는 양상을 띠게 되고 해군의 강화를 통한 해양지배권을 중시하는 전략문화가 나타나게 된다. 아울러 일본 본토 주변의 영토 확보를 추구하게 된다.¹⁰¹⁾ 근세 이후 두 나라의 전략문화 및 전략사상의 상이점은 17세기 이후 두 나라의 역사적 경험의 상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투고일 : 2012. 6. 28, 심사수정일 : 2012. 8. 10, 게재확정일 : 2012. 8. 14)

주제어 : 임진왜란, 총병(銃兵) 족경(足輕), 병서(兵書), 사수(射手), 기병(騎兵)

100) 전략문화란 ‘군사력에 관한 사고 및 행동 양식’으로서 전략문화는 전략이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독자적으로 전략 방침을 결정하는 요소로 기능한다(Colins S. Gray, *Modern Strategy* (Oxford, 1999) p.130).

101) 일본의 전략문화에 대해서는 권태환, 「일본의 전략문화와 전쟁수행방식」, 『전략문화와 전쟁수행 방식』, 육군사관학교 발표문, 2009, 43~49쪽에 자세하다.

<ABSTRACT>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tactics of pre-modern Japan and Korea in 16~17th Century

Roh, Young-koo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changes of tactics in pre-Modern(近世) Korea and Japan.

Changes in the tactics of pre-modern Japan was generally known to be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muskets, but basically the emergence of Ashigaru(足輕) to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infantry battle was important phenomenon. Increased importance of infantry in battles and musket(鳥銃) which were introduced in the Japanese military system affected quite a few tactics. After the Imjin war confirmed the importance the muskets. There was a fundamental change in military institutions in Japan. This 17th-century Japanese military Manual(兵書) and military organizations can be found to confirm the change.

Triggered by Imjin War and three wars with Qing China, Joseon accelerated the change on tactics. The occasion of Imjin war, Joseon's infantry tactics were switched to the Zhejiang systems replacing cavalry to infantry soldiers. Until the first half of the 17th century, through a variety of Branch of the army, Joseon was to prepare for the attack of the Juchen. In addition to Musketeer, Archer(射手) and cavalry force(騎兵) were fostered. However, since the mid-17th century, particularly after the manchuria invasion, it was proved that muskets were effective in deterring the attack by the cavalry forces. Thus Joseon's military systems were changed to musket-centered systems. Therefore, the number of archers was drastically reduced.

Since the second half of the 17th century, the threats from the continent and the sea influenced greatly the strategy of Korea and Japan. The

differences in the strategies of the two countries were caused by the differences in their historical experiences since the 17th century.

Key Words : Tactics, Musketeer, Imjin War, Ashigaru(足輕), military Manual
(兵書), Archer(射手), cavalry force(騎兵)

唐 전반기 禁軍의 編制와 運用*

정 순 모**

1. 머리말
2. 禁軍의 범위와 南衙禁軍의 운용
3. 北衙禁軍의 운용과 한계
4. 맺음말

1. 머리말

隋末의 혼란을 수습하고 재차 천하를 통일한 唐은 武德 연간이래 3차례의 律令 반포를 통해 제국의 통치 시스템을 완비하였고 그 율령 체계는 우리 나라를 포함한 인접 국가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때부터 당은 이상적인 율령국가로 인식되었고 여기에 '국제성'을 더해 중국인이 가장 자부하는 왕조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화려했던 겉모습과 달리 唐의 황위 계승은 의외일 정도로 불안정하였다. 이는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武德-開元시기조차 황위 계승이 玄武門의 변을 포함하여 5차례의

* 이 논문은 2011년도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충남대 사학과 교수

정변으로¹⁾ 결정되었고 安史亂 이후에는 한 차례를 제외하고 환관에 의해²⁾ 좌우되었던 사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律令에 의한 통치 시스템의 완비와 운용에도 불구하고 정작 최고 지배자 교체에 안정성이 결여되었던 현실은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일까? 중국의 전통 왕조에서 황위 계승을 둘러싼 권력 투쟁은 일상적인 것이었어도, 唐朝의 경우 항상 禁軍, 특히 北衙禁軍이 궁정의 諸勢力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고 禁軍의 장악 여부가 정변의 성패에 직결되고 있었다는 점에³⁾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율령에 의해 운용되어야 할 禁軍이 현실적으로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던 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禁軍이란 천자가 거처하던 禁中의 衛兵을 뜻하는데, 당 전반기 금군은 넓은 의미에서 장안성, 즉 京師의 궁성 북쪽에 주둔하는 北衙禁軍과 궁성 남쪽에 주둔하는 南衙禁軍으로 구성되었다.⁴⁾ 남아금군은 府兵에 의해 구성된 율령제의 틀 속에서 운용되던 군대였다. 隋의 律令·典章 대부분을 답습한 당은 兵制에서도 貞觀10년(636) 隋의 부병제 일부만을 수정하여 중앙·지방·변경 방어를 통일된 체계로 운영하고자 하였다.⁵⁾ 부병제는 중앙의 금군을 운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고 官制·均田制·租庸調制 등과 원활한 연계도 필수적이였다.⁶⁾ 반면 북아금군은 건국초 율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唐 皇室과 사적 유대가 긴밀한 군대였다. 일반적으로 중국 전통 왕조의 건국자들은 私的 유대가 긴밀한 군대에 의지하여 천하 통일을 완성했어도, 정세가 안정되면 이들을 바로 정리하고 전체적인 兵制

1) 『資治通鑑』(北京: 中華書局, 1987) 권207, 神龍元年(705) 正月條; 권208, 景龍元年(707) 7月條; 권209, 景雲元年(710) 6月條; 권210, 開元元年(713) 7月條 참조.

2) 『二十二史劄記』(北京: 中國書店, 1990) 권20, 「唐代宦官之禍」, pp.262-4.

3) 陳寅恪, 『唐代政治史述論稿』, 上海古籍出版社, 1982, pp.50-59; 汪錢, 「玄宗時期之禁軍及其統帥」, 『漢唐史論稿』, 北京大學出版社, 1995, pp.247-258.

4) 『新唐書』(正史는 北京, 中華書局에서 출판된 標點校勘本을 이용하였다) 권50, 「兵志」, p.1330, “夫所謂天子禁軍者, 南北衙兵也. 南衙, 諸衛兵是也. 北衙者, 禁軍也.”

5) 濱口重國, 「府兵制より新兵制へ」, 『秦漢隋唐史の研究』上卷, 東京大學出版會, 1966 참조.

6) 이를 律令體制라고 할 수 있는데(曠波護, 「唐の律令體制と宇文融の括戸」, 『唐代政治社會史研究』, 京都: 同朋舍, 1986, pp.296-305 참조) 그 중 均田制의 시행 여부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있다.

운용의 틀 속에서 금군을 운영하던 패턴을 찾아볼 수 있다. 오랜 분열 시기를 종식시킨 隋 역시 西魏·北周 이래의 部族의 색채가 짙고 지방호족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군대를 府兵制의 틀 속에서 운용하고자 했다.⁷⁾ 비록 고구려 원정 등과 같은 失政으로 그 완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의지만큼은 분명하다. 따라서 당 전반기 禁軍의 편제와 운용 등에 관한 모습은 금군의 두 계통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律令制 운용이라는 관점에서 당 조가 의도했던 제도적 취지를 찾을 필요가 있다.

禁軍에 관한 연구 성과는 적지 않다. 우선 남아금군은 부병제 연구로서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지만⁸⁾ 금군이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은 의외로 많지 않다. 이는 금군을 북아금군에 한정시킨 인식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 자연스럽게 남아금군에 대한 연구도 대체로 북아금군의 연구에서 취급되었다. 陳寅恪은 당조의 ‘關中本位’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북아금군은 ‘衛宮之軍’, 남아금군은 ‘衛城之軍’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북아금군이 당 전반기 궁정 정변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던 점을 지적하여 이후 금군 연구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후 북아금군에 관한 연구는 그 발전 과정에 대해 엄밀한 사료 비판과 諸書의 異同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졌다.⁹⁾ 그 중 황제의 소수 정예부대 필요성을 역설한 연구는¹⁰⁾ 북아금

7) 菊池英夫, 『府兵制度の展開』, 『岩波講座世界歴史』5, 東京, 岩波書店, 1971, pp.410-9.

8) 府兵制에 관한 연구 성과는 氣賀澤保規, 『府兵制の研究-府兵兵士とその社會-』, 京都, 同朋舎, 1999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외에도 谷霧光, 『府兵制度考釋』, 上海人民出版社, 1962; Edwin G. Pulleyblank, The Background of the Rebellion of An Lu-sha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5, pp.61-3; Lai, Swee Fo, The Military and Defence system under the Tang dynasty, Ph.D. Thesi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1986, pp.20-52, 참조.

9) 蒙曼, 『唐代前期北衙禁軍制度研究』,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5; 張國剛, 『唐代北衙六軍述略』, 『唐代政治制度研究論集』, 北京, 文津出版社, 1994, pp.143-156; 張國剛, 『唐代禁衛軍考略』, 『南開學報』1999-6, pp.146-155; 寧志新, 『唐代的羽林軍初探』, 『河北師院學報』1990-4; 寧志新, 『說唐初元從禁軍』, 『河北師院學報』1989-3; 巴新生, 『唐代禁軍組織的演變與宦官典禁軍制度』, 『天津師專學報』1984-2; 黃修明, 『唐代前期的北衙禁軍』, 『南充師院學報』1985-4, pp.76-81; 王篋, 『玄宗時期之禁軍及其統帥』, 『漢唐史論稿』, 北京大學出版社, 1992; 金滸, 『唐前期의 北衙禁軍』, 『中國學報』, 2007; 菊池英夫, 『唐府兵制의 成立過程と北衙禁軍의 起源』, 『東洋史學』13, 1955, pp.61-96. 菊池英夫, 『唐代北衙禁軍考』, 『史淵』70, 1956, 參照.

10) 趙雨樂, 『唐前期北衙의 騎射部隊-北門長上到北門四軍의 幾點考察』, 『陝西師範大學學報(哲社

군의 모체가 남야의 諸衛였고 북야에서 운번 宿衛했던 제도에서 북야금군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추측하였다. 북야금군은 유연하게 운용된 제도로 남야금군이 경직되게 운용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언급도¹¹⁾ 시사성이 풍부한 추론이다. 이밖에도 금군의 구성 인원과 그들의 자질에 대한 것,¹²⁾ 금군과 경사 숙위에 필요한 재정 문제를 다룬 것,¹³⁾ 禁軍의 사법 문제에 대한 연구¹⁴⁾ 등과 『新唐書』兵志에 대한 충실한 교감과 주석도¹⁵⁾ 제서의 사료 비교 연구에 빠뜨릴 수 없는 성과이다.

이와 같이 금군에 관한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은 북야금군에 집중되어 있고 남야금군은 부병제 연구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 전반기 금군의 전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볼 여지가 있다. 더욱이 북야금군에 관한 율령 규정이 없던 시기 律令制 운용이라는 관점에서 금군의 편제와 운용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고 그 문제점도 부각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기초로 남·북야금군의 전체적인 모습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당 전반기 禁軍의 編制와 운용에 대한 제도적 취지와 그 실상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춰 이것이 律令制 운용에 얼마나 부합하였으며, 잦은 정변에 禁軍이 쉽게 동원될 수 있었던 구조적 요인이나 그 한계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는 軍制에서 율령 국가 唐의 면모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禁軍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금군을 북야금군에 한정시킨 듯한 연구 경향을 극복하고 율령제의 틀 속에서 금군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이를 기반으로 각각 남야금군과 북야금군의

版)2002-2, pp.74-81.

11) 雷家驥, 『隋唐中央權力結構及其演進』, 臺北, 東大圖書公司, 1995, pp.445-461.

12) 薛平控, 「試論開元天寶以後的長安商人與禁軍」, 『唐都學刊』1992-3; 周敏, 「論唐代京都‘禁軍俠少’及在唐詩中之表現」, 『西北大學學報』(哲社版)2000-3, pp.132-135.

13) 李錦綉, 「禁軍及京師宿衛兵費」, 『唐代財政史稿』(上卷) 第3分冊, 北京大學出版社, 1995, pp.1184-1186.

14) 王素, 「唐五代的禁衛軍獄」, 『中華文史論叢』1986-2, pp.117-129.

15) 唐長孺, 『唐書兵志箋正』, 北京, 科學出版社, 1957; Robert des Rotours, *Traité des fonctionnaires et traité de l'armée*, 2 vols., Leiden: E. J. Brill, 1947.

편제와 운용에 대한 제도적 검토를 통해 금군의 구조적 문제점까지 생각해 보고 싶다.

2. 禁軍의 범위와 南衙禁軍의 운용

1) 禁軍의 범위

禁軍이란 보통 천자가 거처하는 禁中을 守衛하는 衛兵을 의미한다. 중국의 어느 왕조든 최고 지배자인 천자를 守衛하는 군대가 있기 마련이지만¹⁶⁾ 당대 禁軍이란 용어는 玄宗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이 때문에 당 전반기 금군의 역할을 수행했던 군대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新唐書』에는 正史 중 兵志란 항목을 새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무릇 天子의 禁軍이란 南·北衙의 군대(兵)이다. 南衙는 諸衛의 군대가 그것이고 北衙는 禁軍이다.¹⁷⁾

여기서 衙란 황제의 거처¹⁸⁾ 혹은 관청이란 의미로 황제는 南面하여 천하를 다스리기에 남측에 정식 행정기관을 두었고 그곳을 南衙라 총칭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황제의 사적 공간으로¹⁹⁾ 북문에 해당하는 玄武門은 황제의 사적, 내지 비공식적으로 이용하는 문이었고 만약 정식으로 行幸할 경우

16) 王鏡輪·向斯, 『中國古代禁衛軍-皇帝衛隊始末-』, 北京, 解放軍出版社, 2000, 참조.

17) 『新唐書』 권50, 『兵志』, p.1330, “夫所謂天子禁軍者, 南北衙兵也. 南衙, 諸衛兵是也. 北衙者, 禁軍也.”

18) 『新唐書』 권23上, 『儀衛志 上』, p.481, “唐制, 天子居曰衙, 行曰駕, 皆有衛有嚴.”

19) 唐太宗이 南衙의 일과 北門의 일을 구분하여 魏徵의 비판을 받았다거나(『貞觀政要』〈北京: 中華書局, 1991〉 第2卷, 納諫第5, p.72) 南衙는 제상 소관이라는 언급 등은(『資治通鑑』 권203, 垂拱2년 4월, p.6441; 『資治通鑑』 권207, 神龍元年 正月, p.6580) 북쪽은 황제의 사적 공간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던 사실을 전해 주고 있다.

에는 남쪽의 정문인 承天門에서 朱雀門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²⁰⁾ 『신당서』 기사는 京師의 남아와 북아에 배치된 군대를 모두 금군으로 인정하면서도 말미에 북아에 배치된 군대를 특별히 禁軍이라 지칭하였기 때문에, 금군이란 개념에 남아를 포함하는 광의의 금군과 북아만을 지칭하는 협의의 금군으로 구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두 禁軍 개념은 『신당서』가 宋代에 편찬되었던 시점과 무관하지 않다. 송대 병제에서 天子의 衛兵을 금군이라 하고 그 임무는 京師를 방어하고 征戍에 대비하는 것이었다.²¹⁾ 이 임무는 당 전반기에 바로 부병이 담당했던 것으로 『신당서』 兵志 편찬자가 當代의 관점에서 당의 남아 소속의 병사도 금군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보인다.²²⁾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당대 '禁軍'을 지칭할 경우 당 후반기의 禁軍만을 지칭해야 할 지 모른다. 그러나 京師 역시 황제가 거처하고 있는 곳이고, 龍朔2년(662) 이전 禁中을 수위하는 금군에 대한 율령 규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당 전반기 禁軍으로 府兵을 주축으로 했던 남아의 16衛를 도외시할 수 없다. 즉 남아의 군대 역시 그 임무가 경사를 방어하는 이상, 금군이라 해도 큰 차질은 없고 율령제 하에서 경사의 방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이런 점에서 『신당서』 금군에 대한 설명은 금군이란 호칭에 집착하지 않고 16衛의 임무를 금군과 동일하게 파악했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新唐書』 兵志에 적시된 당대 兵制 변화에 대한 다음의 기사를 살펴보자.

대략 唐이 천하를 소유했던 200(300?)여 년간 병제의 대세에 3번의 변화가 있었다. 초기 전성 시기에는 府兵이었고, 府兵이 폐지된 후에 彊騎였으며,

20) [부록]에 京師(長安)의 宮城과 皇城 참조.

21) 『宋史』 권187, 「兵志1」, 禁軍, p.4569, “宋之兵制, 大概有三. 天子之衛兵, 以守京師, 備征戍, 曰禁軍, 諸州之鎮兵, 以分給役使, 曰廂軍, 選於戶籍或應募, 使之團結訓練, 以爲在所防守, 則曰鄉兵.” 北宋초 禁軍에 대한 것은 王曾瑜, 『宋朝兵制初探』, 北京, 中華書局, 1983, pp.9-53 참조.

22) 程大昌 역시 禁軍을 南·北衛에 주둔하는 군대를 총칭하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나아가 두 군은 漢代의 南·北軍처럼 상호 견제를 도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雍錄』(北京: 中華書局, 2005) 권8, 「唐南北軍」, pp.173-4.

驍騎도 폐지되면서 方鎮의 병사들이 성하였다. 당말에 이르러 疆臣과 悍將의 병사들이 천하에 포진하여 天子 역시 京師에 병사를 두어 禁軍이라 하였다.²³⁾

인용문에서 금군이란 용어를 당말에 한정시켜 표현하고 있는데 병제의 대세는 일단 府兵-驍騎-方鎮의 병사로 개괄할 수 있다. 여기서 황제와 수도를 직접 수위하는 군대를 금군이라 할 때, 方鎮의 병사는 節度使의 군대로 황제의 수위와 직접적 관계가 없고 府兵과 驍騎는 금군의 충원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당 전반기 禁軍의 이해는 부병제의 검토가 필수적이다.

2) 南衙禁軍의 운용

唐은 貞觀10년(636) 隋制를 계승하여 12衛 東宮 6率府 제도를 정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경의 鎮戍兵까지 내지의 衛士, 즉 府兵으로 교체 근무(이 경우 防人)하게 하여 여기서 중앙·지방·변경을 하나의 체계로 결부시켰고 이를 중앙의 尙書省 兵部에 직속하게 한 중앙집권적 兵制를 완성시켰다.²⁴⁾

開元26년(738)에 편찬된 『唐六典』에는²⁵⁾ 중앙의 禁軍으로 후술할 북아금군인 羽林軍과 더불어 16위 10솔부의 명칭과 편제, 연혁, 職官과 조직 체계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였다. 16위의 명칭은 左右衛·左右驍衛·左右武威·左右威衛·左右領軍衛·左右金吾衛·左右監門衛·左右千牛衛이고 10率府는

23) 『新唐書』 권50, 「兵志」, pp.1323-4, “蓋唐有天下二百餘年, 而兵之大勢三變, 其始盛時有府兵, 府兵後廢而爲驍騎, 驍騎又廢, 而方鎮之兵盛矣. 及其末也, 疆臣悍將兵布天下, 而天子亦自置兵于京師, 曰禁軍.”

24) 濱口重國, 「府兵制より新兵制へ」, 『秦漢隋唐史の研究』 上卷, 東京大學出版會, 1966; 氣賀澤保規, 『府兵制の研究-府兵兵士とその社會-』, 京都, 同朋舍, 1999; 谷霽光, 『府兵制度考釋』, 上海人民出版社, 1962, 등 참조.

25) 『唐六典』(北京: 中華書局, 1992) 권24-25, 참조. 아울러 그 번역은 김택민 주역, 『譯註 唐六典』(上)(中)(下), 서울, 신서원, 2003, 2005, 2008의 해당 조문을 참고하였다.

太子府의 太子左右衛率府·太子左右司禦率府·太子左右清道率府, 太子左右監門率府·太子左右內率府이다. 이들 제위의 병사들은 左右監門衛·左右千牛衛, 太子左右監門率府·太子左右內率府를 제외하고 모두 府兵 衛土로서 좌우위에서 좌우금오위까지 각각 驍騎·豹騎·雄渠·羽林·射聲·依飛라는 고유의 이름을 가졌다. 제외된 4衛와 4率府는 府兵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각각 龍朔2년에 衛로 변모되었다. 4衛의 임무는 諸門의 禁衛, 宮殿의 侍衛였고 다른 12衛의 임무와도 깊은 관련이 있었던 점에서 南衛禁軍에 4衛를 포함시키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諸衛의 최고 지휘관은 좌우위 이하 정3품의 대장군이 각 1명, 종3품의 장군 2명이 있고 그 아래로 倉曹·兵曹·冑曹參軍事 이하 府·史 약간 명이 있다. 16위 대장군과 장군 이하 武官들의 品階와 정원은 동일한데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부록]의 표-1과²⁶⁾ 같다. 표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듯이 좌우위의 봉거도위(5인)를 제외하면 좌우위에서 좌우금오위까지 소속 職事官의 품계, 명칭, 정원이 유·내외 모두 동일하였다. 좌우위의 奉車都尉는 天寶 이전 모두 '儀容美麗'한 자로 충당하여 副車를 모는 일을 담당하였지만 상설 관직은 아니며 대규모 行幸시 다른 관으로 攝行하였고²⁷⁾ '有其名而無其人'이라 한 사실에서²⁸⁾ 실제적으로 감문위·천우위를 제외한 12衛는 동일한 체계와 정원으로 운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府兵의 징발권은 尙書省 兵部에 있어 황제의 勅書와 兵部의 符契가 필수적이었고 12衛 장군들은 지휘권만 있을 뿐이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앙에서는 각 절충부에 부병을 징발시켜 임시로 임명된 장군에 의해 통솔하게 하였고 전쟁이 끝나면 군대를 해산시킴으로써 장군과 부병 간의 私的 유대가 차단되어 兵亂을 예방할 수 있었다.²⁹⁾

26) 『唐六典』 권24-25, 참조.

27) 『通典』(北京: 中華書局, 1988) 권29, 「職官典, 職官11」, 三都尉, p.812, “天寶以前悉以儀容美麗者充選. 奉車徒尉五員, 掌馭副車, 不常置. 若大備陳設, 則以餘官攝行, 屬左右衛也.”

28) 『新唐書』 권49상, 「百官志 4上」, p.1281, “奉車都尉, 掌馭副車. 有其名而無其人, 大陳設則它官攝. 駙馬都尉無定員, 與奉車都尉皆從五品下.”

29) 『新唐書』 권50, 「兵志」, p.1328, “初, 府兵之置, 居無事時耕於野, 其番上者, 宿并京師而已. 若四方有事, 則命將以出, 事解輒罷, 兵散于府, 將歸于朝. 故士不失業, 而將帥無握兵之重,

남아금군의 주요 임무는 각 위가 지정된 위치에서³⁰⁾ 궁성과 황성, 경성 전체를 주야로 수비하는 일이다. 각 위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¹⁾ 左右衛는 황제가 正殿(太極殿)에 있을 때 양쪽 계단에 서고, 正門(嘉德門)³²⁾ 안에서는 동서의 廂에서 俠門隊³³⁾ 역할을 수행하였다. 承天門·嘉德門 안에서는 대장군이 지휘하였다. 좌우효위는 正殿에서 좌우위 다음에 서고, 正門 밖에서는 동서의 廂에서 俠門隊 역할을 수행하였다. 병사를 나누어 제문을 지킬 때는 左廂 제문의 內事와 右廂 제문의 外사를 맡았다. 아울러 皇城 四面과 宮城의 내외는 좌우위와 함께 助鋪를³⁴⁾ 분담하여 맡았다. 좌우무위는 정전에서는 효위 다음에 서고, 가덕문 안에서는 東西廊에서 협문대 역할을 수행하였다. 좌우위위는 정전에서 여러 대(隊)로 계단에 서고 長樂門·永安門 안에서는 두 廊에서 협문대 역할을 수행하였다. 병사를 나누어 방어를 맡을 때는 황성의 동서 쪽의 助鋪를 맡았다. 좌우령군위는 정전에서 여러 대로 계단에 서고 長樂門·永安門 밖에서는 두 廊에서 협문대 역할을 수행하였다. 병사를 나누어 방어를 맡을 때는 황성의 동서 쪽의 助鋪와 苑城의 諸門을 맡았다. 좌우금오위는 경성을 주야로 순찰하는 임무 외에도 車駕 출입시 선두에 섰다.³⁵⁾ 좌우감문위는 명칭대로 궁성의 모든 문을 지키는 일이 주된 직무로서 궁성을 출입하는 자들의 門籍과 궁성의 문을 통해 반입·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기록인 門傍을 관장

所以防微漸絕禍亂之萌也.”

- 30) [부록]의 표-2, 표-3 참조. 주변 관아 등은 [부록]에 京師(長安)의 宮城과 皇城 참조.
- 31) 『唐六典』 권24-25, 참조.
- 32) 清, 徐松, 李建超 增訂, 『增訂唐兩京城坊考』, 西安, 三秦出版社, 1996, p.5.
- 33) 俠門隊는 ‘立門仗’이라고도 하며 諸門에서 무기를 들고 지키는 사람들이다. 『新唐書』 권23상, 『儀衛志 上』, p.482, “內外諸門以排道人帶刀捉仗而立, 號曰立門仗. 宣政左右門仗·內仗, 皆分三番而立, 號曰交番仗. 諸衛有俠門隊·長槍隊. 承天門內則左右衛俠門隊列東西廊下, 門外則左右騎衛俠門隊列東西廊下. 長樂·永安門內則左右威衛俠門隊列東西廊下, 門外則左右領軍衛俠門隊列東西廊下. 嘉德門內則左右武衛俠門隊列東西廊下. 車駕出皇城, 則俠門隊皆從. 長槍隊有漆槍·木槍·白櫛槍·樸頭槍.”
- 34) 助鋪란 鋪·助鋪所라고도 하는데 街道를 경비하는 경비 초소를 말한다. 『唐律疏議』(北京: 中華書局, 1993) 권8 衛禁, 제80조에서는 조포 근무시 대리 근무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杖刑100대)이 자세히 보인다.
- 35) 『通典』 권28, 「職官典, 職官10」, pp.783-789.

하였다. 궁전문과 성문 출입은 모두 左入右出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입궁자는 좌감위가, 출궁자는 우감문위가 관할하였다.

16위의 관직과 배치를 살펴볼 때 좌우위·좌우효위·좌우무위·좌우위위·좌우령군위·좌우금오위의 대장군 이하 집극까지 그 品階와 定員이 동일하였다. 이는 혹 발생할지 모르는 병력 동원을 예방하기 위해 상호 견제를 도모하고 병권을 尙書省 兵部로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라 여겨진다. 儀仗隊와 宮城 수비를 위한 각 위의 위치에서도 이 점을 엿볼 수 있다. 좌금오위는 皇城 동쪽의 永興坊, 우금오위는 황성 서쪽의 布政坊에 위치하고 있는데 永興坊이 더 북쪽에 있다. 황성 내에서도 좌우위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배열되고 있으면서도 교차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杜牧이 16衛가 禁省의 사이사이에 끼여 있었다는 표현은³⁶⁾ 바로 그 임무 수행에 효율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역시 예기치 못한 동란을 예방하기 위한 상호 견제의 조치로 파악된다.

府兵 운용의 기본 단위는 折衝府라 할 수 있는데 唐의 최전성기 전국에 692개가³⁷⁾ 설치되었고 兵部가 통솔하는 折衝都尉(장관), 果毅徒尉(부장관), 別將(보좌관)이 兵籍·訓練·動員·指揮를 관할하였다. 절충부 하부 단위는 團-旅-隊-火로 구성되었는데 그 수장은 校尉-旅正-隊正-火長이라 하였고 그 인원수는 각각 200-100-50-10인으로 구성되었다. 절충부 역시 3등급으로 구분되어 上府는 6團으로 1,200명, 中府는 5단으로 1,000명, 下府는 4단으로 800명의 衛士를 통솔하였다.³⁸⁾

36) 『樊川文集』(上海古籍出版社, 2007) 권5, 「原十六衛」, pp.89-91, “署字分部, 夾峙禁省.”

37) 折衝府의 수는 清代이래 많은 학자들의 규명에 의해 630여 개가 확인되어 『二十五史補編』에 수록되어 있는데 최근 墓誌銘 자료 등에 새로 확인된 것도 많다. 각지 府名에 대한 구체적 정리에 관해서는 張沛 編著, 『唐折衝府匯考』, 西安, 三秦出版社, 2002 참조.

38) 『唐六典』 권25, 「諸衛折衝都尉府」, pp.644-645, “諸府, 折衝都尉各一人, 左·右果毅都尉一人. 諸府折衝都尉之職, 掌領五校之屬, 以備宿衛, 以從師役, 總其戎具·資糧·差點·教習之法令. 凡衛士三百人爲一團, 以校尉領之, 以便習騎射者爲越騎, 餘爲步兵. 其團十人爲火, 火備六馱之馬. 每歲十一月, 以衛士帳上尙書, 天下兵馬之數以省聞. 凡兵馬在府, 每歲季冬, 折衝都尉率五校之屬以教其軍陣戰鬥之法. 捉捕持更者, 晨夜有行人必問, 不應, 則彈弓而嚮之, 復不應, 則旁射, 又不應, 則射之. 晝以排門人遠望, 暮以持更人遠聽, 有衆而囂 則告主帥. 左·右果毅都尉掌貳都尉. 別將一人, 長史一人, 兵曹參軍事一人. 材老弱少壯, 各爲之簿,

절충부의 절반은 京畿·關內에 집중되었고 河東·隴右·河南에 일부가 설치되어 이들 지역에 설치된 절충부가 90% 이상이었다.³⁹⁾ 이는 唐朝의 關中本位⁴⁰⁾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후술할 바와 같이 番上의 어려움에 따른 부득이한 면이 없지 않았다. 折衝府 偏在에 따른 세역 상의 불균형이 예상되긴 해도 西州 蒲昌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응하는 복역을 부과하여 부담의 공평함을 기하려는 唐朝의 노력은 인정할 수 있다.⁴¹⁾ 각 절충부에는 병적에 등록된 병사의 정원이 있고 3년에 한번 관할 지역의 丁男(21~59세)에서 衛士를 富戶多丁의 원칙 하에 징발하여, 兵器·裝備·糧食을 스스로 갖추게(自辯)했고 그 기간 중에는 租·庸·調·雜徭 등의 의무는 면제되었다. 이들은 평소 농경에 종사하다 농한기에 府에서 훈련을 받았고 京師에서 원근에 따라 1~2개월씩 衛士로서 상경 근무(上番)하였는데 이 때 원래 소속된 衛와 率府에 배속되어 儀仗·宿衛·警備 등의 임무를 맡았다. 재역 기간 중 1회는 국경의 鎭이나 戍에 파견되어 3년 혹은 1년간 防人으로서 변경 방어 임무를 수행하였다.⁴²⁾

경사에 근무하는 부병은 내·외부 구별되었다. 내부는 五府三衛 및 東宮三府三衛를 가리킨다. 五府三衛는 親衛1府, 勳衛·翊衛 각 2府로 구성되며 총 4,963명이 배속되었다. 東宮 삼위는 각1부로 삼부 삼위가 된다. 내부 이외는 모두 외부가 된다.⁴³⁾ 내부의 위사는 모두 고위관료의 자손으로 예를

以進退爲. 長史掌判兵事·倉儲·車馬·介冑之事, 及其簿書·會要之法. 兵曹掌兵吏糧倉·公廩財物·田園課稅之事, 與其出入句檢之法. 每月, 簿番上衛士之數以上衛. 每歲, 簿錄事及府·史·捉·口·品于補上年月·姓名, 以上于州, 申考功·兵部”; 『新唐書』 권50, 「兵志」, p.1325, “太宗貞觀十年, 更號統軍爲折衝都尉, 別將爲果毅都尉, 諸府總曰折衝府. …凡府三等, 兵千二百人爲上, 千人爲中, 八百人爲下. 府置折衝都尉一人, 左右果毅都尉各一人, 長史·兵曹·別將各一人, 校尉六人. 士以三百人爲團, 團有校尉, 五十人爲隊, 隊有正, 十人爲火, 火有長.”

39) 谷霽光, 『府兵制度考釋』, 上海人民出版社, 1962, pp.153-158; 濱口重國, 「府兵制より新兵制へ」, 『秦漢隋唐史の研究』 上卷, 東京大學出版會, 1966, pp.8-11.

40) 『陸宣公全集』(上海: 世界書局, 1936) 권1, 「論關中事宜狀」, p.57, “實近虛遠, 居重馭輕…學天下不敵關中, 則居重馭輕之意明矣.”

41) 張國剛, 「唐代府兵淵源與番役」, 『歷史研究』(K22, 1990-2)1989-6 참조.

42) 濱口重國, 「府兵制より新兵制へ」, 『秦漢隋唐史の研究』 上卷, 東京大學出版會, 1966, pp.15-31.

43) 『新唐書』 권49상, 「百官4上」, pp.1281-2.

들면 2품·3품관 子를 親衛에 補任시키고, 2품관 曾孫·3품관 孫·4품관 子, 職事官 5품의 子·孫 등은 勳衛와 東宮親衛에 보임시켰다. 삼위는 고위 관료 자손이 資蔭에 의한 出身의 단계이기도 하였다.⁴⁴⁾

長安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 금군의 비율은 얼마일까?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일단 절충부의 총수를 최소 600으로 어렵잡고 1부의 정원이 평균 1,000이라 하면 당의 상비군은 총 60만이다. 이들은 衛士이고 京師와 東都에 上番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때, 5番으로 계산하면 1번이 12만인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 수치는 開元12년(724) 張說이 부병 충원의 곤란함으로 召募에 의한 曠騎 충원을 거론할 때 정확히 12만을 언급한⁴⁵⁾ 것에서 신빙성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운용될 때의 경우로 실제 구현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고 京師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衛士가 과연 上番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실제로 절충부의 40%가 경사 주변 500리 내에 있는 곳임을 감안하여 계산하면, 1회 상번시 5만명 정도는 항시 경사에서 고유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제도적 취지와 현실적 상황을 함께 고려하면 5~12만 사이의 衛士가 항상 경사에 상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과 같이 당 전반기 府兵은 禁軍의 주축으로 부병제의 운용을 통해 금군이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府兵制는 중앙의 兵部가 인사권, 감독, 지휘 명령권을 장악하고 경사 방위를 위한 12위 등의 중앙군, 절충부 중심의 지방군, 鎮戍 중심의 변경 방어를 담당한 변경군이 통일적으로 운용되었다. 병사의 공급원은 일반 농민이었고 그 근무는 요역적 성격이 다분하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하지만 그 임무의 범위와 관할 구역이 넓어 황제 신변의 친위군 역할에 한계가 있었던 까닭에 친위군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

남아금군의 병력은 府兵의 衛士였다. 하지만 高宗시기를 전후하여 고구려

44) 谷霽光, 『府兵制度考釋』, 上海人民出版社, 1962, p.170; 金滌, 「唐前期 皇帝宿衛의 구조」, 『魏晉隋唐史研究』 제5집, 1999, pp.52-60.

45) 『通典』 권28, 「職官典, 職官10」, p.782, “開元十二年, 張說奏, 於三輔揀五尺八兵十二萬人, 謂之曠騎, 置於南衛.”

원정 등 부병의 役이 과중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균전제의 이완에 따른 토지점병으로 逃戶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도호의 발생은 부병의 회전을 단축시키게 되므로 더욱 도호 발생을 촉진시켰고 당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였다.⁴⁶⁾ 開元 연간 括戶 정책은 바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주변 이민족의 강성과 羈縻지배의 파탄으로 결국 募兵으로 병력을 충원해야⁴⁷⁾ 하는 근본적인 전환을 피하지 않을 수 없었다.

3. 北衙禁軍의 운용과 한계

唐 高祖 李淵이 太原에서 거병할 때 동원된 군대는 모두 3만이었는데 장안으로 진격 중 각지의 수많은 병력을 확보하여 장안 점령시 그 규모는 20만으로 증가하였다. 당은 이들을 중핵으로 10년에 걸쳐 정치·군사적 통일을 완수할 수 있었다.⁴⁸⁾ 천하통일 후 당은 이들 대부분을 귀향시켜 부병으로 근무시켰지만 일부는 장안 부근에 황제의 신변 보호의 목적에서 정착시켰다.

건국초 太原에서 정의를 따른 군사들로 (장안에) 머물러 (황제를) 宿衛하여 심복이 되어 귀향을 원하지 않는 자가 3만이였다. 渭水 북쪽 白渠 근처의 7縣 중 絶戶의 기름진 토지를 이들 義師 집에 분급하여 永業(田)으로 삼았고 縣에 太原의 토지를 두어 父兄子弟들을 거주하게 하였다. 龍首監에 (軍)營을 두어 거처하게 했는데 또한 臣의 高祖는 監內에 집을 짓고 이들을 元從禁軍이라 하였습시다. … 예전에 元從禁軍들 중에 늙고 결원이 생기면 반드시 그 집 子弟나 鄉親들로 대신하게 하여 父子軍이라고 하였습시다.⁴⁹⁾

46) 栗原益男, 「府兵制의 崩壞와 新兵種」, 『史學雜誌』73-2·3, 1964 참조.

47) 菊池英夫, 「府兵制度의 展開」, 『岩波講座世界歷史』5, 東京, 岩波書店, 1971, pp.436-9.

48) 정순모, 「당태종 이세민-명군의 조건과 명암」, 『인물로 읽는 중국사』, 대전, 충남대학교출판부, 2010, pp.117-122.

49) 『玉海』(上海: 江蘇古籍出版社, 1990) 권138, 「兵制」, 鄴侯家傳, p.2571. 國初太原從義之師,

元從禁軍과 그 후손들의 父子軍은 당 황실에 절대 충성하는 신뢰할 수 있는 군대로서 당은 이들에게 장안 근처의 비옥한 토지를 지급하여 정착시키고 황실의 宿衛를 맡겼다. 여기서 황제 개인의 친위군이라 할 수 있는 북아금군의 기초가 형성되었다. 이들 원종금군의 구성이나 배치, 존속 기간은 관련 사료의 미비로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다만 기사에서 軍營을 설치하여 거주하게 하였다고 한 점, 武德 중에 敬君弘이 驃騎將軍으로서 玄武門의 屯營兵을 관장했던 사실에서⁵⁰⁾ 玄武門 북쪽에 주둔하던⁵¹⁾ 특별한 군대로 잔존했던 것은 분명하다.

太宗의 즉위와 함께 원종금군은 바로 개편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역시 당 건국 과정에서 태종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터이지만 玄武門의 변으로 집권한 태종의 입장에서 秦王府 소속의 군대를 가장 안전하게 느꼈을 터이고⁵²⁾ 후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원종금군의 개편은 필연적이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貞觀초 北衙 7營의 설치와 貞觀12년(638) 左·右屯營의 설치는 이 점을 반영하고 있다.

貞觀中 北衙 7營을 설치하였는데 후에 左右羽林軍으로 바뀌었다. 모두 힘 있고 용맹한 자로 충당시켰으며 매월 1營에 10명을 番上시켰다.⁵³⁾

愿留宿衛爲心膂不歸者六萬，于渭北白渠之下七縣絕戶膏腴之地，分給義師家爲永業，于縣下置太原田以居其父兄弟。于龍首監置營以處，并爲臣高祖起第于監內，謂之元從禁軍。…初元從禁軍老及歿，必取其家子弟鄉親代之，謂之父子軍。 원문의 ‘六萬’은 ‘三萬’(『新唐書』 권50, 『兵志』, p.1330)에 의거하였다. 鄴侯家傳에 대한 사료적 이용에 관해서는 Albert E. Dien, The use of the eh-hou chia-chuan as a Historical Source,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34, 1974 참조.

50) 『舊唐書』 권187上, 「忠義傳 上」, p.4872, “武德中, 爲驃騎將軍, 封黔昌縣侯, 掌屯營兵於玄武門, 加授雲麾將軍.

51) 이곳은 長安城 북쪽과 직접 연결된 三苑(禁苑·東內苑·西內苑)이란 곳으로 唐代 用兵處로 자주 이용된 곳이었고(『雍錄』 권9, 『唐三苑圖·唐三苑說』, pp.195-6, “凡此三苑也者, 地廣而居要, 故唐世平定內外禍亂, 多於苑中用兵也.”) 漢의 上林苑과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의 곳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朴漢濟, 『唐 長安城 三苑考-前漢 上林苑의 機能과 비교하여-』, 『歷史學報』 第188輯, 2005, pp.188-195 참조.

52) 唐長孺, 『魏晉南北朝隋唐史三論』, 武漢大學出版社, 1992, p.441.

53) 『舊唐書』 권44, 「職官志3」, p.1904, “貞觀中置北衙七營, 後改爲左右羽林軍. 皆選才力驍勇者充, 每月一營十人爲番當上.”

貞觀初…또 北衙 7營을 설치하면서 재능 있고 용맹한 병사를 선발하여 매월 1營에 번상시켰다.⁵⁴⁾

貞觀 12년 비로소 玄武門에 左右屯營을 설치하였는데 諸衛의 장군들이 통솔하게 하였고 飛騎라 하였다.⁵⁵⁾

보통 北衙禁軍의 정식 출현은 龍朔2년(662) 左右羽林軍의 설립에서⁵⁶⁾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위 기사는 좌우우림군이 元從禁軍-北衙7營-左右屯營을 계승한 것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규모는 7營의 경우 매월 70명이 근무하였던 점에서 소규모였던 것 같은데 左右屯營으로 계승되면서 확대되었을 것이다. 左右屯營에 소속된 병사는 '飛騎'라 하였고 그 자격은 2等戶 이상에 키 6尺의 건장한 자로서 弓馬는 4次上, 翹關은 다섯 번을 들어 올려야 하며, 또 米 5斛을 메고 30步를 갈 수 있어야 선발될 수 있었다.⁵⁷⁾ 飛騎 중에서도 재주와 힘이 세고 날래며 활을 잘 쏘는 자를 선발하여 '百騎'라 하였다. 이들은 五色袍 등을 입고 六閑馬를 타는 권리를 누리며 太宗 扈從의 임무를 맡았다.⁵⁸⁾ 병사의 자격 조건을 2등호로 한 것은 황실과 밀접히 관련된 고위 자제들로⁵⁹⁾ 제한하여 당 황실에 대한 충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일 것으로 판단된다.

元從禁軍에서 左右屯營까지 그 지휘 계통은 모호하고 임시 방편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武德 연간 屯營兵을 관할했던 敬君弘은⁶⁰⁾ 정4품

54) 『新唐書』 권50, 「兵志」, pp.1330-1331, “又置北衙七營, 選材力驍壯, 月以一營番上.”

55) 『通典』 권28, 「職官典, 職官10」, p.791; 『新唐書』 권50, 「兵志」, p.1331, “十二年, 始置左右屯營於玄武門, 領以諸衛將軍, 號飛騎.”

56) 『通典』 권28, 「職官典, 職官10」, p.791, “龍朔二年, 改左右屯營爲左右羽林軍.”

57) 『新唐書』 권50, 「兵志」, p.1331, “其法. 取戶二等以上·長六尺闊壯者, 試弓馬四次上·翹關舉五·負米五斛行三十步者. 復擇馬射爲百騎, 衣五色袍, 乘六閑駑馬, 虎皮韉, 爲游幸翊弁.”

58) 『通典』 권28, 「職官典, 職官10」, p.791.

59) 물론 2等戶를 직접 고위 관료의 자제로 동일시 할 수 없다. 다만 당시 일반민 대부분이 8·9等戶였던 사실을(日野開三郎, 「玄宗時代を中心として見たる唐代禾田地域の八·九等戶に就いて」, 『社會經濟史學』21-5·6, 1955 참조) 감안하면 2等戶는 현실적으로 고위 관료의 자제가 대부분이었다고 해도 큰 차질을 없을 것이다.

60) 『舊唐書』 권187上, 「忠義傳 上」, p.4872.

武散官의 驃騎將軍⁶¹⁾ 뿐 그 구체적인 실직은 알 수 없다. 貞觀 시기 毛盛·張士貴도 각각 游擊將軍과 屯衛將軍의 武散官으로 屯營兵을 거느렸다는 기록이⁶²⁾ 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職事官의 기록이 중시되었던 것에서 본다면 정식 관직을 제수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적 혹은 황제가 사적으로 屯營兵을 지휘하게 했다고 여겨진다. 薛仁貴의 경우 游擊將軍과 雲泉府果毅로서 北門長上을 겸하여 屯營兵을 통솔하였는데⁶³⁾ 별도의 관직을 받지 않고 差遣 형식으로 屯營兵을 통솔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북아금군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元從禁軍 등은 南衙의 장군에 의해 兼領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기본적인 지휘 체계는 율령 규정에 없었던 점에서⁶⁴⁾ 황제의 사적 의지에 의거하여 운용되었던 私兵의 성격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北衙禁軍은 龍朔2년(662) 左右羽林軍이 설립되어 16위와 더불어 禁軍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고 독립된 군사력으로 공인되었다. 즉 북아금군의 율령제 편입은 이때 비로소 이루어졌다. 조직은 諸衛와 거의 유사하고(〔부록〕 표-4 참조) 임무는 北衙의 禁兵에 대한 통솔, 左右廂에 배치되는 飛騎의 儀仗 등을 관장하는 일이었다. 그 운용 방침은 불확실한데 황제와 가장 근접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 규모는 『唐六典』에 “羽林禁兵의 旗幟와 名數는 비밀이니 아무도 알 수 없어 생략 한다”⁶⁵⁾ 라고 하여 극비 사항이었다.

武則天 시기 羽林軍은 군대다운 체제를 갖추고 그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다. 垂拱元年(685) 武則天이 禁軍을 재편성할 때 羽林郎 6,000명을 두었고⁶⁶⁾ 武攸寧을 우림대장군으로 처음 임명하여 16衛와 대등한 체제를 갖추

61) 『隋書』 권28, 「百官志 下」, p.785.

62) 周紹良 主編, 『唐代墓誌彙編』上(上海古籍出版社, 1992), 貞觀152, 「大唐右領軍果毅榮陽毛君墓誌銘并序」, pp.104-105 ; 顯慶56, 「大唐故輔國大將軍荊州都督虢國公張公墓誌銘并序」, pp.263-265.

63) 『舊唐書』 권83, 「薛仁貴傳」, p.2780. 雲泉府는 京兆府에 속한 折衝府이다(張沛, 앞의 책, pp.39-40).

64) 『文獻通考』(北京: 中華書局, 1986) 권155, 「兵志7」, p.1351, “...而其元從禁軍亦猶官制員外之置.”

65) 『唐六典』 권25, 「諸衛府」, p.643, “羽林禁兵旗幟·名數, 秘莫得知, 略之.”

66) 『唐會要』(上海古籍出版社, 1991) 권72, 「京城諸軍」, p.1530, “垂拱元年五月十七日, 置左右

었다. 또한 羽林獄과 같은 별도의 옥사를 두어 군대의 기강을 엄정하게 했다.⁶⁷⁾ 이후 羽林軍의 규모는 계속 증가하여 天寶7載(748) 그 定額은 15,000명이었다.⁶⁸⁾

한편 좌우둔영에 속한 飛騎 중 '百騎'는 태종의 외출시 경호를 맡았다. 이들은 武后 시기에 '千騎', 中宗 시기 '萬騎'로 개칭되었고 左右營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使職을 두어 통솔하게 하였다.⁶⁹⁾ 使職은 丞外官으로서 율령제 운용에 배치되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이다.⁷⁰⁾ 이들은 일종의 정예부대로서 禁軍중에서도 황제와 가장 친밀한 親衛隊였다. 그 규모는 초기 100명이라 하였지만 '千騎', '萬騎'라는 단어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계속 확대되었다. 확대된 萬騎는 이용기가 中宗과 韋后를 주멸하는데 결정적 공헌을 하였다. 즉 우림군 내 특수 정예부대를 포섭한 이용기는 先天2년(713) 7월 龍武將軍 王毛仲의 좌우만기영 부대로 좌우우림군을 장악한 태평공주 세력을 일소하는데 성공하였다. 左右萬騎는 이미 左右羽林과 더불어 北門四軍이라 칭해졌지만, 開元26년(738) 左右萬騎營의 명칭을 左右龍武軍으로 바꾸고 그 관원은 모두 羽林軍과 같은 체제로 정비하였다.⁷¹⁾ 계속된 궁정 정변으로 우림군 내 정예부대의 확대가 결국 대장군 이하 군지휘권의 조직을 필요로 하게 된 셈이다.

따라서 금군의 한 축인 北衙는 元從禁軍으로부터 北衙7營과 左右屯營으로 개편되었다가 左右羽林軍 계열과 羽林軍 내 특수 부대로서 百騎一千騎

羽林軍, 領羽林郎六千人.”

67) 『資治通鑑』 권203, 光宅元年(684) 春正月條, p.6428, “有飛騎十餘人飲於坊曲, …一人起, 出詣北門告之. 座未散, 皆捕得, 繫羽林獄. 言者斬, 餘以知反不告皆絞, 告者除五品官. 告密之端自此興矣.”

68) 『唐會要』 권72, 『京城諸軍』, p.1293, “七載七月二十日勅, 左右羽林軍飛騎, 請準後加數, 通舊一萬五千人爲定額, 六番上下.”

69) 『舊唐書』 권44, 『職官志3』, pp.1903-4, “太宗選飛騎之尤驍健者, 別署百騎, 以爲翊衛之備. 天后初, 加置千騎, 中宗加置萬騎, 分爲左右營, 置使以領之.”

70) 礪波護, 『三司使の成立について-唐宋の變革と使職』, 『唐代政治社會史研究』, 京都: 同朋舍, 1986, pp.4-10.

71) 『通典』 권28, 『職官典, 職官10』, p.792; 『舊唐書』 권44, 『職官志3』, p.1904, “自開元以來, 與左右羽林軍名曰北門四軍. 開元二十七年, 改爲左右龍武軍, 官員同羽林軍也.”

—萬騎—左右龍武軍의 성립으로 이어지는 두 계열로 성장한 군대라고 할 수 있고 그 규모는 天寶 연간 약 3만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궁성 북쪽 禁苑에 주둔하고 있던 병력으로 경사를 방어하는 16위의 군대와 별개였다.

이들 북아금군의 병력 공급은 律令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고 임시적이고 편의적으로 이루어졌다. 감찰 역시 기대할 수 없음을 물론이다. 元從禁軍 3만명에게 당조 창업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비옥한 토지를 주고 경사 주변에 거주시킨 것은 일종의 특혜였다. 이것이 당조의 關中本位 정책의 범주에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關中의 백성들은 율령에 의거하여 衛士로 동원되었던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욱이 조직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공신 등에게 통솔되었고 황제의 사적 의지가 크게 작용할 수 있었던 것도 문제였다. 武后시기 원종금군 계통의 병력을 羽林軍으로 재편한 것은 당조가 이러한 문제점을 자각하고 이들을 율령제 하에서 운용하려 했던 의지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북아금군의 독립은 남아금군이 형해화되는 것과 연동되었던 점에서 아이러니하다. 즉, 高宗 시기부터 각종 遠征과 府兵役의 과중함은⁷²⁾ 禁軍 유지에 틈을 노출하였다. 龍朔2년(662) 부병의 越騎·步射로 羽林軍에 충원시켰고⁷³⁾ 先天2년(713)에도 羽林·飛騎를 衛士에서 충원하도록⁷⁴⁾ 하여 南衛의 전력에 영향을 끼쳤다. 심지어 官戶·戶奴를 萬騎에 충원시키기도 하였다.⁷⁵⁾ 戶奴의 존재는 병사 충원에 어려움을 전해 주면서 동시에 北衛禁軍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무예가 뛰어난 자를 직업 군인화 한 것으로 이해된다. 현종이 韋后를 주멸할 때 큰 공을 세운 왕모중은 籍沒된 고려인으로 官戶 출신이었고 그 용맹함은 남달랐다고

72) 礪波護, 「唐の律令體制と宇文融の括戶」, 『唐代政治社會史研究』, 京都: 同朋舍, 1986, pp.305-319.

73) 『新唐書』 권50, 「兵志」, p.1331, “高宗龍朔二年, 始取府兵越騎·步射置左右羽林軍, 大朝會則執仗以并階陛, 行幸則夾馳道爲內仗.”

74) 『唐會要』 권72, 「京城諸軍」, p.1531; 『通典』 권28, 「職官典, 職官10」, p.783, “先天二年正月十月詔, …自今以後, 羽林·飛騎先於衛士中簡擇.”

75) 『資治通鑑』 권210, 景雲元年(710) 8月條, p.6655; 『陳子昂集』(上海: 中華書局, 1960) 권8, 雜著, 「上軍國機要事」, pp.178-9, “及募諸色奴充兵討擊者, 是捷急之計, 非天子之兵.”

한다.⁷⁶⁾ 開元 연간 左右龍武軍이 성립되면서 그 일부는 현종의 정권 창출에 공을 세웠던 자들의 子弟들이었다.⁷⁷⁾ 결국 당이 율령제의 틀에서 북아금군을 운용하려 했어도 皇位 계승을 둘러싼 황실의 갈등은 가장 신뢰할 만한 군대를 필요로 했고 이것은 당이 표방한 율령 국가의 모습과 완전히 배치되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었다.

4. 맺음말

당 전반기 禁軍의 한 축인 南衙禁軍은 府兵制를 기초로 兩京에 근접한 지역의 농민을 정기적으로 番上시켜 公의인 운용 체계 하에 京師 경비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들 농민들은 비록 번상의 임무라는 다소 과중한 부담을 지긴 했지만 당의 건국에 절대적 공헌자였고 경사에 가까운 각종 이점으로 당 황실과 더불어 천하 통치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자부심을 갖기 충분했다. 하지만 高宗 이후 고구려 원정 등 그 부담이 과중해졌고 동시에 균전제의 이완으로 逃戶 발생이 가속화되었다. 이로 인해 府兵 番上의 회전율이 크게 단축되어 그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고 다시 도호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자연히 남아금군의 병력 공급은 차질을 빚게 되었고 일부는 북아금군에까지 충원되면서 병력의 감소에 대응하여 결국 召募의 방법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명백히 律令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張說이 曠騎로 남아금군을 편성하게 된 것은 府兵制의 종말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禁軍의 다른 한 축인 北衙禁軍은 元從禁軍에서 시작되었다. 원종금군은 李淵의 太原 거병시 핵심 무장 세력으로 장안 근처에 거주하면서 황제 호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당 황실과 긴밀한 결속력을 과시

76) 『舊唐書』 권106, 「王毛仲傳」, pp.3252-3255.

77) 『舊唐書』 권44, 「職官志3」, p.1904, “又置左右龍武軍, 皆唐元功臣子弟并外州人.”

하긴 하였지만 私兵의 성격을 탈피할 수 없었다. 당 건국 이후 이들을 공적인 체제 내에 편제시키려던 시도는 꾸준히 진행되었다. 이는 사적인 군대를 공적인 영역으로 승화하고자 했던 시도였다. 南衙의 장군들로 이들을 통솔하게 하고 召募를 축소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玄武門의 變으로 집권한 李世民은 즉위 후 이들을 율령체제에 바로 편입시키지 않았다. 태종 자신의 황위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작용했음이 틀림없다. 이때부터 북아금군은 황위 계승 문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당 황실의 사적 군대는 황제의 신변 보호에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병력의 확보에 세습이나 召募에 의지함으로써 율령제라는 당의 통치 이념과 크게 괴리되었다. 武后시기 羽林軍의 성립은 사적인 측면을 일소한 것이었어도 이제는 남아금군이 병력 확보에 차질을 빚기 시작하였다. 결국 북아금군이 공적인 영역으로 전환되었을 때 병력 확보의 대세는 召募에 의한 방법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唐朝의 두 계열 禁軍의 편제와 운용 원리는 상호 모순적이었다. 唐朝의 국가성격이 安史亂 이후 완전히 돌변한 계기는 南衙-北衙의 편제와 운용 면에서 그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 본고는 禁軍 편제에 관한 제도적 실상을 통해 다소 거칠게 南·北衙 禁軍의 상호 모순적인 운용 원리를 지적하였는데 실제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등은 앞으로의 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원고투고일 : 2012. 6. 30, 심사수정일 : 2012. 8. 10, 게재확정일 : 2012. 8. 14)

주제어 : 禁軍, 南衙禁軍, 北衙禁軍, 府兵, 12衛, 16衛, 羽林軍, 龍武軍, 北門四軍

[附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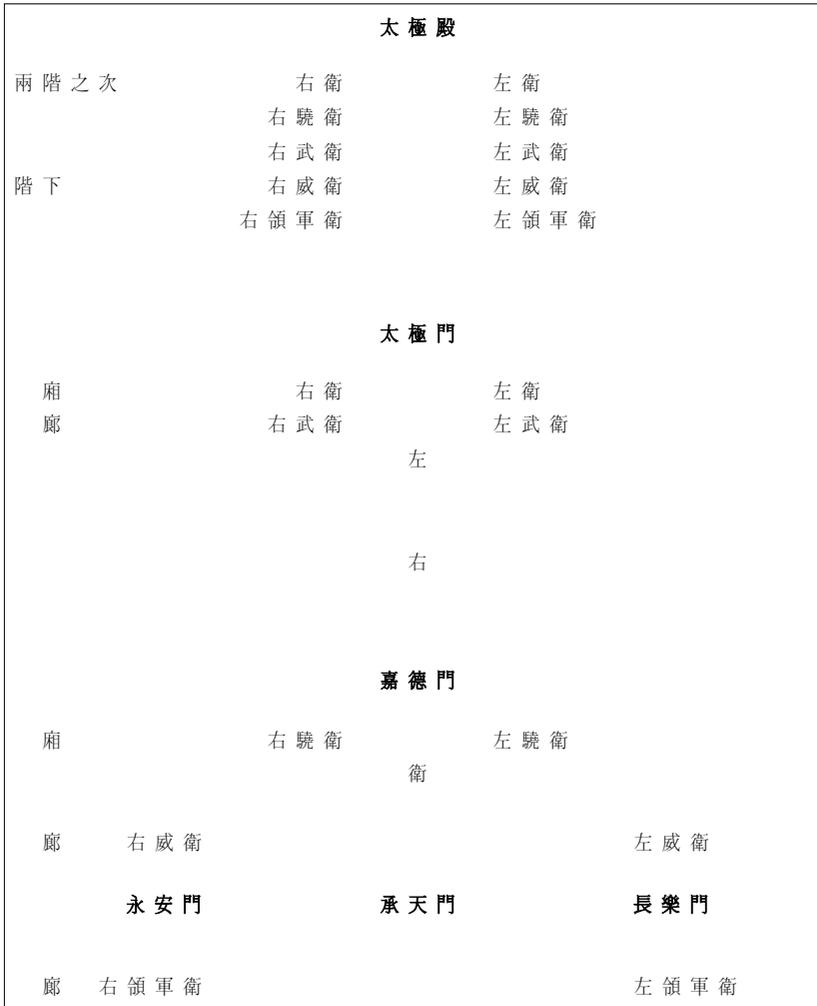
표-1: 16衛의 職事官 구성과 정원

	(左·右)衛	驍衛	武威	威衛	領軍衛	金吾衛	監門衛	千牛衛
정3품	大將軍(1인)	●	●	●	●	●	●	●
종3품	將軍(2)	●	●	●	●	●	●	●
중5품하	奉車都尉(5)							
정6품상	司階(2)	●	●	●	●	●		
정6품하								
중6품상	長史(1)	●	●	●	●	●	●	●
중6품하								
정7품상								
정7품하	中候(3)	●	●	●	●	●		
중7품상								
중7품하								
정8품상	錄事參軍事(1)	●	●	●	●	●	●	●
정8품하	倉曹參軍事(2) 兵曹參軍事(2) 騎曹參軍事(1) 冑曹參軍事(1) 司戈(5)	●	●	●	●	●	(1) (1)	●
정9품하	執戟(5)	●	●	●	●	●		
流內합계	31*2	26*2	26*2	26*2	26*2	26*2	7*2	5*2
流外합계	38*2	35*2	35*2	35*2	35*2	35*2	22*2	14*2

표-2: 皇城내 16衛의 官衛

廣運門		承天門		長樂門		嘉福門	
	右衛 右監門衛 右千牛衛		左千牛衛	右清道率府 右內率府 右監門率府		左內監門率府 左清道率府	
	右驍衛 右武衛		左武衛 左驍衛 左監門衛	右司禦率府 右衛率府		左司禦率府 左衛率府	
	右威衛 右領軍衛		左領軍衛 左威衛				
含光門		朱雀門		安上門			

표-3: 南衛禁軍의 宮城 배치



宮城의 내외, 皇城 사면의 助鋪: 左右衛, 左右驍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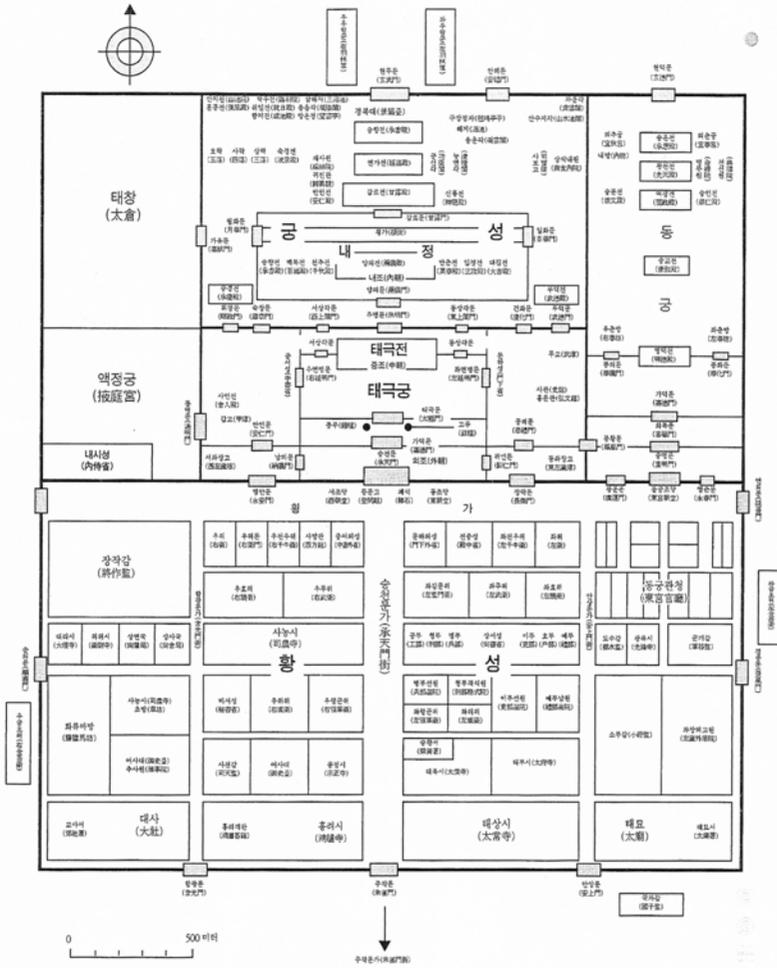
皇城의 동서 助鋪: 左右威衛, 左右領軍衛

禁苑의 諸門: 左右領軍衛

표-4

	左·右羽林軍衛
정3품	大將軍(1)
종3품	將 軍(2)
정6품상	司 階(2)
정6품하	
종6품상	長 史(1)
종6품하	
정7품상	
정7품하	中 候(3)
종7품상	
종7품하	
정8품상	錄事參軍事(1)
정8품하	倉曹參軍事(1) 兵曹參軍事(1) 冑曹參軍事(1) 司 戈(5)
정9품하	執 戟(5)
유내합계	23*2
유외합계	27*2

[京師(長安)의 宮城과 皇城]78)



78) 세오 다쓰히코 지음, 최재영 옮김, 『장안은 어떻게 세계의 수도가 되었나』, 서울, 황금가지, 2006, p.137.

<ABSTRACT>

Th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Palace Armies in Early Tang China

Chung, Soon-mo

The southern palace army was for defending the capital city, a principal axis of the palace army, which was basically managed by Fubing system in early Tang China. The peasants who had to serve in the southern palace army by rotation, felt honoured to be the palace soldiers, the burden they took was very heavy though.

But after Gaozong, due to Koguryo expedition, the peasant soldiers' burden went beyond their abilities, therefore, the number of runaway soldiers increased. It was an inevitable result of Tang dynasty to change its way of recruit. It adopted the mercenary soldiers. That Zhangyue organized the southern palace army with Guoqi symbolized the end of Fubing system. It was very obvious that hiring soldiers was against the Tang's official recruiting way, the Fubing system.

Another axis of the palace army, the northern palace army, was started with the original palace army. The original palace army was a core armed force of Gaozu, the founder of Tang dynasty. The original palace army was very closely related to the royal family, it was not surprising that it was not managed by Tang's official recruiting system. Therefore, Tang dynasty constantly tried to organize the northern palace army under the Tang's official recruiting system. On the other hand, Tang dynasty tried to reduce the ratio of the mercenary.

However, Li Shimin(Taizong) who took the power though the Xuanwumen coup, didn't organize them under the Code. It must be caused by the his fear of losing the throne. Thereafter, the northern palace army had an absolute influence upon the succession of the throne. The palace

army might have given the royal family a sense of security, but that royal private army was managed by hiring soldiers, that was far from the Tang's official military system.

During the Wuzetian period, the establishment of Yulin forces overcame the royal private characteristics in the palace army, but ironically the southern palace army could not be managed by Fubing system any more. And the northern palace army was changed into legal army but they had to recruit soldiers by hiring.

Ironically, Tang's two palace armies were managed by contradicting ways. We could find contradicting factors in the management of southern palace army and northern palace army.

Key Words : Palace Armies, southern government office, northern government office, fubing troops, sixteen guards, twelve guards, yulin forces, longwu forces, north gate four forces

한국의 병역제도 발전과정 연구*

나태종**

1. 서론
2. 시대별 병역제도의 발전
3. 바람직한 병역제도 발전방안
4. 결론

1. 서론

한 국가의 병역제도는 해당 국가의 지정학적인 여건, 현존하는 안보위협,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된다. 국민 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병역제도는 남북분단의 특수한 상황과 정치·사회적 요구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한 각종 비리는 건국 이래 끊임없이 발생하였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의 개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형평성을 이유로 군 복무 가산점제도는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 이 글은 나태종, 『21세기 한국의 병역제도 발전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2012)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연구위원, 군사학 박사

결정으로 폐지된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지만 부활되지 못하고 있다.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이후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병사의 군 복무기간이 육군을 기준으로 21개월로 조정되었지만,¹⁾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안보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병역제도는 무엇인가, 국민 개병제를 채택하는 국가 또는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병역제도는 제도화되고 정착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상존하고 있어 병역제도에 대한 개선과 보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병역제도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교훈을 도출하여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병역제도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3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제1단계는 제1·2공화국시대, 제2단계는 제3공화국으로부터 제5공화국시대, 제3단계는 제6공화국으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대별 병역제도를 분석 및 평가하여 바람직한 병역제도 발전방안의 제시가 가능하며, 나아가 국군의 전투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시대별 병역제도의 발전

병역이란 국가의 군사력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병원을 획득·유지하기 위한 인적부담으로서, 모든 국민이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

1) 국방부는 2010년 12월 21일 육군, 해병대,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은 21개월로, 해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은 23개월로, 공군, 공익근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24개월로 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보도자료, 「2011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 2010. 12. 30. : 『국방일보』, 2010. 12. 22. 1면 참조.

국도방위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²⁾ 병역제도란 병역을 위해 여러가지 방법에 의하여 군사력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병력을 충원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한다.³⁾

한국의 병역제도는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의무병제(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여기에 지원병제(모병제)를 병행함으로써,⁴⁾ 엄밀한 의미에서는 징병제를 위주로 한 혼합형 병역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한 국가의 병역제도는 제도 시행의 결과에 따라 동원과 예비군 복무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며, 군사제도와 국가경쟁력에 파급되는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병역제도를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나라는 광복과 더불어 독립국가를 건설하여 영토와 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국가방위의 역량을 구비하는 것이 당연한 과제였다.⁵⁾ 그러나, 우리 민족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제와 싸워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자치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⁶⁾ 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미 군정청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주체가 아닌 객체로 참여할 수 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대표자를 선출하여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의견수렴을 통한 국가체제를 갖추지 못하였다. 그 결과 역대 행정부가 추진했던 군사력 강화를 위한 제반 정책 및 병역제도가 미국의 정책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추진되거나,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하였다.

2) 민진 외, 『국방행정』, 대명출판사, 2005, 554쪽.

3) 김두성, 『韓國兵役制度論』, 제일사, 2003, 17쪽.

4) 대표적인 모병제도는 유급지원병 제도로서, 육군에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시험운영 결과를 기초로 2020년에는 모집병 비율을 8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육군본부, 『2010 육군정책보고서』, 국군인쇄창, 2010, 74쪽.

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建軍史』, 정문사문화주식회사, 2002, 71쪽.

6) 이종학, 『군사이론과 군사교육의 연구』, 서라벌군사연구소출판부, 1997, 327쪽.

1) 제1·2공화국의 병역제도(1948년~1961년)

(1) 병역제도의 발전

제1공화국은 미군에 의해 3년여의 군정이 실시된 이후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출범한 제1공화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국방을 포함한 전 분야에서 서구식 제도와 문물의 영향을 받았다. 그 중 국방분야는 미 행정부가 구상하고 군정당국이 계획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미 행정부가 승인하는 형식을 통해 국군조직이 편성·발전되었다. 국방조직의 편성과정에서 미 군정청이 원활한 군정정책의 추진과 치안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치한 국방사령부는 정부조직 편성과정에서 국방부로 변경되어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방기구의 모체가 되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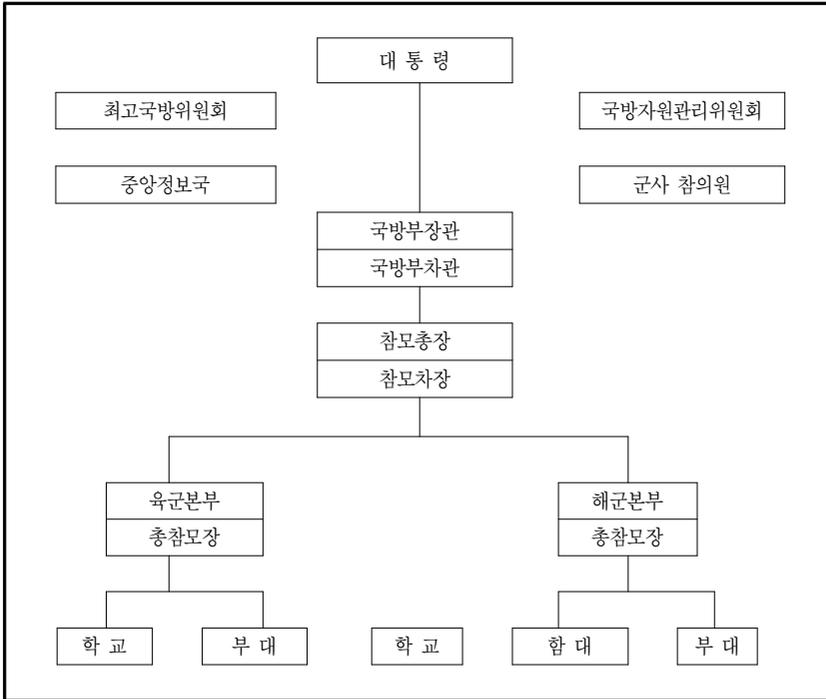
국군의 조직은 1948년 11월 30일 법률 제9호로 공포된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국방부가 설치되었다. 이로써,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통수권자가 되고 국방부장관은 군정을 관장하는 외에 군령에 관해 대통령이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국방부에는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을 두고, 예하에 육군본부와 해군본부를 설치하여 총참모장과 차장을 두는 직제를 구성하였다.

최초로 편성된 국방기구는 1948년 12월 7일 국방부직제령에 의해 육군과 해군의 용병과 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연합참모회의가 설치되었으나, 1949년 5월 9일 기구간소화의 일환으로 국방부 참모총장제와 연합참모회의가 폐지되어 각 군의 총참모장이 해당 군의 최고 수장이 되었다. 이로써 6·25전쟁 직전의 국방조직은 대통령-국방부장관-각 군 총참모장 체계를 이루었다.⁸⁾ 이상에서 살펴본 정부수립 직후의 국방기구의 편성은 <표 1>과 같다.

7)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국방조직의 변천과정 고찰」, 『軍史』 제17호,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1988, 222쪽.

8) 김행복, 『6·25전쟁과 채병덕 장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15쪽.

〈표 1〉 정부수립 직후의 국방기구(1948. 11. 30 기준)



출처 :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제1권』, 서라별인쇄주식회사, 1984, 223쪽.

정부수립 이후의 병역제도는 지원병제도였다.⁹⁾ 이승만정부는 국군조직법(법률 제9호, 1948. 11. 30)과 국방부직제령(대통령령 제37호, 1948. 12. 7) 등 국방관계 법령을 제정·공포하여 지원병제도를 병역제도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국가체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어렵다는 문제점과 함께 군정을 위해 주둔한 미군이 장차 본국으로 철수할 것에 대비하고,¹⁰⁾ 현실적으로 정규군 만으로는 안보위협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부족한 예비병력의 확보를 위해 호국군 병역에

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02), 전계서, 308쪽.

10) 이종학, 『6·25전쟁이란 무엇인가』,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387~388쪽.

관한 임시조치령(대통령령 제52호, 1949. 1. 20)에 근거하여 호국군이 편성되었다. 지원병제인 호국군은 각각 거주지의 부대에 소속된 상태에서 필수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이후 생업에 종사하면서 필요시 현역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였으나, 1949년 8월 6일 병역법이 제정·공포되면서 폐지되었다.¹¹⁾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시행된 병역임시조치령은 병역을 현역과 호국병역으로 구분하고 복무연한은 2년으로 설정한 한시적인 법령이었다. 이후 국회의 법률심의 과정을 거쳐 병역법이 공포되어 의무병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병역제도로 전환되고 병역법시행령이 제정되었지만, 6·25전쟁의 발발로 인해 정상적으로 법령이 시행되지 못하고, 전시 상황에 부합된 병력 충원을 위하여 병역법이 개정되었으며, 1957년 8월에 또다시 병역법을 개정하였다. 이와 같이 병역관계 법령이 빈번하게 변경된 요인은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의 측면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게 작용되었기 때문이었다.

병역법의 제정으로 인해 군사적 인력동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지만, 미 군정의 경비대 정원(定員)통제와 재정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본격적인 시행은 보류되었다가 전쟁발발 후인 1950년 8월 22일에 시행되어 강제 징집에 착수할 수 있었다.¹²⁾ 환언하면, 병역법에 의한 징집계획은 국군의 정원을 10만명으로 제한한 미 군정청과 병역제도상의 문제로 인해 국민개병제가 시행되지 못하고 지원병제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평시 예비군을 확보하여 유사시 현역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호국군을 창설하였으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해체되었다.¹³⁾

제1공화국의 병역제도는 각종 제도와 법령의 신설을 통해 국방기구를 정비하고 군사분야의 기반을 다져 나가는 과정에서 발전되었다. 특히, 정부가 수립된지 2년도 못된 상태에서 6·25전쟁이 발발하여 병역과 관련한 각종

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제1권』, 국방부, 2001, 151~152쪽.

12) 전상인, 「한국전쟁과 국가건설」, 『아시아문화』 제16호, 2000, 34쪽.

13) 손희두, 「한국전쟁 초기의 법령 조치」, 『軍史』 제59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8쪽.

법령의 제·개정이 전시 소요에 맞게 임기응변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¹⁴⁾ 병역제도의 정립과 적용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었다. 제2공화국은 경제우선정책을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추진과 국내경기를 단기간에 활성화하는 국토건설사업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는데,¹⁵⁾ 그 배경으로는 경제불황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위축과 1960년 당시 정부예산 3,600억원 중에서 국방예산이 1,498억원으로 약 41.6%를 차지할 정도로¹⁶⁾ 비중이 과다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제2공화국의 정부정책의 초점이 경제개발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국군의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에 집중될 수 밖에 없었다.¹⁷⁾ 국군의 감축은 이승만정부에서부터 미국과 협의되어 오던 것으로, 한국이 미측에 72만여 명에서 6만여 명을 감축한 66만여 명 규모의 병력유지를 제시하였으나, 18개 사단 63만여 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됨으로써 1960년을 기준으로 5개 군단과 18개 사단을 보유하게 되었다.¹⁸⁾

요컨대 제2공화국의 병역제도는 군의 병력감축으로 집약할 수 있다. 장면(張勉) 내각은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감군원칙과 대상의 선정, 보상대책, 감군으로 인해 군을 떠나는 직업군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5·16쿠데타 세력에게 권력을 빼앗긴 채 내각이 총사퇴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기본방침을 추진하거나 적용할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했기

14) 1950년 6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대통령 긴급명령은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포함 총 13건이 발동되었다. 그런데, 헌법 제57조 2항은 “긴급명령에 의한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되어 국회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국회가 파산중에 있어 먼저 시행되었다. 상계서, 15~16쪽.

15) 홍준기, 「제2공화국의 국방정책 평가」, 『軍史』 제58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257~258쪽.

1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제3권』, 서라벌인쇄주식회사, 1990, 455쪽.

17) 신경철, 「미국의 대한 군사정책의 변천과 전망」, 『軍事評論』 제272호, 육군대학, 1988, 263쪽.

1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제2권』, 서라벌인쇄주식회사, 1987, 398~399쪽. 이 시기에 한국은 72만 명의 병력을 유지했는데 비해 북한은 1956년에 전후복구를 목적으로 8만여 명의 병력을 감축하였다. 이기택, 「휴전 이후의 남북한 군사정세」, 『軍史』 제6호,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1983, 122쪽.

때문에 병역제도의 실질적인 발전은 미미하였다.

(2) 평 가

대한민국의 건국과 동시에 국방정책과 병역제도가 시행되었지만 대체로 행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결정된 국방에 관한 단기적인 시책이었다. 당시의 국방정책은 국무총리를 겸직한 이범석 국방부장관이 1948년 8월 3일 시정 방침으로 제시한 국가안보 시책에 포함되어 있었다.¹⁹⁾ 정부수립 초기의 제한되고 불비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연대와 협조를 통해 합법적인 군사력인 국군을 건설하고 이를 운영하는 제도와 틀, 즉 국방체제를 마련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였다. 그 중에서도 징병제 병역제도를 채택하여 국민개병제에 의한 국방체제를 형성시킨 점은 현행 병역제도의 골간을 구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²⁰⁾ 그러나 미군정이 초기에 북한의 전면적 무력침공에 대비한 안보공약과 군사력 증강은 지원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군사력 증강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한국군의 성장을 제한한 점은 상비군의 보유 및 강화에 제한요소로 작용되었다.²¹⁾

제1·2공화국에서의 병역제도 발전은 국군조직법에 대한 국회본회의 법안심의 과정에서의 토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948년 11월 10일에 진행된 국군조직법안 독회(讀會) 및 심의 당시 유진오(兪鎭午) 법제처장은 “용병작전 면에서 본다면 국가는 군력이 어떠한 자국보다 강한 나라를 물리칠 수 있는 군비를 갖고 싶지만, 이는 국가재정을 떠나 존재할 수 없다. 군정(軍政)과 군령(軍令)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계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주장하였다.²²⁾ 반면,

19) 백기인, 「한국국방체제의 형성과 조정, 1945~1970」, 『軍史』 제68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8, 63쪽.

20) 상계서, 88쪽.

21) 양영조, 「미국의 6·25전쟁 참전전략 배경과 의미」, 『향방저널』 제487호, 향토방위연구소, 2011, 59쪽.

2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군조직법안 심의 국회속기록」, 『軍史』 제10호,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1985, 181~182쪽.

신성균(申性均) 의원은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되면 차후에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군정과 군령의 완전한 분리보다는 유기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²³⁾ 위의 사례를 통해 군정과 군령의 분리와 독립에 대한 장단점 검토와 논의를 통해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위정자들의 국가관과 애국심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이는 현재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국방개혁에서의 상부지휘구조 개편방향과²⁴⁾ 지향점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논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제1공화국은 최초의 병역법에서 국민개병제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그 시행을 유보하고 지원병제를 운용한 점, 예비병력을 확보하여 유사시 활용하고자 했던 호국병이 정치집단화 되는 것을 우려한 해체 등은 병역제도가 순수한 국방임무 수행의 적합성과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으며, 전시에 병역제도와 관련된 각종 법령이 양산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열세인 병력과 장비로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다는 사실과 전후 병역법의 개정과 병력감축으로 병사의 복무기간이 축소되는 등 병역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된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제2공화국의 병역제도는 장면 내각의 저하된 정책의지, 그리고 군내 정군대상자들의 조직적인 반발로 인해 제대로 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지만,²⁵⁾ 군부의 정화를 추진하려 했던 점은 고무적인 조치로 인식되어야 한다. 특히, 국방정책의 추진과 국방개혁의 일부분인 병역제도 발전의 입안과정에서부터 미국과 사전 협의를 필요로 했던 사실은 한미간의 군사관계가 상호관계가 아닌 미국의 전략판단에 기초한

23) 상계서, 213~214쪽.

24) 상부지휘구조 개편의 핵심은 합참의장에게 제한된 군정권을 부여하여 전작권 전환 이후 전·평시 작전지휘의 원활을 기하는데 있다. 국방부, 『국방개혁 기본계획 : 상부지휘구조 개편』, 국방부, 2011, 13쪽.

25) 홍준기(2006), 전계서, 279쪽.

일방적인 관계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서,²⁶⁾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이후 한국주도의 군사력 건설 및 독자적인 전력발휘와 관련하여 극복되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2) 제3공화국~제5공화국의 병역제도(1961년~1987년)

(1) 병역제도의 발전

제3공화국으로부터 제5공화국까지의 기간은 한국이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루던 시기로서, 군사분야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수반되었다. 박정희는 집권 초기 당면한 북한의 위협과 안보환경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반공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면서 1957년 병역법 개정 당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던 병사의 군복무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1962년 개정된 병역법 제20조 제1항에 포함하였다. 즉,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현역 또는 실역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개정하여 복무기간 연장의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1960~1970년대에 발생한 북한의 도발을 ‘대북 위기의식’으로 확대 재생산하여 「향토예비군 설치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하고, 1·21사태 이후 후방지역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총 166만 2천여 명으로 편성된 향토예비군을 창설하여 예비군에게 교육훈련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동원훈련체제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병역법을 전면 개정함으로써(1962. 10. 1) 국방부가 병무행정을 총괄하고 내무부의 지방국에서 징집, 치안국에서 소집을 집행하던 이원화체제를 국방부 산하의 각 시·도 병무청에서 징병검사와 현역병 입영업무를 담당토록 개선하고, 동원 및 학생군사훈련제도의 시행 등 병력충원의 기반을 형성하였다.²⁷⁾ 이후 대통령령 제5281호(1970. 8. 20)에 따라 국방부 외청으

26) 정춘일, 「한미 군사관계의 역사적 변천」, 『軍史』 제23호,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1991, 60쪽.

27) 국방군사연구소, 『1945~1994 국방정책변천사』, 국방군사연구소, 1995, 142~143쪽.

로 병무청을 창설하고, 각 시·도 병무청을 시·도 지방병무청으로 개편하는 등 병역제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1970년대에는 오늘날의 대체복무에 해당하는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특례규제에 해당되지 못하는 병역의무 대상자들에 대한 특례규제가 따로 마련되어야 할 정도로 각종 특례제도가 양산되었다. 중화학공업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970년 8월 7일 「한국과학원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현역복무를 면제받으면서 국가가 지정하는 전문분야에 종사할 수 있게 하였으며,²⁸⁾ 1973년 3월에는 중화학공업 분야의 지원을 위해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제정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특수한 기술을 소지하고 있거나,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병역의무자는 해당 분야에서 일정기간을 종사하면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받게 하였다.²⁹⁾ 1980년대에도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과학화 영농의 추진 필요성과 산업발달에 따른 자연과학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또다시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촌지도요원, 자연계 교원 및 특수전문요원에 대해 특례가 부여되었다.

이처럼 제3공화국에서부터 제5공화국에 이르는 기간에 병역특례 규제에 관한 법령이 다수 제정되어 수혜자가 증가되었다. 특례보충역 처분 현황을 보면, 1970년대에는 대부분 방위산업체와 기간산업체 종사자들이 차지한 반면, 1980년대 들어서는 방위산업체 종사자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연구요원을 포함한 해경요원, 농촌지도요원, 예체능 특기자가 증가하였다. 아울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경시풍조와 병역기피 의식이 확산되어 대규모 병무부정으로 나타났는데,³⁰⁾ 국방부에서 발표한 제1차 병무과동 조사결과에 나타난 병무부정의 유형은 <표 2>와 같다.

28) 병무청, 『병무행정사 하권』, 병무청, 1986, 525쪽.

29) 김두성(2003), 전계서, 159쪽.

30) 병무부정 요인은 주로 ①병종을 빙자한 징집면제, ②징집면기, ③즉일귀향, ④독자, 극빈자, 무학자 등에 대한 징집특혜 제도로 집약되었다. 『대한일보』, 1970. 1. 15. 1면.

〈표 2〉 제1차 병무과동 조사결과 병무부정의 유형

단위 : 건

구 분	계	병 중 부정판정	부 정 지원입대	부 정 입영연기	보충역 부정편입	부당해외 출국허가
건 수	1,024	149	193	354	20	308

출처 : 『조선일보』, 1970. 3. 14. 5면의 기사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1970년도에 발생한 대규모 병무부정사건을 계기로 변화된 병역제도로는 병무행정을 전담하는 병무청의 창설과 권한의 강화를 통해 강력한 병무행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을 들 수 있다.³¹⁾ 또한 병무과동의 재발방지를 위해 ①병종(兵種)의 기준을 종래의 203종에서 75종으로 줄이고 명백한 불구가 아니면 가능한 징집, ②질병에 의한 징집의 연기는 군에서 지정한 종합병원의 정밀검사에 의하되 그 절차를 엄격히 하고, ③훈련소 입소때 신체검사에서 질병이 드러나 즉일귀향(即日歸鄉) 대상일 경우, 귀향 즉시 군이 지정한 병원에서 재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입소여부를 결정, ④독자 또는 가사에 의한 징집연기 또는 면제는 인정하되 악용되지 않도록 사전조사의 강화, ⑤무학자와 극빈자에 대한 징집특혜는 단계적으로 없애며, ⑥육군의 지원병제도 폐지, ⑦해외거주자의 경우 공관장이 지정하는 병원의 진단서를 공관을 통해 국방부에 제출하되, 사후 부정이 밝혀지면 소환키로 하는 등 병역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규제와 감독활동 강화를 위한 국방부령, 시행세칙 등이 개정되었다.³²⁾ 1980년대에는 인구증가에 따른 병역자원의 누적과 함께 사회구조가 다양화되고 병역부과의 형평성과 민주성, 국민편익의 우선 등이 요구되어 1983년에 병역법을 전문개정하는 등 병역제도가 더욱 발전되었다.

31) 오동일, 『주요 각국 병역제도 비교연구』, 고려문화사, 1990, 39쪽.

32) 『대한일보』, 1970. 1. 15. 2면. : 『한국일보』, 1970. 3. 20. 1면.

(2) 평가

제3공화국으로부터 제5공화국에 이르는 시기에는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확실한 대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자주국방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병역제도의 발전이 추진되었다. 이 시기에는 자주국방과 경제발전이라는 확실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가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필요한 소요에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조치였다. 1973년 제정된 병역특례법은 군수업체 및 주요 기간산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는 산업인력을 보충역에 편입시키는 특례를 줌으로써 계속적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초의 제도 신설이었다는 점과, 잉여자원의 활용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³³⁾ 형평성의 논란과 함께 절차적 미비점을 동시에 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병역특례제도가 법으로 인정된 이후 ①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1973. 2. 17), ②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7. 23), ③국민보건의료료를 위한 특별조치법(1978. 12. 5), ④자연계 교원요원 확보를 위한 특별조치법(1980. 1. 4), ⑤농어촌 보건의료료를 위한 특별조치법(1980. 12. 31)과 한국과학기술원법(1980. 12. 31), ⑥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1981. 4. 13), ⑦대학원생 등의 병역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1981. 6. 5) 등의 각종 특례제도의 양산으로 이어져, 법령제정의 취지와 달리 병역제도에서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예로는 1981년 5월의 병역특례에 관한 병역법 개정안에 제시된 예비역사관제도를 들 수 있는바, 지나친 행정편의주의 또는 법의 이름으로 집행된 고위층 자제를 위한 특례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제3공화국과 제5공화국시대에 병역제도가 발전되고 안보태세가 강화되어 국방정책의 효율성이 달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합법성과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가 유린되거나 결여되어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33) 병역특례제도가 신설될 때마다 그 배경으로는 잉여자원을 국가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었다. 김두성(2003), 전거서, 179쪽.

초래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이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할지라도 과정과 절차상의 하자(瑕疵)가 있거나 추진과정에서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제공하기도 하였다.³⁴⁾

특히, 병역제도의 변경은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과정의 준수가 요구되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점은 오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1983년의 병역법 개정은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과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합하는 중요한 사안이었지만, 국회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에서조차 찬반논쟁 없이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는 병역제도의 변경에 대해 국회의 관심이 미흡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행정부가 결정한 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대안을 모색하지 않음으로써 최고권력자의 의도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복지부동의 자세와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3) 제6공화국~현재의 병역제도(1988년~2012년)

(1) 병역제도의 발전

노태우정부는 군의 병력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과학기술의 진흥, 산업육성, 농어촌 국민보전 향상, 고급두뇌의 양성 등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병역특례제도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가 기본군사교육을 마친 후 관계분야에서 일정한 기간을 종사하면 실역복무를 인정해 주는 특례제도의 적용이 국민개병제 원칙에 따른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34) 합법성과 민주성이 결여된 대표적인 예로는 ①1962년의 병역법 전문개정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고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되어 관련기록이 존재하지 않은 점, ②1971년 10월 시국과 관련한 대학생들의 데모가 계속될 때 학적변동에 따른 병무부과 조치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대학의 제적, 또는 본인의 휴학조치와 동시에 징병검사 후 입영시킨 강제징집 조치, ③1973년의 병역법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이 유신체제하의 비상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상계서, 170~171쪽.

확산되자,³⁵⁾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각종 특례제도를 통·폐합하였다. 노태우정부에서 시행된 특례제도의 통·폐합 현황을 1983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특례제도 통·폐합 현황(1989년)

1983년의 특례제도	1989년의 특례제도	주요 내용
과학기술원 학생	연구요원 특례	· 석사 이상 학위취득자로서 병역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연구기관 종사자 · 전문분야 5년 중사
자연계 교원		
학술특기자		
기간산업체 종사자	기능요원 특례	· 병역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기간 및 방위산업체, 종사자로서 기술자격소지자 · 전문분야 5년 중사
방위산업체 종사자		
기능 특기자		
해군특례 예비역		
농촌지도직 공무원		
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의사 특례	· 의사, 치과의사(공중보건의) · 무의촌에서 3년 3개월 복무

출처 : 진석용, 「저출산시대 합리적 병역정책 방향」, 『병역정책포럼』, 육군본부, 2005, 17쪽.

위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폐합된 특례제도의 주요내용은 특례제도의 설치목적이 달성된 자연계 교원, 교대출신 등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고 유사한 제도를 통·폐합한 것이었다. 다양한 특례보충역을 3개의 특례보충역으로 통·폐합하고, 병역자원 중 독자(獨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본인의 희망에 의해 6개월간 보충역으로 복무하던 독자보충역 제도를 폐지하여 현역자원으로 확보하였다.³⁶⁾

35) 국방부, 『1988 국방백서』, 군인공제회 제1인쇄사업소, 1988, 343쪽.

36) 김두성, 「병역자원 부족과 21세기 병역정책 방향」, 『병역자원 감소와 21세기 병역정책의 발전방향세미나 발표집』, 병무청, 2002, 67~69쪽.

김영삼정부에서는 1969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방위병제도의 악용에 따른 부조리의 심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방위병제도를 폐지하고, 그 후속조치로 1년 동안 현역병으로 복무한 후 향토방위 분야에서 16개월 동안 출퇴근식 복무를 하는 상근예비역 제도를 시행하였다.³⁷⁾ 김대중정부에서는 병무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병무청의 현역모병관 제도가 폐지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 풍토의 조성과 사회지도층의 병역의혹 해소 및 병무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출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시행하여 6,000여 개의 병역의무 공개직위가 지정되었다.³⁸⁾

노무현정부에서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자 중 4급 이상 공직자까지 포함하는 23,000여 개의 직위로 병역사항 공개를 확대하여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³⁹⁾ 이명박 정부는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 및 이행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병역법과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건강이상자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신체등위 판정기준 강화를 위한 「정병신체검사규칙」을 개정하였다. 또한 병역면제 연령을 일반의무자의 경우 31세에서 36세로, 병역면탈자 및 국외체류자는 36세에서 38세로 조정하였으며, 입영기일 연기는 총5회로 제한하고, 사회지도층의 병역사항 중점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⁴⁰⁾

노태우정부 이후 조성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정부로 이어져 안보논리를 앞세운 각종 조치는 무의미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안보환경의 변화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병사의 군복무기간 단축으로 나타났다. 정부수립 이후 군별 복무기간 변화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37) 국방부, 『1994 국방백서』, 군인공제회 제1인쇄사업소, 1994, 240쪽.

38) 국방부, 『1998 국방백서』, 신신문화인쇄, 1998, 176쪽 ; 국방부, 『1999 국방백서』, 대중인쇄사, 1999, 160쪽.

39) 병무청, 『참여정부의 병무혁신 프로젝트 0308』, 병무청, 2003, 17쪽.

40) 국방부, 『이명박정부 3년 국방정책 주요성과 및 과제』, 국방부, 2011, 32쪽.

〈표 4〉 현역병 복무기간의 변화(1948년~2011년)

단위 : 개월

구 분	복 무 기 간			조 정 사 유
	육군·해병	해군	공군	
1952년 이 전	전역제도 없음			6·25전쟁으로 병역법 시행 불가
1953년	36	36	36	6·25전쟁 후 장기복무자 전역
1959년	33	36	36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1962년	30	36	36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1968년	36	39	39	1·21사태로 복무기간 연장
1977년	33	39	39	잉여자원 해소, 기술인력 지원
1979년	33	35	35	해·공군병 획득난 해소
1984년	30	35	35	징집병 병역부담 완화
1990년	30	32	35	해군병 획득난 해소
1993년	26	30	30	방위병 폐지, 잉여자원 해소
1994년	26	28	30	해군병 획득난 해소
2003년	24	26	28	병역부담 완화
2004년	24	26	27	공군병 획득난 해소
2008년	24 → 18	26 → 20	27 → 20	병력감축, 잉여자원 해소
2011년	21	23	24	2010. 12. 21. 국무회의 의결

출처 : 국방부, 『2010 국방백서』, 국방부, 2010, 319쪽.

위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6·25전쟁 기간에는 전역제도 자체가 시행되지 못하였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으로 한반도의 안보위협이 고조될 때에는 오히려 복무기간이 연장되기도 하였다. 제6공화국 이후에도 북핵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정도로 안보위협이 상존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남북대화의 채널이 유지되고 경제교류가 확대된 가운데 군사

분야에서도 회담이 진행되어 국가안보태세의 강화를 이유로 현역병 복무기간을 유지하는 것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예비군훈련은 제1공화국 이후 경찰책임하에 역종별 구분없이 지역단위로 실시하였으나, 1972년에 예비군훈련 책임이 군으로 이관된 이후에는 동원 및 일반예비군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소집교육을 실시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는 훈련일정의 자율선택, 훈련불참자의 재입영훈련, 인터넷에 의한 훈련소집, 주말과 휴일을 이용한 예비군훈련의 실시와 더불어 전시임무수행을 위한 전방전개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회변화가 반영된 다양한 훈련방법이 적용된 예비군훈련으로 정착되고 있다. 예비군훈련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예비군훈련 변천과정(1968년~2011년)

구 분	주 요 내 용
1968~7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책임하 지역단위 훈련 · 역종별 구분없이 일반훈련 위주실시
1972~7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군훈련 책임 이관(경찰 → 군) · 통합방위협의회 지원, 지역별 훈련장 설치
1975~7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원 / 일반예비군으로 구분, 학급/교과편성 · 군부대 소집교육 / 쌍용훈련 실시('77) · 권역별 종합훈련장 설치(현 광역시 기준)
1980~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군 간부교육 실시('82) · 훈련단위별 안보교육관 설치('85) · 복무연령 → 연한제 실시('94) · 훈련일정 자율선택('95), 불참자 재입영훈련('02) · 인터넷 훈련소집('05), 휴일 예비군훈련('06)
2007~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군 사이버교육체계 개발 / 시험적용('08) · 동원지원단 / 정보보충대대 창설('09)

출처 : 엄영호, 「전시 임무수행 가능한 예비군훈련 발전방안」, 『2010 예비전력발전 세미나 자료집』, 2010, 79쪽.

(2) 평가

제6공화국 이후 병역제도가 다양하게 발전된 요인은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변화된 측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제도의 확대 또는 축소가 반영된 경제적 측면을 들 수 있다. 또한 사회발전 추세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발전을 앞지르게 되어 구성원과 집단의 요구가 여과없이 분출되고 혼란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 사회적 측면을 들 수 있다.

병역특례제도는 노태우정부에서 통·폐합된 이후 특례요원 심의가 강화되어 특례보충역 처분이 점진적으로 감소되었으나, 김영삼·김대중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면서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산업체의 기술인력지원 요구에 의해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방위소집 대상자 중 기술자적이 없는 자에게도 일정기간 직업훈련을 실시한 후 특례보충역에 편입시켜 중소기업체를 지원함으로써 병역특례업체와 특례보충역 처분이 증가하는 등 장기적인 안목에 의한 병역제도의 발전보다는 단기적인 처방 위주로 병역제도를 변경함으로써 시행착오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는 국방개혁의 일부분으로서 병역제도의 발전이 추진되었다. 노태우정부는 탈냉전에 따른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한 군구조 개편 및 합동군의 발전방향에 주안을 두고 「장기 국방태세발전방향 연구계획(818계획)」을 시행하여 현재의 군 지휘구조를 출범시켰다. 김영삼정부는 「21세기 국방태세연구안」에 따른 국방개혁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김일성의 사망으로 북한의 위협이 감소하고, 남북한의 공존과 통일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판단하에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병역제도의 보완을 모색하여 문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인적청산을 추진하였다.⁴¹⁾ 또한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입법을 추진하고, 민수기술과 군수기술의 공통부분인 겸용기술을

41) 임종득, 「국방개혁 2020과 향후 육군의 과제」, 『軍事評論』 제389호, 육군대학, 2007, 203쪽.

정부부처와 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함으로써, 연구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개발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하였다.⁴²⁾

김대중정부는 외환위기로 인해 국가경제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장기 국방발전기획서」에 제시된 국방비의 소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유사한 기능과 조직의 통합, 대규모 병력감축 등이 포함된 「5개년 국방발전계획」을 추진하였으나, 경제난 극복 차원의 효율적 군 운영에 국한됨으로써 미미한 수준의 성과에 그쳤다.⁴³⁾ 노무현정부의 국방개혁 2020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에 대비한 전쟁수행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병력을 감축하고 첨단전력을 보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군사력의 첨단화와 합동성 강화, 국방운영체제의 효율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를 운영하여,⁴⁴⁾ 공익근무요원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배정을 확대하였으며, 병역지정업체 근무자의 복무기관 선택범위를 확대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증가하는 사회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는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하여 예외없는 병역의무 이행을 통한 병역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⁴⁵⁾

이명박정부에서는 국내외 안보상황과 위협의 변화를 고려하여 2008년에 국방개혁 2020을 2008년에 1차 수정한 후, 2010년에 2차 수정을 진행하던 중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이 발생하여 국방개혁 307계획으로 발전되었다. 이는 현존하는 안보위협에 대비하는 적극적 억제전략 개념하에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병역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부지휘구조의 개편과 병행하여 병역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42) 신진, 「한국군의 국방개혁과 평가의 방향」, 『사회과학연구』 제12권, 충남대학교출판부, 2001, 95쪽.

43) 임종득(2007), 전계서, 203~204쪽.

44) 국방부, 『2006 국방백서』, 신흥피앤피 주식회사, 2006, 185쪽.

45) 국방부, 『2008 국방백서』, 유진피앤피, 2008, 236~237쪽.

3. 바람직한 병역제도 발전방안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영토와 주권을 수호 하는데 있다. 한국이 21세기 세계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당면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한국적 여건에 가장 적합한 군사제도의 발전, 구체적으로 병역제도의 발전을 통해 국방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군이 병력위주의 양적인 군대의 성격을 지닌 가운데 성장과 발전을 거듭했다면, 지금부터는 첨단 정보과학기술로 장비된 질적인 군대로 변화되어야 하며, 이는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김강녕은 한국적 군사혁신의 비전과 방책을 설계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술중심의 전력획득 패러다임을 발전·정착시켜야 하며, 우리도 최첨단 핵심기술을 보유해야 하지만,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거시적인 전략적 사고의 확립과 더불어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⁴⁶⁾ 제한된 경쟁력과 기술력으로 인해 최첨단의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창의적인 군사이론이나 군사작전수행개념을 발전시켜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성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⁴⁷⁾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은 국방부와 국책연구기관의 영역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의 병역제도에서 살펴본 문제점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병역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병역제도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으로는 병역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지극히 미약하였다. 시대별로 병역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노력이 이

46) 김강녕, 『남북한 관계와 군비통제』, 신지서원, 2008, 151~152쪽.

47) 길병욱, 「전시 작통권 환수에 따른 국가위기관리체제 확립방안」, 『군사논단』 제50호, 신오성기획인쇄사, 2007, 106쪽.

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정부수립 이후 제5공화국에 이르는 기간에는 병역제도가 안보역량의 강화를 병자한 통치수단으로 악용된 측면이 강하였다. 또한 제6공화국 이후에는 행정부에서 병역제도를 총선과 대선에서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으로 제시하여 오히려 기존의 제도보다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이와 함께 한국적 안보상황과 국민정서를 고려한 병역제도의 유형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미흡하여 시대별로 국민개병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병역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하였다. 또한 병역면탈 및 병무부정에 대해 처벌과 강제위주로 대응함으로써 자발적인 병역이행을 유도하지 못하였다. 특히, 그동안 우리 사회의 저변에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이 이득을 보고 군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병역면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과 보상책이 시행되지 못한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대목이다.

21세기 선진한국의 병역제도라고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병역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한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는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통한 군 가산점제도의 재도입, 현행 병역법상에 명시된 병역면탈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시점의 변경 등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여기에 의무복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재검토하여 실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병역이행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으며, 병역의무에서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담보될 수 있다.⁴⁸⁾ 아울러, 병역이행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도 그 책임이 개인에게 있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시행하여 군 복무의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얻을 수 있는 보람과 성취감

48) 정주성, 「공정한 병역이행 제고방안」, 『공정한 병역이행 세미나 자료집』, 한국국방연구원, 2011, 17쪽.

또한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⁴⁹⁾

둘째, 병역제도의 점진적인 전환을 모색하여 국민개병제 원칙을 유지하되, 이를 보완한 지원병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한국은 현재의 국력, 경제력, 군사력, 국제적인 위상만을 놓고 본다면 강국임이 분명하지만, 지정학적 위치, 국토와 자원 등에 있어서는 약소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는 방안은 여러가지를 고려할 수 있지만 국방분야에서는 우선적으로 군의 정예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첨단전력을 구비하고 이를 유지하는데는 과도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실에 부합된 선택과 집중 또는 제한된 전력의 질적 수준을 강화하여 전체 전력의 정예화를 도모해야 하며,⁵⁰⁾ 그 방법으로 병역제도의 점진적인 전환이 모색되어야 한다.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 병역제도는 유지하되, 모병제의 확대를 통해 첨단기술인력을 흡수하여 실질적인 전력증강 효과를 달성해야 한다.

셋째, 징병검사 및 병역처분의 개선을 통해 병역면탈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회관심자원에 대한 중점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신체검사 불합격자를 포함한 병역면제자에 대해서는 소극적 방치의 개념을 탈피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에 부가하여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단, 일정한 직급 이상을 가진 부모의 자제는 우선적으로 전방부대에 배치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실천되도록 해야 하며, 사회관심자원인 각종 종목의 운동선수와 연예인들의 병역이행 사항이 보다 더 투명해 질 수 있도록 중점관리 되어야 한다.

넷째, 군 복무중인 병사가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군 학점인정사업의 예산편성 확충 및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군 지휘관(자)의 부하 자기개발에 대한 인식전환, 학점인정 적용의 폭과 범위를 확대하고, 군에서의 기술교육 확대와 기술병의 모집비율을 높이는 한편,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능력을 민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49) 군사평론 편집부, 「신세대 의식성향과 부하상, 간부상」, 『軍事評論』 제323호, 육군대학, 1996, 150쪽.

50) 노훈, 「미래를 대비한 육군 전력발전」, 『육군의 현실과 비전 안보토론회 자료집』, 2005, 42~43쪽.

수 있도록 국방전문분야 자격제도의 신설과 함께 명실상부한 통합원격교육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섯째, 예비군제도 및 동원제도의 발전면에서는 예비군훈련 보류제도를 재검토하여 대학생의 예비군교육 및 동원훈련 소집보류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학습권 보장과 병역의무 이행을 둘러싼 상반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예비전력 운영체계를 정립하고, 현대화된 예비군훈련장을 구비하여 국민안보의식 강화의 장(場)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동원관련 법령제도의 정비를 통해 전시동원예비군의 임무수행능력 제고와 함께 정예화를 추진하고 과학화훈련장비를 이용한 동원훈련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배정을 확대하여야 한다.

4.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병역제도는 정부수립 이후 현재에 이르는 동안 안보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정책, 경제·사회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우리 국민들은 군에 대해 평시에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상시 전투준비태세를 갖춘 군대, 전시에 적과 싸워 이기는 군대를 원하고 있으며, 군 조직에 대해 무한한 신뢰와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병역이행 대상자들은 군복무를 신성한 국민적 의무로 인식하여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반면, 일부에 국한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한 각종 비리가 발생되고 있어 계층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⁵¹⁾

개별 국가의 병역제도는 병력의 획득뿐만 아니라 사회제도 전반을 유지하는 제반 제도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비단 국방과

51) 정경현, 『韓國 兵役制度 發展史』, 병무청, 1989, 278쪽.

군사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 전국가적 관심사항이다. 특히, 한국의 병역제도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안보현실과 병역의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병역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군복무 가산점제도를 부활하여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젊은이들에게 상응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현행 병역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병역제도의 변화를 모색하여 애국심과 전투의지로 충만된 군대, 정보화·과학화로 무장된 전문전투집단, 고도의 전투준비태세를 갖춘 상비군과 동원체제를 유지한 군대로 육성해야 한다.⁵²⁾ 셋째, 병역이행과 관련하여 사회문제를 일으키거나,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관심자원(스포츠 스타, 연예인, 고위공직자의 자제 등)의 병역이행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병역의무 이행에서의 예외가 인정되어서는 안되며, 부와 명예를 가진 자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을 민주시민의 기본자질이기 때문이다. 넷째, 군 복무중인 병사들의 동기유발을 강화하기 위한 자기개발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병역제도가 발전되어야 하며, 다문화병영시대에 대비한 사전 준비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섯째, 예비군 및 동원제도를 발전시키고, 예비전력을 정예화하기 위한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

자유와 평화는 말이나 구호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비록 얻어진 자유와 평화라고 할지라도 이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고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타인의 자유와 평화가 된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따라서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병역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2. 6. 18, 심사수정일 : 2012. 8. 10, 게재확정일 : 2012. 8. 14)

주제어 : 병역, 병역법, 병역의무, 병역제도, 의무병제도, 지원병제도, 혼합병제도, 정부, 정부정책, 국가안보

52) 문광권 외, 『국방업무 혁신을 통한 군 정예화』, 한국국방연구원, 2004, 14~15쪽.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Military Service System

Na, Tae-jong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desirable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process of military service system of Republic of Korea after analyzing the military service systems of previous administrations.

To meet this end, we analyze and evaluate the military service system in the three stages up to date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and propose a desirable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system.

The following is the research result. First, we have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prospective service men will be proud of themselves while and after serving in the military. This can be implemented by new laws and policies. Second, we have to seek a gradual transition in the military service system with a principle that we maintain the conscription system supplemented by an expanded voluntary system. Third, in order to prevent an illegal draft dodge, we have to enhance our system that maintains and manages the list of those potential individuals. Fourth, we have to develop systems and opportunities that help soldiers develop their capabilities while serving in the army. Fifth, we have to enhance the systems of reserve forces and mobilization, making efforts to secure budget and develop the laws to enhance the readiness of those reserve forces.

In conclusion, on top of our proposed research we expect that continued efforts should be made to strengthen our security posture and further develop our military service system.

Key Words : Military Service, Military Service Law, Military Service Duty, Military Service System, Conscription System, Voluntary System, Mixed System, Government, Government Policy, National Security

연구소 동정

1. 학술교류 및 협력활동

- 2012년 중국 동북부 공무출장
 - 일자/장소 : 2012. 6. 27~7. 4
 - 참석 인원 : 연구소장 외 3명
 - 출장 목적 : 고구려 및 무장독립운동, 중공군 집결 및 침투 경로 전적지 답사와 독립운동/6·25전쟁 관련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증진 및 관련자 증언 채록

 - 제38차 국제군사사학회 참가
 - 기간 / 장소 : 2012. 8. 26(일)~8. 31(금), 불가리아 소피아
 - 참가국 / 인원 : 35개국 230명
 - * 한국측 참가 : 전쟁사부장, 중령 오홍국, 중령 최상호
 - 학회 주제 및 진행 : 18개조 67명
 - 학회 주제 : 전쟁과 군사과학기술의 발달
 - 한국 측 발표 :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의 발전
 - 참가국 주요발표 내용 : 기조 연설, 제2차 세계대전과 항공력 발전, 아프간 전쟁과 급조폭발물(I.E.D) 변화 등
- ※ 학회 참가를 통한 국제 학술교류 증진 및 국제적 위상 제고

2. 인사이동

○ 장교 전입

- 최윤철 중령(조사담당장교) : 조사연구부(2012. 6. 29)
- 남보람 소령(해외사료수집장교) : 정보자료실(2012. 8. 1)
- 정종식 대령(부장) : 조사연구부(2012. 8. 27)

○ 의원면직

- 최복진(소장) : 2012. 8. 31

○ 전직기본교육

- 박광순 중령 : 2012. 6. 1
- 안정운 대령 : 2012. 9. 1
- 곽정호 중령 : 2012. 9. 1

자료 기증은 군사사 연구의 생명입니다.

〈정보자료실 제공〉

군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최적의 자료 보존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는 생생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료기증안내>

◇ 수집대상자료

- 전사자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에 관한 피아 작전관계 문서, 지도, 사진 등 전사자료와 참전증언 자료
- 군사사 자료 : 군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군사문헌, 고증 자료

◇ 수집방법

- 소장자료를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거나, 전화 또는 서신으로 소장 자료 제공 의사를 알려 주시면 출장 방문하여 수령하겠습니다.
(비제공 자료는 복제 후 반환)

※ 기증해 주신 자료는 영구 보존되며 장병 및 국민들에게 공개 활용됩니다.

◇ 연락처

- 주 소 : (☎140-02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
- 전 화 : (일반) 02)709-3188, 3199
(군) 900-1686, 1688

<자료이용안내>

◇ 공개자료 종류

- 장 서 : 역사, 군사도서 등
- 사 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 국방, 군사사, 수기 등
- 기 타 : 학술논문, 수기, 회고록, 간행물 등

◇ 장 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전쟁기념관 4층)

◇ 이용시간

- 평 일 : 09:30~17:3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주 소 : www.imhc.mil.kr
- 주요내용 : 소장도서목록, 연구소 역대발간서적 원문서비스,
거제도포로수용자/호국전몰용사공훈록 DB 검색 등

신간 도서 소개

구 분	내 용
<p>군사(軍史) 제83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운영실 • 신국판 • 2012. 6. 15. 	<p>군사 전문 학술지인 군사 제83호가 발간되었습니다. “6·25전쟁 특집”호로 ‘한국전쟁 이전 소련군 교범을 활용한 북한군 전투훈련 과정 연구’ 등 논문 9편과 연구소 동정, 자료기증 및 자료이용 안내, 군사지 투고안내, 연구 윤리예규에 대해 부록으로 수록되었습니다.</p>
<p>6·25전쟁사 제9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사부 • 크라운판 • 2012. 6. 30. 	<p>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간하는 6·25전쟁사 제9권-휴전회담개막과 고지쟁탈전-은 1951년 7월 10일부터 12월말까지 진행된 공산군과 유엔군 측의 전쟁지도와 군사작전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의 휴전회담 전략과 방침, 휴전협상의 난항 그리고 전후방지역에서 전개된 고지쟁탈전과 공비토벌 작전, 해군과 공군작전 등 전쟁 및 작전 전반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p>

구 분	내 용
<p>국방사건사 제1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사부 • 16절지 • 2012. 7. 11. 	<p>금번에 발간하는 ‘국방사건사 제1집’은 1960, 70년대에 발생했던 ‘1.21청와대 기습 미수사건’,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본 연구서는 기존의 전술적 수준의 기록에서 탈피하여 군사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분야까지 포함하여 그 역사적 사실과 교훈, 사후조치까지를 망라하여 기록하였습니다.</p>
<p>한국의 성곽 공방전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사부 • 신국판 • 2012. 7. 31 	<p>군사편찬연구소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조선후기까지 수많은 이민족의 침공을 막아낸 사례를 수성전과 공성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저서를 출간하였습니다. 이 저서는 주요 전쟁중에서 전국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쳤던 성곽 중심의 공방전 사례-안시성, 흥화진성, 귀주성, 평양성, 진주성, 남한산성, 강화도-를 선별하여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거점 확보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성곽의 군사 지리적 환경과 전투의 경과, 전쟁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였습니다.</p>

『軍史』誌 投稿案内

1. 원고 내용 및 범위

- 가. 국내외 군사정책/전략 · 군사제도 · 전쟁/전투에 관한 역사적 내용
- 나. 한국의 국방 및 안보와 관련한 정치사 · 외교사 · 軍事史 분야에 관한 내용
- 다. 가·나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서평, 연구동향, 자료소개, 연구논문 번역 등
- 라. 기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활동과 부합되는 글
 - ※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2. 원고 작성 요령

- 가.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과 원어는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안에 표기함.
- 나. 원고 분량은 각주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 다. 註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각주 번호는 반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각주의 표기는 저자, 「논문」, 『게재지 또는 저서』,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의 순서로 함.
 - 예 : 홍길동, 「00에 관한 연구」, 『군사』 제8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99~101쪽
- 라. 외국어로 된 경우 각주의 표기는 저자,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의 순서로 하고 서명은 이탤릭체, 쪽수는 'p', 'pp'로 표기한다.
 - 예 : Hong Gildong, "History of Republic of Korean Army", *Military History*, Vol. 82, (2012, 3), p. 40.

Hong Gildong, *Korean Military History*(New York: Mcgrow-Hill, 2010), pp. 100~110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 『軍史』誌를 참조하기 바람.

3. 투고 요령

가. 원고는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한글 파일(000.hwp) 이어야 하며 원고 제출은 E-mail로 전송하여야 함. 단,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는 MS워드 사용 가능

(군사지 편집위원회 E-mail : imhc2@mnd.go.kr)

나. 전송시 인적사항, 연락처, 논문 초록(국문·영문, 각 A4지 2매 이내), 주제어(Key Word) 10단어(국문·영문) 등이 명기된 '투고신청서'와 '저작물이용허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양식은 연구소 홈페이지 '연구소 소식' -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 영문초록은 250~300단어 내외로 작성.

다. 공동집필의 경우, 대표집필자 명의로 '투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집필자는 각주에 표기함.

4. 원고 심사 및 고료

가. 원고의 게재 여부는 당 연구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함.

나. 접수된 원고는 게재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 국방부 본부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 군인, 군무원에게는 원고료, 심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음.

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당 연구소에 귀속됨.

5. 발간시기 및 원고 접수기간

연간 4회 발간(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함. 따라서 1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3월에, 4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6월에, 7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9월에, 그리고 10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12월에 게재함.

6. 문의/연락처

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우편번호 : 140-02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誌 편집위원회

• 전화 : 02-709-3168(이상호) • FAX : 02-709-3111

• E-Mail : imhc2@mnd.go.kr

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www.imhc.mil.kr

내용 : 연구소 소개, 소식, 정보자료실(소장도서, 인명DB
검색 등), 신간안내, 회원모집

연구윤리예규

군연-예16

제정 2007. 7. 1

부분개정 2008. 12.1

부분개정 2009. 11.1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본 연구소 내 연구편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제 4 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사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사료·사진·증언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

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5 조(운영위원회 및 기능) 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 ③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④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⑤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 6 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기획운영실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 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는 기획운영실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8 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① 예비조사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 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본 조사는 운영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조사위원회는 소장이 임명(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 위원은 부·실장 또는 해당 분야 전공 연구원으로 하며, 필요시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할 수 있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키서는 아니된다.
-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판정)

-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 보고서”라 한다)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3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6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 ① 최종 보고서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 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7조(결과에 대한 조치)

-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운영위원회는 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기획운영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 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軍史』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08년 선정)

□ 편집위원장

서인한(군사편찬연구소)

□ 편집위원 (가나다순)

기광서(조선대학교)

김영관(제주대학교)

김종수(군산대학교)

김창석(강원대학교)

김태국(연변대학교)

박영준(국방대학교)

백기인(군사편찬연구소)

신명호(부경대학교)

심현용(군사편찬연구소)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오영섭(연세대 이승만연구원)

이명환(공군사관학교)

이민웅(해군사관학교)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이재범(경기대학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진석용(대전대학교)

□ 편집간사

이상호(군사편찬연구소)

軍 史 2012/09 (第84號)

2012年 9月 7日 印刷

2012年 9月 14日 發行

發行處 國防部軍史編纂研究所

(우편번호: 140-02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TEL : 709-3168 FAX : 709-3111

發行人 崔 北 鎭

印刷處 국 군 인 쇄 창(12089562)

本誌에 실린 論文內容은 當 研究所의 公式見解가 아님.